
칠레 PPP 진출 가이드



머 리 말

본 PPP 진출 가이드 시리즈는 2020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 제작되는 것으로, 해외건설 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수주 확대를 염원하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동남·서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2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유럽 1개국(튀르키예), 남미 2개국(파라과이, 칠레), 아프리카 1개국(케냐) 등 PPP 진출 유망국 10개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발간에서는 튀르키예와 칠레를 신규 국가로 선정해 시리즈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도 발간 국가를 확대해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 가이드에 담긴 정보는 KIND 해외인프라협력센터와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국가별 정보 및 최신 동향, 사업 환경과 PPP 주요 제도, 진출 사례 및 인적 정보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진 엔데믹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대외여건이지만 본 가이드와 함께 올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강훈

목 차

Executive Summary	3
I. 국가 개요	8
1. 국가 개황	8
2. 정치, 행정 체계	15
3. 경제 현황	19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29
5. 우리나라와의 관계	33
II. 최신 동향	44
1. 정치 동향	44
2. 경제 동향	52
3. 사회 동향	73
4. 산업 동향	78
5. ESG 관련 동향	109
III. 사업 여건	116
1. 인프라 여건	118
2. 한국 투자 현황	128
3. 주요 PPP 사업 전망	138
4. 발주 예상 PPP 현황	156
IV. PPP 주요 제도	192
1. PPP 제도 및 관련법	192
2. 외국인 투자 환경	207
3. 조세 제도	276
4. 노동 관련법	309
V. 진출 사례	321
1.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 (EPC, PPP 사업 등)	321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353
VI. 인적 정보	368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368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374
3. 현지 Developer 현황	394

Executive Summary [칠레]

가. 정치·경제·사회 동향

- (정치) 칠레는 대통령 중심제 및 상원·하원 양원제의 입법부 채택
 - 2022년 3월,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 취임 및 4년 임기 시작
 - 24개 부처 중 14명의 여성 장관 임명을 통한 양성평등 내각 구성
 - 행정부 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변화 기대
 -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헌의회에 의해 쓰인 신헌법 초안에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었기에 자유·평등 등 기본 가치가 헌법에 보장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경제 여파 및 경제위기 극복, 팬데믹 극복, 연금제도 개혁, 신헌법 제정 등 국정운영 난제가 있으며 신정부의 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의 국가 신뢰도 향상이 급선무로 언급

- (경제) 남미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로 2010년 5월 남미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에 가입했으며, 2022년 7월 칠레 페소 가치 하락 방지 및 고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해 외환시장에 250억 달러 투입 예정

- 경제 수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성장률	-5.84%	6.17%	3.82% (추정)
실업률		7.2% (4분기)	7.8%
물가상승률		7.2%	12.5% (6월)

* 국가 부채비율 : 36.9%로 양호 (2022.3. 기준)

- 주요 산업은 광업으로, 기계와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
 - TA 확대 및 태평양 동맹 강화를 통한 양·다자 간 경제협력 확대, 구리 의존도 개선을 위한 광물 다각화 정책 추진, 국가 디지털화를 위한 4차 산업 지원,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실시 등의 산업 정책 추진 중
- (사회) 높은 사회진보수준(83.34점, 2020 기준), 젊은 중위연령(36세), 높은 기준소득 5분위 분배율(10.3배, 2017년 기준)에 비해, 주택공급부족(2021 기준)은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약 24배)은 높은 수준

○ 노동, 주거, 교육, 치안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직면에 따라 신정부의 리더쉽 발휘 요구

* 노동 주 40시간 추진, 노동착취 근절 및 품위 있는 노동 추구를 위한 노동 개혁 추진,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보호, 노인 연금, 의료비, 청년 학자금 부채 해결, 공공교육 확대, 기후변화 대응, 국민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치안 불안 대응, 국민적 갈등 완화 등

나. 사업여건

□ (중남미 현황)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PPP 위주 재편 추세로,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신흥지역에 비해 열악하나, 사업환경 상위 5개국(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의 사업여건은 타 중남미국들에 비해 월등히 우수

- PPP 관련 법률·제도 구비 및 풍부한 사업 추진 경험에 기인

□ (칠레 현황) 1990년대 초부터 도로 신설 및 확장, 개보수, 1990년 말에 공항의 개발,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병원 등 의료 인프라 개발에도 확장

○ (경쟁) 국내 및 국제 디벨로퍼들*에게 완전 개방되어 시장 내 경쟁 치열

- 스페인(식민지 경험을 활용한 조기 진출, 현지화 및 경쟁력 확보),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회사 및 미국, 멕시코 등 인접국이 주도 중

- 최근 중국, 일본 등이 자본을 앞세워 진출함.

○ (법률) 투명한 법적 프레임워크(공공사업 양허법령) 보유 중

○ (금융) 성공적 진출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로, 중남미 진출기업들은 미주 개발은행(IDB), 중남미 개발은행(CAF) 등 지역개발은행*을 통한 추진 선호

* PPP 관련제도 및 인프라 정보 채널, PPP사업준비 및 개발단계 컨설팅 파트너, PPP사업 자금조달창구로 활용 가능

○ (수요) 철도, 지하철, 도로, 교량, 공항, 병원, 저수지, 트램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 수요 존재

※ 진출전략

- 후발주자로서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기진출하여 성공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현지 및 외국 디벨로퍼들과 공동 진출 시 현지 경험과 노하우, 문화 및 제도적 이해도 확보를 통해 성공 가능성 향상 가능
- PPP 법적 프레임워크(공공사업 양허법령) 이해, 현지화 및 파트너링을 통해 인프라 특성별 성공전략 마련 및 장기적 관점의 진출전략 수립 필요

다. PPP 제도

- 1990년대 초, 도로 건설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양허제도(Concession System) 도입
 - * 양허계약은 도시 간 및 도시 도로, 고속도로, 공항, 병원, 교도소, 저수지 등에 활용
- 칠레의 PPP법은 양허법(Concession Law)으로 알려지며 제·개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 1991년 공공사업부 양허법, 공공사업부 법령 164호 제정
 - 1993년 법률 19252호에 의한 수정
 - 1996년 법률 19460호에 의한 수정
 - 1996년 공공사업 양허법 법령 900호에 의거 상기 법령이 통합, 조정, 체계화
 - 1997년 공공사업부 최고 법령 956호에 의거 1996년 법령 900호 수정 및 양허 규정
 - 2010년 법률 20410호에 의거 1996년 법령 900호 수정
 - 2016년 법률 20908호에 의거 수정
 - 2017년 법률 21044호 공공사업부 양허 총무국 신설

- (조직) 칠레의 PPP Unit은 공공사업부로 장관, 차관 밑에 3개의 총무국(공공사업 총무국, 공공사업 양허 총무국, 물 총무국)과 15개 지역 사무국 존재
 - 공공사업 총무국은 공항, 건축, 수력 공사, 항만 공사, 도로 등 5개 실행 사무국으로 구성
- (입찰) 연방 및 지방 차원의 모든 PPP 입찰은 공공사업부를 통해서 조정
 - 공공사업부는 필요 시 해당 부처들(보건부, 재무부 등)과 조정
 - 계약 조정에 공공사업부의 책임이 있을지라도 계약의 관리 감독은 지정된 해당 부처에 의해 처리
- (계약체결) 공공사업부가 민간 당사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한 보유

라. 종합

- 2017년 5월 Infrascopie Index 보고서에서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 중 PPP 사업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칠레와 콜롬비아 선정
 - 칠레는 25년 이상 PPP 사업수행과 정책 추진 경험이 있는 점, 투명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방적인 시장 구조가 높게 평가됨
- 칠레는 인프라 구축에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국가 인프라 개발사업인 “칠레 투자계획 2026(Plan Chile Invierte 2026)” 을 추진하여 8년간 공공인프라에 200억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인프라 사업에 양허계약의 중요성 강조
- 2017-2021년간 칠레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총투자액 및 사업 종류별 투자 대상액

<'17-'21년 칠레 공공 인프라 사업 투자현황>

총 투자액	종류별 투자액		
	공공사업부 주관 입찰 대상 사업	공공사업의 직접투자사업	공공보건 관련사업
113억달러 (360개)	44억 3천만달러	26억달러	20억 5천만달러

○ 칠레 공공사업부 2021-2025 양허 포트폴리오 (2022년 3월 발표)

년도	건수	종류별 건수							
		도로	공항	병원	저수지	교도소	케이블카	철도	기타
'21	10건	4건	1건	4건	1건				
'22	12건	8건	2건				1건		1건 (쓰나미 경보시스템)
'23	15건	8건	1건		2건		1건		3건 (매트로, 트램, 체육관)
'24	6건	2건	1건			1건			2건 (항만, 행정관청)
'25	8건	3건				2건		2건	1건 (국경체크포인트시설)
총계	51건	25건	5건	4건	3건	3건	2건	2건	7건

- (문제점) 우리 기업들의 기존 경험은 태양광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및 복합화력 민자발전 또는 EPC 시공사 참여가 대부분으로, 교통 인프라 PPP 진출 경험은 드물

○ (시사점) 중남미 시장은 언어(스페인어), 문화적 특성 등 우리 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장이므로, 풍부한 자원, 인구, 경제성장 및 건설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장기 진출전략 수립 후 현지화 정책 추진 필요

※ 정부 차원의 진출전략

- 우리 기업이 실적과 경험이 많은 분야(도로, 공항) 중심의 진출계획 마련 및 국내 기업 간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수주 협의회 운영 필요
- 우리 수출신용기관(ECA),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금융조달 활용 필요
- 칠레 양허법 및 양허 입찰 과정의 이해, 기 진출하여 충분한 PPP 실적과 경쟁력을 보유한 스페인, 프랑스, 미국, 중국, 현지 업체들과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여 전략적인 파트너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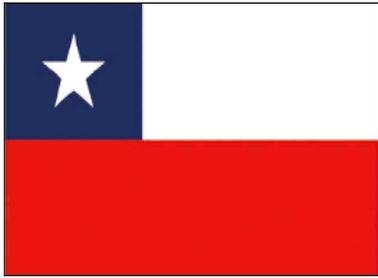
I. 국가 개요

1 국가 개황

가. 일반현황

- 국 명 : 칠레 공화국(Republic of Chile)
 - 수 도 : 산티아고(Santiago, 인구 730만명)
 - 인 구 : 약 1,969만명(2021년 12월, 칠레 통계청 추정)
 - 국토 면적 : 약 76만km²(한반도의 3.5배, 남한 면적의 7.7배)
 - 인 종 : 백인계(58%), 메스티소(29.9%), 원주민(3.1%), 플라토(0.9%) 등
 - 언 어 : 스페인어
 - 종 교 : 카톨릭(54%), 개신교(14%), 무교(25%), 기타 종교(7%)
 - 국가체제 : 공화국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단임제, 연임금지, 중임 가능)
 - 대통령 :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Gabriel Boric Font), 2022.03 취임
 - 의 회 : 양원제(상원 50명/ 임기 8년, 하원 155명/임기 4년)
 - 사법제도 : 삼심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독립일 : 1810. 9. 18.(독립기념일)
 - 유엔가입일 : 1945. 10. 24.
 - 국내 총생산(GDP) : 3,170억 달러(2021년, World Bank)
 - 1인당 GDP : 12,977달러(2020년), 16,054달러(2021년, IMF,CEIC Data)
 - 경제 성장률(GDP 성장률, IMF) : 2020년(-5.84%), 2021년(6.17%), 2022년(3.82%)
 - 실업률(Trading Economics) : 7.2%(2021년 4분기), 7.8%(2022년 5월)
 - 물가 상승률(Trading Economics) : 7.2%(2021년), 12.5%(2022년 6월)
 - 교역 현황 : 수출 921억 달러, 수입 875억 달러(2021년)
 - 외환 보유고 : 약 419억 달러(2022년 6월)
 - 통화/환율 : 페소(peso), 1USD= 927.46peso(2022년 7월 21일 현재)
- (출처 : 칠레 중앙은행, 통계청, 외교부 국제경제 차관실, 외교부 국가개황)

- 국 기 : ‘고독한 별(Estrella solitaria)’ 이라 불리기도 하는 칠레 국기는 1817년 10월 18일 공식 채택



- 상징 : 하늘과 태평양(파란색), 눈 덮인 안데스 산맥(하얀색), 독립을 위해 선조들이 흘린 피(빨간색),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근본인 입법, 사법, 행정(별), 국가 전체가 하나로 통합(별의 개수/1개)
- * 각 주마다 별을 새긴 미국의 성조기와는 다른 개념

나. 위치

- 칠레 공화국(Republic of Chile)은 태평양과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사이에



남북으로 긴 영토를 가진 나라

- 주요 도시: 수도인 산티아고와 콘셉시온
- 인근국 : 동북쪽에는 페루, 북동쪽에는 볼리비아, 동쪽에는 아르헨티나, 국토 최남단에는 드레이크 해협, 서쪽에는 태평양(6,435km)이 위치
- 특징 : 남아메리카에서 에콰도르와 함께 브라질과 국경이 닿지 않는 두 국가 중 한 곳

- 대륙 본토와 더불어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와 살라스이고메스 섬, 데스벤투라다스 제도, 폴리네시아의 이스터섬도 칠레 영토

- 칠레는 1,250,0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남극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 중이나, 남극 영토는 남극 국제 협약에 의해 누군가가 소유할 수 없으며 탐사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 칠레 산티아고와 대한민국 서울의 시차는 13시간이며, 서울이 더 빠름

다. 지형과 기후

- (지형)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에는 아타카마 사막 지대가, 중남부에는 피오르 해안이, 남부에는 빙하 지대가 위치



칠레의 안데스 산맥

- 남쪽까지 총길이는 약 4,630km, 폭 대략 175km의 특이한 국토 형태
-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이 있고, 국토 가운데쪽에는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며, 남쪽에는 눈이 많고 피오르, 빙하, 호수가 있는 서안 해양성 기후를 보임
- 길쭉하게 생긴 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긴 국가라는 오해를 받음

- (면적 · 형태) 남아메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칠레 통계에 의하면 국토 면적은 약 756,950km²로 한반도의 3.5배 크기



파리나코따 화산

- 동서로는 폭이 좁은 반면(가장 넓은 지역도 350km 남짓, 평균 177km), 남북으로 길다랗게 뻗어 있는(약 4,630km) 묘한 형태

- 동서로는 남한의 서울 ~ 강릉 거리와 비슷한 것에 불과하나, 남북으로는 한국 제주에서 싱가포르까지의 거리와 유사



파이네 국립공원

- 이에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광역행정구역이 바다를 접하고 있고, 이스터 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정구역에 육상 국경선 존재

- (기후) 칠레는 남북으로 워낙 긴 데다가 고산 지대까지 있는 바람에, 한 국가 내에서 최소 7개의 기후대를 경험 가능

- 대체로 북부와 중부는 온난 건조한 편이며 반대로 남극에 가까워질수록 습하고 서늘
- 물론 동서로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이스터 섬(UTC-6)을 제외한 본토 전체가 하나의 시간대(UTC-3) 사용

-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연평균기온이 낮은 나라이며, 남반구에서는 뉴질랜드와 함께 연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나라. 대략 튀르키예,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과 비슷한 정도



- (북부) 사막지대로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거나 한류가 연안에 흐르기 때문에 여름에도 기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음
- (중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건기 겨울에는 우기로 나뉨
- (남부) 한랭한 서안 해양성 기후로 연중 서늘하며 강우량이 풍부
- (동부) 안데스 산악지대로 과거 잉카 제국의 영토였으며 고산 기후가 나타남

- (다양한 기후) 북부 사막 지역의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 중부지역의 지중해성 사막기후 그리고 남부지역의 한랭 기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음
 - (북부) 넓은 아타카마 사막과 산지로 구성된 자연적 특성 때문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조지역이며, 밤낮의 기온 차이가 크고 동식물도 거의 살지 못함 연평균기온은 약 16℃ 정도 유지
 - (중부)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의 영향을 많이 받음.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부근의 해안 산맥 사이에는 중부 협곡지대가 펼쳐지는데 이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해서 인구의 약 3/4이 거주
 - * (산티아고) 중부지역의 수도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사막기후로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존재함. 여름은 고온 건조해서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겨울은 온난다습하여 강수량이 집중되는 시기임.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지는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임
 - (남부) 한랭한 해양성 기후로 강수량이 풍부하며 추운 날씨의 특징을 보임. 풍부한 산림, 호수, 크고 작은 군도로 있으며, 파타고니아 고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
 - * (파타고니아 지역) 툰드라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눈, 비가 많이 오며 강풍이 잦음. 중부지방과 달리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고 주로 관광업이 발달함
- 쾨펜의 시스템에 따르면, 칠레 국경 내에서 적어도 7개의 중요한 기후 서브타입을 개최하고 있음. 봄(9월부터 11월까지), 여름(12월에서 2월까지), 가을(3월부터 5월까지), 겨울(6월부터 8월까지)로 국가의 대부분에 사계절 존재

- 북부(남위 17° - 32°)는 사막 기후이지만 흠볼트 해류의 영향으로 쾌적 사막지대,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기온 : 16°C)
- 중부(남위 32° - 38°)는 지중해성 기후이나 일교차 10°C 정도로 심함 온대 기후, 여름 건기, 겨울 우기
- 남부(남위 38° - 54°)는 서안 해양성 기후 한랭 기후, 강수량 풍부(연평균 기온 : 9°C)

라. 지리적 위치

- (위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6,435km
- 지역별 환경
 - (북부) 북부의 사막에는 광물 자원이 있는데, 그중 특히 구리 매장량은 세계 1위로 매우 풍부
 - (중부) 상대적으로 작은 중앙부 지역은 인구나 농업 자원이 많아 칠레를 주도 이곳은 19세기 말에 칠레가 남부와 북부 지역을 병합하며 커진 이래 이 나라의 문화적 및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매김
 - (남부) 숲이 울창하며 화산과 호수가 떠를 이루는 형태로, 남쪽 해안은 피오르와 어귀, 운하, 복잡한 반도와 섬으로 미로를 이룸. 안데스 산맥이 동쪽 국경으로 뻗어 있음
-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에는 아타카마 사막 지대, 중남부에는 피오르 해안, 남부에는 빙하 지대가 있음. 지리적 특성에 따른 이름은 하기와 같음
 - 제1주와 제2주 : 대북부 (Norte Grande)
 - 제3주와 제4주 : 소북부 (Norte Chico)
 - 제5주 : 산티아고 광역주, 제6주 : 중심 지역 (Zona Central)
 - 제7주~ 제10주 : 남부 지역 (Zona Sur)
 - 제11주와 제12주 : 파타고니아 (Patagonia)
- 이들은 구분할 때 네 가지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함
 - 해안 평지 (Planicie Costera)
 - 해안 산맥 (Cordillera de la Costa)
 - 중부 계곡 (Depresión Intermedia)
 - 안데스 산맥 (Cordillera de los Andes)

- (대북부) 높은 해안 산맥이 존재하며 해안 평지가 존재하지 않고, 해안 산맥이 바다로 떨어지는 절벽, 해안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으로 쪽 이어짐. 또한, 안데스 산맥도 존재함
 - (중북부) 해안산맥과 해안 평지가 뚜렷히 구분되고, 안데스 산맥이 점점 낮아짐.
 - (중부) 중부 계곡이 가로지르는 산줄기에 의해 끊기며, 이들 작은 산줄기들은 해안 산맥과 안데스 산맥을 연결함
 - * (산티아고가 삼면이 산으로 가로막히는 이유) 안데스 산맥이 최고 높이를 차지하며, 아콩카구아 남미 최고봉이 이 지역에 위치
 - (남부) 해안 산맥이 차차 없어지다가 비오-비오 지역 부근에서 약간의 높이를 회복했다가 다시 사라짐. 네개의 지리적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됨
- 파타고니아의 해안 산맥은 바다 밑으로 가라 앉은 상태이며 그 연장 선상에는 많은 섬들이 나타남(칠로에섬이 이 중 가장 뚜렷)
- 따라서 해안 평지도, 중심 계곡도 없으며 오직 안데스 산맥만이 위태히 폰타 아레나스 북부까지 내려갔다가, 남극에서 다시 나타남

마. 인구

- (인구) 2022년 기준 전체 1,925만명 (남성 약 950만명, 여성 약 975만명)
 - 2020년 기준 연평균 인구 변동률은 0.90%씩 증가하는 추세
 - 인구 성장률은 1990년 이래로 하락 추세 (주요원인 : 출생률 감소)
 - 국민의 평균 연령은 36세
 - 인구밀도는 25명/1km²이나, 주민 90%가 중앙 지역에 거주하여 남부 일부 지역은 인구가 적음 (산티아고의 인구밀도 : 355명/1km²)
 - 최다 인구 지역은 산티아고 (483만명) 및 산티아고 수도주 (730만명)
- (인종) 백인계 58%, 메스티소 29.9%, 원주민 3.1%, 물라토 0.9% 등으로 구성
 -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혼혈 메스티소와 물라토 및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은 지역이나 칠레는 코스타리카와 같이 비교적 백인 비율이 높은 나라
 - 칠레인들은 대개 메스티소인 카스티소로, 과거 스페인 식민 정착민(주로 안달루시아나 카스티야 출신)들과 토착 부족(피쿤체, 디아기타, 마푸체족 등)의 혼혈

- 백인은 주로 스페인인 후손이며,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 및 이들 사이의 혼혈도 존재
- 인구 대다수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칠레인(Chilenidad)” 으로 규정
- 아프리카계는 식민 시대에 최대 25,000명까지 이르렀으나, 현재 1% 미만으로 거의 없음
- 현재 토착 아메리카인도 소수이나, 그나마도 혈통적으로 검증 시 더 적음
- (종교) 카톨릭교 54%, 개신교 14%, 무교 25%, 기타 종교 7%로 구성
 - 칠레 헌법 및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 인정 및 종교 의식의 자유에 기여
 - * 모든 수준의 법은 정부에 의한 종교 억압을 완전히 막고자 함
 - 칠레는 정교 분리 국가이며, 1999년 종교 관련법에서 종교 금지를 금했으나, 칠레의 전통 종교인 가톨릭이 50%로 특별한 위치에 있고, 우대를 받기도 함
 - * 정부 공무원의 경우 가톨릭 행사뿐 아니라 유대교 및 성공회 행사에도 참여
- (언어) 스페인어 사용, 몇몇 토착 언어(마푸둥군어, 케추아어, 라파누이어)가 존재

2 정치, 행정 체계

가. 행정부처

- 2022. 3월 취임한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35세, 남자) 칠레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부의 구성으로 24개 부처에 10명 남성 장관과 14명의 여성 장관을 임명

번호	행 정 부 처	장 관 (2022년 3월 현재)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Public Security(내무 및公安부)	Izkia Siches (이즈키아 시체스)
2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무부)	Antonia Urrejola (안토니아 우레홀라)
3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Maya Fernandez Allende(마야 페르난데스 아엔데)
4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Mario Marcel (마리오 마르셀)
5	Ministry General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대통령 비서실)	Giorgio Jackson(조지 잭슨)
6	Ministry General Secretariat of Government(정부 총무처)	Camila Vallejo (카밀라 발레호)
7	Ministry of Economy, Development and Tourism (경제, 개발 및 관광부)	Nicolas Grau (니콜라스 그라우)
8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Family(사회개발 및 가족부)	Jeannette Vega(자넷 베가)
9	Ministry of Education(교육부)	Marco Antonio Avila(마크 안토니 아빌라)
10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법무 및 인권부)	Marcela Rios(마르셀라 리오스)
11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Forecast(노동 및 사회계획부)	Jeannette Jara(자네트 자라)
12	Ministry of Public Works (공공사업부)	Juan Carlos Garcia(후안 카를로스 가르시아)
13	Ministry of Health(보건부)	Maria Begona Yarza(마리아 베고나 야르자)
14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Planning(주택 및 도시계획부)	Carlos Montes(카를로스 몬테스)
15	Ministry of Agriculture(농업부)	Esteban Valenzuela(스티븐 발렌수엘라)
16	Ministry of Mining(광업부)	Marcela Hernando(마르셀라 에르난도)
17	Ministry of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교통통신부)	Juan Carlos Munoz(후안 카를로스 무노즈)
18	Ministry of National Assets(국세청)	Javiera Toro(하비에라 토로)
19	Ministry of Energy(에너지부)	Claudio Huepe Minoletti (클라우디오 우에페 미놀레티)
20	Ministry of the Environment(환경부)	Maisa Rojas(마이사 로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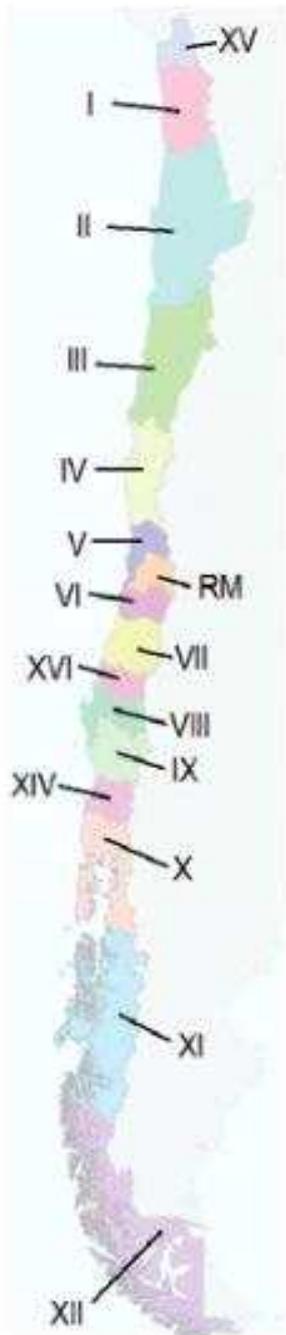
번호	행 정 부 처	장 관 (2022년 3월 현재)
21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여성 및 양성평등부)	Antonia Orellana(안토니아 오렐라나)
22	Ministry of Sport(체육부)	Alexandra Benado(알렉산드라 베나도)
23	Ministry of Culture, Arts and Heritage(문화, 예술 및 유산부)	Julieta Brodsky(줄리엣 브로드스키)
24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Knowledge and Innovation (과학, 기술, 지식 및 혁신부)	Flavio Salazar(플라비오 살라자르)

- 칠레는 행정구역 상 16개의 행정 주(Regiones)로 나뉘어 있으며, 각 행정주에는 주도(Capital)가 있음. 2020년부터 주지사는 시민 직선제 도입. 대통령은 각 주에 지방대표(Delegado Regional)를 임명하여 지방행정 감사
- 각 주는 군(Provincia)으로 구분, 전국적으로 56개 군 있음. 군수(Delegado Provincial)는 대통령이 임명, 주지사의 지휘하에 군행정 총괄
- 각 군은 시(Comuna, Municipalidad)로 구분, 전국적으로 345개 시가 있음. 시장(Alcalde) 및 시의회(Consejo Comunal)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
- 주요 도시로는 산티아고(Santiago, 수도)
 - 칠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칠레 전체인구의 약 1/3인 730만명이 산티아고에 거주하고 있음
- 발파라이소(Valparaíso)
 -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항구도시로 19세기부터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기 전까지 남미 최대 무역항으로서의 전성기를 누림.
 - 현재 칠레 국회 및 군사령부가 발파라이소에 있으며, 2003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
- 콘셉시온(Concepción)
 - 칠레 남부 비오비오 주(VIII Region)의 주도로써 산티아고, 발파라이소와 함께 칠레 상업·금융·행정 분야에 있어 주요 도시로 꼽힘
 - 2010년 2월 칠레 강진 발생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음
- 테무코(Temuco)
 -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약 670km 떨어진 칠레 남부지역의 신도시로 인근 호반지역으로 인해 관광산업, 목제품 제조업 등이 발달함
 - 특히, 칠레 원주민인 ‘마푸체’ 족의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있음

○ 아리카(Arica)

- 아타카마 사막 북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페루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칠레 북부의 관문으로써 상업이 발달함
- 또한 관광지로도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연구 중심지로 부상함

- 16개 주(Region)은 다시 56개 군(Provincia), 345개 시(Comuna)로 세분화 됨.



	주(Región)	주도(Capital)	지리적 구분
XV	아리카 및 파리나코타 (Arica y Parinacota)	아리카 (Arica)	대북부 (Norte Grande)
I	타라파카 (Tarapacá)	이키케 (Iquique)	
II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	소북부 (Norte Chico)
III	아타카마 (Atacama)	코피아포 (Copiapó)	
IV	코킴보 (Coquimbo)	라 세레나 (La Serena)	중부 (Zona Central)
V	발파라이소 (Valparaíso)	발파라이소 (Valparaíso)	
RM	메트로폴리타나 (Metropolitana)	산티아고 (Santiago)	남부 (Zona Sur)
VI	오히긴스 (O'Higgins)	랑카구아 (Rancagua)	
VII	마울레 (Maule)	탈카 (Talca)	파타고니아 (Patagonia)
VIII	비오비오 (Biobío)	콘셉시온 (Concepción)	
XVI	뉴블레 (Ñuble)	치안 (Chillan)	파타고니아 (Patagonia)
IX	아라우카니아 (Araucanía)	템우코 (Temuco)	
XIV	로스 리오스 (Los Ríos)	발디비아 (Valdivia)	파타고니아 (Patagonia)
X	로스 라고스 (Los Lagos)	푸에르토 몬트 (Puerto Montt)	
XI	아이센 (Aysén)	코야이케 (Coyhaique)	파타고니아 (Patagonia)
XIII	마가야네스 (Magallanes)	폰타 아레나스 (Punta Arenas)	

(2019.7월 기준)

나. 정치체제

- 국가형태 : 공화국
- 현행 헌법은 1980년 헌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7년 개정을 포함. 그동안 모두 19차례 개정되었음.
 - 현행 헌법은 총 129개 조항과 27개 항의 경과규정으로 구성
- 입법부(의회)
 - 조직 : 양원제
 - 상원(Senado)
 - 정 원 : 50명(2022년 03월)
 - 임 기 : 8년(4년마다 전체 의석수의 1/2씩 선거하여 교체)
 - 하원(Camara de Diputados)
 - 정 원 : 155명(2022년 3월)
 - 임 기 : 4년(연임 가능)
-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중임 허용, 연임금지)로서 2022년 3월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Gabriel Boric Font) 취임. 2022년 3월 외교장관 안토니아 우레홀라 노게라(Antonia Urrejola Noguera) 취임
- 대통령 :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직접선거로 선출
- 내 각 : 24개 부처, 남성 장관 10명, 여성 장관 14명(2022.03.)
 - 대통령이 각료 임명(국회 동의 불필요)
 - 내무장관이 수석각료로서 대통령 부재시 부통령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
- 사법부 : 대법원, 고등법원(17개), 지방법원(형사, 민사, 노동, 청소년)
(출처 : 외교부 국가개황, 2019)

3 경제 현황

□ 산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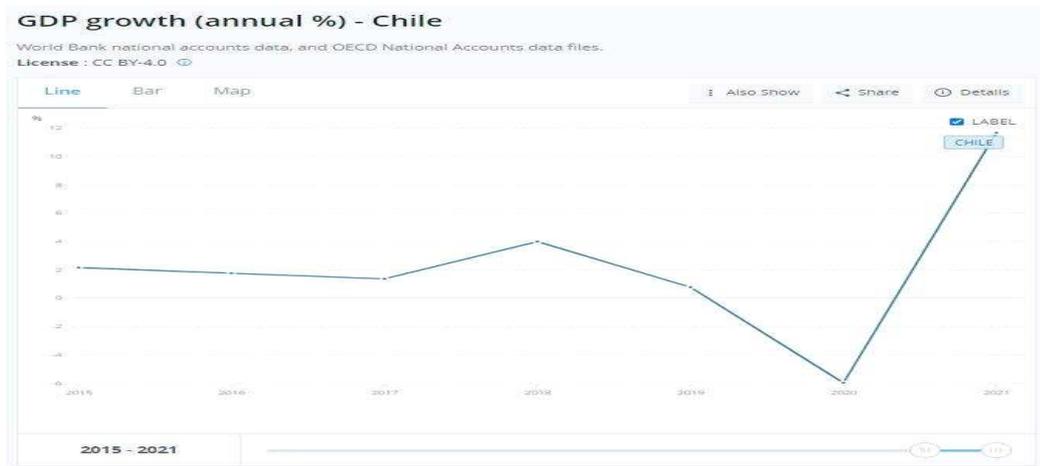
- 칠레의 실질 GDP 성장률은 6.9 %(2022.03. 기준). 이는 2021.12.에 11.7%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 하락한 기록. 칠레의 실질 GDP 성장률 데이터는 계간지마다 업데이트 되며, 141개의 관측으로 1987.3월부터 2022.3월 사이에 평균 5.1 %임
 - 이 데이터는 2021.6월에 18.3%라는 사상 최고치를, 2020.6월에 -14.2%라는 최저치 기록
 - 칠레의 실질 GDP 성장률 데이터는 CEIC에 활성 상태로 남아있으며, CEIC Data에 의해 보고되는 정보임
- 칠레는 광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해왔고, 기계와 중간재 등은 수입에 의존
- 전통적으로 칠레 산업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광업으로 과거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호조는 발전소 건설 증가 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활성화, 소비증가, 기업 투자활동 확대 효과 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 이에 따라 광업이 칠레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치로 보이는 GDP 대비 산업별 비중에 상관없이 칠레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높음
- 2020년 2분기 기준 칠레 GDP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광업이며 그 다음은 제조업과 기업 서비스임
- 광업 내에서는 특히 구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광업이 GDP에서 직접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이나 광산업을 위한 금융,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도소매업 역시 발달해 있어 실제로는 광업이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큼
- 수출품은 구리 50% 이상, 포도 및 기타 생산품 8% 이상, 화학제품 5% 이상, 생선 및 수산물 4.5% 차지함
-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2022.3월에 36.9 %로 보고됨
 - 이는 2021.12월에 35.2%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 상승한 기록
 - 칠레의 정부 부채 : GDP 대비 % 데이터는 계간지마다 업데이트되며, 81개의 관측으로 2002.3월부터 2022.3월사이에 평균 12.8%임. 이 데이터는 2022.3월에 36.9 % 라는 사상 최고치를, 2008.6월에 3.3%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음

□ 산업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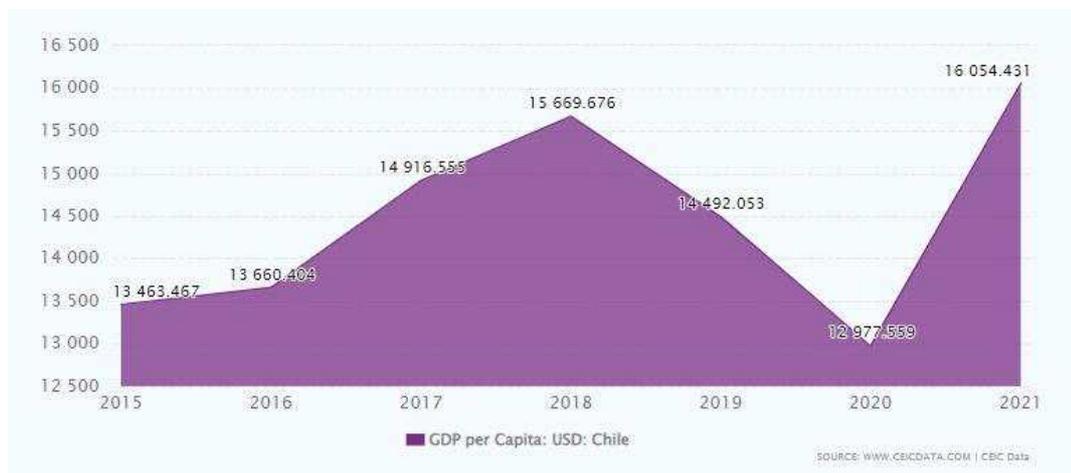
-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태평양 동맹 강화를 통한 양자 간 및 다자 간 경제협력 확대
 - 칠레는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시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제협력 확대에 노력을 기울임
 - 2020년 8월 현재 칠레는 60개 이상의 국가와 총 29개의 무역협정을 체결 중이며, 현재 칠레-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현대화, 태평양 동맹 강화, 칠레-EU 협정 현대화, 한국-칠레 FTA 개선, 칠레-홍콩, 중국-FTA 현대화 및 칠레-인도 협정 개선이 진행중임(자료원, 칠레 국제경제부 DIRECON)
 - 2021년 기준 칠레의 주요 수출 파트너는 중국(38.3%), 미국(16.5%), 일본(7.7%), 한국(5.1%), 브라질(5%) 순서임
- 구리 의존도 개선을 위한 광물 다각화 정책 추진
 - 구리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기타 광물(리튬, 몰리브덴 등) 개발사업을 통한 수출 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임
 - 정부는 국제 구리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타 광물(요오드, 리튬, 레늄, 몰리브덴 등) 개발 및 수출 다각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 칠레는 구리 외에도 요오드, 리튬, 레늄 및 몰리브덴의 최대 생산국임
 - 주요 광물 생산 세계 순위 : 구리(1위), 요오드(1위), 리튬(2위), 은(6위), 레늄(1위), 몰리브덴(2위)
- 국가 디지털화를 위한 4차 산업 지원
 -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 기준, 효율성 주도경제에서 혁신 주도 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한 칠레는 기존의 천연자원 수출의존형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및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 중임
 - 칠레 생산진흥청(CORFO)은 2010년 창업지원조직 “스타트업 칠레”를 설립하여 칠레 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중임
-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실시
 - 칠레 정부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 금리 인하, 일자리 보호 및 원격근무법 공포, 연금 일시지급 정책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조세 감면 및 납부 기한 연기, 중소기업 대출 지원 제도 등 실시 중임

□ 경제성장

- 칠레의 경제는 세계은행에 의해 순위가 매겨진 시장경제이자 고소득 경제
 - 칠레는 경쟁력, 1인당 소득, 세계화, 경제적 자유, 낮은 부패인식에서 이 지역을 선도하는 남미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짐. 비록 칠레가 지니 계수에 의해 측정된 높은 경제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지역 평균에 가까움
- 2006년에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인당 명목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됨
 - 2010년 5월 칠레는 남미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에 가입. 2013년 GDP의 20.2%를 합친 세수는 OECD 34개국 중 두 번째로 낮았고 2010년에는 가장 낮았음. 칠레의 인간개발지수는 0.709로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이 각각 0.729, 0.712, 0.570인 것과 비교됨. 2017년에는 인구의 0.7%만이 하루에 미화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
- 2009~2010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는 세계에서 30번째로 경쟁력 있는 국가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56위), 멕시코(60위), 아르헨티나(85위)를 훨씬 능가해 1위를 차지, 그 이후 상위 30위 밖으로 밀려남
 - 세계은행이 만든 사업 용이성 지수는 2014년 기준으로 칠레를 세계 34위, 2015년 41위, 2016년 48위로 선정했음. 민영화된 국민연금 제도는 국내 총저축률이 GDP의 약 21%로 추정됨
- 칠레는 중도 좌파 정권이 1990년부터 20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으나 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개방경제를 지향함
-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로 전환, 2018년에는 4.0%로 상승세로 변화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1983년 이후 최저치 -4.5%를 기록(자료원, IMF, World Bank, 2021년 4월 기준)
- IMF는 2021년도 칠레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망했으며, 칠레 중앙은행은 2021년 칠레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6월 예상한 8.5~9.5%에서 10.5~11.5%로 상향 조정
 - 이는 2021년 9월 기준 전 국민의 87%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임. 실제 2021년 경제성장률은 6.17%였으며 2022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82%로 보고 있음



(세계은행, 칠레 GDP 추정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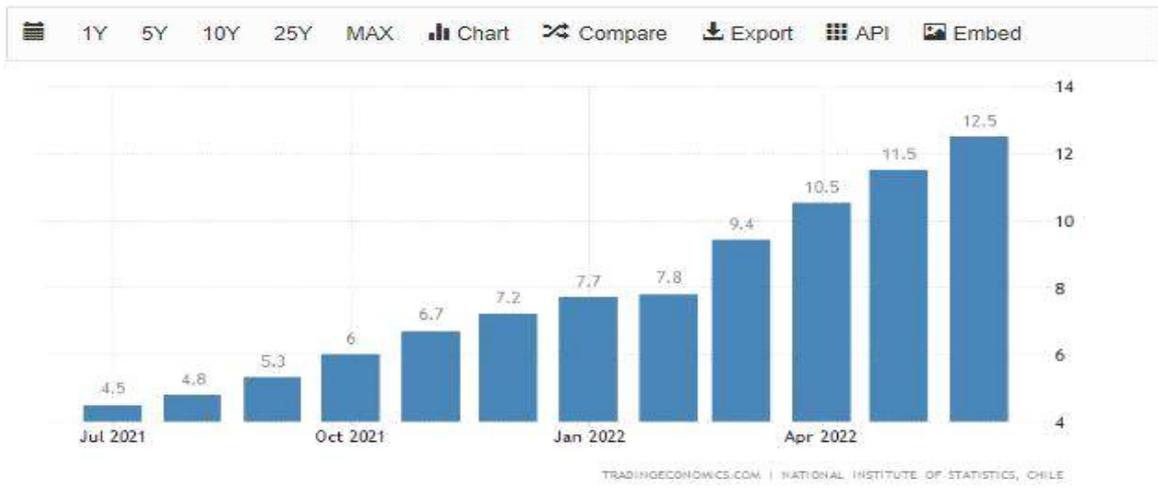


(IMF, CEIC Data, 칠레 1인당 GDP)

- 홍콩 소재 경제조사 전문기관 CEIC Data에 의하면 1인당 GDP는 2020년 12,977달러, 2021년 16,054달러임

□ 인플레이션

- 2022년 5월의 인플레이션율은 11.5%, 6월은 12.5%이며 7월에는 11.6%로 예상
 - 이는 1994년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것은 식품 및 비 알콜성 음료가 2022년 5월에 17.1%였으나 6월에는 18.5%로 올라갔고 교통은 2022년 5월에 22.3%에서 24.4%로 인상되었으며, 주택 및 유틸리티는 2022년 5월에 9.6%에서 6월에 9.9%로 인상되었기 때문임
 - 핵심 물가상승률은 9.9%로 전월의 9%에서 상승. 월간 기준으로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는 2022년 5월의 1.2% 상승에서 완화된 0.9% 상승
- (출처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Chile, 칠레 국립통계연구원)



Calendar	GMT	Reference	Actual	Previous	Consensus	TEForecast
2022-06-08	12:00 PM	May	11.5%	10.5%		10.7%
2022-07-08	12:00 PM	Jun	12.5%	11.5%		12.2%
2022-08-08	12:00 PM	Jul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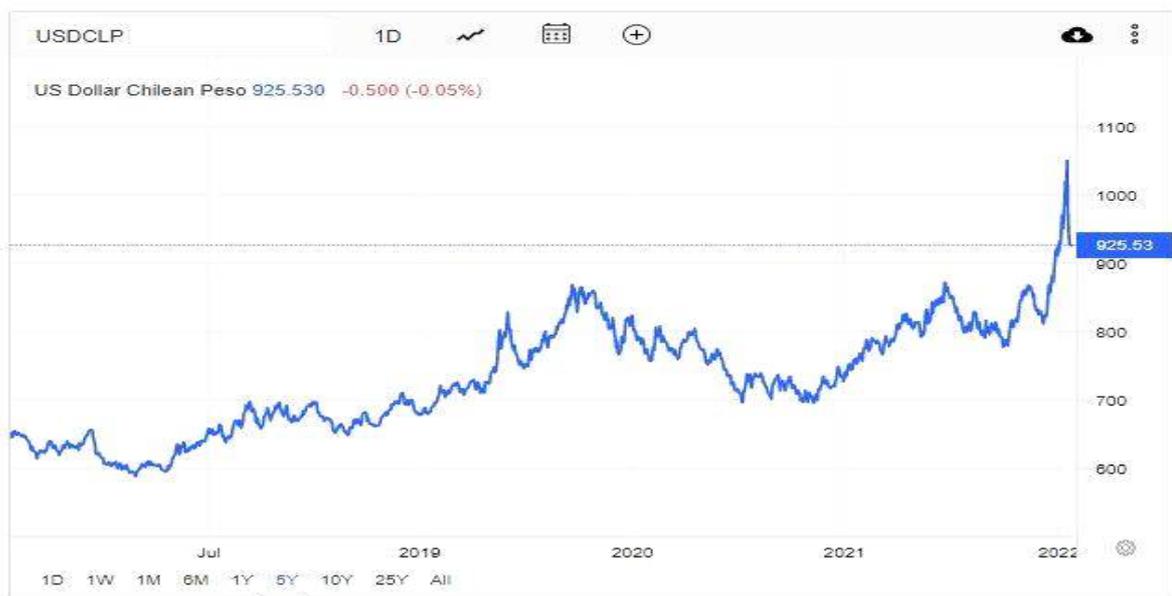
(칠레 인플레이션율 변화, 칠레 국립통계연구원)

□ 환율 및 국제수지

- 미국 달러 대비 칠레 페소화 환율은 2019년 700 peso/USD, 2020년 800 peso/USD, 2021년 730 peso/USD, 2022년 7월 21일 현재 925.53 peso/USD로 상승하였음
- 미국 달러 대비 칠레 페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달러 대비 칠레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임
 - 칠레 페소의 가치가 계속 하락인 와중에, 미 연준이 기준 금리를 0.75%p를 올린 후 페소 가치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
 - 2021년 7월, 1달러당 칠레 페소 환율은 약 760페소(한화 약 1,074원)였으며, 2022년 6월 초까지만 해도 달러 대비 칠레 페소 환율은 800페소(한화 약 1,130원) 초반을 오갔음
 - 그러나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달러 대비 칠레 페소 환율이 1,000페소(한화 약 1,413원)를 넘어섰으며, 한 때 1,050 페소(한화 약 1,484원) 선에서 환율이 형성되어 있다가 2022년 7월 21일 현재 약 925페소 수준으로 다시 하락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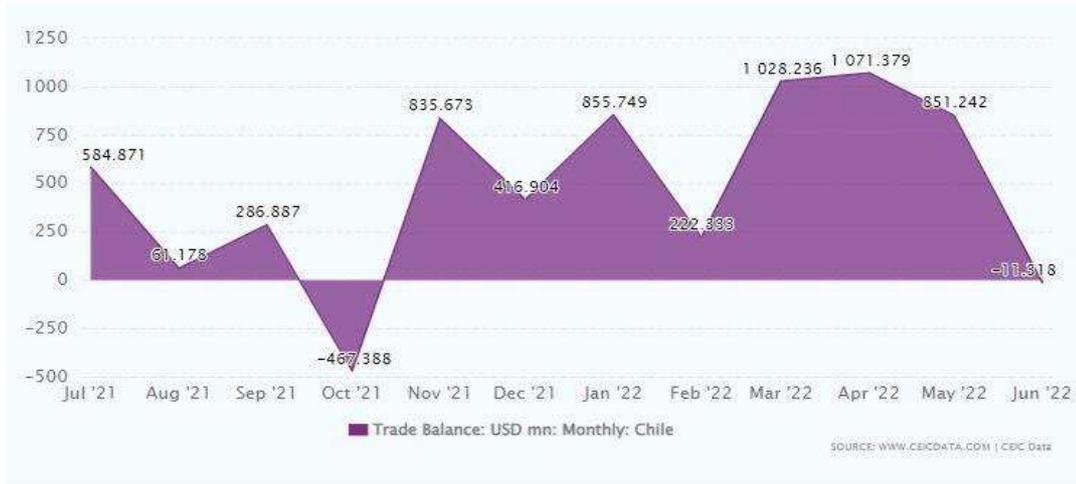
- 2022년 7월 20일 현재 칠레 정부가 칠레 페소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 시장에 2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칠레 페소의 가치가 급락하자, 칠레 정부는 외환 시장에 총 250억 달러(한화 약 32조 7,500억 원)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음
 - 칠레 정부는 총 250억 달러 중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850억 원)를 먼저 외환 현물 시장에 투입함
 - 그리고 남은 예산 가운데 또 다른 100억 달러는 외환 선물(futures) 시장에서 사용하며, 마지막 50억 달러(한화 약 6조 5,800억 원)는 달러 대비 칠레 페소 스왑(swap) 시장 계약을 위한 예산임

- 칠레 정부는 칠레 페소의 가치 하락을 막아야 고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
 - 이처럼, 칠레 정부가 막대한 외환을 투입해 칠레 페소 가치를 방어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임
 -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칠레 국내의 물가 상승을 의미함
 - 칠레 정부는 고인플레이션으로 칠레 국민의 고통이 심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 악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미국달러 칠레페소화 환율 변동곡선, Economic tradings)

- 칠레의 무역 수지는 2022.6월에 -11.3 미화 백만 달러로 보고됨
 - 이는 2022.5월에 851.2 미화 백만 달러라는 이전 수치에 비해 하락한 기록임
 - 칠레의 무역 수지 데이터는 월간 간행물마다 업데이트 되며, 654개의 관측으로 1968.1월부터 2022.6월 사이에 평균 43.4 미화 백만 달러임. 이 데이터는 2007.4월에 3,019.2 미화 백만 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2008.10월에 -1,336.6 미화 백만 달러라는 최저치를 기록



(칠레 2021-2022 무역수지 현황, CEIC Data)

□ 투자 유치

- 2021년 11월 10일 칠레 경제진흥 관광부와 칠레 투자진흥청은 칠레 관광 투자 포럼 웨비나 개최, 칠레 관광산업 현황과 칠레 관광 투자의 장점과 잠재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진흥관광부 루카스 팔라시오 장관, 투자진흥청 안드레스 로드리게즈 국장과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
- 최근 10년간(2009-2019년) 인바운드 관광객이 연평균 5.1% 증가하면서, 누적 15억 7,000만 달러 이상의 관광 수입 기록. 2019년 기준 452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칠레에 방문하고 9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관광산업에 소비하면서 관광산업은 국가 GDP의 3.3%를 차지함. 정부 차원에서 경제진흥관광부, 투자진흥청, 산림청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 칠레는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 사막, 화산, 빙하, 호수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함. 칠레는 7년 연속 World Travel Awards-세계 최고의 어드벤처 관광지 상을 수상. 칠레 관광산업이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음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칠레 정부의 노력으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칠레 직접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가 증가한 16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산업 투자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관광산업개발, 투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Invierte Turismo(관광 투자)’ 홈페이지 구축. 칠레 지역별 관광 프로젝트 정보 제공, 투자자는 프로젝트 입찰 진행 여부 확인 가능함
 - 추가로 정부의 관광 투자유치 5개년 실행계획인 ‘Plan de accion 2020-2025’ 을 발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촉진, 투자분야 연결, 지속가능성 등 분야로 구성됨
- 투자 진흥청은 매년 70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총 규모는 약 240억 달러임. 관광산업과 관련해 현재 4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20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임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2020년 하반기에 상품 교역 조건이 빠르게 회복되어 2021년에 투자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음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행한 2021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칠레로의 FDI 유입은 자본 투자 감소(-29%) 및 재투자 수익 감소(-28%)로 인해 33% 감소한 84억 달러(2019년 125억 달러) 기록
 - 남미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이 나라의 회복력은 광물 가격의 빠른 회복, 지속적인 재정 지출(GDP의 14%) 및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캠페인 중 하나의 시행에서 비롯됨
 - 부문별 관점에서 볼 때 녹색 전환에 대한 칠레의 노력은 녹색 에너지 산업에 추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실제로 2020년 미개발 지역 발표의 40%가 재생 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에 등록됨
 - FDI 잔고는 2010년에 비해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720억 달러에 이르렀음. 브라질,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가 FDI 잔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 투자는 주로 광업, 금융 및 보험, 에너지, 상업 및 제조를 지향

- 자본의 투명성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기반을 둔 칠레 경제 정책은 칠레의 강점 중 하나임. 투자자들은 또한 칠레의 풍부한 천연 자원, 거시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성장 잠재력, 법적 보안, 낮은 수준의 위험 및 높은 수준의 기반 시설에 매료됨
 -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폐쇄된 기업의 온라인 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난 몇 년 동안 사업 절차를 촉진하는 데 진전을 이뤘음
 - 그러나 구리 가격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잠재 투자자를 몰아낼 수 있음
 - 2019년 Huawei는 산티아고의 지역 데이터 저장 프로젝트에 1억 달러 투자
 - 2020년 중국 기술 회사는 남미에 클라우드 및 AI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 두 번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중국 회사 Sinovac이 산티아고에 있는 백신 제조 공장에 6천만 달러 투자
 - 또한 칠레는 세계은행이 2020년에 발표한 최근 Ease of Doing Business(사업수행 용이성) 보고서에서 190개국 중 59위를 기록하여 2019년에 비해 3계단 하락
 - 자리를 잡기 위해 국가는 소수 투자자 보호, 지급 불능 해결, 신용 획득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외국인 직접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FDI 유입액(백만불)	7,742	12,525	8,386
FDI 누적잔고(백만불)	268,488	268,223	272,336
Greenfield 투자 건수	105	140	81
Greenfield 투자 금액(백만불)	7,498	8,703	5,537

(출처: UNCTAD, 최근 이용자료)

주)Greenfield Investments는 모기업이 처음부터 새로운 운영 시설을 건설하여 외국에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한 형태임

○ 국가별 및 산업별 FDI 투자 누적잔고

주요 투자 국가들	2019년 (%)	주요 투자 분야들	2019년 (%)
미 국	13.0	광 업	32.1
스페인	12.7	금융서비스	23.6
캐나다	12.6	전력, 가스, 물	13.5
네덜란드	7.5	상 업	6.5
영 국	6.9	제조업	5.1
케이만 아일랜드	5.9	통 신	4.6
이탈리아	4.0	교통 운송, 물류	3.2

(출처: 칠레 중앙은행, Invest Chile, 최근 이용자료)

○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한 회사 형태

외국 기업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업 형태는 유한 책임 회사(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ARL,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공기업(Sociedades Anónimas, Public company)임. SARL은 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공기업의 주식은 더 쉽게 양도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설립형태

대부분의 투자자는 칠레 조직을 외국 회사의 지사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함. 칠레 지사를 통해 운영하면 칠레에서의 활동에 대한 유한 책임을 즐길 수 있고 원래 국가의 모회사 자산에서 손실을 분리할 수 있음

○ 주요 외국인 투자회사들

Oracle, McAfee, WorleyParsons, Jazzplat, Synthon, Pioneer 등

(출처: 칠레 중앙은행, Invest Chile, 최근 이용자료)

4 주요 사회 개발 지표

가.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

2020년에 칠레에 대한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는 83.34점 획득. 칠레의 사회 진보 지수는 2011년 80.6 에서 2020년 83.34로 연평균 0.37%씩 성장하고 있음. 사회 진보 지수는 학자와 정책 전문가팀이 이끄는 2년 과정의 결과임. 그것은 사회의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의 차원을 식별하기 위해 방대한 연구를 종합함.

사회 진보 지수	득점 수준	기준 점수 (지수, 순위)
Human development index(인간개발지수)	0.85(43위)	1.0
Ease of doing business(사업수행 용이성)	72.6점(59위)	100점
Global competitiveness rank(글로벌 경쟁력 순위)	38위	1위
Corruption perceptions rank(부패인식 순위)	27위	1위
Index of economic freedom(경제적 자유 지수)	76.8점	100점
Press freedom index(언론 자유 지수)	72.69점	100점
Political rights index(정치적 권리 지수)	38점	40점
Civil liberties index(시민 자유 지수)	52점	60점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국제 재산권 지수)	6.6점(31위)	최고 득점
Prosperity index(번영 지수)	68.39점(38위)	최고 득점
Knowledge economy index(지식 경제 지수)	7.21(지수)	10.0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Bertelsmann 변환 지수)	8.86(지수)	10.0
Fragile states index(취약 국가 지수)	44.1(지수)	최저 득점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글로벌 기업가 정신 지수)	58.3(지수)	최고 득점
Global gender gap index(글로벌 성별 격차 지수)	0.74(지수)	1.0
Global hunger index(글로벌 기아 지수)	5.0(지수)	5.0 이하
Global innovation index(글로벌 혁신 지수)	35.1(지수)(54위)	최고 득점
Global peace index(세계 평화 지수)	1.83(지수)(50위)	최저 득점
Global terrorism index(글로벌 테러 지수)	6.5(지수)	0.0(최고) ~10(최저)
Happiness index(행복 지수)	6.17(지수)	0.0(최저) ~10(최고)
Energy Trilemma index(에너지 트릴레마 지수)	68.7(지수)(37위)	최고 득점
Networked readiness index(네트워크 준비 지수)	56.89(지수)(44위)	100

나. 주요 사회 개발 지표(Social Development Indicator)

사회개발지표	칠레(2021)	한국(2021)
총 인구	1,969만명	51,745천명
인구	0.9%(2020), 0.50%(2021)	-0.18%
합계출산율	1.63명(2019),1.6명(2020)	0.81명
기대수명	80.43세	83.5세(2020)
고용률	55.8%(2020)	60.5%
실업률	7.2%	3.7%
국내총생산(GDP)	3,170억달러	1조7,985억달러(2,057조원)
1인당 GDP	16,054달러	32,644.67달러
1인당 GNI	12,660달러(2020)	35,168달러
경제	6.17%	4.0%
소득대비 주택가격배율(PIR)	106.1(2015 vs 2018) 23.98배	5.5배
소득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	자료부족	16.6%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인구10만명당)	10.4명(2019)	5.9명(2020)
살인범죄비율(인구10만명당)	4.4%(2018)	0.6%(2018)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7.17%	2.5%
인플레이션율	7.2%	2.5%
중위연령	36세	44.3세
65세 이상 인구수	237만명(2020)	857만명
65세 이상 인구비율	12.2%(2020)	16.6%
노령화지수	63.6(2020)	129(2020),139.5(2021)
수도권 거주인구비율	37%	50.3%
지니계수	0.449(2020)	0.331(2020)
소득 5분위 배율	10.3배(2017)	5.85배
상대적 빈곤률	16.5%(2017)	15.3%
주택보급률	공급부족 심각	103.6%(2020)
1인당 주거면적	자료부족	29.7m ²
평균통근시간	자료부족	30.8분
대외경제개방/자유지수	74.4(30위,2022)	74.6(19위,2022)
부패인식지수	67점(27위,2022)	62점(32위)
인간개발지수	43위	0.919(23위, 2020)
국가제도수준평가지표(ICI)	25위	자료부족
민주주의지수	7.92점(결함)/10점	8.16점(완전)/10점

다. 칠레 국가발전 지수 최신 현황 (2022)

최근 국가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에서 칠레가 중남미 선두권에 위치하였으며, 관련 주요 국제지표 동향(2020-2021년)을 아래와 같음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2.03.11.)

- (1인당 국내총생산) IMF 발간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2021년 말 칠레 1인당 GDP(구매력기준)는 USD26,513로 남미에서 1위, 중남미에서 2위를 차지(파나마 1위, USD30,889)
 - 상기 관련, 당초 2022년에 구매력(PPP) 기준 1인당 GDP가 USD30,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9년 10월 사회 소요사태 및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위기로 인해 2025년에 USD30,000를 넘을 것으로 예측
 - (대외 경제개방지수) 미국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 금년 1월 발표한 경제자유지수(2022)에 의하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1위(74.4점), 조사 대상 177개국 중 30위를 기록함(한국 19위, 74.6점)
 -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IT)가 2022년 1월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칠레는 67점으로 중남미에서 2번째로 투명한 국가에 위치함(우루과이 1위, 73점)
 - 이와 관련, 칠레는 △미주지역 기준 3위(캐나다 1위, 우루과이 2위) △OECD 개발기구 회원국 중 20위, △세계 기준 27위 차지
 - (민주주의지수)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이 금년 2월 발표한 ‘2021년 글로벌 민주주의지수’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우루과이,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를 차지함
 - 이와 관련, 중남미 역내 민주주의지수는 6년 연속 퇴행하였으며, 칠레의 경우 2019년 팬데믹 이전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등급*에서 결함(Flawed)으로 퇴행
- *등급 4단계: 완전(10점 중 8점 이상) -> 결함-> 혼합-> 권위주의
- 본 지수는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등 총 5개 요소로 평가되며, 칠레 민주주의 지수 퇴행 주요 원인으로 △낮은 대선 투표율 △정부 신뢰도 하락, △정치 양극화 심화 등을 설명

- (인간개발지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21 인간개발지수’ 에 의하면 칠레는 중남미 1위, 조사 대상 189국 중 43위를 기록
- (제도수준지표) 라틴아메리카 자유주의 네트워크(RELIAL)가 발표한 2021년 국가제도 수준평가지표(ICD)에 따르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멕시코에 이어 2위, 세계 25위를 차지
 - 본 지표는 상기 연구기관이 전 세계 216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주요 8개 기관 지표를 종합해 측정한 상대적 수치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국민 권리 보호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
- (기타지수) 그 외 국가발전 수준 척도 지표로서 행복지수는 중남미에서 6위, 세계 39위(유엔 세계 행복보고서(WHR), 2020)를 차지

라. 주요 경제지표 (2022)

주요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명	18.0	18.2	18.4	18.8	19.1	19.5	19.7	19.9
명목GDP	십억달러	243.907	250.369	276.981	298.204	279.338	252.821	331.250	352.664
1인당 명목GDP	달러	13,572	13,781	15,038	15,903	14,620	12,993	16,799	17,702
실질GDP	%	2.3	1.7	1.2	4.0	1.0	-5.8	11.0	2.5
실업률	&	6.3	6.7	7.0	7.4	7.2	10.8	9.1	7.4
소비자 물가상승률	%	4.3	3.8	2.2	2.3	2.3	3.0	4.2	4.4
재정수지 (GDP대비)	%	0.5	-1.0	-2.0	-1.5	-1.7	-2.5	-10.7	-4.0
총수출	백만달러	62,042	57,738	65,883	75,404	69,146	67,558	-	-
대한국수출	백만달러	4,105	4,047	4,079	4,360	4,585	3,987	-	-
총수입	백만달러	56,964	53,344	59,484	67,710	64,119	55,317	-	-
대한국수입	백만달러	1,882	1,625	1,782	1,685	1,290	909	-	-
무역수지	백만달러	5,078	4,394	6,399	7,694	5,027	12,241	-	-
경상수지	백만달러	-5,735	-4,974	-6,445	-11,640	-10,454	3,370	-	-
환율(연평균)	페소/달러	654.25	676.83	649.33	640.29	702.63	792.22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54.6	82.4	36.0	12.9	92.8	115.8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04.0	120.7	62.0	77.4	125.3	83.9	-	-

주)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전망치, 2021년 10월 기준
(출처 : IMF, GTA, UNCTAD Stat, OECD)

5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한-칠레 외교관계

1) 외교관계

- 1949.05.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음
- 1962.04. 양국 국교 수립 합의
- 1962.07. 정일권 주미대사, 초대 겸임대사 신임장 제정
- 1966.11. 주칠레 상주 대사관 설치(대리 대사)
- 1966.12. 진필식 초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1969.11. 주한 칠레 상주 대사관 설치(대리 대사)
- 1975.05. 레오폴드 폰타이네 초대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0.08. 에르난 브란테스 제10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1.06. 황의승 제17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4.07. 유지은 제18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6.03. 페르난도 다누스 제11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17.10. 정인균 제19대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20.01. 장근호 제20대 상주대사 부임

2) 칠레의 대 한반도 정책

- 전통적으로 대 한국 우호 정책 견지
 -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
 - 칠레는 1949. 5월 남미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의 첫 FTA 체결 상대국으로서 각별한 관계. 특히,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및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이래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심화·확대
- 지역 및 UN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 적극 지지
 -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도발 등 계기 때마다 규탄성명 발표, 6자 회담의 진전을 적극 지지

-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2004년 자유무역협정 체결
 - FTA 체결 이후 포괄적, 전략적 협력관계로 도약
- 양국은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친 같은 마음의 국가이자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긴밀히 공조해온 동반자
 - 양국 공히 권위주의 통치를 거쳐 민주화 성취, 수출지향 정책으로 경제성장 달성, 같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일원으로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 이를 토대로 단순한 통상 위주 관계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신재생에너지, 방산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양국관계 성숙 단계

3)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
 -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2002.11 서울)
 -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2005.4 산티아고)
-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EALAC)
 - 제1차~제3차 외무장관회의
- APEC 정상회의

4)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항공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 문화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원자력협력협정
- 자유무역협정(FTA) : 2003.2.15. 서명(2004.4.1. 발효)
- 일반비자면제협정,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 사회보장협정, 방산군수 협력협정, 정보통신 협력 MOU개정
- 보건의료협력MOU, 전자정부협력MOU, 태양광사업 공동개발MOU
- 발전사업투자 포괄적협력MOU, 수자원협력MOU, 조달협력MOU
- 국방협력협정, 전자정부협력MOU개정, ICT협력MOU개정
- 교통협력MOU

5) 친한 단체

- 한-칠레 협회, <http://www.ugm.cl/corea/>
 - 2004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로 2006년 발족
- 한-칠레 상공회의소
- 한-칠레 경협위

나. 한-칠레 경제관계

□ 개 관

-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 유지
 - 한국 → 칠레 : 공산품(차량, 차량 부품, 전자기기 등)
 - 칠레 → 한국 : 원자재 및 농수산물(구리, 펄프, 목재, 과일, 육류 등)
- 한국은 2018년 기준 칠레의 제4위 수출대상국이자 제8위 수입대상국
- 남미에서 비교적 개방적이고 투명한 자유 경쟁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남미 시장 진출의 테스트 마켓으로 작용
 - 한국 상품 인지도 및 선호도 최고 (2018년 판매량 기준 자동차 18%, 핸드폰·가전제품 점유율 60% 유지)
-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
 - 2003. 2. 15. 서명, 2004. 4. 1. 발효

□ 무역 관계

- 교역규모

<한-칠레 수출입 총괄>

(단위 : US\$백만, %)

연도	수출		수입		무역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1	1,573	80.8	4,859	37.3	-3,286
2020	870	-28.1	3,540	-10.6	-2,670
2019	1,210	-33.0	3,960	-11.5	-2,750
2018	1,807	18.1	4,475	17.6	-2,668
2017	1,530	-5.0	3,804	2.7	-2,274
2016	1,611	-7.5	3,704	-15.9	-2,093
2015	1,742	-16.4	4,402	-8.5	-2,660
2014	2,083	-15.2	4,810	3.3	-2,727
2013	2,458	-0.5	4,658	-0.4	-2,200
2012	2,469	3.7	4,676	-3.7	-2,207
2011	2,381	-19.2	4,858	15.1	-2,477
2010	2,947	32.2	4,221	36.0	-1,274
2009	2,229	-26.5	3,103	-24.8	-874
2008	3,032	-2.7	4,127	-1.3	-1,095

(출처: KOTIS 무역통계, KITA, 2021년 기준)

- 칠레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 : 구리, 펄프, 화학원료, 돼지고기, 과일, 제재목, 포도주, 어류 등
- 칠레 대 한국 주요 수입품목 : 차량, 차량부품, 전자기기 등
- 한국은 구리, 펄프 등 원자재 수입으로 전통적인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보유하고 칠레의 구리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
- 최근 칠레는 농수산물 수출 확대로 광물분야에 치중된 수출품목 다변화 도모
- FTA 이후 공산품 수출 증대로 우리 가전제품, 휴대폰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60~70%에 이르며, 자동차의 경우 15~25% 점유 유지

□ 한-칠레 교역 동향

2021년 한-칠레 양국간 교역량은 64.2억 달러로서 최근 5년 내 최대 교역량을 달성하였으며 주요 교역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2021년 한-칠레 교역 확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칠레 양자 무역 총액이 6,432 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4년 FTA 발효 이후 최고 수준의 교역량 달성(2007년 총72.9억 달러로 역대 최대)
 - 칠레로 한국 수출의 경우, 2020년 대비 80.8% 증가해 15.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34.4%), △석유제품(경유, 10.2%), △합성수지(8.6%), △자동차부품(5.3%) 순서임
 - 칠레로부터 한국 주요 수입은 2020년 대비 37.3% 증가해 48.6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구리, 리튬 등, 82.1%), △펄프 목재(5.4%), △곡실류(포도, 체리 등, 3.8%), △육류(3.1%) 순서임

2) 일방적 무역적자 구조

- 칠레의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인 구리, 리튬 등 광물자원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원자재로서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국제가격 변동 영향을 많이 받음
 - 국제 원자재 가격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년 3월 급락 뒤 빠르게 반등, 급증해 최근 들어 대부분 품목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함

- 광물자원은 △기준금리, △미국 달러화지수, △기대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자원으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측이 양국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강조해 경제성장 기여 관련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됨
- 칠레는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중심 수출구조로 △국제 원자재 수요 및 가격, △ 기준 금리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전통적으로 구리가격과 환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임
 - 구리가격은 2021년 1월 중순 톤당 8,000달러 내외로 2013.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주 상승 요인으로 △중국 등 주요국 제조업 경기 회복,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광산 생산 차질로 인한 수급 상황 불안이 작용
 - 특히 한국은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서 구리, 리튬 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칠레와 전략적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 있음

3) 칠레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 칠레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171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했으며, 2021년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현금성 복지인 긴급소득지원금(IFE) 지급, △연금 조기 인출(Retiro de AFP) 승인, △기준금리 인하, △기업 조세 감면 및 납부 연기 등
 - 상기 대책을 기반으로 내수 진작을 통해 우리 기업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칠레 시장 내 한국산 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
- 아울러 칠레는 전통적으로 제조업보다 광업 중심 산업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기계 및 중간재를 비롯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리 기간(Cuarentena)이 장기화되면서 가전 및 차량 수요가 증가해, 우리 수출 기업이 칠레 시장 내 안정적 점유율 확보 및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자제품 경우 2021년 기준 삼성전자가 전체 수출 기업 중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엘지전자가 11.08%로 뒤를 이음
 - 자동차 수출은 △기아자동차 4.93%, △쌍용자동차 4.23%, △현대자동차 2.27% 등 11.43% 점유율(칠레 내 3위) 달성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다. 한-칠레 문화관계

1) 2000년 이전

- 1982.11. 한-칠레 미술교류 전시회, 서울
- 1984.3. 한국 미술작품 전시회, 산티아고
- 1984.5. 한국 미술작품 전시회, 비냐델마르
- 1987.11. 한-칠레 미술교류 전시회, 산티아고
- 1997.2. 금호 현악 4중주단 칠레 방문 공연
- 1999.11. 칠레 국립민속예술단 한국방문 공연
- 우리나라 민속예술단 칠레방문 공연 4회(1978, 1982.9, 1992.5, 1996.7)

2) 2000년 이후

- 2002.4. 한국 전통 예술단 공연
- 2002.5. 한국 영화 상영회 (카톨릭대 문화센터)
- 2003.3. 한국 소개 사진전 및 미술전
- 2003.6. 카톨릭대학교 문화센터 아시아 영화 상영회에 우리나라 영화 2편 (정, 동감) 출품
- 2003.10. 웃는 돌(단장 : 홍신자)무용단 현대 전위춤 공연
- 2004.5. 한국영화 ‘집으로’ 시사회
- 2004.9. 한국 전통 예술단 공연
- 2004.9. 피아니스트 백혜선 공연
- 2005.11. 칠레 현대미술 한국 전시회
- 2006.9. 한국 영화 상영회
- 2006.10. 서울예술단 전통무용 공연
- 2007.9. 한국 현대미술 칠레 전시회 (칠레현대미술관)
※ 2007년 칠레 최고 전시회로 선정
- 2007.10. 한국 전통 예술단 공연
- 2008.10. 한국영화제 개최
- 2008.11. 안숙선 판소리 및 김선욱 피아노 공연
- 2009.1. 산티아고 아밀축제 3개 공연팀 참가
(극단 서울공장 연극, 들소리 퓨전국악, 밀물무용단 현대무용)

- 2009.4. ‘아시아의 날’ 행사 개최
- 2009.10. ‘한국문화의 밤(한국가요 한류 붐업)’ 행사 개최
- 2010.7. 전통 한식 페스티벌 개최
- 2010.9. 텔제수스트링스 실내 현악 합주단 공연
- 2010.10-12. 한국 영화 지방 순회
(컨셉시온, 테무코, 라세레나, 이키케, 발파라이소)
- 2011.3. 전북 도립 국악원 전통 무용단 지방 순회공연
(산티아고, 테무코, 탈카)
- 2011.7. 강진 도자기 전시회 (Providencia 문화원)
- 2012.10. 퓨전국악단 ‘공명’ 공연
- 2012.10. KBS 뮤직뱅크 공연
- 2013.8. 뷰티풀 마인드 공연
- 2014.2. 성악가 이명현 공연
- 2014.8. 휴스턴 한인예술단 공연
- 2014.12. 퓨전국악단 ‘린’ 공연
- 2015.8. 방탄소년단 공연
- 2016.2. B1A4 공연
- 2017.3. 방탄소년단 공연
- 2018.3. KBS 뮤직뱅크 공연
- 2019.1. 한국 목화 예술단 칠레 연극축제(Santiago a mil) 초청 공연
- 2019.1. SM Town 공연
- 2019.6. 칠레 APEC 정상회의 개최 기념,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Teatro Santiago Municipal)

3) 도시 간 자매결연

- 1983.2. 창원-비냐 델 마르 자매결연
- 1999.1. 부산-발파라이소 자매결연
- 2004.4. 인천-비오비오(BioBio)주 자매결연
- 2008.4. 파주-랑카구아 자매결연
- 2010.1. 광양-발파라이소 자매결연
- 2013.5. 고양-이후엘라 “화훼수출과 기술지원에 관한 협정” 체결

4) 대학 교류

- 1984.7. 한국의국어대학교-칠레 대학교 교육교류협정
- 1987.12. 고려대학교-칠레 카톨릭대학교 자매결연협정
- 1992.8. 부산대학교-La Serena 대학교 자매결연협정
- 1996.5. 경희대학교-칠레 대학교 업무협력약정
- 2003.1. 전남대학교-칠레 카톨릭 대학교, 아우스트랄 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3.8. 충북대학교-발파라이소 카톨릭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4.4. 고려대학교-마요르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4.6. 서울대학교-칠레 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4.6. 성균관대학교-마요르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5.2. 평택대학교-발파라이소 플라야 안차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9.6. 서강대-칠레 카톨릭대학교 학술교류협정
- 2009.10. 국제교류재단, 칠레 카톨릭대에 교수파견, 단기한국학 강좌개설
- 2009.11. 한-칠레 인적자원교류 MOU 체결
- 2011.12. 한양대-칠레과학기술위원회간 ‘한-칠레 인적자원교류MOU 시행 약정’ 체결
- 2011.12. 한양대-칠레대 간 학술교류협정 체결
- 2011.12. 한양대-마요르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체결
- 2012.9. 제1회 대학박람회 개최
- 2012.11. 디에고포르탈레스 대학 내 산티아고 세종학당 개소
- 2013.9. 연세대 경영대-칠레 경영대간 학술교류협정 체결
- 2014.12. 산티아고 대학 내 한국학프로그램 개설
- 2018.4. 칠레 센트랄대학 내 중남미 최초 한국학 석사과정 개설
- 2019.1. 칠레 센트랄대학 내 산티아고 세종학당 개소

5) 체육교류

- 1996.6. 이 응 양궁대표 코치, 칠레 방문지도
- 1996.9. 경기대 배구팀 방문경기 개최
- 2000.8. 태권도 시범단 방문 시범경기 개최
- 2000.10.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참가

- 2001.4. 세계 청소년 럭비 선수권 대회 참가
- 2003.12. 제1회 세계 주니어 탁구 선수권 대회 참가
- 2004.10. 태권도 시범단 시범 공연
- 2005.6. 탁구 프로투어 칠레 오픈 대회 참가
- 2005.9. 세계 여자 주니어 필드하키 대회 참가
- 2006.6. 펜싱 국제 그랑프리 대회 참가
- 2006.6. 탁구 프로투어 칠레 오픈 대회 참가
- 2006.6. 탁구 프로투어 칠레 오픈 대회 참가
- 2009.11.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 2011.8. 랑카구아 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
- 2013.11. 칠레오픈 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
- 2014.6.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파견
- 2014.7.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 2014.10. 2014 칠레 홈리스 월드컵대회 참가
- 2014.11. 독도배 태권도 대회 개최
- 2014.6. 대사배(Copa Corea) 태권도 대회 개최
- 2015.5. 대사배(Copa Corea) 태권도 대회 개최
- 2015.10. FIFA U-17 월드컵 축구 대회 참가
- 2016.5. 대사배(Copa Corea) 태권도 대회 개최
- 2017.5. 대사배(Copa Corea) 태권도 대회 개최
- 2018.8. 대사배(Copa Corea) 태권도 대회 개최

6) 기타

- 1996~2019. 정부 초청 학부, 대학원 장학생, 청소년 교류단 다수 입국
- 2011.6. ‘한-칠레 우호의 탑, 다보탑’ 설치

라. 칠레 동포현황

1) 칠레 이민 역사

- 1960년대 중반부터 남미대륙에 대한 이민이 시작되어 1970년대 화훼 재배 농가 5세대의 입국이 칠레이민의 시초
- 아옌데(Allende) 정권 수립이후, 정정 불안으로 동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 등 제3국으로 이주하고 1세대만 잔류
- 1977년 이후 아르헨티나로부터 다수의 세대가 이주하였고, 1978.11월 32세대 100여 명의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초대 재칠레 한인회가 설립되었으며 1979.5월 2세 교육을 위해 한글학교 개교
- 칠레 거주 동포들은 주로 산티아고 시내 파트로나토(Patronato) 지역에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중국제품 수입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무역, 인쇄, 자동차 부품 판매, 수산물 가공, 제조업(화장지, 비닐, 지퍼, 봉제) 분야에도 종사하면서, 현지 사회 내에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
- 2004.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에는 건설, 건설자재, 호텔, 학교 등 분야로 신규 이민이 조금씩 늘고 있으며, 동포 2세대들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고급직종에 진출

2) 재칠레 한인회

- 설립 : 1978년
- 회장 : 서화영 (제19대)
- 동포수
 - 수도 산티아고(Santiago)에 약 2,300명 거주
 - 여타 이키케(Iquique), 콘셉시온(Concepcion), 발디비아(Valdivia), 푸에르토 몬트 (Puerto Montt), 폰타 아레나스(Punta Arenas)등 지역에 약 200명 거주
- 한인 회관 운영 (전화 : 56-2-777-3540 / 팩스 : 738-0986)
 - 주소 : Manzano 343 Of.413, Recoleta, Santiago-Chile
 - email : asocochile@hotmail.com
 - 홈페이지 : <http://chile.korean.net/>

3) 한글학교

○ 연 혁

- 1979.5월 연합교회 주관으로 한글학교 개교
- 1989.3월 현 학교건물 매입 이전
- 총 20만불 소요(정부 8만 달러, 자체 12만 달러)
- 대지 4,300㎡ (1,300평), 건평 3,400㎡(1,030평)

○ 학생수 : 약 130명

- 매주 토요일 (10:00-14:10) 국어, 국사, 윤리 등 모국어 및 민족교육 실시
- 전화 : (56-2) 622-6554
- 주소 : Norte 600, Recoleta, Santiago-Chile

4) 종교단체 현황

- 연합 교회 (556-7628, Juan Vicuña 105, Santiago)
- 영락 교회 (737-3672, Buenos Aires 447, Recoleta)
- 소망 교회 (735-7808, Santa Filomena 181, Recoleta)
- 순복음교회 (732-2801, 732-5003(Fax), Purisima 113, Recoleta)
- 천주 교회 (732-7893, 732-5525(Fax), Santa Filomena 323, Recoleta(성당),
Santa Filomena 160, Recoleta(회관))
- 원불교 (전화 : 735-6739)

5) 기타 단체 현황

- 노인회 (735-9219, A.Lopez de Bello 529 C-k)
- 청년회 (8-288-6839)
- 예비역장교회 (737-9714, Recoleta 191)
- 골프회 (9-543-4102, Manzano 377)
- 시니어 골프회 (735-5468, Manzano 236-A)
- 여성 골프회 (777-7274, Patronato 411)
- 테니스동우회 (737-4689, Manzano 484)
- OKTA지회 (737-2204, Patronato 153)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2.07.)

II. 최신 동향

1 정치 동향

가. 2021년 칠레 상,하원 총선(11.21.) 결과

칠레 총선('21.11.21.(일)) 결과 (11.22.(월) 14시 기준, 개표율 99.99%)

※ 전체 유권자 중 7,115,590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율 47.34% 기록

※ 칠레는 양원제 국가로, 4년마다 △8년 임기인 상원의 1/2, △4년 임기인 하원 전체를 선출

1) 상원

- 칠레에서는 4년마다 8년 임기의 상원 1/2을 선출하는바, 금번 총선에서는 수도권 포함 9개 지역*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진행되어 총 27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됨

* △수도권, △안토파가스타, △코킴보, △오이긴스, △뉴블레, △비오비오, △로스리오스, △로스라고스, △마가야네스

** 상원의원 숫자는 해당 지역 인구수에 따라 다르며, 2015년 상원의원 선출 법안이 변경되면서 금번 총선 이래 상원의원은 총 50명으로 구성

- 중도우파 연합(Chile Podemos +) 12명, 급진우파 연합(Frente Social Cristiano) 1명이 선출되며 전체 상원의원 중 50%(25명)가 우파로 구성되었으며, 중도좌파 연합(Nuevo Pacto Social)에서 8명, 급진좌파 연합(Apruebo Dignidad)에서 4명이 선출되어 각각 전체 상원 의석 중 34%(17명), 10%(5명)을 차지함
- 최종 상원의원 중 남성 38명(76%), 여성 12명(24%)이며, 평균 연령 55.7세
- 중도우파 여권(Chile Podemos + 및 중도우파 성향 무소속 의원) 의원은 19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도좌파 의원은 20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함.
- 다만 50여 년 만에 공산당 의원(2인, Daniel Nunez(코킴보), Claudia Pascual(수도권))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는 등 급진 좌파가 상당히 약진

2) 하원

- 금번 총선에서 4년 임기의 하원의원 총 155명이 선출되었으며, △급진우파 15명, △중도우파 54명, △중도 무소속 및 중도 포퓰리즘 각각 1명, 6명, △중도좌파 37명, △급진좌파 42명이 선출됨
- 상원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정족수인 2/3를 차지하는 선거연합은 없으나, 중도 우파 여권연합에서 54명의 하원의원이 선출되며 가장 우세한 양상을 보임
- 금번 선출된 155명 하원의원의 약 58%에 해당하는 90명이 초선 의원이며, 65명이 재선의원임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1.11.21.)

나.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취임 연설 관련 각계 반응

1) 정계

- 사회당 Paulina Vodanovic 의원은 칠레 주요 일간지 엘메르쿠리오(El mercurio) 전자판 3.12자 기고문을 통해 보리치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동들로 동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 즉 국민 앞에 겸허한 태도, 민심 경청, 타인과 국가에 대한 공감 능력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함
 - 보리치 대통령(35세)은 취임식에서도 넥타이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항상 동행하였으며 내무장관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기용하는 등 양성평등 내각 구성
- 민주당 소속 Francisco Vidal 전 국방장관은 보리치 행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측면에서 심도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며, 칠레 현대사의 주요 변화로 안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 아울러,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제헌의회에 의해 쓰여진 신헌법 초안에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었기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가치가 헌법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

2) 재계

- 칠레 철강기계 산업연합(ASIMET) Dante Arrigoni 노조위원장은 보리치 신정부의 우선 과제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꼽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국가 신뢰도 향상이 급선무라고 언급함

- 이와 관련, 동 인은 신정부 내각 인사 중 특히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재무부장관의 이력과 경험에 깊이 신뢰하며, 동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경제팀이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고 칠레 산업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표명

3) 학계

- 칠레 Adolfo Ibanez 대학의 Francisco Covarruvias 교수는 보리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연대, 역사 기반에서 시작, 모두를 위한 대통령 천명 등 희망찬 메시지에 설렘 수만은 없다면서, 의회와의 연대, 경제회복, 정부-기업 관계, 이민, 범죄 등 산적한 당면 과제로 인해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함

4) 외신

- 스페인 엘빠이스(El Pais)지는 “칠레, 새 시대를 열다” 제하 논설을 통해 보리치 대통령의 당선은 과거 피노체 독재정권을 완전히 끊어내는 세대교체 및 중남미 신좌파(Pink tide)의 재도래를 의미한다고 평함
- 2019년 사회 갈등 및 국민 불만에서 시작된 신정부는 특히 교육과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경험이 많지 않은 신세대 대통령이 얼마나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역사상 첫 여성 내무장관 임용은 칠레 변화의 얼굴로서 성평등을 강조하는 정부 기대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여파, △팬데믹 위기 극복, △연금제도 개혁, △신헌법 제정 등 국정운영에 난제 산적
- 영국 BBC는 보리치 신정부가 직면한 5가지 현안 과제(22.3.11.)를 분석 기사로 보도하며, 보리치대통령을 1990년 칠레의 민주주의 회귀 이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거대 양대 산맥을 끝낼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로 소개함
- 상기 관련, 주요 현안 과제로 △제헌의회 합의 및 헌법개정, △칠레 남부 원주민 갈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 △팬데믹 대응, △칠레 북부 이민자 문제 등을 꼽았으며 특히 국경 문제의 경우 이민자의 인권과 자국민 치안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 강조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2.03.15.)

다. 최근 칠레 신헌법(Nueva Carta Magna) 제정 동향

'22.4.4.(월) 시행된 주재국 국민 여론조사(Cadem)에 따르면 21.7.4. 출범한 주재국 제헌의회에서 논의하는 △신 헌법초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Rechazo) 의견이 46%로써 찬성(Apruebo) 의견(40%)보다 높게 나오는 한편 △새 헌법(Nueva Carta Magna) 초안 구성 과정에서 제헌 의원회 내 쟁점이 지속되고 있어, 신헌법 제정 동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1) 제헌의회 경과

- 19.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계기로 사회 경제 불평등에 대한 국민 불만 누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전국 확산
- 20.10월) 국민투표에서 약 80%의 지지로 제헌의회 구성을 통한 개헌 추진 결정
- 21.5월) 제헌의회 의원 선출
- 21.7.4.) 제헌의회가 출범(의장: 마푸체족 출신) 및 7개로 구성된 각 분야 제헌위원회에서 9개월 간 법안 승인후 초안 마련
- 현재) 제헌 총회(Pleno de Constitucion)에서 새 헌법 초안에 대한 표결 진행
- 22.5월) 제헌 화합위원회(Comision de Armonizacion)에서 조율 및 기술 작업
- 22.7.5.) 제헌의회 임기 종료 및 새 헌법 최종본 완성
- 22.9.4.) 18세 이상 전 국민 대상 의무투표 시행(미참여 시 벌금 부과)

2) 제헌의회 구성 및 논의 동향

- (제헌위원회) 환경·노동·인권·민주주의 등 가치 중심화를 골자로 △원주민 권리 존중,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 다민족 국가(Estado plurinacional) 천명, △에너지 및 수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역할 명시 등을 논의함
- (제헌위원회 구성) 정치위원회(25명), △헌법원칙위원회(19명), △국가구성위원회(25명), △기본권위원회(33명), △환경위원회(19명), △사법제도위원회(19명), △지식위원회(15명) 등 총 155명 (이중 원주민에게 17석 의무 할당)
- (지도부) '21.7월 출범 당시 의장으로 마푸체족 출신인 엘리사 롱콘(Elisa Loncon Antileo)이, 부의장으로 바싸(Andres Bassa Mercado)가 6개월 임기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22.01.05. 새 의장으로 마리아 롱콘(Maria Loncon)이, 부의장으로 가스파르 도밍게즈(Gaspar Donminquez)가 선출됨(~현재)

- (신헌법의 기반이 되는 핵심 사안) 신 헌법제정을 통해 △상원폐지(eliminacion del Senado) 후, 지역의회(camara de Regiones)로 대체해 기존 하원과 지역의회를 비대칭양원제(bicameralismo asimetrico) 정립, △사법다원주의(Pluralismo juridico, 원주민을 위한 별도 법원을 설치) 추진

<제헌의회 위원회 구성 현황>

번호	위원회 종류	주요 현안	구성
1	정치 위원회	국가 조직, 선거제를 정의하고 공공안보, 국방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 지역통합 등도 본 위원회에서 다룸. 특히 칠레가 다민족국가(Estado plurinacional)라는 것을 정치위원회에서 정의함('22.03.23)	25명
2	헌법원칙 위원회	칠레 시민의 범위, 헌법(Carta Magna) 서문, 민주주의(직접/참여) 메커니즘 등을 정의함	19명
3	국가구성 위원회	국가 구역 구성, 자치권, 지역 사법권, 지방정부, 재정기구 등을 정의함	25명
4	기본권 위원회	가장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약 40여개 주제를 다루며, 특히 교육, 정의, 여성인권, 사회안전, 연금제, 보건, 지재권 등 기본권을 정의함	33명
5	환경 위원회	새 헌법에서 가장 혁신적인 위원회로 환경민주주의, 지속가능개발, 수자원권 등을 논의함	19명
6	사법제도 위원회	법조계 관련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로, 사법권, 법시스템, 형법 등을 정의함	19명
7	지식 위원회	지식, 문화 분야관련 제도, 공공지출, 예산, 공공정책 등을 다룸	15명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2.04.14.)

라. 칠레 보리치 대통령 첫 대국민 국정연설

2022.6.1.(수) 오전 11:00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의회에서 「대국민 국정연설 (la cuenta publica)」을 개최하고, 취임 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안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대국민 보고 진행함

- 국정 연설 핵심 요지(주요 정책 방향)

- 보리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재 칠레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과 향후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모두가 책임감을 공유해야 하며, 변화 과정에 있는 칠레가 기후변화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이점을 인정하는 자세와 정치권 및 국민 연대 촉구

- 보리치대통령은 △사회기본권(Derechs Sociales), △민주주의 발전 (Mejor Democracia), △포용 성장(Crecimiento Inclusivo), △정의 구현 및 사회안전보장(Justicia y Seguridad), △환경(Medio Ambiente) 등 5가지 주 내용을 골자로, 불평등 해소,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안 추진을 강조
- 제헌의회 신헌법 제정 관련
 - 제헌의회 지지를 호소하기보다는 9월 치르게 될 국민투표에서의 찬·반 두 선택지 모두 합법적(legitimidad)이라고 강조하면서 신헌 법 초안의 정당성을 밝힘
 - 한편, △여성 인권 증진 및 역할 강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 관련 연대 촉구, △라틴아메리카를 근간으로 한 외교 정책 방향 등 취임 전부터 강조한 인권, 연대, 여성, 노동, 공정과 같은 사회기본권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 국정 방향에서 주요한 국정 목표를 제시함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2.06.10.)

마. 칠레 신헌법안 공개 및 제헌의회 해산

칠레 제헌의회가 2022.7.4.(월) 신헌법안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제헌의회 임기가 공식 종료된 바, 주요 내용 및 관련 반응은 다음과 같음

1) 신헌법안 전달식 주요 내용

- 2022.7.4.(월) 칠레 산티아고 前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제헌의원, 원주민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헌법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동 행사를 계기로 제헌의회 해산과 함께 임기가 공식 종료됨
- 제헌의회 마리아 엘리사(Maria Elisa) 의장은 제헌의회가 칠레 역사상 처음으로 다양한 시민 계층이 참여한 남녀 동일 성비로 구성된 민주적 기구였다고 강조하면서, 신헌법은 현실을 반영하고 완벽에 가깝다 (perfectible)고 평가

- 아울러 가스파르 도밍게스(Gaspar Dominguez) 부의장은 연설을 통해 다양성은 구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가치로, 연대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이며 제헌헌법이 이러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
- 보리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2021.7월 사회 변화와 존엄한 삶을 향한 칠레 국민의 염원과 기대로 시작한 제헌의회의 신헌법 입안이 오늘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며, 앞으로 두 달간 국민이 직접 신헌법안을 읽고 고심한 뒤 2022.9.4.(일)에 있을 국민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칠레의 새로운 시작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함

2) 신헌법안 최종안 구성 및 각계 반응

① 신헌법안 구성

- 신헌법안은 △11개 장, △388개 일반조항, △57개 전환규정(Normas transitorias)으로 총 178쪽에 걸쳐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
- 11개 장 구성은 △총칙, △기본권과 보장, △자연과 환경, △민주참여, △정부 및 공공기능, △지방정부와 국가조직, △입법부, △행정부, △사법시스템, △제헌자치기구, △헌법 개혁 및 대체 등 총 11개 장과 전환규정 관련 1장으로 구성

② 긍정 여론

- 일부 전문가들은 신헌법 제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원주민 등 사회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대화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초안 제작 및 검수 작업 이후 정족수 과반수 찬성(154명 중 103표 이상 득표)을 통해 최종안이 완성되어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평가함
- 특히, 기존에 소수를 대변하는 엘리트 정치에서 다수를 포용하기 위해 권력분산을 시도하고 인권과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

③ 부정 여론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및 피치 전문가들은 신헌법안 일부 조항이 사회권 확대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 국가 재정과 경제 제도 측면에서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고, 노동법 관련 일부 규정이 칠레 내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함
 - 특히, 신헌법안 내 물 사용권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는 광산업, 임업과 같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신헌법안 제169조 제30항 원주민 동의(consentimiento indigena)의 경우, 치안 및 안보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상황에서도 원주민 거주지역에서는 원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원주민 권리 보호에 대한 일부 조항들이 모호하고 법의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주민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제기

3) 신헌법 찬반 국민 여론 및 대통령 지지도

- 지난 7.3.(일) 현지 Cadem社가 진행한 국민여론 조사에 따르면 신헌법 찬성 34%, 반대 51%, 부동 15%로 나타남
- 보리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 하락한 33%를 보여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62%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신헌법 찬반 국민 여론과 대통령 지지도 간 정비례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2.07.06.)

2 경제 동향

가. 칠레 경제·통상 주요 동향('21. 3. 22. ~ 4. 4.)

1. 경제 동향

-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지역 내 기업들의 영업재개 및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 실시에 따라 2021년 경제성장률이 4.1%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발표함
 - 아울러, 동 지역 경제회복 양태는 2022년 재침체 및 2023년에 회복기 진입에 따른 'W' 자 형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
- 또한, IDB는 중남미 지역이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여 역대 극심한 빈곤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며, 동 지역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8%에 불과한 데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 세계 코로나 19 사망자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5천억 미불(GDP의 8.5%)에 달하는 재정을 지출했으며, 이에 따라 역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9년 58% → 2020년 72%로 증가, 2023년에는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2021.3.31(수) 칠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보고서(IPOM)를 통해 2021년 칠레의 GDP 성장률을 기존 예측치인 5.5%~6.5%에서 6%~7%로 상향 조정
 -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요인은 △2020년 말 ~ 2021년 초 경기회복,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속 전개 등

2. 세계은행 보고서

- 2021.3.29.(월) 세계은행(WB)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동 지역은 개발도상국 중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며,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 한편, WB는 글로벌 서비스 무역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상품무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함에 따라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을 포함하여 1차 산품 생산국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21년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GDP 성장률을 4.4%(기존 예측치인 4.0%에서 0.4%p 상향)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칠레 정부의 경기부양책,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한 이동제한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칠레 GDP 성장률이 2021년에는 5.5%(기존 예측치인 4.2%에서 1.3%p 상승), 2022년에는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3. 세계무역 동향

- 2021.3.31.(수) 세계무역기구(WTO)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무역량은 코로나19 여파로 -5.3%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2020.11월) 등의 호재로 무역량이 회복되고 있어 최종 8%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2020년 무역량은 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오콘조-이웨일라(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신속, 공정한 백신공급 등의 조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

4. 전기차 동향

- 칠레 자동차협회(ANAC)는 2020년 칠레 내 신차 판매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21년 판매량은 2020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칠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 증가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
- 2021.1월 일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반면, 전기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

5. 신용등급 동향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칠레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5.9%, 2022~2024년 평균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
- 아울러, 칠레는 경제회복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2~3년간 공공지출 증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지속되어 공공재정에 부담이 존재할 것으로 보아 칠레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하였다고 발표

6. 구리 및 환율 동향

- 2021.4.1.(목) 구리 가격은 직전 주보다 0.1% 하락한 파운드 당 3.97 미불을 기록
- △중국 중소기업들의 생산 활동 둔화 지속, △구리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몇 주간 구리 가격의 변동성 확대
- 한편, 칠레 중앙은행은 구리 가격이 2020년 말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파운드당 평균 구리 가격이 △2021년 3.95 미불(기존 예측치 3.20 미불에서 3.95 상향조정), △2022년 3.75 미불, △2023년 3.55 미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1.4.1.(목) 페소/달러 환율은 미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약 2조 2천억 미불 규모) 계획 발표 등으로 직전 주보다 12 페소 하락한 717.85 페소를 기록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1.04.06)

나. 칠레 경제·통상 주요 동향('21.4.5. ~ 4.18.)

1. 경제 동향

(가) 칠레 경제성장률

- 2021.4.5.(월) 크레딧 스위스는 △칠레 내 신속한 예방접종 진행,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 등으로 2021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측치인 5.5%에서 6.8%로 상향조정하고, 2022년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
- 3월 말 이후 칠레 중앙은행과 주요 국제경제기구들 또한 금년도 칠레 경제성장률을 추가 상향조정 중
- 한편, 칠레 중앙은행이 월별 실시하는 경제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재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6%, △2022년 3.5%, △2023년 3.0%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2021년 2분기는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

(나) 코로나19 영향

- 주요 경제기구들이 칠레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은행(WB)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실직한 가구의 경우 1인당 소득이 평균 약 40% 감소

- 아울러, WB는 칠레 정부의 긴급 가계소득(IFE) 지원 조치가 최빈곤층의 소득 감소를 보전한 반면 취약계층 및 중산층의 소득 감소는 크게 보전하지 못했다고 지적
 -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기존 중산층 비율(63%)이 5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 조치가 없었을 경우 중산층 비율은 50%까지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
- WB는 2021년 칠레 경제회복 예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및 중산층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소득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언급

2. IMF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

(가) 중남미 지역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과 중남미 지역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 6%, 4.1% → 4.6%로 상향 조정
- IMF는 칠레를 제외한 역내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더딘 예방접종 속도를 지적하면서도, 각국이 취하고 있는 격리 조치가 전년보다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언급
 - 중남미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4년이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코로나19 여파로 역내 빈곤층이 1,900만여 명 증가했으며,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5% 증가하였다고 언급
- 또한, 중남미 내 학교 폐쇄 기간이 여타 지역보다 길었던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2020년간 발생한 교육 손실이 보전되지 않으면 10세~19세 학생들의 평생 소득이 평균 4%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

(나) 칠레 전망

- 칠레의 경우, 신속한 예방접종 속도와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중남미지역 최초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경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1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6.2%, 2022년 성장률은 3.8% 전망

3. IMF 재정모니터 보고서

- 2021.4.7.(수)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는 각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일시적인(temporal)”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IMF 재정부문 가스파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상기 세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회안전망 보장 등에 필요한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심각한 불황과 더 큰 일자리 손실은 방지했지만, 이에 따라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경고
 - 2020년 GDP 대비 평균 재정적자 수준은 △선진국 11.7%, △신흥국 9.8%, △저소득 국가 5.5%임
- ※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산이 5조 미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극심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대유행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촉구함

4. 수출입 동향

- 2021.4.17(수) 칠레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칠레 수출입은 10년 만에 분기별 최고 실적을 기록
 - 수출은 구리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217억 3,500만 미불을 기록하여 2020년 1/4분기 대비 26.4% 증가
- ※ 광업 수출(44% 증가, 120억 5,500만 미불 기록) 중 구리 수출이 110억 3,400만 미불로 45.7% 증가
 - 비구리 수출은 96억 7,7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산물 수출(34억 8,9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 중 체리 수출이 19억 4,400만 미불로 103.9% 증가
- 칠레 광업연합회(SONAMI)측은 1/4분기 칠레의 대량 수출이 구리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1분기 파운드당 구리 평균 가격이 3.86 미불(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에 달한 바, 2021년 주요 광업 및 기타 제품 수출이 480억 미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 수입은 191억 4천만 미불을 기록(26.3% 증가)하였으며, 소비재 수입(37.6% 증가, 57억 1,700만 미불) 중 내구성 제품이 68.9% 증가하여 22억 5,600만 미불 기록

5. 칠레 정부, 2021년 투자 유치 전략

-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가 32% 하락(85억 2,800만 미불 기록)함에 따라 칠레 투자청(Invest Chile)은 2021년 외국인 투자 회복을 위해 5가지 전략 추진
 - 1) Invest in Chile Now : 칠레 미진출 해외기업 중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 기업들과 30회 이상의 회의 개최 중
 - 2) 중동지역 집중 : 중동지역의 △식품 산업,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 기금과 회의 개시
 - 3) E-Roadshows : 올해 6월까지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 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 △금융시장, △인프라, △기술 및 식품 산업 등 35개 분야에 대해 온라인 홍보(“E-Roadshow”) 진행 예정
 - 4) E-Promotion : 투자 촉진을 위한 ‘Inbound Marketing’ 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1/4분기에 △미국, △브라질, △독일, △스페인 등 국가에 21개의 캠페인을 통해 680개의 기업에 연락
 - 5) 재투자 : 칠레에서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출 외국 기업의 운영 확대 작업

6. 자동차 판매 동향

- 칠레 자동차협회(ANAC)에 따르면, 3월 신차 판매수는 32,511대로, 2020년 동월 대비 70.6% 증가하였고, 2021년 1/4분기 신차 판매수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 3월 시장 점유율은 △쉐보레 3,439대(10.6%), △현대 3,129대(9.6%), △닛산 2,673대(8.2%), △MG 2,222대(6.8%), △폭스바겐 2,047대(6.3%), △기아 1,949대(6.0%) 순
 - 2021년 누적 시장 점유율은 △쉐보레 9,496대(11.6%), △현대 6,547대(8%), △스즈키 6,105대(7.4%), △닛산 5,327대(6.5%), △기아 4,948대(6.0%), △MG 4,916대(6.0%) 순
- 또한, ANAC은 칠레의 기업 신뢰도, 고용 전망 등 주요지표 개선 및 2021년 칠레 GDP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21년 1/4분기 상용차 판매 대수도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하였다고 발표

7. 구리 및 환율 동향

- 2021.4.16.(금) 구리 가격은 파운드 당 4.235미불을 기록함(직전 주보다 4.51% 증가)
 - 미국의 긍정적인 거시경제보고서와 중국의 높은 경제활동 수치(2021년 1분기에 GDP 18.3% 기록)에 기인
- 골드만삭스는 금년 구리 가격은 파운드 당 4.9미불, 2025년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6.8미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1.4.16.(금) 페소/달러 환율은 구리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강세를 보이며, 전보다 7페소 하락한 704.25페소 기록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2021.04.20)

다. 칠레 경제통상 주요 동향(21.4.26. ~ 5.3.)

1. 경제 동향

(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 (칠레상공연합) ‘21.4.22.(목) 칠레상공연합(CPC)의 후안 수틸(Juan Sutil) 회장은 2021년 주재국 경제성장률이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및 미국의 경제 회복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7%에 가까운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IMF) ‘21.4.22.(목)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감소, △정부의 강력한 대응, △재정적 여유, △신속한 예방접종 진행 등의 이유로 2021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6.5%로 재상향 조정

※ IMF는 연초 칠레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한 이후, 4월 6.2%로 성장률을 한 차례 상향 기조정

- 아울러, 구리 가격 동향이 △수출, △정부 수입, △투자경제성장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JP모건) ‘21.4.29.(목) JP모건은 △2021년 및 2022년 칠레의 경제성장률(각각 6.9% 및 3.4%), △올해 4/4분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50 포인트),△2021년 GDP 대비 재정적자 증가(4.2% → 6%) 등에 대한 전망 발표
 - 제3차 연금조기인출 조치의 효과가 과거보다는 적고, 올해 소비는 1.3%p 증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나) 경제활동지수 및 경제불확실성 지수 (2021.3월)

- (경제활동지수) 5.3.(월)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1.3월 경제활동지수(IMACEC)는 6.4%를 기록
 - 이는 2018.6월 이후 최고치이자 전문가들의 예측치(4.5%)를 상회하는 수치로, 서비스 및 교역량 증가에 기인
- (경제불확실성지수) ‘21.4.30.(금) 칠레 카톨릭대학 Clapes 연구센터는 4월 경제불확실성지수(Indice de Incertidumbre Economica)가 292점을 기록하였다고 발표
 - 지난 2~3월 간 신속한 백신접종 및 이로 인한 빠른 경제회복 기대로 동 지수가 감소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월 지수 상승
- ※ 동 지수는 ‘21.4.24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위헌 법률심사 요청을 각하하기 이전 지수임

(다) 수출입 현황 (2021년 1/4분기)

- (개요) 칠레 국제경제차관실(SUBREI)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교역액은 408억 7,4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
- (수출현황) 217억 3,5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
 - 광업 수출이 120억 5,500만 미불로 44.2% 증가하고, 이 중 구리가 110억 3,400만 미불로 45.7% 증가(1/4 분기에 구리 평균 가격이 50.4% 증가하여 파운드 당 3.85 미불 기록)
 - 임업, 축산 및 수산 부문의 수출이 34억 8,9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한 바, 신선과일이 출하량의 95.7%를 차지(체리 103.9% 증가, 블루베리 19.4% 증가)
 - 1/4분기 대중국 수출액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90억 미불을 기록해 56% 증가하였으며, 대미국 수출액 34억 미불, 대한민국 수출액 10억 4,200만 미불 순
- (수입현황) 191억 3,900만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26.3% 증가(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중간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49%를 차지하여 94억 4백만 미불로 18% 증가, 소비재 수입이 57억 1,700만 미불로 38% 증가, 자본재 수입이 40억 1,800만 미불로 33% 증가

(라) 고용 및 실업 현황 (2021.3월)

- (고용률 및 실업률) ‘21.4.23.(금) 보도된 칠레대학 마이크로데이터센터(Centro de Microdatos de la Universidad de Chile)의 전화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3월 산티아고시 고용률은 50.5%(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 실업률은 11.3%(전년 동기 대비 4.3%p 감소)를 기록
 - * 동 설문조사는 ‘21.3.7.-13. 간 고용/실업상태를 조사한 것으로, 산티아고시 전체 34개 구역(comunas)의 1,715가구 5,46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대다수 구역이 방역 2단계(주말 간 자가격리 시행 등) 조치 중이었음
 - 단, 상기 실업률은 구직포기자가 제외된 수치이며, 3.13. 이후 수도권 전역에 자가격리(방역 1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설문조사 기간 이후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노동수요 증가) ‘21.4.22.(목) LabLab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칠레 구인포털에 게재된 구인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39%, 1/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
 - 부문별로는 △농업 부문(77%), △보건 부문(68.3%), △건설 부문(46%), △광업 부문(47%)은 증가, △금융 및 관광, △호텔 및 요식업 부문은 감소

(마) 투자 및 기업활동 (2021년 1/4분기)

- (투자심리) 칠레 Desarrollo 대학교, 칠레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9개국(독일, 호주, 캐나다, 스페인, 미국, 이태리, 일본, 영국 및 스위스)의 상공회의소는 칠레에 기설립된 188개 외국기업(칠레 FDI의 55%)을 대상으로 2021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뢰지수를 분석하여 발표
 - (긍정적 평가) 상기 기관들은 칠레 대부분의 사회 분야에 대한 신뢰도를 중립적,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공공기관과 연합 간 협조는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 중립적(43%)으로 평가
- * 2020년 9월 60%~85% → 2021년 3월 70%~90%
- ** 2020년 9월 61% → 2021년 3월 50%
- (부정적 평가)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중 △국가 안보 및 범죄(78%), △사회 안정(73%), △정치적 안정(63%), 정치제도(54%) 부문 평가는 지난 9월보다 개선(9월 각각 83%, 89%, 76%, 65%)

- (부문별 평가) △광업, 상업, 건설, 금융, 산업 및 기술 부문에 대한 신뢰도는 “적당히 긍정적” 으로 상승, △에너지 물, 환경, 보건, 및 비금융 서비스 부문은 “약간 부정적”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축산 부문의 신뢰는 중립적에서 부정적으로 하락
- (기업활동) 2021.4.29.(목) 공급자 산업협회(AGIP)는 2020년 1/4분기 대기업 판매지수가 9.7% 상승한 반면, 2021년 1/4분기는 전분기보다 낮은 8.8%를 기록했다고 발표함(2021년 △1월 8.5%, △2월 12.5%, △3월 5.3%)
- 상기 기업들은 △가정용 청소용품, △음료, △맥주/주류, △위생용품 및 미용제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며, 평균 20.4%, 비식품 가게 10.3%, 식품 8.4% 증가

(바) 구리 및 환율 동향

- (구리 가격) 2021.4.30.(금) 구리 가격은 △중국의 경제성장,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구리 수요 등으로 전일 대비 0.41% 상승한 파운드 당 4513 미불 기록
- 2021년 구리 평균 가격은 파운드 당 3.948 미불
- (환율) 2021.4.30.(금) 페소/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45 페소 상승한 710.40 페소를 기록한 바, 전문가들은 △구리 가격 상승, △세계 및 중국 경제 회복,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칠레에 더 많은 달러가 유입되고, 정부의 격리 완화 조치로 인한 칠레 경제성장 기대감으로 수일 내 680 페소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2. 2020년 경제활동 관련 자료 발표 (중앙은행, 국제경제차관실)

(가) 국가회계보고서 (중앙은행)

- 칠레 중앙은행이 발표한 2020 국가회계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9년 대비 가계 가처분소득 및 소비는 각각 -3.5% 및 -2.2%, △GDP 대비 가계 저축률 8.3%(전년 대비 -0.2%p) 및 총저축률 21.2%(전년 대비 1.9%p 증가), △GDP 대비 가계부채 및 정부부채 각각 50.6%(전년 대비 -0.1%p) 및 38.2%(전년 대비 -5.2%p) 등 기록
- 단, 가계 가처분소득의 경우, 지난해 2차에 걸쳐 시행된 연금 조기인출 효과를 감안하는 경우 12.7% 증가

3. 코로나19 대응 조치

(가) 긴급 가계소득(IFE) 강화

- 2021.4.19.(월) 피네라 대통령은 제3차 연금 조기 인출 압력 및 중산층 지원 관련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약 6백만 취약 가구(약 1,330만 명)에 인당 10만 페소(약 137 미불)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긴급 가계소득(IFE) 지원 강화방안 발표
 - 가구 당 4명까지 인당 10만 페소 지원, 5명~10명까지 5만 페소(약 70 미불) 지원
- (전문가 전망) 전문가들은 금번 연금 조기 인출로 단기적으로 소비가 아닌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소비가 증가하여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향후의 소비증가는 내구재(자동차,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의 수입수요 증가를 초래하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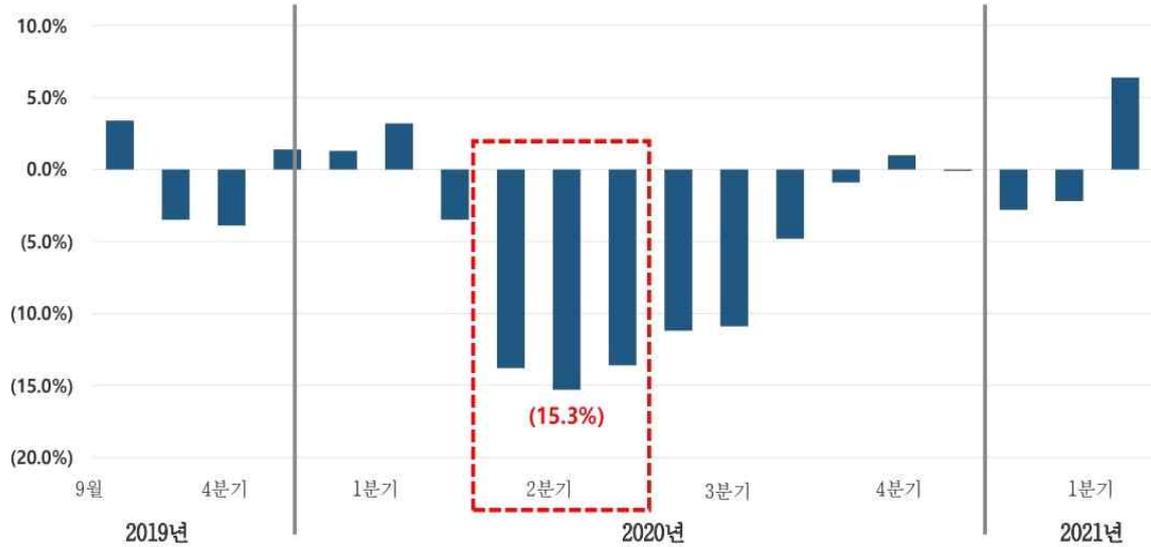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라. 칠레 경제·통상 주요 동향('19~'21.05)

1. 경제성장률

월별경제활동지수도 경제성장률과 같은 추세로 하락, '21년 1분기 말 부터 상승 중

2019년 4분기~2021년 1분기 월별경제활동지수(IMACEC)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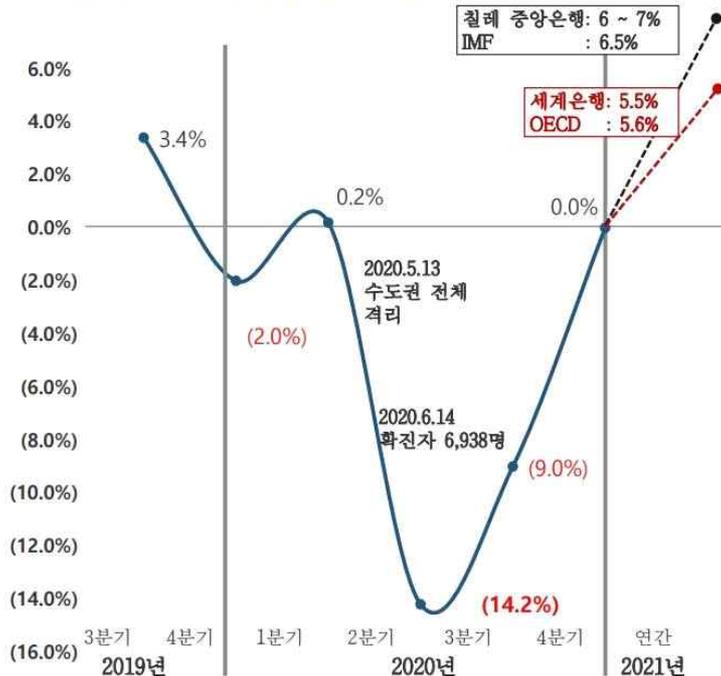


(출처: 칠레 중앙은행, 칠레 보건부, WB, IMF, OECD, 주칠레 한국대사관)

1. 경제성장률

2019년 4분기부터 2개의 큰 위기로 경제가 위축되었으나 2021년 부터 회복 전망

2019~2020년 GDP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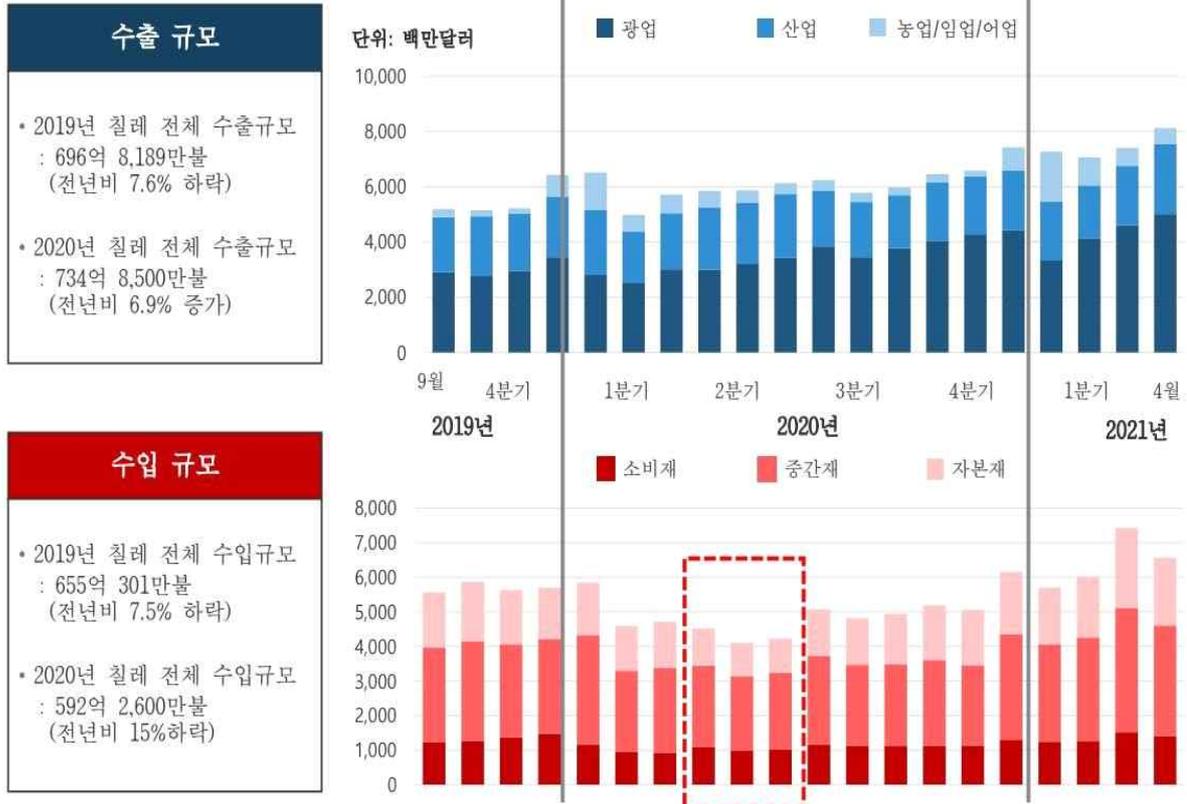
칠레 경제성장률

- 1982년 경제성장률: (13.6%)
- 2019년 경제성장률: 1.1%
 - 2019년 4/4분기 위축
- 2020년 경제성장률: (5.8%)
 - 사회위기, 보건위기
 - 2020년 2/4분기 가장 큰 위축
 - 2020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
- 2021년 평균 6% 성장 전망
 - 칠레 중앙은행: 6~7%
 - IMF: 6.5%
 - OECD: 5.6%
 - 세계은행: 5.5%

(출처: 칠레 중앙은행, 주칠레 한국대사관)

2. 수출입

'19년, '20년 절대적 교역 규모 하락하였으나 '20년 최고 무역흑자 기록, '21년 무역 상승 전망



자료출처: 칠레 중앙은행, 국제경제차관실(SUBREI)

3. 실업률/고용률

코로나로 인해 '20년 3분기 실업률 최고점 진입 이후 하락세

2019~2021년 실업률 (단위: %) 및 고용률(단위: 천 명)



•실업률

- 코로나 시작된 이래로 '20년 7월 최고점 (13.1%)
- '20년 8월 긴급 고용보조금 및 경기회복으로 하락세
- '21년 1분기 평균 10.4%

•고용률

- '20년 7월 44.4%
- '21년 1분기 평균 51.4%

자료출처: 칠레 중앙은행, 칠레 통계청(INE)

4. 구리/환율 동향

코로나 이후 전세계 경제회복으로 인한 구리 수요 증가, 그에 따른 칠레 페소 강세 예상

2019~2020년 구리가격(단위: \$/lb), 환율 변동(단위:CLP/US\$1)



자료출처: IMF, 칠레 구리위원회(Cochilco)

5. 전망 및 시사점

칠레 경제 2022년 말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2021-2022년 전망 및 시사점

- 대내 리스크 요인: 양극화 심화, 개헌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반정부 시위 재발 가능성
- 대외 리스크 요인: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변종 바이러스), 수출·재정수입·투자·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리 가격 변동성
- △ 백신 공급 및 접종자 수 확대, △ 민간소비 증가, △ 경기부양책 지속, △ 고용시장 회복, △ 공공 인프라 계획 등으로 칠레 경제는 향후 2년 간 점진적으로 회복하여, 2022년 말에는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출처: 칠레 중앙은행, 주칠레 한국대사관)

마. 2022년 1/4분기 칠레 주요 경제 동향('22.04.25.)

○ ‘Chile Apoya’ 경제 정책 발표

- 보리치 대통령은 지난 ‘22.4월 7일 보건·교육·경제·교통 등 주요 부처 간 협업하에 경제 소외 계층의 가계 부담 해소를 골자로 하는 총 37억 달러(US) 규모의 경제 회복 포용정책(Plan de Recuperacion Inclusiva) 발표(지원금 36%, 고용 37%, 중소기업 27%)
- (지원정책) △2022년 대중교통 요금 동결, △고등 교육 식비 지원 15% 확대, △아동 및 노인층 지원프로그램 강화,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봉쇄 시 긴급재난지원금(Ingreso Familiar de Emergencia, IFM) 지급, △휘발유, 석유 가격 상승 억제 등
- (고용정책) △일자리 50만 개 창출, △금년 최저 임금 월 40만 페소로 인상, △4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 △국가광물기업(ENAMI)을 통한 영세 광산 지원 등

○ 칠레 최근 수출입동향

<1/4분기 교역현황 비교표>

(단위: 백만 달러)

교역현황	2021년	2022년	증감률(%)	증감액
총 교역액	41,580	51,241	23	9,661
수출액(FOB)	22,145	25,478	15	3,333
수입액(CIF)	19,435	25,763	33	6,328
수입액(FOB)	18,000	23,076	28	5,076
무역수지	4,145	2,403	-	-1,743

- (주요 품목 수출) △구리(12,674), △철강(357), △은(85), △아보카도(140), △체리(1,471), △연어(1,583) 등 (단위: 백만 달러)
- (구리 가격) 파운드당 4.53 US\$로 집계(출처: SUBRED)

<1/4분기 주요 교역국 수출현황 비교표>

(단위: 백만 달러)

주요 교역국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체(%)
중국	8,551	9,727	13.8	39.2
미국	3,325	3,866	16.3	15.6
일본	1,641	2,142	30.5	8.6
유럽연합	1,611	1,729	9.2	7.1
한국	1,024	1,505	47	6.1

(출처: SUBREI)

<1/4분기 주요 교역국 수입현황 비교표>

(단위: 백만 달러)

주요 교역국	2021년	2022년	증감률(%)	전체(%)
중국	5,298	9,727	13.8	39.2
미국	3,254	4,015	23	16.7
일본	309	511	66	2.1
유럽연합	2,504	2,716	8	11.3
한국	332	438	32	1.8

(출처: SUBREI)

○ 경제성장률 전망

- ‘22.04.19.(화)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인해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조정, 칠레의 경우 당초 1.9%에서 1.5%로 하향 조정
- 특히 칠레가 2021년 1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 → 2022년에는 전 세계 및 중남미 평균 성장전망치(2.5%)에 못 미치는 1.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콜롬비아 5.8%, 아르헨티나 4%, 우르과이 3.9%, 페루 3%, 멕시코 2% 순)
- 한편 칠레 중앙은행 통화정책 보고서(IPoM)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등으로 금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1~2%대로 하향조정(2023년의 경우 0.5%로 전망)

○ 인플레이션

- 국제통화기금은 2022년 칠레 평균 인플레이션이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칠레 중앙은행은 8.2%로 예상
- 칠레 중앙은행은 2022년 중순까지 칠레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쇼크 및 폭발적인 내수 증가를 주원인으로 꼽는 동시에, 향후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3% 조정을 위해서는 재정 및 통화 정책 조율이 긴요하다고 발표
- 국가통계청(INE)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보고서(Indice de Precios al Consumidor, IPC)에 따르면 2022년 3월 물가상승률은 1.9%로 1993년 3월 2.6% 기록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작년 동기간 대비 9.4%로 13년만 최고치)

(출처: 칠레 중앙은행, 주칠레 한국대사관)

바. 칠레 22.5월 경제 동향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22.06.10.

○ 칠레 중앙은행 금리 인상 발표

- 칠레 중앙은행 위원회(Consejo de Banco Central)는 '22.6.7.(화)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상승 여파로 인해 칠레 기준금리(TPM, tasa de interes de politica monetaria)를 '22.5월 기준 8.25%에서 0.75% 상승한 9%로 인상한다고 발표
- 중앙은행(BC)의 상기 금리 인상은 20년 만에 최고치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식료품 등 전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중국 경제성장 약세 등 글로벌 금융상황 침체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

○ 칠레 통계청 '22.5월 물가상승률 발표

- 칠레 통계청(INE,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s)이 '22.6.8.(수) 발표한 '22.5월 소비자물가지수(IPC, indice de precios al consumidor)는 '22.4월 대비 1.2% 상승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의 경우 11.5%로 1993년 이래 최고치 기록
- 특히 2021년 5월 대비 △식품 및 무알콜음료 17.1%, △주거 9.6%, △교통 22.3%, △숙박 및 요식업 16.5%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국제기구의 칠레 경제전망

- (OECD) '22.6.8.(수)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칠레의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칠레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함(작년 말 보고서에서 3.5%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작년말 2% 전망)
△고인플레이션, △실질임금 하락, △비공식 일자리, △칠레 페소 평가절하, △긴축 금융 상황,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력 제한을 예상
- OECD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고용의 더딘 회복에 앞서 칠레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especifico y temporal)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3%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강화를 유지하되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속도를 두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
- (세계은행) '22.6.8.(수)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칠레 경제성장률은 1.7%로, 2021년 11.7% 성장한 것에 비해 칠레 경제가 금년 급격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역내 성장률 전망치는 △파나마 6.3%, △콜롬비아 5.4%, △아르헨티나 4.5%, △볼리비아 3.9%, △에콰도르 3.7%, △우루과이 3.3%, △페루 3.1%, △칠레 1.7%, △멕시코 1.7%, △브라질 1.5%, △파라과이 0.7% 순으로 전망
- 특히 세계은행 David Malpass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정부 봉쇄, △글로벌 공급망 충격, △스태그플레이션(estanflacion) 등이 칠레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성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estanflacion global) 가능성 경고

(출처: 칠레 중앙은행, 주칠레 한국대사관)

사. 칠레 '22.6월 경제 동향 (달러-칠레페소 환율 관련), '22.07.07.

- 최근 칠레 재정부의 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매도 착수에도 불구하고 달러-페소 환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칠레 페소화는 2022.6월의 경우 세계 통화 중 라오스 킵화 다음으로 통화가치 최대 하락률(10.26%)을 기록한 바, 페소화 가치 하락 요인에 대한 주요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구리 가격 하락) 칠레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구리 가격은 2022.6월 파운드당 US\$3.739로 13.22% 하락을 기록하면서, 2022년 상반기 구리 가격 하락률은 14.93%로 2015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 기록
 - 일반적인 구리-달러 관계는 구리 가격이 낮을수록 칠레 경제에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들고, 따라서 칠레 경제에 달러가 적을수록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 절하
- (미국 연준과 금리 간 차이) 2022.6월 페소-달러 환율 인상은 주로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들의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투자하는 포지션 청산에 대한 시장 반응으로 볼 수 있음
- (중앙은행과 투기) 칠레 중앙은행은 페소의 움직임을 특이한 이상 현상이 아닌 경제 펀더멘털과 연결하여 외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해 온 바, 일부 전문가들은 페소화 가치 하락폭이 현재 칠레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칠레 중앙은행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이용 가능한 도구라는 메시지로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외환딜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외환시장의 투기를 조장한 면이 있다고 함
- (대내 요인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게임의 규칙 변경 위험 때문에 말 그대로 칠레를 떠나고 있다면서 신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페소화에 불확실성이 반영되었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자금 이탈은 금변 환율 상승 이전에 많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달러 매입 요인이 칠레 신정부 추진의 개혁이라면 개연성이 있으나 신헌법안 관련 소식은 페소화 가치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반박

○ (기술적 문제) 달러 강세의 또 다른 이유로 지난 ‘22.6.17.(금) 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이 사상 최고치(CLP875)를 경신한 후, 환율의 곡선을 점칠 수 있는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지난 ‘22.6.23.(목) 달러당 CLP900 돌파, 7.7.(목) 현재 CLP970 기록
- 최근의 환율 움직임(페소화 가치의 지속 하락)은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CLP900) 및 2년 이상 버텨온 트리플탑 형성(후 하락세로의 추가 이동)과 같은 매우 중요한 수준의 기술적 붕괴에 대한 반응

(출처: 칠레 중앙은행, 주칠레 한국대사관)

아. 칠레 ‘22.7월 경제 동향 (동계 경제지원금 관련), ‘22.07.19.

보리치 대통령이 22.07.11.(월) 「Chile Apoya」 정책의 일환으로 동계 기간 동안 보조금 성격의 국민 경제지원금(Bono Chile Apoya de Invierno)을 발표한 바, 주 내용 및 최근 경제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국민 지원정책 내용 상세

○ 보리치 대통령은 ‘22.7.11.(월) 수도권 소재 Casona Dubois 문화 센터에서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재무부 장관, 니콜라스 그라우(Nicolas Grau) 경제부 장관 등 정부 각료와 함께 2022년 4월 발표한 Chile Apoya 정책의 일환으로 동 경제지원정책 발표

- 특히 비상지원금(Bono Extraordinario Chile Apoya)은 기존 정부 지원금(가계지원금, 장년층 대상 동계 보조금, 정신질환 지원금, 여성일자리 지원금 등)의 수혜자 그룹에 속하는 국민 750만 명을 대상으로 12만 페소(약 USD 118, ‘22.7.12.기준) 지급

- 이외에도 △동계 출산휴가(Permiso Postnatal Parental) 60일 연장(26만 명 대상), △고용보조금(Subsidio Laboral y IFE Laboral)을 4/4분기까지 연장(3만 3천 명 대상) 등

○ 한편,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2022년 3/4분기 칠레 정세가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2. 6월 물가 상승률은 작년 대비 12.5%를 기록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타격이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정책임(responsabilidad fiscal)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고, 의회에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

2. 최신 경제 동향

(가) 물가 상승

- 칠레 통계청이 '22.7.8.(금)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Indice de Precio al Consumidor, IPC)는 122.48(2018년 100기준)을 기록, 작년 동기간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12.5%로 199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주요 상승 품목은 작년 동기간 대비 △대중교통(24.4%), △외식 및 숙박비(18.5%), △식료품 및 무알콜(18.5%), △여가 및 문화생활(15.4%), △기본서비스(10.4) 순으로 집계
 - 상세 품목별로 작년 동기간 대비 △항공권(131.3%), △관광 패키지(78.5%), △토마토(36.6%), △휘발유(30.3%), △빵(27.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칠레의 6월 물가상승률은 12.5%로,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3개국에 속함(△브라질 11.9%, △파라과이 11.5%, △콜롬비아 9.7%, △우루과이 9.3%, △페루 8.8% 순)

(나) 환율 최고치 경신

- '22.7.11.(월) 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은 2022년 들어 USD당 150페소화 상승해 같은 날 CLP 997.9를 기록
 - 칠레 중앙은행은 이와 같은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환율이 USD당 1000 페소화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필요 시 달러 대비 페소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출처: 칠레 중앙은행, 주칠레 한국대사관)

가. 중남미 불평등 심화 관련 보고서(CEPAL, 2022), '22.02.09.

최근 주재국 주요 일간지 엘메르쿠리오(El mercurio)는 특집 기사를 통해 유엔(UN)산하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발간한 「2021 라틴아메리카 사회 파노라마」 보고서를 게재하고,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중남미 역내 극빈 인구가 8천 6백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보고한 바, 기사 요지 아래와 같음

1. 2021년 중남미 극빈층 27년 전 수준으로 퇴행

- '22.1.25.(화) ECLAC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극빈 인구(1일 생활비 1.9달러, 약 2,300원)가 1년 새 5백만 명 증가해 2020년 8천 1백만 명에서 2021년 8천 6백만 명을 기록하며 27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발표(2021년 기준 총인구 6억 6천여만 명)
- 2020~2021 간 극빈율은 13.1% → 13.8%로 증가, 빈곤율은 33% → 32.1%로 소폭 감소(칠레의 경우 빈곤율 14.2%, 극빈율 4.5%)
- 2020년 대비 2021년 빈곤층과 극빈층이 2020년 대비 모두 7%p 이상 증가한 나라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로 집계됐으며, 브라질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빈곤인구가 줄어든 국가로 빈곤율과 극빈율이 2020년 대비 각각 1.8%, 0.7% 감소

〈역내 빈곤 상황 추이〉

(단위: %)

구 분	1990	2010	2018	2019	2020	2021
빈곤률	51.2	31.6	29.8	30.5	33.0	32.1
극빈률	15.5	8.7	10.4	11.4	13.1	13.8

(출처:CEPAL(데이터은행 기반))

2. 팬데믹 아래 실업 -> 빈곤 및 불평등 심화 주 원인

- 2021년 극빈층 증가 주요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 소득 감소, △실업으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 △긴급소득지원금 감소, △더딘 경제회복 속도, △사회보장정책 투자 감소 등이 작용

- 특히 역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분기(1~10월)까지 총 897억 달러였으나, 2021년 동기간 453억 달러로 절반 정도 줄어든 영향으로 중남미 국가 절반 이상이 올해에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의 경제성장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팬데믹 이후 사회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여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양육 및 노인 간병을 위해 가정 내 무급노동에 전담하면서, 여성 인력 노동시장 참여율이 18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는 2019년 51.8% → 2020년 47.4% → 2021년 50%, 남성의 경우 2019년 75.5% → 2020년 70.8% → 2021년 73.5%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남성에 비해 느린 속도로 회복 중
-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불평등한 소득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원주민, 아동 불평등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

3. 백신 보급의 불평등 → 역대 보건 위기 심화

- 팬데믹은 국가별 백신수급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 보건 시스템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인구가 70%를 달성한 국가는 33개국으로 집계됐으며, 중남미에서는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총 4개국만 이에 해당
 - 특히 역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아이티는 백신 2차 접종 완료 인구가 40%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로 중남미 내 백신접종 불평등 또한 심각한 수준
-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까지 2차 백신접종 목표 인구를 전 세계 70%로 설정하고, 중남미 내에서 최소 4억 6천만 명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표
 - 동 기관은 보건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역대 백신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경제 및 사회 회복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나. 칠레 보리치 대통령의 취임 연설 요지('22.03.11.)

1. 국민의 정부로서 포용 정부 지향
 - (선거공약 이행) 선거운동 당시 제기된 노인 연금, 의료비, 청년 학자금 빚, 농업용수 부족, 여성과 아동보호, 구금·실종자 추적, 성적 다양성 보장, 주거 환경 개선, 원주민 보호 등 자신이 약속한 선거공약 반드시 완수
 - (국민 참여 정부) 공공교육 확대,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신장, 칠레의 민주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온 역사를 토대로 변화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 발휘

2. 노동환경 개선과 안정적 경제성장
 -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한 △농어민과 원주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 △주 노동 40시간 추진, △부의 공정한 재분배 도모, △구조적 불평등 없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추진, △중소기업의 가치 창출 지원, △노동착취 근절 및 품위 있는 노동 추구를 위한 노동 개혁 추진 등 국정 방향 제시

3. 인권 존중과 라틴아메리카로서의 정체성
 - 폭력과 전쟁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대외정책 원칙 추진
 - 글로벌 당면 과제로 부상한 기후변화, 이민(난민 수용), 경제적 세계화(신자유주의), 여성과 소수자 권리 보호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서 칠레의 정체성 확립 및 역내 협력과 연대 추진
 - 어떤 강국에게도 굴하지 않는 정치적 자주권, 칠레 북부 이민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권존중의 원칙 아래 주변국(페루, 볼리비아 등)과 협력 대응 등

4. 국정 핵심으로 보건과 교육 정책
 - △전 정부의 성공적 백신 전략은 그대로 승계할 것이며, △특히 코로나 19 극복 등 국민 보건을 위한 보건정책 지속 추진 △ 국민과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

5. 최근 확산되는 치안 불안 대응

- 사회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치안 불안 확산과 이에 대응하여 경찰개혁을 통한 수사 효율성 제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조직범죄, 마약범죄 근절 등 추진

6. 국민적 갈등 완화와 통합 지향

- 2019년 시위사태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시위자들에 대한 정부 고소 즉시 취하
- 칠레 남부의 원주민 갈등*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당사자 (정부와 원주민)간 폭력 사용 배제 및 원주민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주민 권리 보장 및 문제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추진

* 19세기 이래 칠레 군사정권이 압수한 원주민들의 땅과 권리 반환 요구

- 과거 독재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유신헌법)을 제정하는 역사적 과정에 있음을 강조하고 신헌법 제정과정에서 원주민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해 역사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 탄생하기를 기대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다. 칠레 보리치 대통령 첫 대국민 국정연설(22.06.10.)

‘22. 6. 1.(수) 오전 11:00 보리치 대통령은 칠레 의회에서 「대국민 국정연설(la cuenta publica)」을 개최하고, 취임 후 현재까지 추진된 사안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대국민 보고 진행함

○ 국정 연설 핵심 요지(주요 정책 방향)

- 보리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재 칠레가 직면한 도전과제 해결과 향후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강조하면서,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모두가 책임감을 공유해야 하며, 변화 과정에 있는 칠레가 기후변화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이점을 인정하는 자세와 정치권 및 국민 연대 촉구
- 보리치대통령은 △사회기본권(Derechs Sociales), △민주주의 발전 (Mejor Democracia), △포용 성장(Crecimiento Inclusivo), △정의 구현 및 사회안전보장 (Justiciay Seguridad), △환경(Medio Ambiente) 등 5가지 주 내용을 골자로, 불평등 해소,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입법안 추진을 강조

○ 제헌의회 신헌법 제정 관련

- 제헌의회 지지를 호소하기보다는 9월 치르게 될 국민투표에서의 찬·반 두 선택지 모두 합법적(legitimidad)이라고 강조하면서 신헌법 초안의 정당성을 밝힘
- 한편, △여성 인권 증진 및 역할 강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분쟁 관련 연대 촉구, △라틴아메리카를 근간으로 한 외교 정책 방향 등 취임 전부터 강조한 인권, 연대, 여성, 노동, 공정과 같은 사회기본권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 국정 방향에서 주요한 국정 목표 제시

(출처: 주칠레 한국대사관)

가. 칠레 그린 수소 시장 동향(21.1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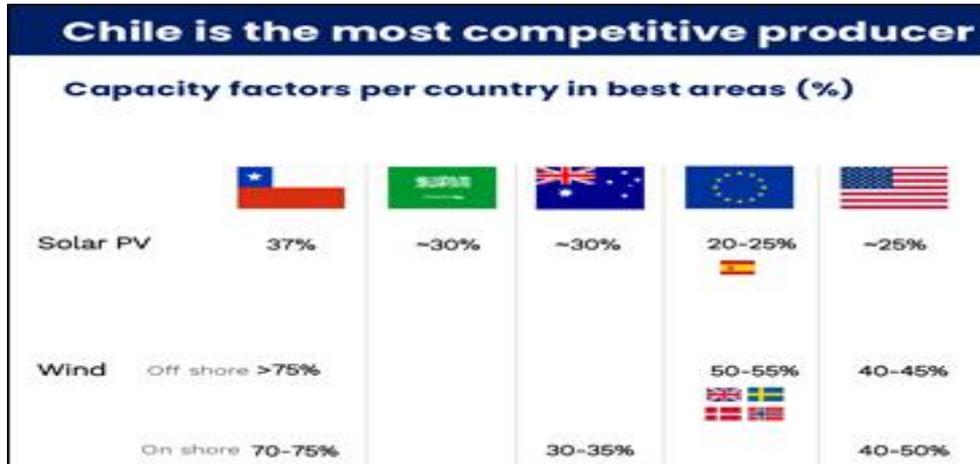
우리나라 정반대에 위치한 칠레는 그 영토가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남북으로 약 4,300km 길게 뻗어있는 만큼 북쪽의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부터 남부지역의 파타고니아 빙하 지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누리고 있다. 구리와 와인, 긴 영토로 우리에게 친숙한 칠레에서는 최근 그린수소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칠레 정부는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다.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2050년까지 재생발전 설치용량 기준 98%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청정연료인 그린수소를 생산 및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1. 칠레의 그린수소 전략

- 칠레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는 지난 2020년 11월 “그린수소 국가전략(National Green Hydrogen Strategy)”을 발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홍보
 - 에너지부 겸 광업부(Ministry of Mining) 장관인 Juan Carlos Jobet 장관은 2021년 11월 10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태평양 동맹 그린 경제 포럼에 참석하여 칠레 그린수소의 잠재력을 설명하는 한편, 한-칠레 저탄소 수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두기도 함
- 칠레 그린수소 전략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
 - 칠레 북부 사막지대의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Capacity Factor)이 37%에 달하고, 남부의 육상 풍력 발전의 설비 이용률은 70~75% 수준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타 국가(사우디, 호주, 미국 등)보다 높은 수치

<국가별 재생에너지 이용률(Capacity Factor) 비교>



-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음
 - 금년 시행된 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mmission, CNE) 에너지 옥션(경매) 입찰에 평균 전력 구매단가가 MWh당 23.78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7년에 시행된 이전 옥션 대비 27% 낮아진 수치
 - 또한, 2030년 이후에는 칠레 북부지역의 균등화발전원가(Levelized Cost of Energy, LCOE)가 MWh당 15달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
 - 에너지부는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수소의 균등화수소원가(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0.95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

<균등화발전원가(LCOE)(좌) 및 균등화수소원가(LCOH)(우)>



- 또한, 그린수소 국가전략의 주요 목표는 2025년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그린수소 사업 투자 유치, 수전해 설비 용량 5GW 설치, 연간 20만 톤 수소 생산, 2030년까지 25억 달러 규모 그린수소 수출

2. 칠레 정부의 수소사업 촉진을 위한 노력

- 칠레 정부는 수소 전략 수립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Action plan)의 일부로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진흥청(CORFO)이 5,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국유지를 수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제시

2.1 칠레 생산진흥청(Corfo) 자금지원 입찰 시행

- 칠레 생산진흥청과 에너지부는 지난 2021년 4월 21일 그린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소 사업자 모집에 대한 입찰 공고
 - 총 자금 지원 규모는 5천만 달러(프로젝트당 최대 3천만 달러). 입찰 참여 주요 조건으로는 최소 10MW 이상의 수전해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소 생산과 더불어 늦어도 2025년 12월까지 COD(상업운전일자)를 달성해야 함
 - 상기 입찰은 2021년 9월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칠레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소 주요 관계 기업(player)과 민간발전회사(IPP) 등 총 10개사(Air Liquide, CAP, ENEL, ENGIE, GNL Quintero 등)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평가 진행 중

2.2 국유지를 활용한 수소 사업 개발

- 수소 사업 공급망(Value Chain)내 최초 단계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해서 대규모 부지확보가 필수적
 -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이든, 수전해 용량에 따라 작게는 수천 헥타르에서 수만 헥타르가 필요. 칠레 남부지역은 풍력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 대규모 부지가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인 반면, 사막으로 이루어진 북부지역은 대부분 국유지이며, 칠레 국가자산부 (Ministry of National Assets)에서 관리(임대/매각)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 불하는 입찰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국가자산부가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부지 임대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자가 희망하는 부지가 있을 경우 국가자산부에 임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지는 사업자에게 직접 임대계약이 가능하지 않고 입찰 참여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

- 2021년 11월 23일 국가자산부 및 에너지부는 수소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입찰 없이 직접 임대계약(Direct concession)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의안(Resolution) 발표
- 임대 기간은 최대 40년이며, 최소 20MW 이상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요건. 한편,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를 별도로 신청 가능하나, 본 수소 사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용 부지여야 함
- 국가자산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임대계약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3. 칠레 그린수소 프로젝트 현황

- 칠레 내에서는 다양한 그린수소 관련 사업들이 민간 발전회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단계(실증사업) 및 2단계(상업화 사업)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 최근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칠레 내 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현재 착공까지 연결된 사업은 Haru Oni 1단계 사업이 유일하며, 그 외에도 그린수소 수출을 위한 프로젝트, 광산업계에서 수소를 트럭 연료로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 사업 검토 중

<칠레 그린수소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 명	참여사	사업내용	투자비(US\$)	준공 목표일
1	Haru Oni	ENAP, ENEL, Siemens, Porche, Gasco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131m³/년 eGasoline 생산 (총력 3.4MW) ○ 2단계: 70,000m³/년 eGasoline (총력 300MW) 	1단계: US\$ 5100만 2단계: US\$ 75,500만	1단계: 2022년 2단계: 2024년
2	HNH Energy	Austria Energy, Okowind	○ 그린 암모니아 85만톤/년, 그린수소 15만톤/년 생산(총력 1,800MW)	US\$ 30억	2026년
3	AES Ammonia	AES Andes	○ 수출 및 선박 연료용 그린 암모니아 25만톤/년, 그린수소 5만톤/년 생산 (재생에너지 800MW)	US\$ 15억	2025년
4	HyEx	Engie, Ena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그린 암모니아 1.8만톤/년 (태양광 36MW) ○ 2단계: 그린 암모니아 70만톤/년 (재생에너지 2,800MW) 	US\$ 20억	1단계: 2025년 2단계: 2030년
5	ACH-MRP	Aker, Mainstream	○ 그린 암모니아 1백만톤/년, 그린수소 18만톤/년 생산 (재생에너지 3,000MW)	US\$ 50억	2027년

4. 시사점

-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기 전 칠레의 그린수소 관련 정책이 구체화가 필요하며, 그린수소 보조금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국유지의 직접계약과 유사한 추가적인 제도 지원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함
- 또한, 칠레의 산업 수준으로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요처 확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현재 다수의 개발 중인 프로젝트들은 수출용 그린 암모니아 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착공이 된 Haru Oni 1단계 프로젝트(Haru Oni PJT) 역시 친환경 가솔린(eGasoline)을 생산하여 독일의 Porsche사가 수입을 하는 것이 사업 구도임
-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업화 규모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수요처를 칠레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고, 경쟁적인 단가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천혜의 자연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이 수소생산을 위해 칠레에 진출할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

(출처 : 에너지부 “National Green Hydrogen Strategy”, 에너지부 “Chile’s Green Hydrogen Strateg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국가자산부 “Resolution No. 595810”, 잡지 “La revista Energética de Chile”,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코리아)

나. 칠레 태양광발전 시장 현황(20.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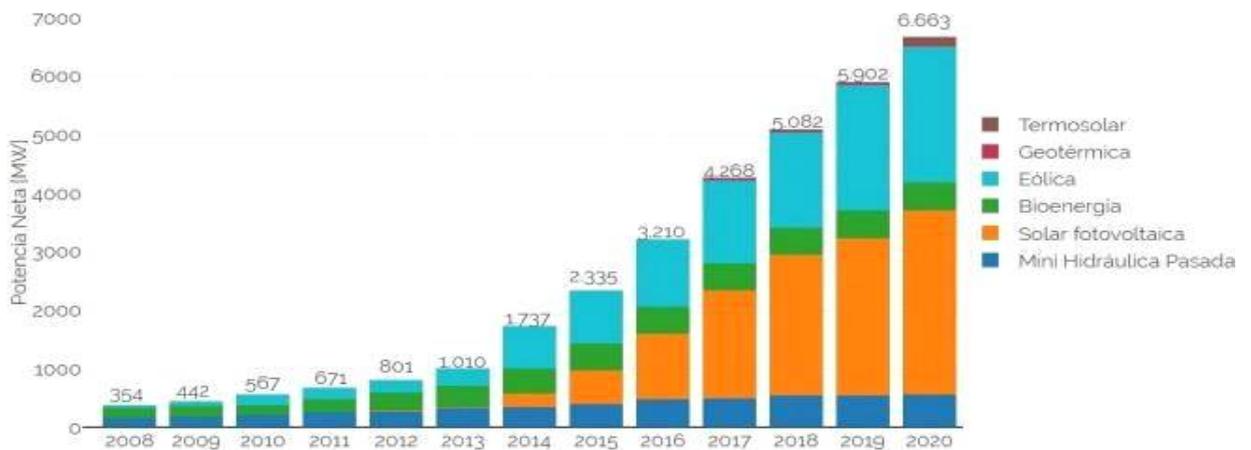
칠레는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로 남미 대륙 안데스산맥 서쪽 태평양 연안을 따라 4,300km의 해안선이 있으며, 북부의 사막지대로부터 남극에 이르는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1인당 GDP는 15,000달러이고, 남미 최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로 가장 개방되고 견실한 정치경제를 발전시켜오고 있어 남미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

1. 칠레의 자연환경과 전력시장

- 칠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에너지를 보유한 북부의 Atacama 사막, 남부의 Patagonia 지역과 Andes 산맥 등의 풍력 자원과 130개가 넘는 화산 및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매우 높음
- 칠레 북부 및 중부는 연중 건조한 기후와 높은 일사량 등 태양광 발전에 있어 최고의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일사량이 $1,000\text{W}/\text{m}^2$ 을 넘는 시기가 10월부터 2월까지이고 평균 일조시간이 5~7시간으로 한국보다 2배나 많음
 - 뿐만 아니라, 칠레 북부 Atacama 사막 지역은 연중 구름 한 점 없는 기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분류됨.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천문대의 절반이 칠레에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칠레는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광물 자원에 의존할 만큼 구리, 리튬 등 일부 광물의 매장량 및 생산량이 세계 1위이나 화력발전과 교통부문에 필요한 원유, 석탄, 천연가스의 부존량이 매우 적어 이를 비싼 가격에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칠레로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 되고 있음
- 칠레는 세계 최초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한 나라로 전력산업을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리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전력시장에 진입 및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 전력산업이 국유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칠레는 민간이 전력 설비를 소유하며 건설 운영하고, 정부는 전력시장이 원활히 굴러가도록 규제와 시장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 없이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
-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의 모델이 칠레로 알려져 있음
 - 칠레의 전력 거래는 발전사업자가 대형 에너지 소비자나 배전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방식과 9MW 이하의 PMGD(Pequeños Medios de Generación Distribuidos,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SPOT(현물) 가격과 SNP(Stabilized Node Price, 안정화 가격) 중에서 선택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있음

- 이 중에서 SNP는 CNE(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칠레 전기위원회)에서 매년 2차례 고시되며 PPA보다 높고 안정된 가격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발전회사의 위험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칠레 전력거래소(CEN)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발전설비 용량은 25,212MW로 화력 51%(12,906MW), 수력 27%(6,827MW), 태양광 11%(2,799MW), 풍력 9%(2,162MW), 기타 2%(519MW)
- 2019년말 기준 총 발전량 77,396GWh의 56%(43,034GWh)를 화력이 차지하여 가장 높고 수력이 27%(20,830GWh), 태양광 8%(6,381GWh), 풍력 6%(4,818GWh), 기타 3%(2,333GWh) 순
-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19년 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9.4GWh로 태양광 42%(8.1GWh), 풍력 32%(6.2GWh), 소수력 14%(2.7GWh), 바이오매스 12% (2.4GWh) 등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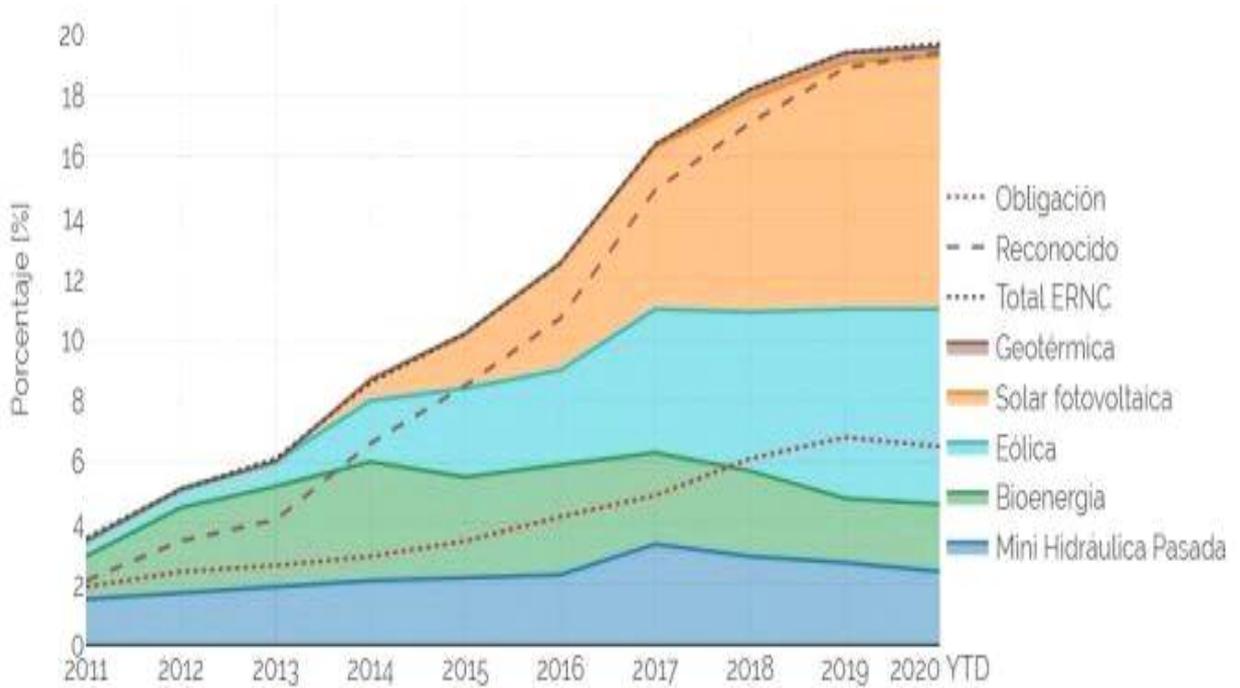
<칠레 ENRC 운영발전소 설치용량>



(출처 : 칠레 재생에너지협회(ACERA)(2020.08.))

주)Termosolar(태양열), Geotermica(지열),Eolica(풍력),Bioenergía(바이오에너지)
Solar fotovoltaica(태양광발전),Mini Hidraulica Pasada(소수력발전)

〈칠레 ENRC 발전원별 발전량〉



(출처: 칠레 재생에너지협회(ACERA)(2020.08.))

2. 칠레 정부와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 2008년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ENRC(Energías Renovables No Convencionales, 비전통적인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0MW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2024년까지 연간 전력생산량의 10%를 자체 생산 또는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 벌금도 부과
- 이에 더하여 재생에너지 의무목표를 2025년까지 20%로 높이는 20/25법을 2013년에 통과시킴. 또한, 2014년에 발효된 Net Billing 법은 신재생에너지 소형(주택용) 발전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며, 가정에서 사용한 후 남은 전력을 배전사에 판매할 수 있음
- 2016년 칠레 정부는 에너지 2050 계획을 통해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50년까지 70%로 확대 계획 발표. 2019.06 피네라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탈탄소 계획(Plan de Descarbonización)” 을 발표
 - 이 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칠레의 28개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되며, 부족한 전력 생산은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됨

- 2019년 12월에 Jobet 에너지부 장관은 스페인에서 열린 COP25(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24년까지 700MW의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가 에너지 탈 탄소화 계획 발표
 - 또한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10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70%로 늘리겠다고 발표
 - 같은 달 칠레 정부는 탈 탄소화계획의 첫 단계로 Engie, AES Gener의 석탄발전소 4기의 폐쇄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칠레 정부와 주요 발전사인 AES Gener, Colbun, Enel, Engie가 석탄발전소의 점진적인 폐쇄와 개발을 중단하기로 합의
- 2020년 7월 칠레 발전회사인 Enel은 석탄발전소 2기(Bocamina #1. 128MW, 2010년~, Bocamina #2. 350MW, 2012년~)의 조기 폐쇄(#1. 2020.12, #2. 2022.05.)가 CNE로부터 승인되었다고 발표
 - 당초 칠레 정부의 탈 탄소화 계획에 따라 1호기는 2023년, 2호기는 2040년에 폐쇄할 예정이었음. 같은 달 칠레 2위의 광산기업 Collahuasi는 Sonnedix와 광산 소비동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기 위한 계약 체결
 - 2020년 8월에는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가 석탄발전소인 Angamos(545MW, 2018년~)를 폐쇄하고, 칠레 광산기업 Spencer(~2026년) 및 Escondida(~2029년)와 맺은 PPA를 2021년 8월에 종결하기 위한 PPA 조기 종료 계약 체결
- 최근 기술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 관련 인식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사회환경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
-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의미하며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2014년 뉴욕기후주간(NYC Climate Week)에서 최초로 발족됨) 참여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직접 체결하는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체결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구조>



(출처: RE-Source(2020), “Introduction to Corporate Sourcing of Renewable Electricity in Europe”)

- 칠레 CEN(Coordinador Eléctrico Nacional, 칠레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총 332,935MW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며, 4,522MW 규모가 정부로부터 건설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2,185MW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 칠레는 기술력 부족과 자금조달 등으로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과 미국계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최근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칠레 태양광발전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음

<칠레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투자비 자료>

발전원	투자비(US\$/kW)	변동비(US\$/MWh)	고정비 O&M(%)	건설기간(Yr)
태양광(PV)	970	-	1~2	1
태양열(집열식)	6,055	-	1~2	4
풍력	1,361	-	3~4	2
소수력 (20MW↓)	3,565	1.3	1	3
바이오 매스	3,100	5.6	3~4	3
바이오 가스	3,500	9.3	3~3	3
지열	5,870	-	4~5	4

(자료: CNE, Resolucion Extena N° 207 (2019.03))

3. 태양광 분야 우리 기업 진출사례

- 한화큐셀은 수도 Santiago 인근에 2.8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16년에 완공하여 운영 중
- 남부발전과 S-energy는 Santiago와 북부 Atacama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5기(총 38MW급)를 2020년에 완공하여 운영 중
- 또한, 남동발전과 한화큐셀은 10기(총 49MW급)의 태양광발전소 중 7기를 Santiago 인근에서 운영 중이고 북부 Antofagasta 지역에서 3기의 건설을 2020년 11월까지 마치고, 7기(총 70MW급) 규모의 칠레 태양광 2단계 건설을 2020년 말에 시작할 예정
- 동서발전과 대림산업도 4기의 태양광발전소를 Santiago 인근에서 건설·운영 중
-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말에 S-energy 및 한양전공과 2기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예정
- 한편 남동발전은 2019년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안에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배출권) 발행 예정
- 한국 기업이 진출한 칠레 태양광사업은 모두 PMGD(Pequeños Medios de Generación Distribuidos,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해당
 - 칠레 정부의 MGD 법에 따라 9MWac 이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PPA나 Spot 가격보다 높은 단가(안정화 가격)를 일정기간 보장

4. 칠레 태양광 투자환경 SWOT 분석 및 전망

- 칠레 태양광발전 시장은 칠레 정부의 적극적인 탈탄소 에너지 정책,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우수한 기후여건 및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추세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 예상
- 그러나 칠레는 스페인어권 국가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경험 인력이 부족하고 중요 문서의 공증이 필요하며 남미 특유의 느긋함이 어울려 인허가 등이 한국보다 더딤
- 변전소 용량부족 등 송배전 인프라 부족으로 발전 사업권 확보가 어렵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발전사업 개시 및 전력 판매 지연

- 또한 부족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모듈, 인버터, 트래커 등 대부분의 태양광발전 기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기자재 적기 조달이 중요
- 한편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인 칠레 시장 진출에 따른 태양광발전 사업권 확보 경쟁 및 중국산 저가 모듈의 물량 공세에 따른 EPC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

〈칠레 태양광 투자환경 SWOT 분석〉

강점 [S]	약점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경제 ○ 세계 최고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자원부국 ○ 개방경제 및 자유무역 기조 유지 ○ 구리, 리튬 등 세계 1위 생산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 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와 취약한 제조업 기반 ○ 경직된 업무관행과 느긋한 남미문화 ○ 스페인권 국가로 영어로 소통 곤란, 태양광 경험인력 확보 어려움
기회 [O]	위협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탈탄소화 계획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장려정책 적극 추진 ○ 기업의 환경적 책임 강조로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석유,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 매우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인허가 지연 및 세계경제 침체로 원자재 수출 감소 ○ 중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칠레 태양광 시장 진출

-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진출한 PMGD 태양광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따른 대규모 PPA 및 자가용 Net Billing 참여, 경쟁력 있는 태양광 기자재 업체의 칠레 태양광 기자재 시장 등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필연적인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과 통합된 태양광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칠레는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일 것

(참고자료: KOTRA “국가정보 (칠레)”, 한국전력거래소 “2017년 해외 전력산업 동향 (칠레)”, KOTRA(2019), “칠레 에너지시장 및 태양광 모듈 시장현황”, 중남미자원·인프라·신산업협력센터(2019),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칠레 정부의 노력”, 산업은행(2020),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동향”, 칠레 CEN, “2020 Power Generation and Capacity”, 칠레 CEN, “Historical Generation by Technology”, 칠레 ACERA, “ACERA Newsletter August 2020”)

(출처 : 이선웅 법인장(남동발전 칠레법인) 코트라 기고문)

다. 칠레 건설 인프라 시장 트렌드('20.07.06.)

칠레의 건설 인프라 시장 가치는 약 170억 달러로, GDP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의 건설 인프라 시장은 그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켜왔지만, 2019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연이은 시위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1년부터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며 시장 또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1. 건설 인프라 시장동향

- 칠레의 건설 인프라 시장은 칠레의 비교적 안정된 경제환경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건설 인프라 시장의 가치는 2019년 기준 약 170억 달러(USD 1 = CLP 800 기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GDP의 약 6.9% 수준으로 나타남
- 칠레는 현재 다양한 방면의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최근 칠레 정부는 칠레 철도공사(EFE)의 19억 달러 규모의 2020~22 투자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산티아고 지하철 개선공사 진행 중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최근 Total Eren (TS3)사는 2억 달러 규모의 Santa Isabel II 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보고를 완료한 바 있음
-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다방면의 프로젝트 추진 예정.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전망은 좋지 않음

2.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프로젝트 중단

- 칠레의 인프라 건설시장은 그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켜왔지만,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임. Fitch Solutions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칠레의 인프라 건설시장의 실질 가치는 전년대비 -4.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칠레의 경우 인근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 전체 이동금지령을 명령한 바는 없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지역에 한해 이동금지령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건설 현장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 이로 인해 Americo Vespucio Oriente I 도로 터널 프로젝트와 같이 산티아고 수도권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은 바 있음

<Americo Vespucio Oriente 터널 공사 조감도>



(출처 : concesiones.cl)

- o 정부의 이동금지령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거나 감축된 인력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로 Antofagasta Minerals의 Los Pelambres 광산 확장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음
 - Los Pelambres 광산 프로젝트(INCO)는 연간 생산용량을 6만 톤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13억 달러 규모의 구리 광산 확장 프로젝트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4월 초 120일간 일시 중단됐으며 관련 계약들도 동 기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된 바 있음

<Los Pelambres 광산 현장>



(출처 : Antofagasta PLC)

- 또한, 칠레 투자청 Invest Chile에서 2020년 6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칠레 내에서 중단된 광산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약 180억 달러에 달하며, 위에서 언급된 Antofagasta Minerals의 프로젝트 외의 주요 프로젝트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칠레 광산 프로젝트 운영현황 〉

프로젝트명	현 황
Quebrada Blanca 2차 (Phase II) (Teck)	2020.6월 기준 Quebrada Blanca 광산 프로젝트는 약 두 달간 중단 상태이며, 아직은 프로젝트를 재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약 50억 달러 규모로 중단 전 29% 정도 완료된 상태였음.
El Teniente (CODELCO) (New mine level)	El Teniente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나 평소 수준의 50% 인력으로 운영 중임. El Teniente 프로젝트는 3월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난 사태 선포 당시 완전히 중단을 하지 않은 유일한 프로젝트로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44억 달러 수준임.
Spence (BHP) 광산 확장	Spence 프로젝트는 현재 91% 완성되었으며 현재 감축된 인력으로 건설 진행 중. 인력 감축으로 인해 담수화 플랜트 건설 시작이 2021년 상반기(회계연도 기준)로 미뤄질 것으로 보임.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25억 4,600만 달러 수준임.
Chiquicamata 지하 광산 (CODELCO)	Chiquicamata 광산 프로젝트는 현재 96% 완성 단계로, 5월 첫째 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코로나19 전의 50% 수준으로 회복함.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55억 달러 수준임.

(출처: Invest Chile)

3. 주택 건설 수요도 감소

- 칠레는 2019년 4분기 연이은 시위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거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아울러, 2020년 10월에는 개헌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투자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 수요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판매업자 N씨는 “작년과 올해 주택문의와 판매량이 급감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 고 밝히며 “확실히 예전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 같다” 고 언급

- Fitch Solutions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 간 광역 산티아고(Greater Santiago) 지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6년 이후 4개월 간 가장 큰 감소폭으로 기록 - 아울러, 2020년 3월의 신규 주택판매량은 전년대비 55.1% 하락한 바 있어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

4. 2021년부터는 인프라 건설시장 회복 예상

- 2021년엔 칠레의 인프라 건설시장은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 2021년에 주요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해소되고 투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인프라 건설시장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인프라 건설 시장의 성장세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는 1.8%, 2023년에는 3.3%, 2024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칠레 공공사업부 MOP 홈페이지에서 입찰 예정인 프로젝트 확인 가능
 - 칠레 건설 인프라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칠레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의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
 - 칠레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소관 부처가 상이하긴 하지만, 공공사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부분의 도로, 공항 및 일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음

<칠레 공공사업부 홈페이지 내 프로젝트 리스트>

년 도	프로젝트명
2019년	Concesión Red Aeroportuaria Austral (공항) Concesión Red Maule (병원) Segunda Concesión Ruta 5 Tramo Talca – Chillán (도로) Tercera Concesión Aeropuerto La Florida de La Serena (공항)
2020년	Concesión Hospital de Buin-Paine (병원) Concesión Paraderos Digitales (도시 인프라) Tercera Concesión Acceso Vial AMB (도로) Concesión Red Red Bío Bío (병원) Concesión Hospital Coquimbo (병원) Concesión Vial Ruta Longitudinal Chiloé-Ruta 5 (도로) Segunda Concesión Autopista Santiago – San Antonio, Ruta 78 (도로) Concesión Red Valdivia (병원) Concesión Hospital de La Serena (병원) Concesión Ruta 5 Tramo Caldera – Antofagasta (도로) Segunda Concesión Aeropuerto Región de la Araucanía (공항)

년 도	프로젝트명
2021년	<p>Concesión Instituto Nacional del Cáncer (병원/의료) Concesión Red O'Higgins (병원) Segunda Concesión Corredores de Transporte Público - Grupo 1 y Grupo 2 (교통) Concesión Proyecto Orbital Sur Santiago (도로) Concesión Sistema Alerta de Tsunami (도시 인프라) Concesión Hospital Metropolitano Norte (병원) Segunda Concesión Ruta 5: Tramo Temuco – Río Bueno y Accesos a Valdivia (도로) Segunda Concesión Ruta 5: Tramo Chillan – Collipulli (도로) Concesión Teleférico Alto Hospicio – Iquique (도시 인프라) Tercera Concesión Aeropuerto El Loa de Calama (공항) Segunda Concesión Aeropuerto Regional de Atacama (공항) Concesión Instituto Nacional de Neurocirugía (병원/의료) Segunda Concesión Interconexión Vial Santiago-Valparaíso-Viña del Mar, Ruta 68 (도로) Concesión Ruta Pie de Monte (도로)</p>
2022년	<p>Concesión Embalse Zapallar (저수지) Concesión Rutas del Villarrica (도로) Concesión Ruta 5: Tramo Iquique – Antofagasta (도로) Segunda Concesión Ruta 5: Vallenar – Caldera (도로) Concesión Red aeroportuaria: Tepual (5a), Cañal Bajo y Mocopulli (공항) Concesión Centro Cívico de la Región de Los Ríos (도시 인프라) Segunda Concesión Acceso Norte a Concepción (도로) Segunda Concesión Ruta 5 Santiago – Los Vilos (도로) Concesión Sistema de Transporte Público Eléctrico Ligero Interconexión Metro – Pudahuel - Aeropuerto AMB (교통) Concesión Tranvía Viña del Mar – Reñaca (도로) Concesión Interconexión Vial Copiulemu - Hualqui - Puerto Coronel (도로)</p>
2023년	<p>Concesión Autopista Costanera Central, Tramo Vespucio – Las Vizcachas (도로) Concesión Vial Autopista Metropolitana de Puerto Montt (도로) Segunda Concesión Ruta 57 Santiago - Colina - Los Andes (도로) Segunda Concesión Estadio Techado Parque O'Higgins (도로) Concesión Embalse Catemu (저수지) Concesión Teleférico Valparaíso (도시 인프라) Concesión Vial Ruta Fronteriza Entrelagos (도로) Mejoramiento de Conectividad Coquimbo-La Serena vía transporte público (교통) Segunda Concesión Ruta 5 Tramo Collipulli – Temuco (도로)</p>

(출처: 칠레공공사업부MOP)

(http://www.concesiones.cl/proyectos/Paginas/AgendaConcesiones2018_2022.aspx)

5. 시사점

- 칠레의 경우 중남미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은 작지만 비교적 안정된 경제와 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2021년에 주요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해소되고 투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인프라 건설시장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칠레 건설 인프라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칠레 공공사업부 MOP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진출이 부담스럽다면 현지에서 공동 파트너를 찾는 방법 또한 추천함

(자료원: 칠레 공공사업부 (MOP), 칠레 투자청 (Invest Chile), Fitch Solutions, 칠레 내 주요 일간지 (El Mercurio, La Tercera),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라.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 동향('19.06.12.)

- 칠레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2%대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182억 달러를 기록. BMI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총 3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칠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 MOP)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분야는 용수, 공항, 건축, 댐, 도로 및 교통, 항만으로 분류되어 있음
-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양허계약(Concession)에 의한 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로 진행. 공공사업부 외에도 지역정부(Municipalidad), 교육부(Departamento de Educación), 교통통신부 (Ministerio de Transportes y Telecomunicacinoes), 지역 보건청(Servicio de Salud) 등도 프로젝트를 발주

1. 칠레 인프라 건설시장 현황

- 지난 4년간 칠레 인프라 사업은 도로·교통 시설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앞으로의 8년 동안은 도로 및 교통, 용수, 의료 분야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

- 도로·교통 분야는 도시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도로의 개·보수와 신규 도로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용수 분야는 칠레 북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 담수화 및 정화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의료 분야는 기존 프로젝트의 진행과 더불어 신규 병원 및 응급실 건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앞으로도 칠레 의료 분야의 투자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분야는 칠레북부의 아타카마(Atacama)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 남부의 비오비오(Biobio)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장 건설과 송전, 배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19년 칠레 정부의 공공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0.5% 상승한 36억 9,883만달러이며, 공공사업부(MOP) 예정 사업규모는 34억 4,400만 달러
 -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관리와 입찰 관리를 위해 각각 17억 3972만 달러(47%)와 9억 4279만 달러(25%)가 편성되었다. 이 외에도 공공산업 기획(7%), 상수도(6%), 농촌 식수공급(5%), 항만공사(3%), 공항관리(2%)에 예산 편성

2. 현 정부의 주요 인프라 정책

- 칠레 인프라 시장은 안정된 경제구조와 투명한 정부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환경 제공. 前 피네라 정부는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해 공공사업부 산하 공공사업 양허 총무국(Dirección General De Concesiones de Obras Públicas, 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 Concessions, 공공사업부 양허 총무국 이하 DGCOP)를 신설
 - DGCOP는 공공입찰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 신설
 - DGCOP 홈페이지(www.concesiones.cl)를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공공입찰 계획과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칠레 정부는 DGCOP 설립을 통해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압력을 줄이고, 국가발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입찰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취소, 중복입찰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피네라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시설 펀드(Fondo de Infraestructura S.A.)’ 를 설립
 - 이 펀드는 Fondo de Infraestructura S.A에 의해 운영되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립. 이를 통해 칠레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의 재정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분야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1)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 칠레 정부는 산티아고 지하철 2, 3, 4호선 연장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신규 지하철 7호선(Renca부터 Vitacura까지), 8호선(Av Macul부터 La Florida Oriente까지), 9호선(Av Santa Rosa부터 La Pintana까지) 건설을 202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
- 이 외에도 산티아고와 외곽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산티아고-메이피야(Santiago-Melipilla) 철도 건설, 산티아고- 바투고(Santiago- Batuco) 철도건설,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Tren Valparaíso Santiago, 이하 TVS) 건설 진행 예정
 -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의 경우, 이전 정부에 의해 CREC(China Railway Group Limited, Sigdo Koppers, Latinoamérica Infraestructura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가 프로젝트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피네라 신정부는 국가 입찰법에 따라 올해 중으로 국제 입찰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변경
 - 이로 인해 TVS의 예상 투자 규모가 16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크게 증가
- 2019년에 예정 되어있는 입찰은 Transantiago(수도권 교통사업부)의 신규 버스 입찰이 있으며, 2023년까지 주요 도시의 전동차와 케이블카 신설을 위한 입찰 예정

(2) 도로건설 프로젝트

- 칠레 북부 아리카(Arica)부터 남부 칠로에(Chiloe)까지 연결하는 3,364km 길이의 5번 국도(Ruta 5)의 기존 양허계약이 구간별로 2020~2024년 사이에 종료 예정
 - 이에 따라 각 구간별 보수 및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입찰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 또한 각 지방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입찰과 장벽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하에 실시되는 고속도로 입찰이 68번, 78번, 5번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 장벽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설치하여 산티아고와 연결된 외곽도로의 도로정체와 사고를 줄이고 도시 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

(3)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공항 및 항만 증축 프로젝트

- 칠레 내의 유동인구 증가로 공항 증축공사가 산티아고 국제공항 외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아타카마(Atacama), 라세레나(La Serena) 등 다섯 개의 공항의 양허계약이 종료될 예정에 있어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
- 인근국과의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칠레 항구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티아고에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 안토니오(San Antonio)의 ‘대형 항구(Puerto de Gran Escala)’ 건설 입찰이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음

(4) 에너지 프로젝트

-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은 국가 에너지위원회(Comision National de Energiam, CNE)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에서 선정된 기업이 양허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에너지 생산, 송전 및 배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음

(5) 의료 및 공공시설 건축 프로젝트

- 칠레 정부는 노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2018년 2억 8,600만 달러를 투자해 안토파가스타 병원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Felix Bulnes 병원과 Salvador Geriatrico 병원 건설 진행
- 2019년 예정된 입찰은 마우레(Maule)와 비오비오(Biobio) 지역의 신규 국립 병원 건설과 로스 리오스(Los Rios)의 국립병원 건설(2020년 예정 사업이었으나 앞당겨짐)이 있음. 의료 시설 외에도 로스 리오스(Los Rios) 지역의 주민센터 설립과 수로,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입찰 계획이 있음

(6) 칠레 프로젝트 시장의 진출기업 현황

- 칠레의 안정적인 경제구조와 정책은 여러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 칠레 공공 인프라 산업의 90% 가량이 외국계 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도로 분야에서는 ACS(스페인), Skanska(스웨덴), Sacyr(스페인), Abertis(스페인)와 같은 유럽계 인프라 건설 회사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2000년도 초반 재정위기에 몰린 유럽 인프라 회사들이 자산 매각을 시작하면서 AIMCo와 같은 국제투자회사와 ISA, Belfi와 같은 칠레 현지 회사의 시장 참여가 늘어남
- EPC 건설 분야는 Hochtief(독일), Bechtel(미국), Fluor(미국), Vinci(프랑스), SNC-Lavalin(캐나다)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주요현지 기업으로는 Besalco, Constructora Fe Grande, Constructora Nortesur 등이 있음
 -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칠레 시장에 진출을 시작했으며 현재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가 진출해 있음
- 에너지 분야 주요 기업은 ‘발전, 송전, 배전’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음
 - 발전 분야에는 Endesa(스페인), AES gener(미국), Colbun(칠레) 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칠레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70% 공급
 - 송전 분야에는 Transelec(칠레)가 대표적이며, 국가 전체 에너지 송전에 58% 담당
 - 배전 분야에는 CGE Distribucion(칠레), Chilectra(Enel, 칠레), Chilquinta(칠레)가 대표적

(출처 : 코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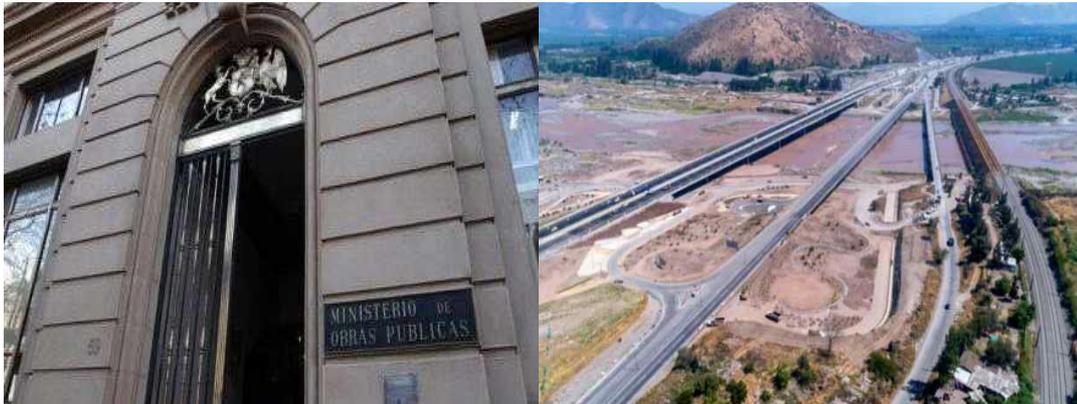
마.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현황(19.05.07.)

□ 칠레 인프라 건설시장 현황

- 칠레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2%대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182억 달러를 기록
 - BMI자료에 따르면, 2027년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총 3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칠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 MOP)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분야는 용수, 공항, 건축, 댐, 도로 및 교통, 항만으로 분류되어 있음

- 공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양허계약(Concession)에 의한 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공공사업부 외에도 지역 정부(Municipalidad), 교육부(Departamento de Educación), 교통통신부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Telecomunicacinoes), 지역 보건청 (Servicio de Salud) 등도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있음

〈칠레 공공사업부 건물(좌)과 도로 개발 전경(우)〉



(출처: fortinmapocho.cl, 칠레 공공사업부)

- 지난 4년간 칠레 인프라 사업은 도로·교통 시설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앞으로의 8년 동안은 도로 및 교통, 용수, 의료 분야의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
 - (도로·교통) 도시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도로의 개·보수와 신규 도로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용수) 칠레 북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 담수화 및 정화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의료) 기존 프로젝트의 진행과 더불어 신규 병원 및 응급실 건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앞으로도 칠레 의료 분야의 투자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Atacama)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 남부의 비오비오(Biobio)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장 건설과 송전, 배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공공 사업분야별 예상 투자액〉

(단위: USD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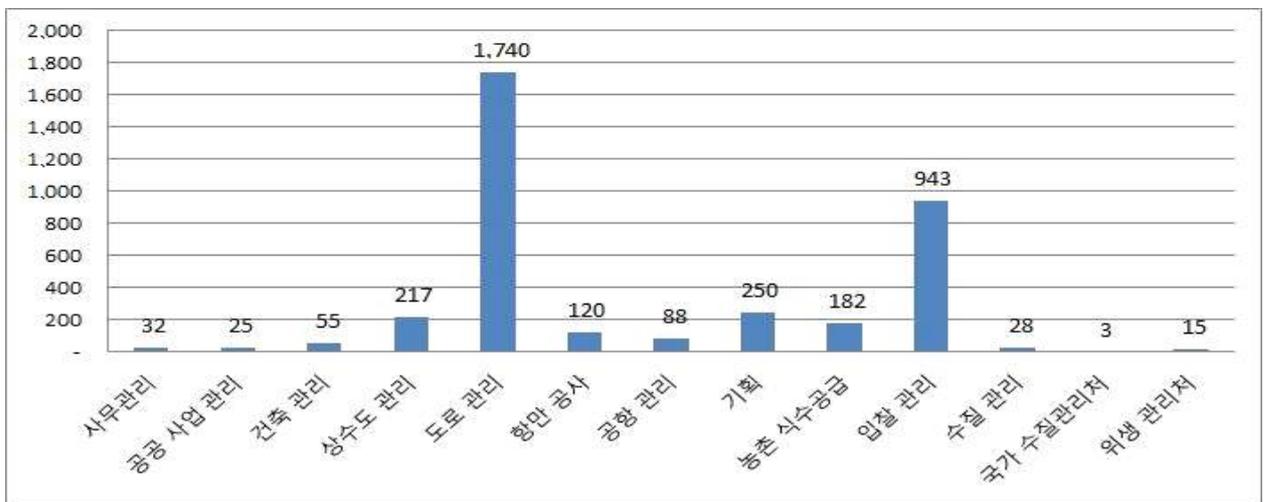
산업분야	2014-2018	2018-2022	2018-2027
전 체	32,750	35,979	71,413
도로 및 교통	21,774	39,348	60,776
외곽도로	10,345	10,772	20,343
용 수	3,650	9,127	18,254
의 료	3,601	4,789	10,448
에너지	11,475	6,619	8,959
항 구	2,614	989	5,242
철 도	2,614	1,309	4,893
공 항	1,492	1,177	1,659
교도소	609	877	975
공공시설	정보없음	320	640

(출처: 칠레 건설협회(CCHC))

- 2019년 칠레 정부의 공공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0.5% 상승한 36억 9,883만 달러이며, 공공사업부(MOP) 예정 사업규모는 34억 4,400만 달러
-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관리와 입찰 관리를 위해 각각 173,972만 달러(47%)와 9억 4,279만 달러(25%)가 편성됨.
- 이 외에도 공공산업 기획(7%), 상수도(6%), 농촌 식수공급(5%), 항만공사(3%), 공항관리(2%)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공공사업부 2019 예산 편성 현황〉

(단위: USD 백만)



(자료: 공공사업부 (MOP))

□ 분야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 교통 인프라 관련 입찰 계획

(단위: USD 백만)

프로젝트	분야	발주 기관	투자 규모	입찰 예정일
Nuevo Transantiago	버스	Transantiago	정보없음	2019.03.
Tren Valparaíso Santiago	고속열차	MOP	2,400	2019(미정)
Teleférico Alto Hospicio-Iquique	케이블카	MOP	84	2021.06.
Teleférico de Valparaíso	케이블카	MOP	84	2022.07.
Tranvía Viña del Mar-Renaca	전동차	MOP	217	2022.12.
Tranvía Pajaritos – Aeropuerto AMB	전동차	MOP	170	2023.04.
Tranvía Coquimbo-La Serena	전동차	MOP	335	2023.08.

(자료: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및 주요 일간지 자료 종합)

○ 도로건설 관련 입찰 계획

(단위: USD 백만)

프로젝트	분야	발주기관	투자규모	입찰 예정일
Carretera de la Fruta-Ruta 66	고속도로	MOP	563	2019.03.
Ruta 5: Talca-Chillan	도로	MOP	521	2019.05.
Acceso Vial AMB	톨게이트	MOP	42	2019.09.
Ruta del Villarrica: Freire-Villarrica-Pucón	도로	MOP	363	2019.11.
Corredores de Transporte Publico Grupo	도로	MOP	30	2019.11.
Ruta 5: Longitudinal de Chiloé	도로	MOP	375	2019.12.
Orbital Sur	도로	MOP	134	2020.03.
Ruta 5: Temuco-Rio Bueno+Accesos a Valdivia	도로	MOP	543	2020.07.
Ruta 78	도로	MOP	536	2020.09.
Ruta 5: Chillan-Collipulli + Puente Malleco	도로	MOP	274	2020.10.
Corredores de Transporte Publico Grupo	도로	MOP	24	2021.03.
Ruta 5: Caldera Antofagasta	도로	MOP	628	2021.03.
Ruta 5: Vallenar - Caldera	도로	MOP	355	2021.04.
Ruta 68	도로	MOP	571	2021.06.
Ruta 5: Iquique-Antofagasta	도로	MOP	508	2021.08.
Acceso Norte Concepción	도로	MOP	419	2022.04.
Ruta 5: Santiago-Los Vilos	도로	MOP	515	2022.04.
Ruta Fronteriza Entrelagos	도로	MOP	149	2022.07.
Ruta Pie de Monte	도로	MOP	168	2022.09.
Conexión Vial Coquilemu-Hualqui-Coronel	도로	MOP	101	2022.10.
Autopista Costanera Central T1	도로	MOP	1,257	2023.01.
Ruta 57: Santiago-Colina-Los Andes	도로	MOP	375	2023.03.
Ruta 5: Collipulli-temuco	도로	MOP	250	2023.10.
Ruta Metropolitana de Puerto Montt	도로	MOP	396	2023.10.

(출처: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재구성)

○ 공항 및 항구관련 입찰 계획

(단위: USD 백만)

프로젝트	분야	발주 기관	투자 규모	입찰 예정일
Red Aeroportuaria Austral	공항	MOP	151	2019.05.
Aeropuerto La Florida	공항	MOP	92	2019.07.
Puerto de Gran Escala	항구	교통통신부	정보없음	2020(미정)
Aeropuerto El loa	공항	MOP	50	2021.06.
Aeropuerto Regional de Atacama	공항	MOP	42	2022.04.
Aeropuerto de la Araucania	공항	MOP	84	2022.07.

(출처: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및 교통통신부 자료 종합)

○ 에너지 관련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D 백만)

프로젝트	종 류	투자규모	발전량	시공사	공사단계
El Loa Solar Plant, Calama, Antofagasta	공장건설 및 송전시설 건설	6,500	1,000 MW	Cointer Chile S.A.	계획 중
Andes Tamarugal Solar Plant, Pozo Almonte, Tarapaca	공장건설 및 송전시설 건설	4,500	1,100 MW	Andes Green Energy	계획 중

(출처: BMI보고서(Chile Infrastructure Report, 2018.3분기)

○ 의료시설 관련 입찰 계획

(단위: USD 백만)

프로젝트	분야	발주기관	투자규모	입찰 예정일
Grupo de Hospitales I : Maule	의료	MOP	363	2019.03.
Grupo de Hospitales II : Red Biobio	의료	MOP	390	2019.09.
Grupo de Hospitales III : Red Centro Sur	의료	MOP	329	2019.12.
Grupo de Hospitales IV : Red de Los Rios	의료	MOP	230	2020.03.
Grupo de Hospitales V : Red Coquimbo	의료	MOP	662	2020.06.
Grupo de Hospitales VI : Metropolitano Norte	의료	MOP	230	2020.09.
Grupo de Hospitales VII : Institutos Cancer y Neurocirugia	의료	MOP	414	2021.06.
Centro Civico de la región de los Rios	건축	MOP	40	2019.08.
Aeropuerto Arturo Merino Benítez-Duty Free	면세점	MOP	미정	2019.12.
Embalse Zapallar	수로	MOP	357	2020.12.
Embalse Catemu	수로	MOP	466	2022.12.
Estadio Techado P.O'Higgins	경기장	MOP	31	2023.07.

(출처: 칠레 공공사업부(MOP) 자료 및 주요 일간지 자료 종합)

*주: 상기 입찰 일정은 2018년 12월 기준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사와 운영사

(단위: USD 백만)

순위	프로젝트명	분 야	투자액	건설사 및 운영사(국적)
1	Aquatacama Water Pipeline Project	에너지	15,000	- Vinci(프랑스)
2	El Loa Solar Plant, Calama, Antofagasta	에너지	6,500	- Andes Green Energy(한국)
3	Andes Tamarugal Solar Plant, Pozo Almonte, Tarapaca	에너지	4,500	- Andes Green Energy(한국)
4	Escondida Copper Mine Sea Water Desalination Plant, Atacama	에너지	3,430	- 두산건설(한국) - Bechtel Corporation(미국) - BHP Billiton(호주)
5	Planta Termosolar Maria Elena, Antofagasta	에너지	3,290	- Ibereolica SL(스페인)
6	San Antonio Mega Port Project, Valparaiso	도로 /항만	2,800	정보없음
7	SolarReserve Tamarugal Solar Plant, Pozo Almonte, Tarapaca	에너지	2,700	- Solar Reserve(미국)
8	Pedro de Valdivia Solar Thermal Plant, Maria Elena, Antofagasta	에너지	2,610	- Ibereolica SL(스페인)
9	Trebol Solar Copiapo CSP Plant, Atacama	에너지	2,200	- Abengoa Solar(스페인)
10	Alto Maipo Hydro Power Project, Santiago	에너지	2,050	- Strabag Int.(오스트리아) - Hochtief Group(독일) - CMC di Ravenna(이탈리아) - AMEC(영국)
11	Copiapo Solar Hybrid Power Plant, Atacama	에너지	2,000	- Solar Reserve(미국)
12	Infraestructura Energetica Mejillones (IEM) Thermoelectric Plant, Antofagasta	에너지	1,800	- Belfi(칠레) - Salfacorp(칠레) - SK에코플랜트(한국) - Engie(프랑스)
13	Santiago Metro - Line 3, Plaza Quilicura - Hospital Militar	도로 /교통	1,720	- Brotec(칠레) - Thales(프랑스) - Isolux Corsan(스페인) - Acciona(스페인) - Colas Rail(영국) - Eurovia(프랑스)
14	South Campos Sol Project, Copiapo, Atacama	에너지	1,600	- Alen Walung(칠레)

(출처: BMI 리서치 자료 재구성)

*주: 순위는 2017년 6월 프로젝트별 투자액 기준

□ 칠레 공공사업부(MOP) 프로젝트 입찰 및 개발팀 팀장 Luis Felipe Elton 인터뷰

(질문1) 앞으로 진행될 국가 프로젝트들 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무엇인가요?

(답변1) 2019년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푸르타 고속도로 (Carretera de la fruta) 입찰' 과 '탈까(Talca)와 치안(Chillan) 구간의 5번 국도 입찰' 이다.

우선 푸르타 고속도로 개선과 확장은 앞으로 늘어날 국가 수출입에 대비한 전략적인 프로젝트이다. 푸르타 고속도로는 칠레의 주요 무역항인 발파라이소 항구와 산 안토니오 항구를 연결하고 있으며, 차후 건설될 그란 에스카라 공항을 연결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칠레를 횡단하는 5번 국도의 개선 사업은 지방 도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국도 입찰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 프로젝트이다. 이외에 '플로리다 공항(Aeropuerto La Florida) 입찰' 과 '아우스트랄 공항(Red Aeroportuaria Austral) 입찰' 을 올해의 주요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질문2) 프로젝트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2) 입찰방법은 발주 부서와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다. 병원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1회의 기업 사전자격평가(Precalificación)를 거치면 다수의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각 프로젝트마다 업체의 사전자격평가(Precalificación)가 있으며, 이 평가를 통과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자격평가에 요구되는 서류는 각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회사 설명서(escritura pública de empresa), 자금 운용현황 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입찰 건별 사전자격평가의 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입찰공고 또는 입찰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자격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본 입찰에서 선정되기 위한 주요 요인은 입찰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경력과 자금 운영능력이다. 이런 이유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들은 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사업 수주율이 높은 편이다.

(질문3) 인프라 프로젝트의 입찰이 끝난 경우에도 시민 항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미승인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장기간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공사업 입찰 관리부(DGCOP)의 도움을 받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3)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허가를 대신 받아 줄 수는 없지만, 입찰에 선정된 기업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프로젝트 입찰 전에 기존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업체와 프로젝트의 가능성, 실행 비용, 최종 건설 가격, 사업지 상태, 지형, 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가능 프로젝트 관리사무실(Oficina de Gestión de Proyectos Sustentables, GPS)’ 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질문4) 만약 프로젝트 비용이 예상 투자액보다 높을 경우 입찰 기업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4) 이견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무나, 서비스 내용 변경, 자연재해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치 이상인 경우 공공사업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PPP)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선정된 기업이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계약서에 작성된 서비스 내용 안에서 발생하는 건축자재비, 인건비, 운송비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입찰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이전에 입찰 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사 완료 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사점

- 칠레 정부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양허계약(Concession)에 따른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젝트 참여 전에 입찰 건의 사업성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 필요

- 진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 상황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건설비 및 예상 수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
- 칠레의 공공 인프라 건설 입찰은 칠레에 법인이 없는 외국 회사도 참여 가능하며, 일부 입찰의 경우 업체 사전자격평가(Precalificación, PQ) 과정이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도로 입찰의 경우 사전자격평가 과정이 없음
 - 그러나, 병원 건설 입찰의 경우 사전자격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신청 서류는 회사 자금 운용현황 증명서(Requisitos económicos y financieros de los interesados y grupos interesados)와 의료시설 건설 이력(Requisitos de experiencia en construcción de establecimientos de salud)이며,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함. 평가 비용은 30만 칠레페소(약 462달러)
 - 이외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마다 사전자격평가(Precalificación)를 받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입찰 담당자를 통해 신청 서류와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 디지털 인프라 개발, 에너지 효율 관리 및 송전 시스템 개발, 대중교통 관련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칠레 정부가 제시한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공 입찰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프로젝트 이력과 기술력, 자금운영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시장에 경험이 많은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단, 대형 입찰의 경우 입찰 결과가 늦게 발표될 수 있으며, 칠레 정부의 입찰 승인이 떨어진 후에도 칠레의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그 예로, 발파라이소(Valparaiso) 항구 확장 공사가 2013년 입찰을 통해 OHL Concesiones에게 낙찰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의 미승인과 지역 단체의 반대로 인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

(작성자: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지윤정)

(자료원: 칠레 공공사업부, 칠레 건축협회, 공공사업 양허 관리부, MercadoPublic, ChileAtiende, MOP 입찰 관계자 인터뷰, BMI 보고서, 칠레 주요 일간지 (La tercera, El mercurio)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바. 칠레 2019년 프로젝트 입찰자 선정 본격 착수('19.02.25.)

- 칠레 前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an Pinera) 정부는 2019년 총 26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자 선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24억불 규모의 입찰자 선정을 목표로 함
- 우선 2019년 PPP모델을 바탕으로 총 25억불 규모의 18개 병원건설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중 3건은 2019년에 입찰 추진 계획
 - 가장 먼저 마울레(Maule)지역에 총 3.63억불 규모의 Cauquenes, Parral, Constitucion 병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Bio Bio 지역(3.9억불), 산티아고 수도권(3.3억불)에도 병원 건설 준비 중
 - 이처럼 前 피네라 정부 임기 동안 총 66억불 규모의 43개 병원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었음
- 칠레 공공사업부(MOP)는 2019년 5.2억불 규모의 Talca-Chilan 구간 5번 국도 개선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Villarrica 구간 도로사업(3.6억불), Chiloe 종단도로 사업(3.7억불) 등 신규 PPP사업도 입찰예정이었음
- PPP사업 이외에도 약 77억불 규모의 정부 재정사업 프로젝트도 발주를 앞두고 있었음. 이 중 5개 프로젝트가 산티아고 메트로 신규노선 건설 및 확장사업인데, 3.6억불 규모의 3호선 연장사업과 4.7억불 규모의 2호선 연장사업이 발주를 준비 중에 있었음. 수도권 외에도 La Serena-Coquimbo 구간 경전철 사업(약 4억불)도 발주 예정이었음
- 수자원 분야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 먼저 칠레 남부에서 북부 사막지역까지 상수관을 연결하는 Aquatacama 사업(약 80억불)이 현재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해수담수화 사업도 약 35억불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출처: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협력센터)

가. 칠레 세계 최초 지속가능 연계채권 발행

(출처: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2.03.04.)

- 칠레 재무부에 따르면 칠레는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 연계채권을 발행
 - 2022년 3월 2일 미국의 20년 국채보다 4.346% 또는 200 베이스 포인트(bp) 높은 20억 달러의 지속 가능 연계채권이 발행되었음. 해당 채권에 대한 수요는 유럽, 아시아, 및 미국 등지에서 최초 투자금액보다 4.1배 높은 80억 달러에 달했음. 로드리고 세르다 칠레 재무장관은 이는 칠레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고 언급
 - 해당 채권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과 연계되어 있음. 파리협약에는 칠레가 2030년까지 95 메트릭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2032년까지 전기의 60%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은 환경 관련 채권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임. 해당 채권은 발행인의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를 충족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금융상품으로서, 일련의 주요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됨
 - 이러한 채권들은 특정한 녹색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있지는 않으나, 인센티브는 발행인이 명시한 목표 성취에 달려있음
 - 2019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주로 칠레의 주도 하에 46개의 녹색 채권이 발행되었음 (출처 : 법무법인 지평,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3월 3주))
- 칠레, 세계 최초 지속가능 연계국채 발행
 - 칠레, 기후 목표에 대한 국가의 성과와 연계된 20년 만기 국채 20억 달러 규모로 발행. 이는 글로벌 국채 발행 중 첫 지속가능 연계채권임
 - 해당 채권의 KPI는 칠레의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국가전력시스템 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포함.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5MtCO₂e 달성과 2028년까지 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비중 50% 달성, 2032년까지는 60% 달성이 그 구체적 목표임. 쿠폰 금리 2.7%로 발행된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26년부터 금리 25bp 인상됨

- 칠레는 기후변화로 안데스산맥에 눈이 사라지고 파라나강이 가뭄을 겪으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을 헌법에 담으려는 제헌 과정을 거치고 있음
- 2019년에는 남미대륙 중 녹색채권을 발행한 첫 국가가 되었으며, 2021년 이후 ESG 채권을 181억 달러 규모로 발행해 온 바 있음
- SLB(Sustainability-Linked Bond)란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무 및 구조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채권으로, 그 여부를 금리 등 가격에 반영시킴. SLB 채권은 2021년 중에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발행 규모는 2020년 110억 달러에서 2021년 1,100억 달러로 증가했고, Moody' s ESG Solutions는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키움증권 투자정보, 2022.03.14.)

나. 칠레 신재생에너지 장려

- 칠레 신재생에너지 장려, 태양광발전 사용 증가(ESG경제, 2021.08.17.)
 - 칠레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전체 설비용량 52%, 신재생에너지 절반이 태양광 발전. 칠레 세로 도미나도르(cerro dominador) 태양광발전소는 700헥타르 이상의 태양광 면적과 함께 1만 600개의 헬리오스타트가 전력을 만들어 내고 있음



(칠레 세로 도미나도르(cerro dominador) 태양광 발전소)

- 최근 세계 곳곳에서 태양광이나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칠레는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힘
- 우선 칠레 정부는 2013년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시장의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를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을 수립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도록 의무화한다는 법안
- 이어 2015년 칠레 에너지부는 그린 경제로 ‘50년 탄소중립국 선언’, ‘Energia 2050(에너지 2050)’ 정책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탈탄소화 계획을 시행 중
 - 203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의 60%를, 205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며 2040년까지 28개의 화력발전소를 단계적 폐쇄할 계획



(칠레 세로 도미나도르(cerro dominador) 태양광 발전소)

- 설치 전력이 100MW인 칠레의 세로 도미나도르 태양광 발전소는 39만 2,000개의 패널로 구성. 이에 따라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은 2021년 5월 기준 전체 설비용량인 2만 5,963MW의 52%인 1만 3,500MW가 신재생에너지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남

- 칠레 신재생에너지협회(ACERA)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칠레에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으로, 전체 발전의 49.7%를 차지
- 칠레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남미 유일의 태양열 및 태양광복합 발전소인 Cerro Dominador가 준공돼 운영 시작
 - 이 곳에서는 210MW급 설치용량을 토대로 약 38만 2,000여 가구에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63만톤이나 감축시킬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칠레는 그린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열심. 지난 2021년 6월 8일 한-칠레 그린수소에너지 협력 웨비나에 참가했고, 29일에는 독일 에너지부와 그린수소에너지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
 - 지난해 말에는 국가적 차원의 ‘그린수소에너지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25GW 규모의 그린수소에너지를 1.5달러/kg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한다는 목표

다. 세계를 휘감는 칠레의 녹색 바람

- 칠레(Chile)는 중남미 지역을 대표하는 선진국.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무역·문화·행정·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망 구축. 특히 지속가능한 녹색 활동에 주력하며 남미 전체의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음
- 기후변화에 맞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칠레의 전체 면적은 약 75만 7천km². 국토 길이는 남북으로 4,300km에 이르는 긴 형태. 타고난 지리와 위도 덕분에 다양한 기후와 자연까지 두루 갖추고 있음. 북쪽의 광활한 사막을 시작으로 남쪽 빙하, 동쪽 안데스산맥, 서쪽 태평양까지 현존하는 모든 자연이 공존
- 칠레는 남미에서 친환경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일찍부터 대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덕분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수준의 0.25%에 불과. 하지만 이러한 칠레조차 무차별적인 기후위기 앞에서는 안심할 수 없음

- 칠레 북부 지역의 아름다운 소금호수가 많음. 최근 기업들의 잇따른 개발로 호수가 파괴될 수 있다는 분석
 - 대표 사례는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가 있음. 2000년대 초반 오존층에 구멍이 발생하면서 칠레 남부 지역에 피부암 환자가 크게 증가. 강한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들로 일대 혼란이 일어났음. 또한 수도 산티아고(Santiago)를 비롯한 칠레 중부지역은 10년 가까운 만성 가뭄에 시달림
- 기후변화에 극도로 민감한 칠레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촉구함.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 보다 강력한 탄소절감 계획을 발표.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탄소배출량을 약 27.5% 감축하겠다고 선언. 모든 국가가 칠레와 동일하게 움직일 경우 지구 표면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함

〈칠레의 환경정책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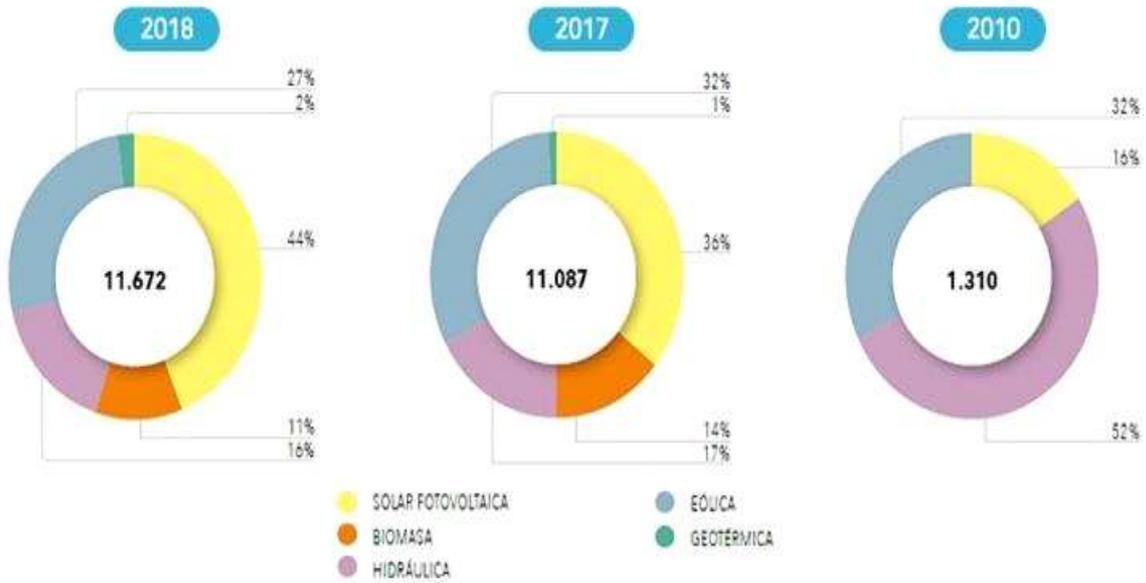
년 도	핵심가치	추진정책
2010년	환경보호	환경부 설립 환경영향평가(ESIA)도입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2014년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세 도입
2016년	2016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2050 추진 (신재생에너지 장기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30% 이상 감축)
2018년	순환경제	폐기물 관리 재활용 촉진 생산자 책임 확대 추진

(출처: Cornell University, INSEAD, WIPO(2018))

- 자연에서 얻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다각화도 주목할 만함. 칠레는 2040년까지 대부분의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방침. 대신 2050년까지 국가 생산 전력의 약 70%를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
- 칠레 재생에너지협회(ACERA)에 따르면 2019년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 42%, 풍력 32%, 소수력 14%, 바이오매스 12% 등. 지리적 특성에 힘입어 태양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칠레의 태양광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4,128MW)의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

〈칠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이〉



(출처: 칠레 에너지부)

주) Solar Fotovoltaica(태양광발전), Biomasa(바이오매스), Hidraulica(수력발전), Eolica(풍력), Geotermica(지열)

- 칠레 북부와 중부지역은 연중 건조한 기후와 높은 일사량을 보유. 덕분에 태양광 발전에 있어 최적의 장소로 꼽힘.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남미 첫 태양열 발전소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Atacama Desert)에 준공돼 관심을 받았음
 - 이 시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일환. 세로 도미나도르(cerro dominador) 태양광 발전소는 약 7만km² 면적에 1만 600개의 태양열 반사 거울이 설치됨. 250m 높이의 태양열 집진 타워를 중심으로 열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물을 증발시켜 작동하는 형태. 이로써 연간 6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 기대
- 와인산업 섹터의 혁신은 특히 눈길을 끄. 칠레는 세계 9위 규모의 와인 생산국으로 품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일조량과 기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와이너리 조성에 따른 토양 훼손과 지나친 경작은 모두가 외면하는 어두운 현실임

- 칠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그린와인’은 주요 산업을 통해 친환경을 실현하려는 섬세한 노력을 보여줌.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토양의 수분 보유력을 상승시키는 비법으로 최대한 지구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와인을 생산
- 무엇보다 칠레 와인너리들은 친환경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성’에 집중. 칠레 와인 수출의 80%를 책임지는 76개 와이너리가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 이외에도 생산 규모에 관계없이 크지 않지만 신선하고 과감한 그린 와이너리 투자로 세계 와인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음
- 2018년 칠레 환경부는 전국 모든 상업시설에 비닐봉지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을 단행. 이후 1년 사이에 그 사용량이 약 1만 6천 170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빨대안녕(ChaoBombillas) 캠페인도 흥미로움. 2019년 9월 기준 3천 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해 연간 2억 개 이상의 빨대감소 효과가 나타남
- 녹색 도시를 표방하는 대도시의 변화도 인상적. 수도 산티아고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하철 도입.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42%를 태양광에서, 나머지 18%를 풍력에서 얻어 가동
- 지하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통 시설도 속속 친환경 차량으로 탈바꿈
 - 2016년 처음 도입한 전기 버스는 현재 세계 2위 보유 규모를 자랑. 2021년에는 도심 내 일반 택시를 전기 택시로 전환하는 ‘나의 전기 택시(My Electric Taxi)’ 프로젝트 추진. 전기차로 변경할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800만 불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민 참여 독려
- 칠레의 환경정책은 불편함의 연속임. 편하고 익숙했던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에 발맞춰 끊임없이 도전하고 적응해야 함. 그럼에도 정부와 전문가들이 만드는 체계적인 전략, 성숙한 시민 참여가 더해져 빛을 발하는 중. 남미를 넘어 세계적인 친환경 국가를 향한 칠레의 힘찬 움직임으로부터 우리가 취할 점을 생각해볼 만함

[참고자료 출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blog.naver.com/fealacsupporters)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energia.mofa.go.kr), 코트라 (www.kotra.or.kr)

칠레국가에너지위원회(CNE) (www.cne.cl/en/precio-medio-de-mercado-2)

칠레신재생에너지협회(ACERA) (acera.cl)

III. 사업여건

- ※ PPP 위주로 재편되는 중남미 인프라시장 진출전략 마련 필요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및 중산층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인프라 개발 사업 적극 추진 중**
 - 그러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 *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인 투자를 5%대 (2,500억~3,000억달러)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중남미 각국은 민간자본을 동원한 민관협력사업(PPP)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현재 중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 형태
 - 각국 개발 수요 고려 시,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도로·도시교통(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 (여건)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신흥지역에 비해 열악하나,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 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의 사업 여건은 월등히 우수
 - PPP 관련 확실한 법률과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풍부한 사업 경험을 축적한 데에 기인
- (금융조달)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요건
 - 중남미 진출기업들은 중남미 시장의 금융조달 채널 중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등 지역개발은행을 선호
 - 지역개발은행은 △PPP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보 채널 △PPP 사업 준비 및 개발단계 컨설팅 파트너 △PPP 사업 시 자금조달창구 등으로 활용도가 큼
- (문제점)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과 진출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 급변하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중동을 대신해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진출 기반 상실이 우려됨
-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일부 부문에 편중된 수주구조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PPP 시장 진출은 한국 기업에 필수

○ 시사점

- (기업)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빠른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인식, 중남미 각국의 PPP 발전 환경에 맞춘 단계별 진출계획 수립, 수익성 있는 중소규모 PPP 사업 우선 진출, 중남미 현지 기업 및 외국기업(특히, 스페인)과의 전략적 제휴,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등 다각적인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
- (정부) 민간과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선단식 진출 협력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 확대,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중남미 각국의 PPP 유관기관과 인적교류 확대 등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

[201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권기수, 2017.08.07.)

1 인프라 여건

가. 칠레 인프라 현황

□ 칠레 인프라 시장 특징

- (경기 변동에 취약) 중남미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의 높은 의존도 때문에 주기적 특징이 강함
 - 일차산품 붐 등에 힘입어 경기가 팽창기일 때는 급격히 증가하다 경기 수축기에는 감소 폭이 매우 가파르게 나타남
 - (1980년대) 인프라 투자는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
 - * 초기에는 자금조달 여력의 한계로 민간부문의 역할이 매우 미미함 (전체 투자의 11%)
 - (1990년대) 개혁개방으로 중남미 각국에서 비효율적 공공부문 개선 및 과도한 정부 부채 개선을 위해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민간부문 투자 급증 (전체투자의 80%)
 - * 통신, 발전, 송배전 및 교통 서비스 분야 (수자원과 도로, 항공, 공항 등) 가 민간부문에 양허 방식으로 개방
 - (2000년대) 일차산품 붐으로 불리던 시대로, 일차산품 수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 따라 남미 자원부국이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진행
 - * 다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인프라 투자보다 단기에 효과가 창출되는 사회지출을 중시함에 따라, 전반적 투자 규모(GDP 대비)는 이전보다 낮음
 - ** 공공부문이 투자를 주도했으나, 민간부문의 역할도 작지 않음 (칠레 민간부문 투자: 약 50%)
 -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좋았던 일차산품 붐 시기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인프라 투자가 크게 증가
 - 의의
 - a. 외형적인 경제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있음 (특히 공공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정 부문의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는 점을 의미)

b.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으로도 풀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는 교통, 보건, 교육 부문에서 정부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높았음

- (전망) 일차산품의 슈퍼사이클 종언 이후 저성장세의 지속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할 수 있지 않을 전망

- (결론) 이 같은 장기간의 저성장세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에 정부 부채 증가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만한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가 절실

⇒ 공공부문의 투자는 거시경제 환경에 민감해 경기 호황기와 수축기에 변동성이 크고, 높은 투자 변동성은 중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중남미의 인프라 투자 수준(GDP 대비)은 항상 타 개도국· 선진국에 비해 낮음

○ (프로젝트 진행) 다양한 방면(철도, 지하철, 신재생)의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명	단계	규모
철도공사(EFE) 2020~22 투자계획	투자계획 승인	19억 달러
산티아고 지하철 개선공사	건설 중	3억 7,500만 달러
Total Eren (TS3)사 Santa Isabel II 발전소 건설	환경영향 보고 완료	2억 달러

-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다방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 전망은 좋지 않은 편

○ (추세) 칠레의 건설 인프라 시장 가치는 약 170억 달러로, GDP의 약 6.9%임

- 칠레의 건설 인프라 시장은 그간 꾸준한 성장세를 지켜왔지만, 2019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연이은 시위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인프라 건설시장의 실질 가치는 전년 대비 △4.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Fitch Solutions)

* (코로나19의 영향) 칠레는 인근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 전체 이동금지령을 명령한 바는 없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지역에 한해 이동 금지령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건설 현장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

* 이로 인해 Americo Vespucio Oriente I 도로 터널 프로젝트와 같이 산티아고 수도권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은 바 있음

- 아울러, 2020년 10월에는 개헌투표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 수요도 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
- 다만 2021년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며 시장 또한 활기 회복이 예상
 - * 인프라 건설시장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건설시장의 성장세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는 1.8%, 2023년에는 3.3%, 2024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BMI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총 3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칠레 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

- 前 피네라 대통령이 지난 '19.6.1(토) 대의회 시정연설에서 동인의 임기 중 예정된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
 - 차카오 교량사업, 동부 아메리코 베스푸시오 철도, Felix Bulnes 및 Salvador 병원 등 기착공된 대표 사업을 강조
 - 동 인프라 계획은 총 연결 길이 17,000km에 달하는 다수의 도로 인프라 사업, 산티아고 및 주요 지방 공항 개선 사업 등을 대거 포함
- 한편, 칠레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활성화 어젠다(Economic Acceleration Agenda)에 따라 2019-2020년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인프라 사업 이행 또한 가속화될 전망
 - ※ 경제활성화 어젠다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둔화 극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어젠다로, 주요 공공 인프라 사업의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 등을 통한 프로젝트 실행 가속화 방안 명시
- 2020년 8월 7일, Covid-19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회복 계획은 인프라 부문에 80억 달러로 예상 <출처 : Invest Chile, 2020.08.07.>
 - 인프라 투자는 지난주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발표한 칠레의 340억 달러 경제회복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 정부는 양허 일정을 가속화하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투자) 승인된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명	규모 (단위 : 달러)
도로 공사(7,500km)	52억
관개 계획 및 물 인프라 (빗물 시스템)	5억 8,400만
농촌 식수 시스템 (41개) 건설	3억 2400만
항구	2억 400만
10개의 공항과 비행장에서의 작업	1억 7,100만
9개의 강 관리 계획	3천만

- (양허) 공공 사업부(MOP)는 병원에 대한 미화 2,500백만 달러의 민관 파트너십(PPP) 계획에서 첫 번째 입찰을 개최하고 있음

MOP의 양허 사무소 대변인은 BNAmericas에 2020년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입찰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언급

단계	프로젝트명
신규 양허	- 국가의 주요 남북 고속도로인 5번 고속도로의 Talca-Chillán 구간 - La Serena, Coyhaique 및 Punta Arenas 시의 공항 운영 - 4개의 병원에 대한 신규 양허 - MOP의 양허 의제에 관한 일부 프로젝트
입찰 예정	- 5번 고속도로의 Santiago-Talca 구간 - Coquimbo 및 La Serena 시의 병원 및 Biobío 병원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양허
환경 승인 완료	- Mejillones 항구에 벌크 화물 터미널을 건설 프로젝트 (1억 달러) * '16년 환경 승인 완료되었으나, 5월 현재 아직 연구단계

- 루카스 팔라시오스 경제 장관은 엘 머큐리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총 56억 달러 규모의 13개 프로젝트* 목록 중 하나"라 언급

* 2km의 철도 지선, 160,000톤의 구리 정광을 저장할 수 있는 2,800m²의 창고 및 990m²의 부두를 포함한 37,730m² 면적의 항구 터미널 건설, Aconcagua Valley의 3억 7,200만 달러 담수화 플랜트(환경 승인 완료) 등

- 공공사업부(MOP)는 2022년 칠레 남부 로스리오스(Los Ríos) 지역에 2억 5천만 달러 인프라 투자를 발표 (출처: Bnamericas, 2021.10.28.)

- 해당 투자 중 도로(83%), 공항(7%), 항구(3%), 농촌지역 음용수 시스템(3%), 기타 (4%)
- Ruta T-340 도로 개선공사, Torobayo-Curiñanco 구간 (177억 pesos), 지역 수도 Valdivia의 Torobayo 와 Curiñanco 지역간 18km 도로포장 포함 : 현재 32% 완료
- Corral-Valdivia 도로, Catrilefu bridge-Corral 구간 (176억 pesos) Catrilefu bridge와 Corral municipality간 도로 10.3km 개선공사
- Pichoy airport 개선공사 (160억 pesos): 공항 여객 터미널 확장(현재 2,500m², 확장 후 4,600m²), 현재 낙찰단계

□ 칠레 인프라 프로젝트 ○ 시장동향 (KOTRA, 2019.06.12.)

- (규모) 칠레 공공 및 민간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2%대로 꾸준히 성장
 - 2018년 약 182억 달러에 달하며, 2027년에는 약 32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 BMI 자료)
- 칠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공공 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 MOP)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분야는 용수, 공항, 건축, 댐, 도로 및 교통, 항만으로 분류
 - 공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양허계약(Concession)에 의한 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로 진행
- 공공 사업부 외에도 지역 정부(Municipalidad), 교육부(Departamento de Educación),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Telecomunicacinoes), 지역 보건청(Servicio de Salud) 등도 프로젝트 발주
- 칠레 인프라 건설시장 현황
 - (과거) 지난 4년간 칠레 인프라 사업은 도로·교통 시설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
 - (전망) 앞으로 8년간은 도로 및 교통, 용수, 의료 분야를 활발히 진행 예정

분야	내용
도로·교통	도시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존 도로의 개보수와 신규 도로 건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용수	칠레 북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및 정화시설에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의료	기존 프로젝트의 진행과 더불어 신규 병원 및 응급실 건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앞으로도 칠레 의료 분야의 투자는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Atacama)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 남부의 비오비오(Biobio)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장 건설과 송전, 배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19년 칠레 정부의 공공산업 예산은 36억 9,883만 달러(전년대비 0.5% 상승), 공공사업부(MOP) 예정 사업규모는 34억 4,400만 달러임.
 - 예산 세부 내역 : 도로 관리와 입찰 관리를 위해 각각 17억 3,972만 달러(47%)와 9억 4,279만 달러(25%) 편성. 이 외에도 공공산업 기획(7%), 상수도(6%), 농촌 식수공급(5%), 항만공사(3%), 공항관리(2%)에 예산 편성

○ 前 정부의 주요 인프라 정책

- 칠레 인프라 건설시장은 안정된 경제구조와 투명한 정부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
- (조직)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인 투자 증진을 위해 공공사업부 산하 공공사업 양허 관리부(Dirección General De Concesiones de Obras Públicas, 이하 DGCOP)를 신설

<공공사업 양허 관리부, DGCOP>

- * (목적) 공공입찰 프로젝트 선별 및 실행계획 수립
- * (기대효과)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치적인 압력 최소화, 국가발전의 중·장기적 계획의 효율적 실행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문제(공공입찰 프로젝트의 지연 또는 취소, 중복입찰 등) 해결
- * (현황) 홈페이지(www.concesiones.cl)에서 향후 5년 동안의 공공입찰 계획과 주요 사업의 진행 현황 확인 가능

- (펀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시설 펀드(Fondo de Infraestructura S.A.)’ 설립

<인프라 시설 펀드>

- * (목적)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 * (운영) Fondo de Infraestructura S.A
- * (기대효과) 칠레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의 재정 위험도 저하

나. 교통 인프라

○ 교통수단

- (지하철) 산티아고 지하철 2, 3, 4호선 연장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신규 지하철 7호선(Renca부터 Vitacura까지), 8호선(Av Macul부터 La Florida Oriente까지), 9호선(Av Santa Rosa부터 La Pintana까지) 건설을 2026년까지 마무리 예정
- (철도) 산티아고와 외곽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산티아고-메이피야(Santiago-Melipilla) 철도 건설, 산티아고-바투고(Santiago- Batuco) 철도 건설,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Tren Valparaíso Santiago, 이하 TVS)* 건설이 진행 예정
- *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의 경우, 이전 정부에 의해 CREC(China Railway Group Limited, Sigdo Koppers, Latinoamérica Infraestructura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회사)가 프로젝트 운영사로 선정되었으나 피네라 신정부는 국가 입찰법에 따라 올해 중으로 국제 입찰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변경함. 이로 인해 TVS의 예상 투자 규모가 16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크게 증가

- (버스) Transantiago(수도권 교통사업부)의 신규 버스 입찰이 2019년에 예정
- (전동차) 2023년까지 주요 도시의 전동차와 케이블카 신설을 위한 입찰 예정
- 도로 건설 프로젝트
 - (국도) 칠레 북부 아리카(Arica)부터 남부 칠로에(Chiloe)까지 연결하는 3,364km 길이의 5번 국도(Ruta 5)의 기존 양허계약이 구간별로 2020~2024년 사이에 종료 예정
→ 이에 따라 각 구간별 보수 및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입찰이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
 - (고속도로) 지방 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입찰과 장벽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 하에 실시되는 고속도로 입찰이 68번, 78번, 5번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 * 장벽없는 칠레(Chile sin Barreras) 전략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설치하여 산티아고와 연결된 외곽도로의 도로정체와 사고를 줄이고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
-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공항 및 항만 증축 프로젝트
 - (공항) 칠레 내의 유동 인구 증가로 공항 증축공사가 산티아고 국제공항 외 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 아타카마(Atacama), 라세레나(La Serena) 등 다섯 개의 공항의 양허계약이 종료될 예정에 있어 신규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
 - (항구) 인근국과의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칠레 항구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산 안토니오(San Antonio)의 ‘대형 항구(Puerto de Gran Escala)’ 건설 입찰이 2020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일정은 미정임

다. 에너지 프로젝트

-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은 국가 에너지위원회(Comision National de Energiam, CNE)를 통해서 이루어짐
 - 입찰에서 선정된 기업이 양허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에너지 생산, 송전 및 배전 서비스 제공
 - 2018년 11월 에너지부 장관은 2019년~2025년부터 시작될 정규 고객의 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정확한 일정은 미정임

라. 의료 및 공공시설 건축 프로젝트

- 칠레 정부는 노령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2018년 2억 8,600만 달러를 투자해 안토파가스타 병원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Felix Bulnes 병원과 Salvador Geriatrico 병원 건설 진행 중
 - 2019년 입찰 예정 : 마우레(Maule)와 비오비오(Biobio) 지역의 신규 국립 병원 건설, 로스 리오스(Los Rios)의 국립병원 건설 (2020년 예정사업이었으나 앞당겨짐)
 - * 로스 리오스(Los Rios) 지역의 주민센터 설립과 수로,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입찰 계획 존재

마. 칠레 민관협력사업(PPP) 환경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국가 중 민관협력사업(PPP) 환경이 우수한 국가로 칠레, 콜롬비아 선정 (2017.05.12.)

- 중남미 지역 민관협력사업(PPP) 환경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민관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자금원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미주개발은행(IDB) ‘2017 Infrascope Index**’, 보고서)
 - * Infrascope Index 평균 점수 변화 추이 : 2010년 37.1점, 2012년 40점, 2014년 42.4점, 2017년 59점
 - ** Infrascope Index : 미주개발은행과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공동 발간하는 동 보고서는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령, 제도,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자금조달 등 총 5개 분야, 23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 2019년에는 ‘중남미 지역 민관협력사업 환경 평가(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는 부제로 발간
-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19개국 중 칠레와 콜롬비아를 중남미 국가 중 사업환경이 우수한 국가로 선정. 이들 국가는 25년 이상 민관협력사업 수행과 정책 추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의 경우, 작년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제를 마련했으나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정부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브라질의 경우, 2016.5월 민관협력사업 담당 기관을 설립하여 정책 조율,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 등을 수행

- 다만,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PPP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 메커니즘 변화 및 대안 마련,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2017 Infrascoppe Index 순위>

순위	1	1	3	4	5	6	7
국가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자메이카	페루	멕시코	온두라스
점수	74	74	72	71	69	68	65
순위	8	8	8	11	11	13	14
국가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라과이	T&T
점수	64	64	64	62	62	58	56
순위	15	16	17	18	19	-	-
국가	파나마	도미니카공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	-
점수	51	49	48	44	8	-	-

* 만점 : 100, 평균 : 59

(출처: 외교부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 2017-18호>, 미주개발은행 홈페이지, 2017.5.9.)

바. 칠레 인프라구축에 정책 우선 순위 설정

- 2017년 11월에 실시될 예정인 칠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 3인은 대통령 당선 시 국내 인프라 구축 및 개발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2017년 칠레 대통령 선거 후보 3인>

연번	이름	소속
1	피네라(Sebastián Piñera) 전 대통령	Chile Vamos당 (중도우파야당연합)
2	기이예르(Alejandro Guillier) 상원의원	Nueva Mayoría당 (중도좌파여당연합)
3	고이치(Carolina Goic) 상원의원	Partido Demócrata Cristiano당 (기독교민주당(DC))

- 칠레 주재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3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데 의견을 같이함
 - (피네라 후보측) 국가 인프라 개발사업인 ‘Plan Chile Invierte 2026’ 을 추진하여 향후 8년간 공공인프라 분야에 200억 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인프라 사업에서 양허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 (기이예르 후보측)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액을 GDP의 4%로 확대하고 지하철, 도로 등 지역 간 연결성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고이치 후보측) 당선시 인프라 사업 추진 관련 제도 강화와 프로젝트 수행을 중점 사항으로 추진하며 사업 과정에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할 계획

(출처: 외교부 라틴아메리카협력센터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 2017-34호>, 출처: BNAmericas, 2017.9.5.)

사. 칠레 공공사업부 인프라 투자동향

- 2017-2021년간 칠레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이 113억 미국 달러에 달할 전망
- 총 360개의 사업 중 44억 3,000만 달러는 공공사업부 주관 입찰 대상 사업에, 26억 달러는 공공사업부의 직접투자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며, 20억 5,000만 달러는 공공보건 관련 사업에 투자될 예정
- 공공사업부는 금년도 투자가 예정된 10개의 상위 공공인프라사업을 발표

연번	사업명
1	북부 아따까마 지역 도로 복구
2	산티아고-로스빌로스 구간 5번 국도 운영업체 보조금 지급
3	안토파가스타 고속도로 복구
4	리오부에노- 푸에르토몬트 구간 5번 국도 운영업체 보조금 지급
5	테무코-리오부에노 구간 5번 국도 운영업체 보조금 지급
6	Valle Hermoso 댐 건설,
7	11번 국도 복구
8	산티아고 수도권 포장도로 복구
9	킴보시 도로망 복구
10	산티아고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문화원 2단계 건설

* 출처: 2018.2.16자 칠레 주요 언론보도

2 한국 투자 현황

- 양국 간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 진출은 미미하나 FTA 후 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
 - 우리나라는 칠레의 5대 교역국에 포함될 정도로 칠레와 활발한 교역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투자 분야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미미
 - 칠레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집계에 따를 경우 1974년부터 2013년까지 D.L.600 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한국의 투자 규모는 대 칠레 총 외국인 투자액의 0.2%에 불과
 - 다만 우리나라 기업의 대 칠레 투자 건수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 이후 증가
- 광업 분야에 투자 집중, 분야별 구분에는 큰 의미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금액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칠레 투자는 업종별로 광업 69.1%, 도소매업 15.3%, 제조업 7.4%, 건설업 5.5% 등의 분포를 보임
 - *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현지 금융을 통한 투자액, 투자 청산액 등이 제외되어 있음
- 2019년 4월, 한-칠레 정상회담을 통한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 전망
 - 2019년 4월 28일과 29일에 이루어진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국방협력 협정'을 비롯해 '전자정부 협력 MOU', 'ICT 협력 MOU', '교통협력 MOU'가 체결됨
 - 특히, 인프라 구축, 5G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및 기업 참여가 기대
- 칠레 신규 법인수(누적)는 93개사이며, 한국의 대칠레 투자는 업종별로 전기·가스 공급업 58.3%, 전문서비스업 25%, 광업 8.3%으로 분포 (한국수출입은행 '21.10.기준)
 - *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투자와 현지 금융을 통한 투자액, 투자 청산액 등이 제외되어 있음
- 칠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주로 판매법인과 지사 형태로 진출해 있음
 - 전자, 자동차, 타이어, 플랜트, 의료 위주의 진출에서 광업, 에너지 등으로 진출 분야가 다양해지는 추세
- 제조업 분야로는 1993년 이견산업이 목재 가공업을 위해 진출하였고, 2007년에는 신광목재 투자에 진출 (2015년 철수)

<우리나라의 대 칠레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US\$천)

년도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322	93	920,094	348	846,829
1999년 이전	53	3	67,614	67	55,597
2000	3	0	1,063	2	1,000
2001	1	0	63	0	0
2002	0	0	0	0	0
2003	3	21	15,300	2	5,500
2004	3	3	1,782	4	11,510
2005	5	2	3,306	6	638
2006	9	8	4,931	15	4,327
2007	12	2	30,331	9	26,295
2008	4	2	2,720	5	2,630
2009	7	2	6,054	5	6,052
2010	4	3	39,932	4	18,929
2011	12	6	145,976	15	145,556
2012	16	3	36,943	12	15,270
2013	15	5	14,792	22	34,199
2014	14	6	43,859	15	41,126
2015	22	4	29,245	19	31,159
2016	16	3	46,189	21	37,157
2017	30	3	187,929	30	184,399
2018	33	8	122,491	29	105,116
2019	29	5	31,438	32	39,153
2020	24	3	78,339	22	69,453
2021	7	1	9,797	12	11,76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21년 10월 기준)

- (포스코건설)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사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 입찰을 수주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2006년 하반기에 칠레에 사무소 개설 - (완공실적) 현재까지 하기 포함 총 8개의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을 통해 칠레 내 입지를 넓힘

연번	내용	사업규모	완공일
1	칠레 Ventanas 석탄화력발전소 (245MW)	3억 7,000만 달러	'09.12.
2	Campiche (243MW)	4억 4,000만 달러	-
3	Angamos (270MW x 2기)	8억 6,000만 달러	-

* 이 중 1건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주하여 수행하였고 이후 포스코건설과 합병됨

- 한국 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 현황

연번	주관사	내용	위치	상태
1	한화큐셀	태양광발전소 (2.8MW급)	Santiago 인근	'16년 완공 (운영 중)
2	남부발전 S-energy	태양광발전소 5기 (총 38MW급)	Santiago, 북부 Atacama 지역	'20년 완공 (운영 중)
3	남동발전 한화큐셀	태양광발전소 2.6~9.7MW급 10기(총 49MW급) 중 7기	Santiago 인근	운영 중
		태양광발전소 2.6~9.7MW급 10기(총 49MW급) 중 3기 건설 태양광발전소 7기(총 70MW급) 2단계 건설	북부 Antofagasta 지역	'20.11 완공 '20년 말 착수
4	동서발전 대림산업	태양광발전소 4기	Santiago 인근	건설 · 운영 중
5	한수원* S-energy 한양전공	태양광발전소 2기 건설		올해 말 착수
6	남동발전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19년 등록 완료
		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배출권)		올해 발행 예정

- 한국 기업이 진출한 칠레 태양광발전 사업은 모두 PMGD(Pequeños Medios de Generación Distribuidos,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해당
- 칠레 정부의 MGD 법에 따라 9MWac 이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PPA나 Spot 가격보다 높은 단가(안정화 가격)가 일정 기간 보장

○ 한국 기업의 발전사업 현황

연번	주관사	내용	상·태
1	SK에코플랜트	Red Dragon 석탄 화력 발전소(12억 달러)	'13년 수주
2	남부발전 컨소시엄	Kelar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IPP 프로젝트 (6억 달러)	'13년 수주
3	현대건설 컨소시엄	칠레의 국책사업인 차카오 대교 건설 프로젝트 (7.4억 달러)	'14년 수주
4	한국광물자원공사 삼성물산	칠레 엔엑스우노(NX1) 리튬광산 개발사업 칠레 코피아포의 지분 30%를 인수	'11년 컨소시엄 구성
		산토도 밉고 동광 프로젝트 참여	-
5	LG상사	에너지기업 지오파크 (Geopark)의 지분 20%를 인수를 통한 칠레 원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	-

○ 우리나라의 대 칠레 진출 확대에 따라 전력 사업, 자원개발, 농수산물 가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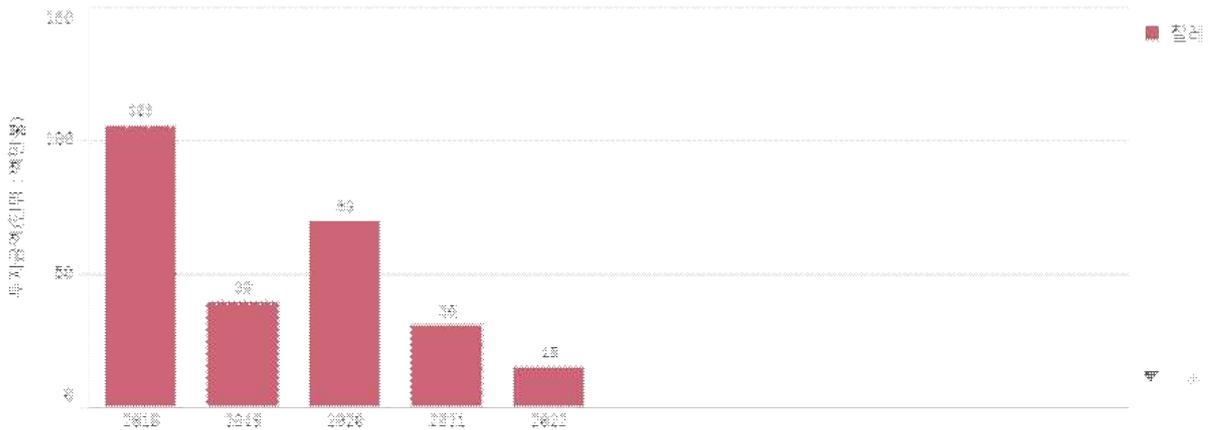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진출 현황('22.07.28 현재)

구 분	사업명	내 용
FS지원사업	칠레 칠로에 종단 PPP 건설 및 운영 예비 타당성 조사	분야 : 도로 위치 : 칠레 로스라고스 지역 칠로에 섬 지원시기 : 2020년 7월~11월 진행단계 : FS 단계
직접투자 사업	칠레 Guadalupe 6.59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Guadalupe 설비용량 : 6.59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9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8.6백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증권, 주주대여 KIND투자금 : 3.8백만달러 진행단계 : 운영단계

구 분	사업명	내 용
직접투자 사업	칠레 Maria Pinto 6.3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Maria Pinto 설비용량 : 6.3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9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8백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증권, 주주대여 KIND투자금 : 3.5백만달러 진행단계 : 개발단계
	칠레 Talca 10.4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Talca 설비용량 : 10.4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7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13.2백만달러 투자형태 : 채무증권 KIND투자금 : 6.5백만달러 진행단계 : 운영단계
	칠레 PMGD 포트폴리오 (그린필드 72.45MW, 브라운필드 48.6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중북부 17개 지역 설비용량 : 72.45MW(그린필드), 48.6MW(브라운필드)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10개월 운영기간 : 30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162.4백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증권, 수익증권 KIND투자금 : 21백만달러 진행단계 : 개발단계

구 분	사업명	내 용
정책펀드 사업	칠레 Talca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Talca 설비용량 : 10.4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10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IPP 사업규모 : 13.2백만달러 투자형태 : 주주대여금 및 지분투자 KIND투자금 : 41억원 펀드투자금액 : 76억원 펀드구분 : GIF 3호 진행단계 : 운영단계
	칠레 아카시아 9.5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Cachapoal 설비용량 : 9.5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10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IPP 사업규모 : 12.6백만달러 투자형태 : 주주대여금 및 지분투자 KIND투자금 : 69억원 펀드투자금액 : 128억원 펀드구분 : GIF 3 진행단계 : 운영단계

○ 한국의 칠레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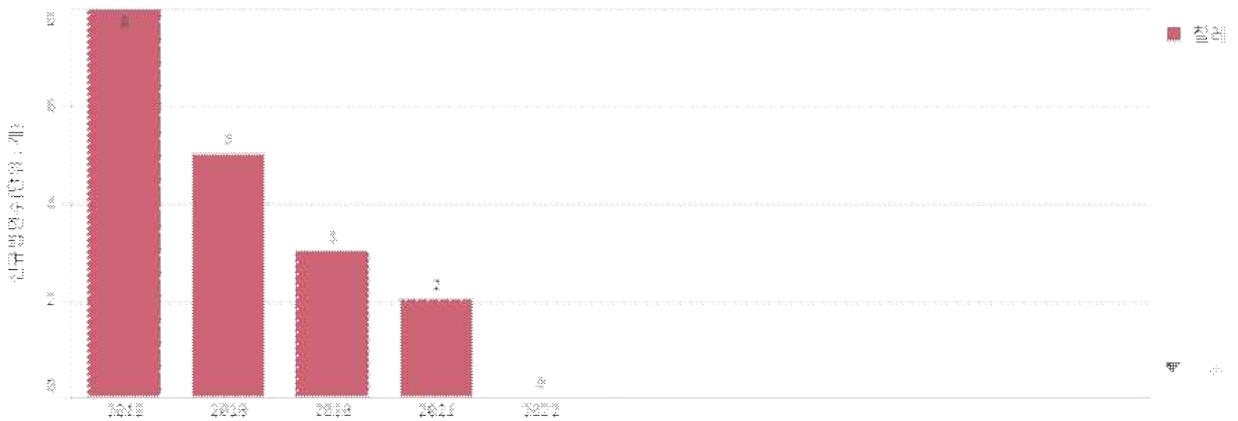


(단위: 백만불)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말)
투자금액	105	39	69	30	15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칠레 신규 투자법인수



(단위: 개)

년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말)
신규투자 법인수	8	5	3	2	0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건설업체 현지 지사 개설현황

업체	지사명	소재지	전화/팩스
두산 에너빌리티	Santiago Office	Av. Cerro Colorado 5240, piso 10 Las Condes, Santiago, Chile	56-2-434-5373
세일E&C	Seil E&C Co., Ltd. Agencia en Chile	San pio X 2460, oficina 405 Providencia, Santiago, Chile	569-5217-7115
STX중공업	STX Heavy Industries Co., Ltd., Agencia en Chile	Las bellotas199, Of. 61, Providencia, Santiago, Chile	56-2-2234-3276
포스코건설	POSCO E&C AGENCIA DE CHILE	LAS CONDES, SANTIAGO, CHILE	070-7445-5080

○ 한국건설업체 현지 법인 개설현황

업체	법인명	소재지	전화/팩스
현대건설	Consorcio Puente Chacao S.A.	Gertrudis Echenique No.420, Las Condes, Satiago	562 2684 9669

○ 한국건설업체 주요 완공 공사현황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단위: 천미불)	공사기간
포스코건설	코크레인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Empresa Electrica Cochrane S.A	961,245	2013/04/04 2016/09/20
포스코건설	칠레 안가모스 석탄화력발전소	AES	875,983	2008/04/04 2011/10/02
포스코건설	칠레 Campiche 240MW 석탄화력 발전소(Nueva Ventanas III의 Copy Project)	AES	468,550	2008/04/30 2013/03/13
삼성ENG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	Kelar S.A.	434,080	2014/02/01 2016/12/28
포스코건설	벤타나스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	Empresa Electrica Ventanas S.A.	377,692	2006/12/01 2009/12/31
세아STX	보카미나 화력발전소 1호기 반건식 탈황설비 설치공사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S.A. (Endesa)	51,813	2012/04/19 2017/09/30
세일E&C	보카미나 2 화력발전소 BOP 기계 배관 설치공사	엔데사	43,715	2010/09/06 2012/07/31
세아STX	타라파카 발전소 반건식 탈황 EPC 공사	셀타	39,249	2014/05/30 2017/05/15
효성중공업	500/220 kV 차루아 프로젝트	트랜셀렉 (칠레 전력청)	35,390	2011/01/04 2013/07/04
포스코건설	칠레 PLAMEN Project - 용역	피알엠	23,328	2014/12/31 2016/08/31
포스코건설	산타마리아 1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용역	콜번	17,738	2011/02/21 2012/08/31
포스코건설	Santo Domingo 광산 LNTP-2 용역	미네라 산토도밍고	1,454	2019/04/04 2019/06/30
한미외장	판넬제작설치공사	피알엠	1,257	2015/05/13 2016/10/30
포스코건설	Santo Domingo 광산 LNTP-1 용역	미네라 산토도밍고	840	2019/03/08 2019/09/16
한미글로벌	칠레 태양광발전사업 CM용역	에스에너지	825	2017/07/01 2020/03/31
수자원공사	칠레 탈카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누에보수르	150	2016/10/19 2017/04/18

(출처: 해외건설협회)

- 대림에너지, 칠레 산타로사 태양광발전소 준공
 - 대림에너지는 2019년 4월 15일 칠레 산타로사(Santa Rosa)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돌입
 - * 2018년 12월 사업권을 인수한 칠레 태양광발전 사업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
 - 대림에너지는 칠레 중북부에 걸쳐 9MW 급 태양광발전소 12개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
 - 상업 운전 이후 25년간 발전을 통한 매출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 기대
 - * 칠레의 분산 전원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정부가 구매함
 - 이 프로젝트는 대림에너지가 5,000만달러(약 570억원)를 투자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술 및 경영지원 계약을 통해 사업 전반을 관리
 - 총 사업비는 약 1억 8,000만달러(약 2,000억원)로 지난달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 사업비의 약 72%인 1억 3,000만달러(약 1,430억원)를 PF로 조달



(칠레 산타로사 태양광발전소/대림에너지, 엔지니어링데일리)

- 동서발전 · 대림에너지,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
 - 한국동서발전은 2019년 6월 6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8MW 급 Rinconada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 진행

- 대림에너지와 함께하는 동서발전의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105MW(8~9MW 급 12 개)의 분산형 태양광발전단지를 개발, 건설하고 25 년간 운영하는 사업
- 2020 년 3 월 종합 상업 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
-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의 첫 남미 투자형 발전 시장 진출 프로젝트인데다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PV 패널을 사용한다는 점, 신재생에너지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총사업비는 1 억 7,800 만 달러로 동서발전과 대림에너지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미래에셋대우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주관
- 동서발전은 본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향후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기반으로 칠레 및 중남미 시장에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밝힘

3 주요 PPP 사업 전망

가. 2020년 중남미 PPP 시장 현황

(출처 : 해외건설협회)

□ 시장 전망

- 2,500억 달러 규모(InfraPPP Reports 기준)의 중남미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2020년 더욱 확대될 전망
- 2017, 2018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3.6%, -4.3%)을 기록하며 침체에 빠졌던 중남미 건설시장이 2020년에는 1.2%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IHS Markit)
 - 특히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들이 철도, 도로, 병원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을 PPP 형태로 적극 추진 중
 - 코로나19 대유행 및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프로젝트 발주 연기·축소, 인력 수급, 조달 등 건설시장 전반 악영향은 불가피
 - 반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양적완화를 비롯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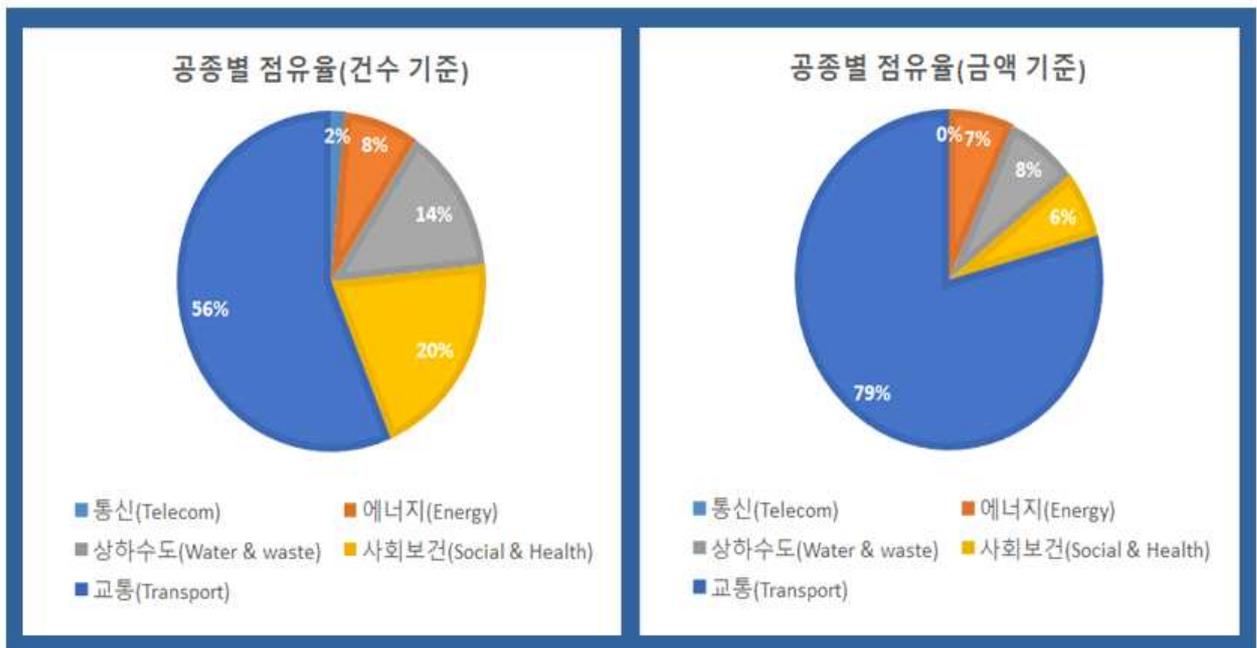
□ PPP 사업규모

- 2018~2019년 중남미 계획·입찰 또는 시공·운영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총 710건, 2,500억 달러 규모에 달함 (InfraPPP Reports)
- 교통 프로젝트가 400건, 1,980억 달러로 전체 PPP 시장을 선도하며, 다음으로 사회 보건, 상하수도, 에너지 분야 등이 PPP 시장을 점유

<중남미 PPP 사업 규모>

공 종	건 수	금액(억불)
통신(Telecom)	10	0
에너지(Energy)	56	170
상하수도(Water & waste)	100	190
사회보건(Social & Health)	144	160
교통(Transport)	400	1,980
총합계	710	2,500

(출처 : infrappworld 등)



(출처 : infrappworld 등)

□ 중남미 PPP 사업 환경

- (투자액) PPP 사업에 대한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유지
 - * 투자금액 변화: 2017년 60억 달러 → 2018년 80억 달러 → 2019년에는 130억 달러 (작년에는 2017년 대비 117%나 증가)
- (시스템) 중남미 주요국에서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진행 중.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17개국(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바하마, 니카라과, 에콰도르, 온두라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페루, 우루과이)은 PPP 전담 조직(PPP-dedicated agency)을 출범시켜 운영 중
 - 이 조직들은 크게 기술적 지원, 민간 인프라 참여를 위한 감독, 민간 투자에 대한 정치적 지원 3가지 역할을 수행 중

→ PPP 사업은 프로젝트마다 사업구조, 기간, 참여자, 법·제도, 위험요인 등이 다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성과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공공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PPP 방식의 사업을 확대해야함

※ 이러한 추세에서 중남미 건설시장에서 민간 자본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민간과 공공간의 협업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

○ 중남미의 PPP 사업환경의 지수화

- The 2019 Infrascope는 사업 환경과 관련한 총 5개 항목*을 선정 및 각각에 대해 분석 후 100점 기준으로 점수화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발표

* 규제, 제도, 운영 성숙도, 투자 환경, 금융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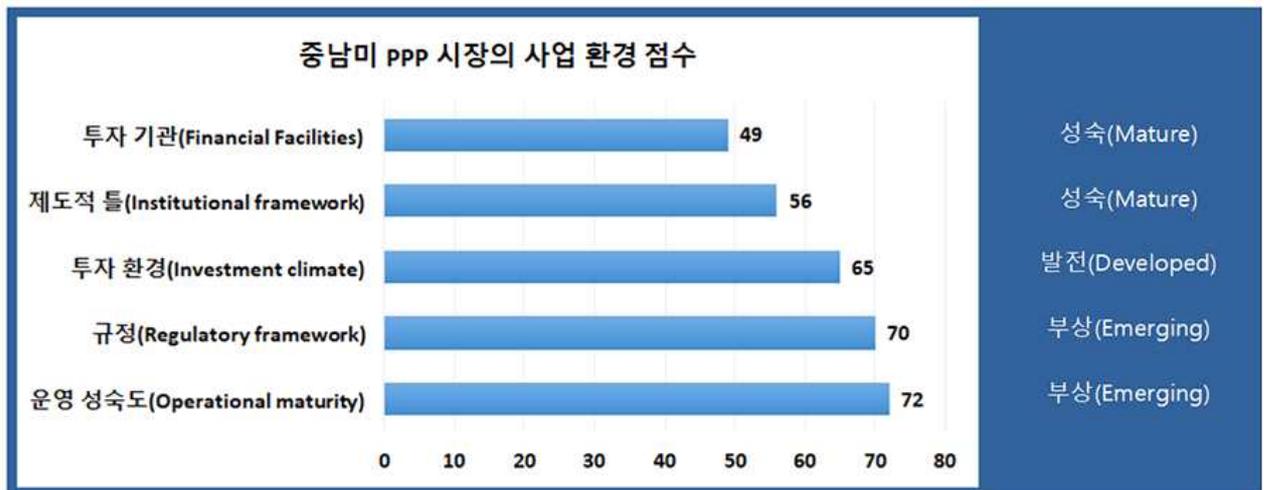
- 또한, 사업환경에 대한 단계를 점수 범위별로 규정하여 발달 정도를 나타냄

* 80~100점은 성숙(Mature), 60~79점은 발전(Developed), 30~59점은 부상(Emerging), 0~29점은 초기(Nascent)로 규정

○ 중남미 PPP 사업환경에 대한 평균 점수는 '62점 /발전' 수준으로 양호

- 특히 운영 성숙도, 규정, 투자 환경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각각 72점, 70점, 65점으로 발전(Developed) 수준으로 평가됨

- 단,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과 금융 기관(Financial Facilities) 부분은 각각 56점, 49점으로 부상(Emerging) 단계에 그침



(출처 : The 2019 Infrascope, infrappworld 등)

○ 이에 최근 중남미 각국들은 PPP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브라질) 2004년 12월 PPP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법률(Lei No. 11.079)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5385호를 발표
- 이후 PPP를 특수 양허, 후원 양허, 행정 양허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연방정부 및 각 주·시 정부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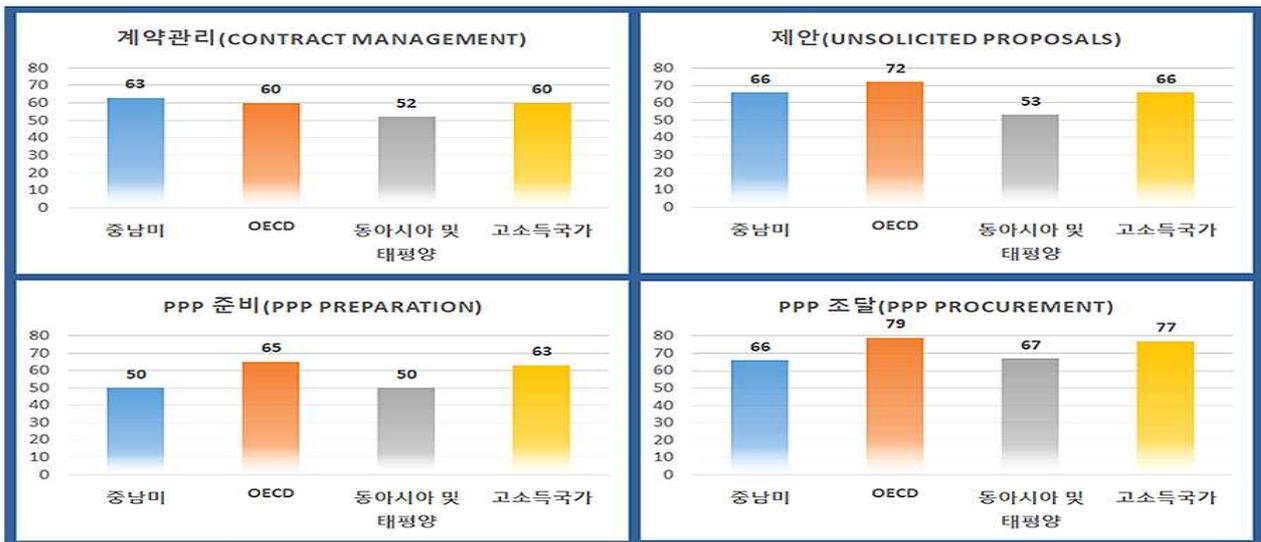
- (페루) 중남미 최초로 PPP 법제화를 도입한 이후, 2013년 민간투자자가 국가의 협조금융을 통한 공공사업 개발을 제안하는 방식인 민간제안 공동출자제도 (Co-finance Private Initiative)를 새로 도입
- (콜롬비아) 2012년 1월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민간 자본 조달을 통해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PPP 법(Ley No. 1508)을 제정
- 이후 PPP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발전기금*을 통해 정부 재정투자의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여 사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를 지원 중

* 국가발전기금 : Fondo Financiero de Proyectos de Desarrollo (FONADE)

○ 한편, 중남미 국가의 정부들은 대부분 재정 여력이 취약해 PPP 사업에서 특히 민간부문의 금융 조달 능력이 강조되며, 민간부문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적극적 활용이 우선되어야 함

- 최근 이 지역에서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개발은행(CAF) 및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등 개발은행은 PPP 사업시 자금조달 채널로 참여도 상향 중
- 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이자 PPP 사업 준비 및 개발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 가능

▶ 중남미 시장의 PPP 수행환경 관련 규정(Regulatory framework) 측면 비교
<중남미 시장 PPP 수행환경>



(출처 : Procuring PPP projects Report(2018), infrappworld 등)

- (계약관리) 중남미를 OECD 회원국, 동아시아 및 태평양, 고소득 국가와 비교 결과, 중남미는 계약관리 측면에서 63점으로 비교 지역 중 가장 고득점함
 - * 고소득 국가(60점), OECD 회원국(60점),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52점)
- (민간제안사업) 중남미는 66점으로 고소득 국가 그룹과 같은 점수를 획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OECD 회원국(72점)에는 미치지 못함
- (PPP 준비 및 조달) 각각 50점, 66점으로 비교군 중 하위 수준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와 유사한 수준
 - PPP 준비 및 조달에 관한 사항은 PPP 법제화 및 운영제도, 기금 운용의 선진화 지속 및 PPP 사업 수행 경험 축적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결 론

- 중남미 시장은 언어, 문화적 특성 등 우리 기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시장임은 분명. 단, 풍부한 자원, 인구, 경제성장 및 건설시장의 잠재력을 고려 시, 중남미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해외건설협회,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실시
 -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 조사, 발주처 인사 초청 및 면담 등에 소요되는 수주 활동 비용,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검증 등의 조사·분석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시장개척지원사업」을 운영 중
 - 또 페루 리마에 소재한 「한-페루 인프라협력센터」 형태로 거점을 운영 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 중
 - 이 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해외 건설정책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되길 바람
- 제언
 - 앞으로 우리 기업이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중남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동시에 현지인들에게 삶의 편의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남미 국가가 서로 협업하면서 윈-윈 할 수 있길 바람

[참고자료 출처]

- IHS Markit 'Global Construction Outlook'(2019.12)
- Infrappworld 'LATIN AMERICA & CARIBBEAN PPP Market 2020'(2020.2)
-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해외 PPP사업 확대를 위한 한국형 금융모델 개발 연구'(2017.2)

나. 기회의 땅 중남미, 철도 인프라 진출 노려라

철도협회·중남미협회,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지원 세미나 개최, 부족한 재정
 여력 극복 위한 방안 필수, PPP 사업환경 고려 및 ODA, 팀코리아, 패키지형
 진출도 고려 필요하다 (출처: 대한경제신문, '22.05.03)

'22.5.2일 한국철도협회, 한·중남미협회, 한국교통대학교는 중남미 철도시장 진출지원 웨비나를 개최해 하기의 내용을 소개

□ 중남미가 해외건설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이뤄지는 철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의 중요성이 확대

〈국가 철도공단 해외사업본부 부장〉

- 중남미는 코로나19로 경제위축을 경험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 인프라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
- 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함께 수주 기회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부족한 재정 여력을 메우기 위해 PPP사업 방식을 통한 사업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 칠레(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분야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통 물류가 도로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철도와 지하철 등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실제, 중남미 지역에서는 다양한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

No	사업명
1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 여객철도 개량사업, 리몬 화물철도(TELCA) 개량사업, 태평양 연결철도 개량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개발 지원사업
3	도미니카 공화국 도시철도사업
4	페루 리마 메트로 3, 4호선, 쿠스코~친체로 철도연결사업, 리마 ~ 이카 근교 철도 사업
5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

-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오랜 기간 영향력이 강했던 스페인 등 유럽기업의 아성이 흔들리는 등 중남미 외국 기업 진출 구조가 빠르게 변경 중
- 중남미 지역은 철도, 도로, 공항, 상하수도 등 인프라별 갭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철도사업의 잠재력이 큼
- 칠레(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는 PPP 사업환경 우수하며, 현지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PPP 환경 등을 고려한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

- 이날 전문가들은 초기 사업개발 단계부터 협력관계 구축을 기초로, 본 사업 수주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남미 지역 인프라 시장의 잠재성은 크지만, 정치적 불안 등에 따른 리스크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미

<국가 철도공단 해외사업본부 부장>

- 중남미 PPP 철도시장에 성공에는 금융 조달이 가장 중요 요소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 및 연계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전략적 ODA 자금을 활용한 연계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정부·공기업·민간 간 체계적인 협업체인 ‘팀코리아’ 구축을 통해 사업 수주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도 필수 과제

<코트라 건설프로젝트 PM>

- 최근 정부간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팀코리아가 페루 신공항 프로젝트를 수주했던 경험을 살려 기관별 연계 협업 체계 구축해 진출하는 방안이 필요
- 입찰제안서 제출 시 철도 노반공사, 통합관제센터, 역사개발, 연결 교통망, 물류 기지 등 사업의 모듈화를 통한 패키지형 사업으로 진출하는 옵션 고려가 필요

다. 중남미 인프라 PPP 시장 진출방안

KIND, 한·중남미협회와 '중남미 인프라 진출 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중남미 지역이 해외 건설시장의 수주 다변화를 위한 기회의 땅으로 부상 중
재정 확대와 인프라 확대 등으로 풍부한 개발 수요를 갖추고 있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개발사업이 영향받을 수 있어 전략적인 진출 방안 수립이 중요함

(출처: 대한경제신문, '21.06.27)

'21.06.25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한·중남미협회는
'우리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과 다자간 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하기의 내용을 소개

- 올해 중남미 건설시장은 4,599억달러로, 작년 대비 7.7% 성장해 코로나19 타격에서 회복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며, 오는 2022년~2024년에도 7~9% 성장 예상
 - 중남미 지역은 우리 기업의 3대 해외건설 시장(2020년말 기준, 467억달러)에 해당
- 그동안 중남미는 중동, 아시아에 비해 소외된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지난해 '페루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2단계(36억9,500만달러)', '파나마 메트로 3호선(28억4,400만달러)'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잇따르며 급부상
- 중남미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선진기업 수주 방식을 학습해 온 기회의 땅으로 국내 최초 FEED 사업 수주, 국내 최초 인프라 G2G PMO사업 수주 등 새로운 수주 방식의 테스트베드인 면모를 보임 (출처: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미주·유럽실장).
 - 중남미 지역에서는 부족한 재정 여력을 메우기 위한 PPP사업 발주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
 - 중남미는 5,000만달러 이상 인프라 프로젝트 중 PPP 진행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
 - 중남미 지역은 향후 20~30년 동안 매년 1,50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으로, PPP시장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예정
- * 칠레(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는 기존 인프라를 넘어 공원, 교육 센터, 교도소 및 컨벤션 센터까지 PPP 영역을 확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수주 기회도 대폭 늘어날 전망
 -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프로젝트의 국제 입찰 프로세스 재개되고 있으며, 시급한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PPP 형태 발주가 증가 예정
 - (멕시코)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을 통해 국책 인프라 사업(마야철도,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산타루시아 국제공항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 (브라질) 올해 전력 부문에 최대 37억달러 투자할 예정이며,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4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페루) 경제회복을 위해 메트로 3·4호선, 도로, 통신망 구축, 상하수도, 변전소 및 전력산업 등 인프라 사업 중점 추진 예정
 - (아르헨티나) 주택공사, 학교수리 등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약 11억 달러 투입해 인프라 지출 증대 정책을 추진 전망
 - (파라과이) 세수, MDB 등 전통적인 재원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가능 규모가 제한적임에 따라 PPP, EPC-F 등의 민간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 확대 예정
- 우리 기업의 PPP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확대

<중남미협회 엑셀러레이터>

- 현재는 가격 경쟁 외에 기술에 정통한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해야할 시점
 - 현지인 수준의 지역 상황 및 트렌드 파악, 데이터 위주의 스마트 에너지 및 교통사업 겨냥, 정부 부처-산업 파트너 간 팀 어벤저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접근이 필요
 - 프로젝트 사이즈에 따른 PPP 창구 구축 및 PPP 전문가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과제 해결 필요
- 정권에 따라 인프라 개발사업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의 정치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초박빙이었던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성향 페드로 카스티요 후보가 다양한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내세운 케이크 후지모리 후보를 근소한 차이(0.25%포인트)로 승리
 - 앞서 카스티요 후보는 전략산업 국유화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기대됐던 인프라 사업들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전 주페루 한국대사>

-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서구 국가들에 비해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상생협력 핵심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필요
- 한국과의 인프라 개발협력은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등 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 각인 필요
- 정부의 전방위적 수주 지원 활동 전개를 위해 팀코리아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국토교통부 내 해외인프라국을 신설해 해외인프라 진출의 외교 사령탑 역할 수행 필요

라. 중남미 인프라 시장 특징

- (1) 중남미에서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
 - 특히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일차산품 붐 종식에 따른 재정난으로 정부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남미 지역에서 PPP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 (2) 개도국 중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
 - 최근 5년간(2011~15년) 개도국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 투자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위인 유럽·중양아시아보다 두 배나 높았음.
 - 같은 기간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에서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됨
- (3) 외국기업의 진출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음
 - 스페인 등 유럽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국영석유기업 스캔들 여파로 중남미 시장에서 브라질 기업의 위상이 크게 추락
- (4)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가 ICT와 전력 분야에서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로 다각화되고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마.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잠재력과 전망

- 향후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프라 갭이 크고 이를 극복하려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커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
- 앞으로 중남미 경제가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GDP 대비 3% 수준인 투자를 5%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
- 향후 중남미 각국의 개발 수요 고려 시, 경제 인프라 중에서는 수자원, 도로, 도시교통(메트로, 도시 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등), 사회 인프라 중에서는 교육, 보건의료 부문이 유망할 전망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바. 중남미 PPP 환경과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

(1) 중남미 PPP 환경의 특징

- 중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PPP 사업환경은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
- 다만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등 PPP 사업환경이 양호한 상위 5개국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사업여건이 월등히 우수
 - * 5개국의 PPP 사업환경은 전 세계 개도국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국가군에 속함
- 그 이유는 확실한 PPP 법률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PPP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오고 있어 풍부한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

(2) 중남미 PPP 제도의 주요한 특징

-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의 PPP 환경과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가지 특징을 도출
 - PPP 전담조직 설립 확대
 - 민간제안사업 장려
 - 민간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 경제 인프라 분야에서 사회 인프라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사. 중남미 인프라 개발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중산층의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 그러나 높은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중남미의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2008~13년 평균)는 GDP 대비 3%로 전 세계 평균(3.8%)을 하회
 -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은 민간자본을 동원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활발히 추진
 - 이에 따라 중남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 형태로 추진. 중남미에서 PPP 사업은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등 경제 인프라에서 병원, 학교 등 사회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
 -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 국내에서 중남미 PPP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PPP 제도와 사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데다 플랜트 시공 등 턴키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
- 이처럼 급변하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중동을 대신해 해외 건설시장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서의 진출 기반을 상실할 수 있음
- 최근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에 힘입어 침체된 중동시장을 보완할 차세대 인프라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 확대 방안이 필요
 - 먼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PPP 시장 참여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둘째, 저부가가치 EPC(설계·조달·시공) 중심의 단순 도급형 수주에서 탈피, 수주구조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방안 제시에도 중점을 두어야 함

- 셋째,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 대한 지원정책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남미 개발금융 기구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 도출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아. 분야별 인프라 시장의 특성 및 외국기업의 진출사례

(1) 진출사례 및 분야 선정

- 크게 전력, 교통,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4개 분야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 * 이들 분야는 크게 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전력, 교통), 비전통적 인프라 개발 분야(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로 구분
- 전력과 교통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분야이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중남미 각국에서 개발 수요가 가장 큰 분야. 대표적으로 멕시코, 페루 등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다음으로 보건의료와 식수 및 위생 분야의 경우 칠레와 콜롬비아 등 중남미 각국에서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새롭게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2) 칠레: 병원부문 사례

- 칠레의 경우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 산호세 그룹의 사례가 있음
-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 수주에 성공함. 특히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됨

(3) 페루: 지하철 공사 사례

- 페루의 경우 리마 지하철 2호선 사업을 수주한 스페인-이탈리아 컨소시엄 사례가 있음. 스페인 컨소시엄은 풍부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경험에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조건을 만들어 수주에 성공

(4) 멕시코: 전력 부문 사례

- 멕시코의 경우 전력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페인 Iberdrola가 있음
- Iberdrola는 멕시코 전력 부문의 주요 발주처인 연방전력공사(CFE)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 구축, 신재생에너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선제적 사업 발굴 및 수주, '선(先) 저가수주 후(後) 협상' 전략을 통해 멕시코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굳힘

(5) 콜롬비아: 식수 및 위생 부문 사례

- 콜롬비아의 경우 식수 및 위생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사례와 한국기업의 진출사례가 있음
- 먼저 식수 부문에서 스페인 기업의 진출사례는 PPP 사업 추진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좋은 경우
 - 스페인 기업은 자체 자금만으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확장 공사 비용을 커버하기 어렵다고 판단, 금융조달 종결과정에서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냄
 - 그 결과 스페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투자 비용을 커버함
-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합작으로 수주한 하수처리 플랜트 사업은 PPP 사업은 아니지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의의가 큼
 - 우리 기업의 진출 경험이 전무한 하수처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 하수처리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스페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했다는 점
 - IDB의 자금지원 사업에 진출했다는 점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자. 중남미 시장에서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할

(1)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와의 협력 필요성

- 중남미 PPP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
 - 중남미에는 다른 신흥지역에서와 달리 IDB, CAF 등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해 금융협력 파트너로 협력가치가 높음
 - 중남미 진출기업들도 인프라 개발 시 금융조달 창구로 IDB, 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사업 지원 현황과 활용 가치

- IDB와 CAF 모두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IDB는 Infracre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들의 PPP 사전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음.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 가치가 높음
- CAF는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데다 비회원국인 우리 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차. 우리 건설기업의 중남미 진출 현황 및 과제

(1) 한국의 대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현황

- 중남미 건설시장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중남미 각국의 인프라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동, 아시아에 이은 3대 진출 시장으로 급성장
- 최근 5년간(2012~16년)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에서 중남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함

(2) 한국의 대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과제

-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진출은 중남미 각국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 노출, 플랜트 등 일부 공종에 지나친 편중, 개발형 사업 진출 부재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카. 우리 건설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방안

(1) 중남미 인프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 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 필요

(2) 중남미 각국의 PPP 발전 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

-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니카라과, 아르헨티나 등 PPP 환경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PPP형 사업보다는 정부 재정사업이나 EPC 사업 진출이 안전
-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나 성숙되지 않은 국가(주로 중미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 협력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마지막으로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등에 대한 진출은 현지 기업이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

(3) 중남미 현지 기업 및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에너지 플랜트, 산업 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력, 빠른 시공 능력을 무기로 중남미 현지 기업이나 스페인,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함

(4) 중남미 개발은행의 적극적 활용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남미 MDB는 현재 이 지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창구
- 우리 기업들이 IDB, CAF 및 CABE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 먼저 이들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 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음
 - 다음으로 PPP 사업 준비 및 개발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도 활용도가 큼
 - 마지막으로 실제 PPP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채널로서도 가치가 큼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플랜트 시장 진출확대방안 권기수외, 2016)

타. 우리 정부 차원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방안

(1)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 채널로 가칭 '민관합동 수주 협의회'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기업간 동반 진출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과당 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격적인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 확대

-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
 - 특히 민간 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4)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협의하는 채널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가동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CABEL,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함

(5) 중남미 PPP 유관 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

- 중남미 각국의 정부 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 부처와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
-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IDB, CAF, CABEL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

4 발주 예상 PPP 현황

(1) 그린수소 시범사업자 모집 계획 공고(2021.04.21.)

- 칠레 생산진흥청(Corfo)과 에너지부는 2021.4.21.(수)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당 최대 30백만 달러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그린수소 시범사업자 모집계획을 최초 공고하였음
- 동 계획은 칠레 정부가 2020.11월 발표한 “국가그린수소전략” (National Green Hydrogen Strategy)의 일환으로 동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그린수소 국가전략 주요 내용

- 1) 2025년까지 5GW 규모의 전기분해 생산능력 확보
- 2) 2030년까지 그린수소 최저비용 생산국 지위 확보
- 3) 2040년까지 그린수소 주요 3대 수출국 지위 확보
- 4)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그린수소 시범사업자 모집계획 주요내용>

(가) 목적

- 칠레의 지속가능발전 및 그린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사업자 모집
- 전기분해 방식의 그린수소 생산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정책 지원 및 에너지 전환과정 가속화
- 수요·공급에 기반한 가치사슬(value chain) 형성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능력 개발 및 산업·상업화 기반 구축
-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린수소 관련 인적자원 양성 등

(나) 주요 사항

- (주요내용) 전기분해 방식으로 10MW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및 이행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 (참가자격) 칠레 국내 및 외국 기업
-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합법적으로 칠레에 법인을 설립하여 칠레 소득세법(DL824) 제20조 등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 주칠레 대사관이 표제 시범사업의 지원 자격 상세사항을 재확인한 결과, 칠레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 법인 소재국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 외국기업의 프로젝트 낙찰시 12개월 내 주식회사, 합작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또는 인수를 통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칠레에 기설립된 자회사를 대표로 선정 가능
- (지원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당 최대 30백만 달러 지원

(다) 추진일정(칠레 현지 기준)

- 사전문의: 2021.7.9까지
문의방법: 이메일 (hidrogenoverde@corfo.cl)
※ 타경로 또는 마감일 이후에는 문의 불가
- 지원서 접수: 2021.9.6. 23:59까지
Corfo 홈페이지 시스템 (추후 공지 예정)
※ 마감시한까지 신청절차를 모두 완료한 제안서에 대해서만 접수 인정
- 사업기간: 최장 2025.12월까지

(라) 기타 참고사항

- 공식언어: 스페인어
- 웹사이트: www.corfo.cl (칠레 생산진흥청 공식 웹사이트)

(2) 리튬 사업 입찰 정보(2021.10.20.)

2021.10.13. 칠레 광업부(Ministerio de Minería)는 리튬 탐사·연구·프로젝트 개발 및 생산·판매를 위한 입찰을 공고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리튬사업 입찰 주요 내용>

(가) 입찰 배경

- 국제 사회의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른 리튬의 수요 증가
 - 최근 △전기차, △청정에너지 및 △리튬 관련 신기술 개발로 리튬의 국제수요가 급증하였으며, 2030년 리튬 수요는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칠레 정부의 “국가광업정책 2050”(Política Nacional Minera 2050) 기조에 따라 2030년 리튬 생산량 450,000톤 달성 추진
 - 광업부는 세계 리튬 1위 매장국*인 칠레는 2012년까지 리튬 생산 1위 국가였으나 호주가 리튬 1위 생산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20년대 말 경 중국의 부상으로 3위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 지난 1월 미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USGS) 발표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60만 톤

(나) 입찰 내용

- 총 400,000만톤 규모 리튬의 탐사 및 생산
 - 7년 간 리튬 탐사·연구·프로젝트 개발(2년 연장 가능)
 - 이후 20년 간 5개 기업에 80,000톤씩 생산량 할당(cuota)

- 칠레 정부와 낙찰 기업 간 특별운영계약(Contrato Especial de Operacion,CEOL)을 체결하여 해당 기업에 리튬 생산권 부여
 - 생산된 리튬에 대한 판매권은 칠레원자력에너지위원회(CCCHEN,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가 별도 부여
- ※ 1979년 리튬이 국가적 이해(interés nacional) 사안으로 선포된 이후, 칠레 정부가 리튬 생산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리튬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광산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칠레 정부의 승인 필수
- 입찰 참가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리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광산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 확정해야 하는 한편,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

(3)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 확장 고려

- 칠레 정부는 산티아고 메트로 2, 3호선 확장 사업(총 8.9km 연장)*의 추진을 고려 중이며, 이에 따라 확장구간 주변 지역 당국자들과 회의를 진행함
 - * 前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말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 산티아고 메트로 2, 3호선 확장사업 : △투자액 11억 7,300만 불, △확장구간의 일일 이용객 60만 명 예상
 - (2호선) △산티아고 남부 소재 엘 보스께(El Bosque), 산 베르나르도(San Bernardo)까지 5.1km 연장, △4개 역(El Espejo, El Observatorio, Lo Martínez, Hospital El Pino), △일일 이용객 40만 명 예상
 - (3호선*) △북부 소재 킬리꾸라(Quilicura)까지 3.8km 연장, △3개 역(Batuco, Las Torres, Plaza de Quilicura), △일일 이용객 20만 명 예상
- * 메트로 3호선은 현재 건설 중으로, 동부 뉴뇨아(Nuñoa)-북부 우에추라바 (Huechuraba)간 22km 구간, 18개 역으로 구성됨. 총 투자비 17억 2천만 불이고, 오는 2018.12월 완공 예정임. 일일 이용객 66만 명 예상(확장 노선 제외)

<아소까르(Rodrigo Azócar) 산티아고 메트로 공사 사장>

- 메트로 확장 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017년까지 착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확장구간 개통시 주변 지역 내 도로 혼잡* 및 교통수단 부족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됨. (칠레 일간지 El Mercurio와의 인터뷰(2016.3.11.))

* 특히, 킬리쿠라의 경우 동 지역 소재 산업단지(1,100개 기업 입점)로 타 지역에서 약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매일 출퇴근함에 따라 주변 도로 혼잡이 심각함.

○ 한편, 현재 산티아고에서는 3호선 외에도 6호선*이 현재 건설 중으로 2017.5월 완공 예정임

* 메트로 6호선은 동부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서부 세리요스(Cerrillos)간 15.3km 구간, 10개 역으로 구성됨. 총 투자비 10억 6천만 불이며, 오는 2017.5월 완공 예정임. 일일 이용객은 87만 명으로 예상됨

(출처 :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11호), BNamericas 2016.3.11.)

(4) 칠레 도로 개선 계획 발표

□ 前 바첼렛(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은 지난 2016.3.24(목) 新마이쁘 대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로 개선 계획(Plan de Mejoramiento de Carreteras)을 발표함

* 新마이쁘 대교(Nuevo Puente Maipo) : 산티아고 남부에 위치한 총 길이 465m의 왕복 6차선 교량으로 중부 고속도로(Autopista Central) 및 5번 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임 (2017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공정률 40%이고, 총 사업비는 650만 불임)

- 도로 개선 계획은 총 사업비 14억 4,300만 불, 850개 사업으로 구성되고,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 추진시 31,000개의 일자리 창출, 완공 시 940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칠레 공공사업부는 1단계 주요 사업만 발표하였으며, 이후 단계는 미정임

〈도로 개선 계획 주요사업(1단계)〉

도로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불)
Central 고속도로 북-남 구간	· Quilicura 분기점 건설 · Cerro Renca 터널 건설 · General Velásquez 구간 확장 · Vespucio 순환도로 북부구간 연결	560
78번 고속도로	· Vespucio 순환도로-Talagante시 구간 3차로 신설 · 울타리 및 안전시설 공사	120
5번 고속도로 Talca-Chillán 구간	· 안전시설, 보조시설, 울타리 공사	70
Concepción-Cabrero 고속도로	· Bonilla 로터리 개선, 보행육교, 정유소, 보조도로, 보행용 하부도로, 자전거도로 공사	49
Santiago 북-동 고속도로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설치 · Montegordo 터널 공사	48
Central 고속도로 북-남 구간	· San Bernardo 보조도로 공사	22
43번 고속도로 Serena-Ovalle 구간	· 보조도로, 차량용 하부도로 및 Ovalle 도심구간 공사	21
Vespucio 순환도로 남부 구간	· Macul, Peñalolén, La Florida, La Granja, San Ramón, La Cisterna, Lo Espejo, Cerrillos, Maipú 구간 신규 공사	18
합 계	· 398개 사업(보조시설 사업 393개 포함)	908

(출처 :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중남미 자원인프라 주간동향(2016-12호), 칠레 공공사업부, 2016.3.24.)

(5) 칠레 양허 프로젝트 PPP 포트폴리오 2021-2023

(출처: DLA Piper, www.dlapip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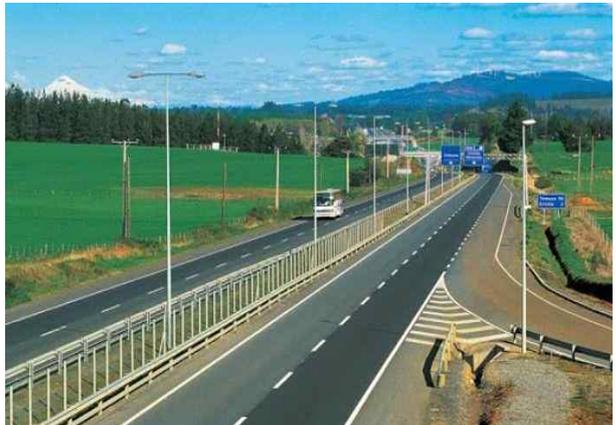
□ 서론

- 공공사업부가 2021~2023년까지 입찰할 공공사업의 목록과 일정을 발표함. 이 목록에서 도로 공사가 특히 눈에 띈
- 칠레에는 특정 유형의 위험(SWAP, 선물 시장, 옵션, 특별 보험)을 커버 가능한 장기 금융 및 파생 상품이 존재함. 연금 기금과 보험 회사도 있으며 두 기관 모두 자원이 풍부함
- BOT 시스템(건설, 운영 및 이전)에서 위험 분석 또는 인프라 채권에 이르기까지 구현된 각 메커니즘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금 조달 출처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1년 프로젝트 아젠다 요약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	투자금액 (백만불)	입찰요청일
Route 5 Section Caldera-Antofagasta	470km의 section안에 Route 5 확장, 개선, 유지 및 운영	628	2021년 1분기
Araucania 공항 지역	공항의 기존 인프라, 설비 및 시설의 확장, 수리, 보존 및 교체	81	2021년 1분기
산티아고-South Orbital Project	4개의 교차로와 3개의 지하차도 횡단을 통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낼 산티아고 남쪽 섹터에 위치한 고속도로 개발	210	2021년 1분기
오히긴스(O'HIGGINS) 지역의 병원 네트워크	Pichilemu 와 Cardenal Caro 구에 위치한 2개의 의료시설 건설, 입찰서 구매비용(420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PQ 여부 확인	150	2021년 2분기
세 번째 양허 El Loa 공항	Calama 공항의 개선, 유지 및 확장; 여객수요증가(월 10만 명)로 인한 확장	50	2021년 2분기
Colina 병원	Colina 코문(지자체)에 230병상 의료 시설 건설; 개발될 인프라의 유지 고려	240	2021년 2분기
공중 케이블웨이 high Hospicio-Iquique	기존 역을 연결할 5.5km 공중 케이블웨이; 각 방향으로 최고 시간당 3,000명 운송능력	84	2021년하반기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	투자금액 (백만불)	입찰요청일
Route 5 Section Chillan - Collipulli	확장, 서비스 도로, 보도, 주차장을 통한 Route 5의 160km 개선; 새로운 교량, 안전표지판 개선	309	2021년 하반기
공공 운송 트렉	공공 운송 트렉(2.9km 섹션의 두 번째 양허 및 기존 회랑의 다른 6개 섹션의 통합 포함)의 보존 및 운영	54.5	2021년 하반기
쓰나미 경보 시스템	통신 시스템, 지역 및 국가 통제 센터들, 청각 및 시각 경보 관측소를 통한 가능한 쓰나미 위험 대비 경보 및 통지 시스템의 수행	60	2021년 하반기
Route 5 섹션 Temuco-Rio Bueno 및 Valdivia 접근로	Valdivia 시의 입구에 있는 100km 이중 차도의 개발과 Route 5의 172km 개선	543	2021년 3분기
세 번째 양허 아타카마 공항	여객 터미널 빌딩 능력 증대 (1700m ² 에서 4700m ²)를 위한 공항 확장 및 개선, 상업 항공기를 위한 근무처의 수 증대	42	2021년 3분기
국립 신경외과 연구소	190병상을 가진 산티아고 providencia에 있는 의료시설의 건설; 인프라 및 설비의 유지 고려	200	2021년 3분기
Route 68- 산티아고-Valparaiso- Vina Del Mar 도로 상호 연결	Route 68의 99km 섹션의 개선; 약 17km의 연장에 있는 제3 트렉에 대한 확장 고려	903	2021년 4분기
Pie De Monte Route	San Pedro de la Paz와 Coronel의 고문(지자체)간 섹션에 있는 약 20km의 Route 160에 대한 대안 Route	251	2021년 4분기

<p style="text-align: center;">프로젝트</p> <p style="text-align: center;">Route 5 Section Caldera - Antofagasta</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628백만불 • 입찰초청 : 2021년 1분기 • 양허내용 : 470km 연장을 가지는 Caldera -Antofagasta 구간의 Route 5의 연장, 개선, 유지 및 운영 • 양허기간 : 최대 30년 내에서 변동
<p style="text-align: center;">프로젝트</p> <p style="text-align: center;">Route 5 Section Temuco - Rio Bueno 및 Valdivia 접근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543백만불 • 입찰초청 : 2021년 3분기 • 양허내용 : Valdivia 시의 입구에 있는 100km 이중 차도의 개발과 Route 5의 172km 개선; 새로운 교량, 도보교량, 버스 정류장, 새로운 교차로, 기존 구조물 교체 등
<p style="text-align: center;">프로젝트</p> <p style="text-align: center;">Route 68 -Santiago- Valparaiso - Vina del Mar road interconnection</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903백만불 • 입찰초청 : 2021년 4분기 • 양허내용 : Route 68의 99km 섹션의 개선; 약 17km의 연장에 있는 제3 트랙에 대한 확장; 2개의 새로운 터널 개발과 몇 개의 교량 교체

프로젝트	주요 내용
오히긴스(O'Higgins)지역 병원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150백만불 • 입찰초청 : 2021년 2분기 • 양허내용 : Pichilemu 와 Cardenal Caro 구에 위치한 2개의 의료시설 건설, 입찰서 구매비용(420달러, 부가가치세 별도), PQ 여부 확인 • 양허기간 : 15년
	

□ 2022년 프로젝트 아젠다 요약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	투자금액(백만불)	입찰요청일
Zapallar 저수지	424헥타아르 용적의 Diguillin 강에 위치한 저수지 건설	357	2022년 1분기
Villarrica의 Routes(도로)	기존 도로 확장 및 코뮌(지자체)간 도로 안전 및 연결 개선을 위한 교차로 및 인도교를 가진 새로운 도로의 설립	363	2022년 1분기
Route 5 Iquique - Antofagasta	Antofagasta 와 Iquique간 구간에 있는 Route 5의 이중차도 확장	508	2022년 1분기
Route 5 Vallenar - Caldera	이중차도 확장을 통한 Route 5의 227km 개선	355	2022년 1분기
공항 네트워크 : Tepual, Canal Bajo 와 Mocopulli	Puerto Montt, Osorno와 Chiloe에 위치한 공항들의 처리용량 확장 및 국가의 연결 강화에 진척을 내기 위해서	110	2022년 1분기
Los Rios 지역 Civic Center	지역 기관들을 수용할 약 13,800m ² 의 공공건물 건설	44.3	2022년 1분기
Concepcion에 대한 북쪽 접근로	Concepcion으로 가는 75km의 이중도로, 14km의 지선	419	2022년 2분기
Route 5 Santiago- Los Vilos	산티아고 시와 로스 빌로스 타운 간 연장에 있는 Route 5의 218km 개선	515	2022년 2분기
지하철에서 국제공항까지 전기 대중 교통	산티아고 공항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경전기 시가전차를 고려한 새로운 수단의 대중교통	170	2022년 2분기
Vina Del Mar - Renaca Tram(궤도전차) 양허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Vina Del Mar와 Renaca를 연결할 Valparaiso 지역에 새로운 수단의 대중교통	217	2022년 4분기
Copiulemu- Hualqui - Puerto Coronel 도로 상호연결	Route O-50과 Route 160을 연결할 38.73km의 새로운 도로	130	2022년 4분기

프로젝트	주요 내용
<p data-bbox="300 215 727 248">Route 5 Iquique - Antofagas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508백만불 • 입찰초청 : 2022년 1분기 • 양허내용 : Antofagasta 시와 Iquique시 간 구간에 있는 Route 5의 이중차도 확장; 새로운 리턴 및 요철 링크 개발, 전자 톨게이트(자유 흐름), 안전 표준 개선 및 120km/h의 설계 속도를 고려
<p data-bbox="405 725 619 813">프로젝트 Zapallar 저수지</p> 	<p data-bbox="1086 725 1214 763">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357백만불 • 입찰초청 : 2022년 1분기 • 양허내용 : 424 헥타아르에 물을 댈 수 있는 용량을 가진 Diguillin 강에 위치한 저수지 건설; 새로운 작업은 상류 경사면에 콘크리트 스크린이 있는 암석 및/또는 투과성 자갈 벽이 있는 전면 저수지(CFRD)로 구성
<p data-bbox="309 1285 719 1373">프로젝트 Route 5 -Santiago -Los Vilos</p> 	<p data-bbox="1086 1285 1214 1323">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515백만불 • 입찰초청 : 2022년 4분기 • 양허내용 : 세 번째 트랙 확장을 통해 산티아고 시와 로스 빌로스 사이의 구간에서 5번 도로의 218km를 개선; 도로 안전 표준을 개선할 기존 도로의 보수 포함 • 양허기간 : 최대 20년 내에서 변동가능

프로젝트	주요 내용
Concepcion의 북쪽 접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419백만불 • 입찰초청 : 2022년 2분기 • 양허내용 : 비오비오(Bio Bio)지역에 있는 이중 차도 75km 연장; 이 계획에는 도로 플랫폼 확장, 기존 도로 복구, 레이아웃 수정, 서비스 도로의 새로운 다리 및 섹션 건설, 안전 표준 개선 및 전자 톨게이트 통합 포함
	
프로젝트	주요 내용
Vina del Mar - Renaca 트램 양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217백만불 • 입찰초청 : 2022년 4분기 • 양허내용 : 200명 승객 운송능력 (추정치)를 가진 해안선을 따라 이동할 Vina del Mar와 Renaca를 연결할 Valparaiso 지역에 있는 새로운 대중 교통 수단 • 양허기간 : 35년
	

□ 2023년 프로젝트 아젠다 요약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	투자금액 (백만불)	입찰요청일
Costanera 중앙 고속도로 Vespucio - Las Vizcachas 구간	12km 고속도로 건설, 지상 도로에는 중앙 공원이 포함됨	1,257.4	2023년 1분기
도로 양허 Puerto Montt 메트로폴리탄 고속도로	Puerto Varas, Alerce, La Vara, Puerto Montt와 El Tepual 공항을 연결하는 약 32km의 이중도로의 건설 및 운영	396.5	2023년 2분기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정보	투자금액 (백만불)	입찰요청일
두 번째 양허 Route 57	117.1km 기존 route의 확장 및 개선	375	2023년 2분기
지붕이 덮인 Parque O'HIGGINS 스테이디움	Parque O'Higgins 지붕이 덮인 스테이디움 재입찰; 관객12,000명 수용시설의 개선 및 운영	31	2023년 4분기
Catemu 저수지	Catemu 저수지 건설, 운영 및 유지; 약길이 1200m, 65m 높이의 주요 wall concrete face rockfill dam	465	2023년 4분기
Valparaiso 공중 케이블웨이	Valparaiso의 케이블카 시스템의 건설, 운영 및 유지	84	2023년 4분기
Entrelagos 국경 Route 도로 양허	Osorno 와 Entrelagos 사이의 route 의 42km 이중 도로 연장; Entrelagos에서 국경까지 연장에 해당하는 71km 개선	149	2023년 4분기
Route 5 Collipulli - Temuco 구간	Collipulli 와 Temuco 시들을 연결하는 Route 5 구간 144km의 재입찰	250	2023년 4분기
대중교통 경유 Coquimbo - La Serena 연결 개선	경전철 LRT 형태의 전기 트램 시스템의 개발; Coquimbo와 La Serena 시들 사이의 약 13.69km의 전용 트랙	320	미 정

프로젝트	주요 내용
Costanera 중앙 고속도로 Vespucio - Las Vizcachas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1257.4백만불 • 입찰초청 : 2023년 1분기 • 양허내용 : 지상과 지하철 배치를 모두 고려한 디자인, 지상은 평균 폭 20m 중앙공원과 중앙 공원 양쪽에 자전거 도로, 대중교통 회랑, 다른 것들 중에서 협소하지 않은 지방의 측면 도로 • 양허기간 : 45년

프로젝트	주요 내용
<p>도로 양허 Puerto Montt 메트로폴리탄 고속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396.5백만불 • 입찰초청 : 2023년 2분기 • 양허내용 : 약 32km의 푸에르토 바라스, 알레르체, 라 바라, 푸에르토 몬트 및 엘 테푸알 공항을 연결하는 이중 도로 노선; 알레르체 도시 부문의 우회로, 푸에르토 몬트 시로의 출입을 위한 솔루션, Route 5와의 연결 등이 포함 • 양허기간 : 30년
<p>프로젝트</p> <p>Catemu 저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산 : 465백만불 • 입찰초청 : 2023년 4분기 • 양허내용 : 약 500헥타르에 물을 대어 1억 8천만 m³의 용량 건설; 주벽은 길이 약 1200m, 높이 65m. 또한 Aconcagua 강에서 물을 유도하기 위한 25km의 피더 채널 포함 • 양허기간 : 22년

(6) 칠레 공공사업부 프로젝트 정보

(출처:칠레 공공사업부 웹사이트 : <https://www.mop.cl/Paginas/ingles.aspx>)

- 공공사업부(MOP) : 칠레의 공공 기반 시설의 계획, 연구, 설계 및 건설은 물론 수리,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내각급 행정 사무소
 - 업역
 - 도로,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및 비행장
 - 국가 내 모든 수자원의 관리, 분배, 사용 및 보존과 국가 수자원 규정 시행
 - 새로운 공공건물과 특정 경제적 특성을 가진 기존 건물의 개선
 - (역할) MOP는 또한 국가의 양허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법에 따라 다른 기반 시설을 건설·수리해야 하는 다른 부처*에 다른 작업을 제공하기도 함
- * 국가가 참여하는 기관, 회사 또는 지방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포함됨

- (조직) MOP는 3개의 총무국(공공사업 양허 총무국, 물 총무국, 공공사업 총무국) 으로 구성
 - 공공사업 총무국은 5개의 실행부서(①항만 공사, ②물 공사, ③국도, ④공항, ⑤건축)와 3개의 비상임 부서(기획, 회계재무, 법무)로 구성됨

- MOP 산하 6개의 집행 부서 존재

No	부서명
1	공공 사업 양허 조정부서(Coordation of Public Works Concessions)
2	공항 부서(Airport Department)
3	건축 부서(Architectire Department)
4	수력공사 부서(Hydraulic Works Department)
5	항만공사 부서(Port Works Department)
6	국도 부서(National Roads Department)

- MOP 산하 3개의 비상임 부서 존재

No	부서명
1	회계 및 재무 부서
2	기획 부서
3	법무 부서

- 다른 두 기관은 국립 수력 연구소와 위생 서비스 감독관임

- (위치) MOP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국가의 15개 지역에는 각각 지역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로 구성된 장관급 지역 사무국이 있으며, 근무 직원수는 8,700명임

○ MOP 사명(Mission)

- 최고의 연결성을 달성하고 영토와 국민, 공공건물을 보호하고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수리, 강화 및 개선한다
-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자원과 환경의 제공 및 관리를 보장하고 사람들을 위한 형평성, 삶의 질 및 평등한 기회를 증진한다

○ 비전 2025

- 우수성, 팀워크, 개인 및 기관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에서 시민의 요구를 지향하는 참여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노력을 조정하면서, 기반 시설 공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가가 요구하는 물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는 서비스 및 품질,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투명성의 기준을 통해 통합되고 포용적이며 선진국 건설에 기여한다
- 전략적 해결방법
 - 포괄적인 공간 비전을 가진 인프라를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함
 - 기반 시설을 통해 사회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환경, 수자원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함
 - 자원 사용에 있어 정의된 수준의 효율성에 도달함

□ 공공사업부 2021 - 2025 양허 포트폴리오

공공사업부 양허 <https://www.mop.cl/servicios/Paginas/Concesiones.aspx> 2022.03 현재

No	2021년 입찰 프로젝트
1	Third AMB Road Access Concession(제3 AMB 도로 접근로 양허)
2	Coquimbo Hospital Concession(코킴보 병원 양허)
3	Route 5 Concession Section Chacao - Chonchi(노선5 양허 차카오 - 촌치 구간)
4	Third Concession El Loa Airport in Calama(제3 양허 칼라마의 엘 로아 공항)
5	National Cancer Institute Grant(국립 암 연구소 보조금)
6	Red O'Higgins Concession(레드 오히긴스 양허)
7	Second Concession Route 5 Chillan - Collipulli Section(제2 양허 노선5 칠란 - 콜리풀리 구간)
8	New La Punilla Reservoir (뉴 라푸닐라 저수지)
9	National Institute of Neurosurgery Grant(국립 신경외과 연구소 보조금)
10	Second Santiago- Valparaiso - Vina del Mar Road Interconnection Concession, Route 68(제2 산티아고-발파라이소- 비나 델 마흐 도로 상호 연결 양허, 노선 68)

(출처 : https://concesiones.mop.gob.cl/proyectos/Paginas/Cartera_de_Concesiones_2021_2025.aspx)

Third AMB Road Access Concession



프로젝트 설명

기존 양허의 운영 및 유지, 산티아고 공항에 대한 새로운 북부 접근로의 미완성 공사의 건설이 작업을 통해 승객 및 화물 흐름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양허의 이점 중 하나는 국가의 주요 공항과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공항에 대한 접근의 탄력성을 보장한다는 것임

참조 투사도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 형태 : 공공(public) 고시사업
 지역(region) :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주(Province) : 산티아고(Santiago)
 지자체(Commune) : 푸다우엘(Pudahuel)
 길이(Volume) : 10km
 공식 예산(Official Budget) : UF 843,000 (MM USD 35)
 *참조값(Reference Value) : 미화 백만달러 단위
 투자금액은 2018년 6월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29일 관찰된 달러는 (CLP 647.95)임. UF는 인플레이션 지수 산출단위이며, 칠레 중앙은행(el Banco Central de Chile)에서 산출, 승인 및 고시함

이는 은행, 신용 및 저축회사에서 국가통화로 수행되는 신용거래에 대한 가격 책정을 위해 승인되었음.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UF의 가치는 매월10일부터 익월9일까지 매일 재조정되며 이는 IPC(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연구된 변동에 따른다. IPC는 INE(국가통계센터) 또는 UF를 산출하고 고시되는 기간 직전 월에 대체되는 기관에 의해 결정됨
 입찰요청일자 : 2021년 5월19일,
 기술제안서(Technical offers)
 수령일자 : 2022년 12월9일
 경제성제안(Economic offers) 개봉일자 : 2023년 1월6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Concession Company) : 미정
 양허기간 개시 : 미정
 양허기간(Concession term) : 111개월

Third AMB Road Access Concession

칠레 정부 공공사업부 양허국장(CHILE MOP, Directorate General of Concessions)

입찰 과정

1. 2021년 5월 19일(수) 입찰요청 공보 발행
2. 공공사업부 양허총무국장 입찰서류(Bidding bases) Part 1~3 발행
3. 회보(Circular) 1호~9호까지 명료화(clarification)
4. 입찰서류를 구매한 기업(2022.06.06 기준)
 - (1) COINTER CHILE S.A.
 - (2) GRUPO COSTANERA S.P.A.
 - (3) OBRASCON HUARTE LAIN S A AGENCIA EN CHILE
 - (4) CONSTRUCTORA CON PAX SPA
 - (5) CONSTRUCTORA VALKO S.A.
 - (6) ICAFAL INVERSIONES S.A.
 - (7) GRUPO PUENTES
 - (8) FLESAN S.A.
 - (9) CINTRA INFRAESTRUCTURA CHILE SPA
 - (10) CONSTRUCTORA SAN JOSE S.A. AGENCIA EN CHILE
 - (11) VIAS CHILE S.A.

Coquimbo Hospital Concession



프로젝트 설명

605병상 규모를 가진 Coquimbo 시의 의료시설 건설이며, 개발될 인프라의 유지, 의료장비, 진료소 비품 및 비진료소 비품의 취득, 유지 및 교체를 고려함
프로젝트는 음식, 엠블런스, 청소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 입찰 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Coquimbo
주(Province) : Coquimbo
지자체(Commune) : Coquimbo
규모(Volume) : 605병상 병원
공식예산(Official Budget) : UF 6,528,211(USD 274백만)
* 참조값 : 미화백만불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관찰된 2018년 6월29일 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5월22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1월10일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2022년 1월31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보조금지급승인(SPA, Subsidy Payment Authorization)으로부터 30학기(15년)

칠레 정부 공공사업부 양허국장(CHILE MOP, Directorate General of Concessions)

PQ심사

1. 2019년 6월26일, 병원의 입찰서류 유형 선정
 2. PQ 서류 발행
 3. 회보(Circular) 1~6호 명료화(clarification)
 4. PQ서류를 구매한 회사들
 5. 2021년 3월1일 양허국장(DGC)결의 6호
 6. 2021년 6월10일 REI의 PQ통과업체 목록
- (1)OBRASCÓN HUARTE LAIN S.A, AGENCIA EN CHILE
(2)CONSORCIO IBEROASIÁTICO
Integrado por: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y "Puentes Y Calzadas Grupo De Empresas S.A."

- (3)CONSTRUCTORA Y EDIFICADORA GIA+A S.A de C.V.
 - (4)CONSORCIO SACYR Integrado por: "Sacyr Concesiones Chile SpA"; "Sacyr Chile S.A."; y "Global Dominion Access S.A."
 - (5)ACCIONA CONCESIONES HOSPITALARIAS Integrado por: "Acciona Concesiones S.L." y "Concesiones Chile Holdings I SpA"
 - (6)EMPRESA CONSTRUCTORA MOLLER Y PÉREZ COTAPOS S.A
 - (7)CONSORCIO SALUD INFRAESTRUCTURAS Integrado por: "Concesiones Viarias Chile Tres S.A." y "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s Chile Dos S.A."
 - (8)CONSTRUCTORA SAN JOSÉ S.A. AGENCIA EN CHILE
 - (9)ENGIE-MERIDIAM Integrado por: "Engie Latam S.A." y "MNIII Chile, LLC."
 - (10)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 (11)GRUPO CRCC CHILE Integrado por: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y "China Railway Construction Group Corporation Limited"
 - (12)FERROVIAL CONSTRUCCIÓN CHILE S.A.
 - (13)"CHINA CAMC ENGINEERING CO, LTD."
7. 2021년 6월17일 양허국장 결의 37호

입찰과정

1. 입찰요청서 발행
2. 코킴보병원 입찰서 부록 보완
3. 회보(Circular) 1호~4호 명료화
4. 제안서 수령 및 기술제안서 개봉 회의록
5. 경제성 제안 개봉 회의록

Route 5 Concession Section Chacao - Chonchi



프로젝트 설명

Chiloé의 5번 노선 개선에 해당하며, Chacao Canal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의 남쪽 진입로와 Chonchi 북쪽 분기점 사이의 대략적인 길이가 126km임
 여기에는 푸데토 강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교량 건설과 안쿠드 시의 짧은 1km 우회도로 건설이 포함됨. 또한 MOP가 건설한 카스트로 시(16km)의 우회로 유지 및 운영도 고려함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8fvCNe6kg>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유형: 민간(Private)제안사업
 지역(Region): The Lakes
 주(Province): Chiloé
 지자체(Commune): Ancud, Dalcahue, Castro와 Chonchi
 길이(Volume): 110km의 노선 + 카스트로 우회로와 관련된 16km
 공식예산 : UF 12,100,000 (USD507백만)
 *참조값 : 미화백만불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is calculated 2018년 6월30일 Unidad de Fomento (UF) (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29일 관찰된 미국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6월 8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9월 30일
 경제성제안개봉일자 : 2022년 7월 27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최대 40년(480개월)내에서 기간 변동

입찰과정

1. 2021년 6월 8일 (화) 입찰요청 공보 발행
2. 입찰서류 Part 1~3 발행
3. 칠레공화국 감사원장(CGR) seal없이 진행중인 입찰서류 Part 1~4호
4. 입찰서류를 구매한 회사들(2022.06.06.기준)
 (1)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 CHILE DOS S.A
 (2)ALDESA CONSTRUCCIONES S.A.
 (3)MORALES Y BESA COMPANIA LTDA.
 (4)SACYR CONCESIONES CHILE SPA.
 (5)RYQ INGENIERÍA CONCESIONES E INFRAESTRUCTURA
 (6)BICE INVERSIONES ADMINISTRADORA GENERAL DE
 (7)CONSTRUCTORA VALKO S.A.
 (8)INTERVIAL CHILE S.A.
 (9)PENTA LAS AMERICAS ADMINISTRADORA GENERAL DE
 (10)ACCIONA CONCESIONES S.L.
 (11)ICAFAL INVERSIONES S. A.
 (12)CLARO VICUNA VALENZUELA S.A.
 (13)HYUNDAI ENGINEERING Y CONSTRUCTION CO.LTD.
 (14)CONSTRUCTORA CON PAX SPA
 (15)EMPRESA CONSTRUCTORA BELFI S.A.
 (16)RODOVIAS CHILE SPA
5. 회보(Circular) 1호~4호 명료화

Third Concession El Loa Airport in Calama



프로젝트 설명

현재 이용객 약 월 100,000명이며 증가하는 여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Antofagasta 지역(Region), Loa 주(Province)에 위치한 Calama 공항 확장, 개선 및 유지. 화물과 여객 운송을 촉진하고 해당지역에 오고가는 비행 제안을 강화하여 경제통합을 개선하면서 국가의 본 광업지역 개발을 촉진함. 모든 이전에 존재하는 공사의 유지를 포함하는 제3의 양허임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유튜브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7bH2cws4VI>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 유형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주(Province) : 엘 로아(El Loa)
 지자체(Commune) : 칼라마(Calama)
 면적(Volume) : 7.8 헥타아르
 공식 예산 : UF 3,260,000 (USD137백만)
 *참조값 : 미화 백만불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6월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8월23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11월24일 (회보 명료화 작업 진행중)
 경제성제안 개봉일자 : 2022년 12월22일(회보 명료화 작업 진행중)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15년(연구조사중)

입찰과정

1. 2021.08.23. 입찰요청 공보 발행
2. 엘 로아 공항 입찰서류 발행
3. Part1,2에 대한 결의 65호 완전 처리됨
4. 입찰서류를 구매한 회사들(2022.06.06.기준)
 - (1)COINTER CHILE S.A
 - (2)SACYR CONCESIONES CHILE SPA.
 - (3)EMP.CONSTRUCTORA MOLLER Y PEREZ COTAPOS S.A
 - (4)CONSTRUCTORA SAN JOSE S.A. AGENCIA EN CHILE
 - (5)AGENCIAS UNIVERSALES S.A.
 - (6)APORT S.A.
 - (7)CONPAX ENERGIA Y CONCESIONES SPA
 - (8)ICAFAL INVERSIONES S.A.
 - (9)CONSTRUCTORA VALKO S.A.
 - (10)ALDESA CONSTRUCCIONES S.A
 - (11)EMPRESA CONSTRUCTORA BELFI S.A.
 - (12)BESALCO CONCESIONES S.A.
 - (13)FERROVIAL AIRPORTS INTERNATIONAL S E
 - (14)TERMOTECNICA COINDUSTRIAL S.A.S
 - (15)APORT OPERACIONES S.A.
- 5.회보(Circular) 1~8호 명료화 작업

National Cancer Institute Grant	
	<p>프로젝트 설명</p> <p>전문화된 암 치료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독립 코윈의 고도로 복잡한 병원 교체에 해당 새로운 시설은 249개의 병상이 있는 86,000m²의 면적을 갖게 됨. 양허는 의료 장비 및 가구의 제공, 교체, 조립 및 유지 관리 외에도 건물의 새로운 부속물의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함 이 프로젝트 덕분에 수도권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참조 센터로 간주되어 15세 이상 수혜 인구가 1,160만 명으로 추산됨 이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음식, 구급차 및 청소와 같은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음</p>
<p>참조 투사도 : 없음</p>	
<p>프로젝트 파일</p> <p>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Metropolitan 주(Province) : Santiago 지자체(Commune) : Independence 규모(Volume) : 249병상 시설 공식 예산 : UF 4,704,824 (USD197백만) *참조값 : 미화 백만달러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6월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10월 21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7월 7일 경제성제안 개봉일자 : 2022년 7월 27일 낙찰법령(Award Decree):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19년</p> <p>PQ 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6월26일 병원입찰 유형 선정 PQ서류 발행 회보(Circular) 1호~6호 명료화 작업 PQ 서류들을 구매한 회사들 보건 시설에 대한 두 번째 양허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자격 목록(2020년 7월 28일) <p>(1)CONSORCIO OHL Obrascón Huarte Lain S.A., Agencia en Chile</p>	<p>(2)CONSORCIO SALUD INFRAESTRUCTURAS Concesiones Viarias Chile Tres S.A. / 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s Chile Dos S.A (3)CONSORCIO IBEROASIÁTICO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 Puentes Y Calzadas Grupo De Empresas S.A. (4)CONSTRUCTORA Y EDIFICADORA GIA+A S.A de C.V. (5)CONSORCIO SACYR Sacyr Concesiones Chile Spa. / Sacyr Chile S.A. / Global Dominion Access S.A. (incorporado mediante modificación) (6)CONSORCIO MACQUARIE MOLLER Empresa Constructora Moller y Pérez-Cotapos S.A. / Chile Pacific Holdco 3 Spa (incorporado mediante modificación) (7)ACCIONA CONCESIONES S.L. (8)CONSORCIO INTEGRAL DE LA SALUD 5. 2021년3월1일 양허국장 결의 6호 6. 2022년 5월31일 REI PQ 통과 목록 7. 2021년 6월17일 양허국장 결의 37호</p> <p>입찰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요청서 발행 부록 보완 회보(Circular) 1호~7호 명료화 작업 제안서 수령 및 기술제안서 개봉 회의록 경제성 제안서 개봉 회의록

Red O'Higgins Concession



프로젝트 설명

Rengo 와 Pichilemu commune에 위치하게 될 2개의 의료시설 건설; 개발되어질 인프라의 유지보수, 진료소 가구 및 비 진료소 가구, 의료장비의 취득, 유지보수, 교체 Rengo 병원은 Rengo, Malloa, Quinta de Tilcoco, San Vicente de Tagua Tagua, Peumo, Pichidegua 및 Las Cabras 코문의 약 206,000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중간 수준의 복합 시설이 될 것임

Pichilemu 병원은 Pichilemu, Navidad, Litueche, La Estrella, Marchigue, Pichidegua 및 Paredones 코문에 거주하는 거의 70,000명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저복잡성 시설이 될 것임

이 프로젝트에는 음식, 구급차 및 청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지 않음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Libertador General Bernardo O'Higgins
 주(Province) : Cachapoal and Cardenal Caro
 지자체(Commune) : Rengo and Pichilemu
 규모(Volume) : 총 262개 병상이 있는 2개의 의료시설
 공식 예산 : UF 3,782,141 (USD159백만)
 * 참조값 : 미화 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10월 28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10월 4일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2022년 10월 25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보조금지급승인(SPA, Subsidy Payment Authorization)으로 30학기(약 15년)

PQ과정

1. 2019년6월26일 병원 입찰유형 선정
 2. PQ 서류 발행
 3. 회보 1호~6호 명료화 작업
 4. PQ서류를 구매한 회사들
 5. 2021년3월1일 양허총무국장 결의 6호
 6. 2022년 1월11일 REI PQ 통과업체 목록
- (1)OBRASCÓN HUARTE LAIN S.A., AGENCIA EN CHILE
 (2)CONSORCIO IBEROASIÁTICO Integrado por: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y "Puentes Y Calzadas Grupo De Empresas S.A."

- (3)CONSTRUCTORA Y EDIFICADORA GIA+A S.A de C.V.
 (4)CONSORCIO SACYR
 Integrado por: "Sacyr Concesiones Chile SpA"; "Sacyr Chile S.A."; y "Global Dominion Access S.A."
 (5)ACCIONA CONCESIONES HOSPITALARIAS
 Integrado por: "Acciona Concesiones S.L." y "Concesiones Chile Holdings I SpA"
 (6)EMPRESA CONSTRUCTORA MOLLER Y PÉREZ COTAPOS S.A
 (7)CONSORCIO SALUD INFRAESTRUCTURAS
 Integrado por: "Concesiones Viarias Chile Tres S.A." y "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s Chile Dos S.A."
 (8)CONSTRUCTORA SAN JOSÉ S.A. AGENCIA EN CHILE
 (9)ENGIE-MERIDIAM
 Integrado por: "Engie Latam SA" y "MNI Chile, LLC"
 (10)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11)GRUPO CRCC CHILE Integrado por: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y "China Railway Construction Group Corporation Limited"
 (12)FERROVIAL CONSTRUCCIÓN CHILE S.A.
 (13)CHINA CAMC ENGINEERING CO., LTD.
 (14)SHANXI CONSTRUCTION INVESTMENT GROUP CO., LTD.

입찰과정

1. 입찰요청 공보 발행
2. 입찰서류 부록 보완
3. 회보 1호~4호 명료화 작업

Second Concession Route 5 Chillán - Collipulli Section



프로젝트 설명

Chillán Viejo시의 남부에서 Ñuble, Bío Bío 와 La Araucanía 지역을 가로지르는 Ercilla commune의 북부까지 섹터에 있는 노선5의 169km 개선,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Route 5에 걸쳐 있는 기존 작업과 새 작업의 개선, 건설, 유지 관리 및 운영으로 구성됨

수행될 공사 중에서, 기존 도로 및 구조물의 개선이 두드러지고, 3차선을 구현하고, 갓길과 중앙분리대를 확장 및 표준화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도로 안전 요소와 교량을 교체하고, 노선의 다른 지점에 서비스 도로, 보도 및 구조물을 건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다른 작업 중에서 Malleco 강을 건너는 구조를 포함하는 이중 차선에서 Collipulli시에 대한 변형을 고려함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Ñuble, Bío Bío 와 La Araucanía
 주(Province): Diguillin, Bío Bío and Malleco
 지자체(Commune): Chillán Viejo, Bulnes, Pemuco, Cabrero, Los Angeles, Mulchén, Collipulli 와 Ercilla
 길이(Volume) : 169km
 공식예산 : UF 11,390,000 (USD477백만)
 입찰요청일자 : 2021년 10월 29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9월 23일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2022년 10월 21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최대 30년 내에서 변동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과정

1. 2021년10월29일 일찰요청 공보발행
2. 감사원장(CGR) 직인으로 Bali Route 5 Chillan-Collipulli 구간 Part1 처리
3. 감사원장(CGR) 날인으로 Bali Route 5 Chillan-Collipulli 구간 Part2,3,4,5 처리
4. 감사원장(CGR) 직인없이 Bali Route 5 Chillan-Collipulli 구간 Part1~5 처리
5. 입찰서류를 구매한 회사들(2022.06.06.기준)
 - (1)SACYR CONCESIONES CHILE SPA
 - (2)MIAS CHILE S.A.
 - (3)INTERVIAL CHILE S.A.
 - (4)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 (5)CINTRA INFRAESTRUCTURA CHILE SPA
 - (6)CONSTRUCTORA VALKO S.A.
 - (7)CONSTRUCTORA SAN JOSE S.A. AGENCIA EN CHILE
 - (8)CONSTRUCTORA CON PAX SPA
6. 회보 1호~2호 명료화 작업

New La Punilla Reservoir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Ñuble 지역, Punilla 주의 San Fabián 및 Coihueco 코뮌에 있다. 540hm³의 유용한 용적을 가진 다목적 저수지의 개발로 구성됨. 이 작업은 관개 수요를 해결하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수력 전기 에너지의 생성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비축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새로운 저수지는 San Fabián, San Carlos, Chillán, Ñiquén, San Nicolás 및 Coihueco 지구의 관개 시설에 도움이 될 것임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Ñuble
 주(Province) : Punilla
 지자체(Commune) : San Fabian and Coihueco
 용적(Volume) : 540 Hm3
 공식예산 : UF 8,810,000 (USD369백만)
 *참조값 : 미화 백만불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평균 Unidad de Fomento (UF) (CLP 27,158.77) 으로 계산되며 2018년 평균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11월 18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11월 15일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2022년 12월 13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40년(480개월) 고정

입찰과정

1. 2021.11.18. 입찰요청 공보 발행
2. 입찰서류 Part 1~3 발행
3. 입찰서류 구매한 회사들(2022.06.06.기준)
 (1)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 CHILE DOS S.A.
 (2)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

- (3)ACCIONA CONCESIONES S.L.
- (4)ALDESA CONSTRUCCIONES SA
- (5)BESALCO CONCESIONES S.A.
- (6)SACYR CONCESIONES CHILE SPA.
- (7)STRABAG SPA
- (8)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 (9)IMPRESA PIZZAROTTI Y C S P A AGENCIA CHILE
- (10)ICAFAL INVERSIONES S. A.
- (11)CONSTRUCTORA VALKO S.A.
- (12)CONPAX ENERGIA Y CONCESIONES SPA
- (13)EMP.CONSTRUCTORA MOLLER Y PEREZ COTAPOS S.A.
- (14)CINTRA INFRAESTRUCTURAS CHILE SPA
- (15)CONSTRUCTORA SAN JOSE S.A. AGENCIA EN CHILE
- (16)MOTA ENGIL PERÚ SA
- (17)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 (18)ASESORIAS Y GESTION DE PROYECTOS NOVUM MARE
- (19)ARAUCANIA POWER SA
- (20)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AGENCIA EN
- (21)CHINA ENERGY INTERNATIONAL GROUP CO. LTD
4. 회보 1호~3호 명료화 작업

National Institute of Neurosurgery Grant



프로젝트 설명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지구에 214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시설 건설임
개발되어질 인프라의 유지보수, 의료장비, 진료소 가구 및 비진료소 가구의 취득, 유지보수, 교체 고려함
이 프로젝트에는 음식, 구급차 및 청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지 않음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Metropolitan
주(Province) : Santiago
지자체(Commune) : Providence
규모(Volume) : 214 병상 의료시설
공식예산 : UF 3,509,321 (USD147백만)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12월 29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9월 6일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2022년 9월 27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보조금지급승인 (SPA,Subsidy Payment Authorization)으로부터 30학기(약15년)

PQ과정

1. 2019.06.26. 병원 입찰 유형 선정
2. PQ 서류 발행
3. 회보 1호~6호 명료화 작업
4. PQ 서류를 구매한 회사들
5. 2021년3월1일 양허국장 결의 6호
6. 2022년 1월11일 REI PQ통과업체 목록

(1)OBRASCÓN HUARTE LAIN S.A., AGENCIA EN CHILE
(2)CONSORCIO IBEROASIÁTICO
Integrado por: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y"Puentes Y Calzadas Grupo De Empresas S.A."

(3)CONSTRUCTORA Y EDIFICADORA GIA+A S.A de C.V.
(4)CONSORCIO SACYR
Integrado por: "Sacyr Concesiones Chile SpA"; "Sacyr Chile S.A."; y "Global Dominion Access S.A."
(5)ACCIONA CONCESIONES HOSPITALARIAS
Integrado por: "Acciona Concesiones S.L." y "Concesiones Chile Holdings I SPA"
(6)EMPRESA CONSTRUCTORA MOLLER Y PÉREZ COTAPOS S.A.
(7)CONSORCIO SALUD INFRAESTRUCTURAS
Integrado por: "Concesiones Viarias Chile Tres S.A." y "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s Chile Dos S.A."
(8)CONSTRUCTORA SAN JOSÉ S.A. AGENCIA EN CHILE
(9)ENGIE-MERIDIAM
Integrado por: "Engie Latam S.A." y "MNIII Chile, LLC."
(10)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11)GRUPO CRCC CHILE Integrado por: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International) Limited" y "China Railway Construction Group Corporation Limited"
(12)FERROVIAL CONSTRUCCIÓN CHILE S.A.
(13)CHINA CAMC ENGINEERING CO., LTD.
(14)SHANXI CONSTRUCTION INVESTMENT GROUP CO., LTD.
7. 2021년6월17일 양허국장 결의 37호

입찰과정

1. 입찰서류 발행
2. 부록 보완 Part 1~3
3. 회보 1호, 2호 명료화 작업

Second Santiago - Valparaíso - Viña del Mar Road Interconnection Concession, Route 68



프로젝트 설명

Pudahuel 지구의 Pajaritos 지하철역과 Placilla의 서쪽 부분에 위치한 La Pólvara 교차로 사이의 현재 노선 68의 개선에 해당하며 총 연장은 99.30km임. 이 프로젝트는 Lo Prado 유료 도로(약 17km)까지 3차선 확장과 도로 레이아웃이 교통 속도와 일치하도록 필요한 개선을 고려함

17km에서 99.80km까지, 현재 노선과 평행하고 인접하게 위치한 2개의 차선이 있는 새로운 차도가 계획될 것임. 마찬가지로, Lo Prado와 Zapata에 두 개의 새로운 터널을 개발하고 Mapocho 강과 Pudahuel 강어귀를 가로지르는 교량 교체를 고려하고 있음. 위에 추가된 내용은 기존 지역 도로의 연속성 및 이러한 도로의 새로운 구간 구현, 필요한 경우 포장 도로의 재건, 새로운 연결, 경로 수정, 보편적 접근성 표준이 있는 복귀 지점 및 보도임

참조 투사도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 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Metropolitan 및 Valparaíso
 주(Province) : Santiago, Marga Marga, Melipilla 와 Valparaíso
 지자체(Commune) : Maipú, Pudahuel, Curacaví Casablanca, Valparaíso, Quilpúe 와 Villa Alemana
 길이(Volume) : 140.7km
 공식예산: UF 29,147,000 (USD1,221.7백만)
 *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1년 12월 31일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2022년 12월 2일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2022년 12월 30일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미정

입찰과정

1. 2021.12.31. 입찰요청 공보 발행
2. 입찰서류 Part 1~3 발행
3. 입찰서류를 구매한 회사들(2022.06.06.기준)

- (1)VIAS CHILE S.A.
- (2)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 LIMITED
- (3)CHINA RAILWAL INTERNATIONAL GROUP SUCURSAL
- (4)CINTRA INFRAESTRUCTURAS CHILE SPA
- (5)ALDESA CONSTRUCCIONES SA
- (6)CRCC INTERNATIONAL INVESTMENT CO LTD
- (7)INTERVIAL CHILE S.A.
- (8)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 CHILE DOS S.A.
- (9)FCC CONSTRUCCION SA AGENCIA EN CHILE
- (10)GLOBAL VIA INFRAESTRUCTURAS CHILE S. A.
- (11)OBRASCON HUARTE LAIN S A AGENCIA EN CHILE
- (12)CONSTRUCTORA VALKO S.A.
- (13)ALEATICA S.A.
- (14)DRAGADOS S.A. (AGENCIA EN CHILE
- (15)GRUPO COSTANERA S.P.A
- (16)SACYR CONCESIONES CHILE SPA.
- (17)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 AGENCIA EN
- (18)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

번호	2022년 입찰 중인 프로젝트
1	Santiago South Orbital Project Concession(산티아고 남쪽 오비탈 프로젝트 양허)
2	Second Airport Concession Araucania Region(두 번째 공항 양허 Araucania 지역)
3	Tsunami Warning System Concession(쓰나미 경보 시스템 양허)
4	Pie de Monte Route Concession(파이 드 몬테 루트 양허)
5	Second Atacama Regional Airport Concession(두 번째 아타카마 지역 공항 양허)
6	Alto Hospicio Cable Car Concession - Iquique(Alto Hospicio 케이블카 양허 - Iquique)
7	Second Concession Route 5 Santiago -Los Vilos (두 번째 양허 5번 루트 산티아고 - 로스 빌로스)
8	Second North Access Concession to Concepcion(콘셉시온에 대한 제2차 북측 접근 양허)
9	Second Concession Route 5 Section Temuco-Rio Bueno and Accesses to Valdivia (두 번째 양허 루트 5번 Temuco-Rio Bueno 구간 및 Valdivia로의 접근)
10	Route 5 Concession Caldera - Antofagasta Section (루트 5 양허 Caldera - Antofagasta 구간)
11	Concession Route 5 Section Iquique - Antofagasta(양허 루트 5 Iquique - Antofagasta 구간)
12	Villarico Routes Concession(빌라리코 노선 양허)

(출처 : https://concesiones.mop.gob.cl/proyectos/Paginas/Cartera_de_Concesiones_2021_2025.aspx)

번호	2023년 입찰 중인 프로젝트
1	Airport Network Concession: Tepual (5a), Cañal Bajo and Mocopulli (공항네트워크 양허: 테푸알(5a), 운하 바조 및 모코풀리)
2	Light Electric Public Transport System Concession Interconnection Metro – Pudahuel - AMB Airport (Tram Pajaritos – AMB) (경전기 대중교통 시스템 양허, 메트로- 푸다후엘- AMB 공항간 연결(트램 파자리토스-AMB))
3	Zapallar Reservoir Concession(자팔라 저수지 양허)
4	Copiulemu - Hualqui - Puerto Coronel Road Interconnection Concession (코피울레무-후알퀴-푸에르토 코로넬 도로 연결 양허)
5	Second Concession Route 5 Section Río Bueno - Puerto Montt (제2 양허 Route 5, 리오 부에노- 푸에르토 몬트 구간)
6	Puerto Montt Metropolitan Highway Road Concession (푸에르토 몬트 메트로폴리탄 고속도로 양허)
7	Central Coastal Highway Concession, Section Vespucio - Las Vizcachas (중앙 해안 고속도로 양허, 베스푸시오 - 라스 비스카차스 구간)
8	Second Concession Route 57 Santiago - Colina - Los Andes (제2 양허 Route 57 산티아고-코리나-로스 안데스)
9	Viña del Mar-Reñaca Tram(비냐 델 마르- 레냐카 트램)
10	Catemu Reservoir Concession(카테무 저수지 양허)
11	Valparaíso Cable Car Concession(발파라이소 케이블카 양허)
12	Interlagos Border Route Road Concession(인터라고스 국경 Route 도로 양허)
13	Improvement of Connectivity Coquimbo - La Serena via public transport (코킴보- 라 세레나간 대중교통 연결 개선)
14	Second Concession O'Higgins Park Roofed Stadium (제2 양허 오히긴스 공원 지붕덮힌 스타디움)
15	Second Concession Route 5 Section Collipulli – Temuco (제2 양허 Route 5 콜리풀리-테무코 구간)

(출처 : https://concesiones.mop.gob.cl/proyectos/Paginas/Cartera_de_Concesiones_2021_2025.aspx)

Airport Network Concession: Tepual (5a), Cañal Bajo and Mocopulli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에는 푸에르토 몬트(Puerto Montt)에 있는 엘 테푸알(EI Tepual) 공항의 다섯 번째 허가와 오소르노(Osorno)의 카날 바조(Cañal Bajo) 공항과 칠로에(Chiloé)의 모코풀리 (Mocopulli) 비행장의 양허 시스템으로의 통합이 포함됨
 이 이니셔티브는 로스 라고스 지역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시설의 용량을 확장하고 전국에 걸쳐 더 나은 공항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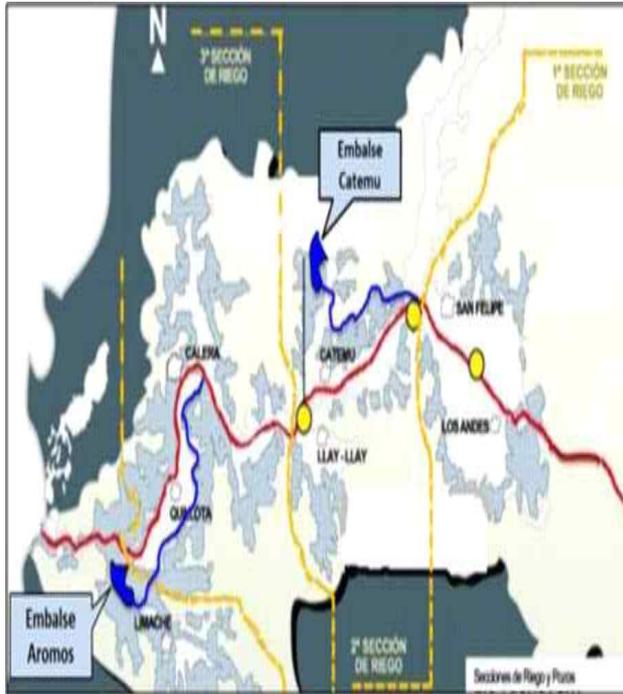
참조 경로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Of The Lakes
 주(Province) : Llanquihue
 지자체(Commune) : Osorno, Puerto Montt and Chiloé
 규모(Volume) : 3개의 시설 확장
 공식예산 : UF 2,624,371(USD 110백만)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7년 평균 Unidad de Fomento (UF) (CLP 26,571.93)로 계산되며 2017년 평균달러는 (CLP 649.33)임
 입찰요청일자 : 2023년 2분기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연구 중

입찰과정 : 정보 없음

Catemu Reservoir Concession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Valparaíso 지역의 같은 이름(발파라이소)의 마을 북쪽 14km에 위치한 Catemu 저수지의 건설, 유지 관리 및 운영으로 구성됨

건설은 주로 약 500헥타르의 총 면적을 침수하는 총 용량 1억 8천만m³의 관개 수요 공급을 추구함. 이를 위해 CFRD(Concrete Face Rockfill Dam) 형식의 주벽이 제안되었으며, 이 주벽은 길이 1,200m, 대략적인 높이 65m의 상류면에 콘크리트 스크린으로 뽁뽁하게 채워넣은 립랩(riprap) 및/또는 투과성 자갈 벽으로 정의됨. 또한 Aconcagua 강 유역에서 저수지로 물을 전도할 수 있는 25km의 급수 채널이 포함되어 85%의 관개 보장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수자원을 늘릴 수 있음. 이 프로젝트는 유역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부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인간의 소비와 관개를 보장함. 이 작업은 26,577헥타르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됨.

참조 경로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Valparaiso

주(Province) : San Felipe

지자체(Commune) : Catemu

용량(Volume) : 180km³

공식예산: UF 11,117,760 (USD 466백만)

*참조값: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3년 4분기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22년(고정)

입찰과정

1. 입찰서류 발행(2017.09.12.)
2. 회보 1호~3호 명료화

Valparaíso Cable Car Concession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Valparaíso의 케이블카 시스템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며, 이 케이블카 시스템은 상부 구역과 Valparaíso Metro와 같은 기존 대중 교통 네트워크를 가진 도시 계획을 연결함. 이 이니셔티브는 언덕에 거주하며 학업, 일 또는 서류 작업을 위해 매일 Valparaíso Plan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임.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시스템은 발파라이소 시의 관광 명소를 증가시켜 역 주변에 새로운 매력의 장소를 생성하고 코민의 교통과밀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 교통 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참조 경로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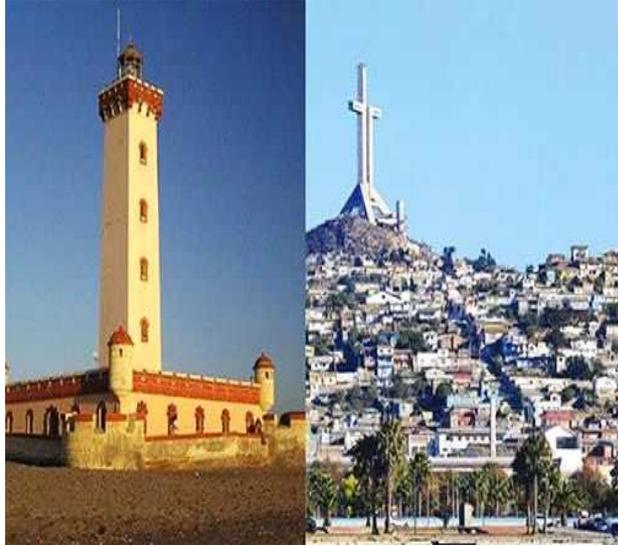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Valparaiso
 주(Province) : Valparaiso
 지자체(Commune) : Valparaiso
 길이(Volume) : 미정
 공식예산 : UF 2,004,060 (USD 84백만)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3년 4분기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
 경제성 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연구 중
 검사자 (a) Prosecutor : 해당없음

입찰과정 : 미정

Interlagos Border Route Road Concession	
	<p>프로젝트 설명</p> <p>이 프로젝트는 현재 Route 215 CH의 42km를 Osorno와 Entrelagos 마을을 연결하고 Puyehue 코뮌(km 4에서 km 46)을 가로지르는 구간에서 이중 차도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구성됨</p> <p>Route 215-CH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겨울 비상시 주로 눈과 얼음 제거와 같은 기술 최적화 시스템과 현장 지원 장비를 통합하여 해당 지역의 보안 설비 및 장비의 현대화를 제안함</p> <p>이를 통해 Cardenal Samoré Border Crossing의 개통, 운영 및 통과를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음</p> <p>이 이니셔티브는 Route 5와 국경 경계 사이의 이동 시간을 30분 단축하고 아르헨티나 공화국과 접경하는 Cardenal Samoré 국경 횡단을 통한 연결 및 무역을 개선할 것임</p>
<p>참조 경로 : 없음</p>	
<p>프로젝트 파일</p> <p>사업입찰형태 : 민간제안사업</p> <p>지역(Region) : The Lakes</p> <p>주(Province) : Osorno</p> <p>지자체(Commune) : Puyehue</p> <p>길이(Volume) : 113km (2차로 42km, 1차로 71km)</p> <p>공식예산 : UF 3,554,820 (USD 149백만)</p> <p>*참조값 : 백만달러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7년 평균 Unidad de Fomento (UF) (CLP 26,571.93) 와 2017년 평균 달러(CLP 649.33) 임</p> <p>입찰요청일자 : 2023년 4분기</p> <p>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p> <p>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p> <p>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p> <p>양허회사 : 미정</p> <p>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p> <p>양허기간 : 28년(고정)</p> <p>검사자(a) Prosecutor : 해당없음</p> <p>*참조값: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p>	<p>입찰과정 : 미정</p>

Improvement of Connectivity Coquimbo - La Serena via public transport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Coquimbo와 La Serena 시들 사이의 전용 도로에 전기 트램웨이 시스템 유형 LRT(경전철)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약 13.69km의 경로를 통해 두 도시를 연결할 수 있으며 Calle Videla (Altura Hospital de Coquimbo)와 센터의 Av. Francisco de Aguirre 사이에 19개 역이 예상됨

참조 경로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민간제안사업
 지역(Region) : Coquimbo
 주(Province) : Elqui
 지자체(Commune) : Coquimbo and La Serena
 길이(Volume) : 13.69km
 공식예산 : UF 7,992,381 (USD335백만)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3년 4분기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미정

입찰과정 : 미정

Second Concession O'Higgins Park Roofed Stadium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특히, 예술 및 스포츠 쇼를 주최하는 12,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개선 및 운영을 고려하는 Parque O'Higgins 지붕이 덮인 Stadium 입찰에 해당
 이 이니셔티브는 더 큰 이벤트를 수행하고 수도권 대중을 위한 최고의 품질의 공간을 계속 제공하기 위한 장소의 인프라 및 장비 개선을 통합하려고 함

참조 경로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Metropolitan
 주(Province) : Santiago
 지자체(Commune) : Santiago
 면적(Volume) : 44,000 m²
 공식예산 : UF 739,594 (USD 31백만)
 *참조값 : 미화백만불 단위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8년 6월 30일 Unidad de Fomento (UF)(CLP 27,158.7)로 계산되며 2018년 6월 29일 관찰된 미화달러는 (CLP 647.95)임
 입찰요청일자 : 2023년 4분기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20년(연구 중)
 검사자 (a) Prosecutor : 해당 없음

입찰과정 : 미정

Second Concession Route 5 Section Collipulli - Temuco



프로젝트 설명

이 프로젝트는 Araucanía 지역의 Collipulli와 Temuco 도시를 연결하는 현재 Route 5의 144km 구간에 대한 재입찰에 해당. 이 계획은 현재 2차선 고속도로의 개선, 재할 및 보존과 더불어 인구 밀집 지역과 연결된 특정 분야의 3차선 건설과 더 높은 안전 및 표지판 표준을 고려함. 또한 새로운 연결, 서비스 도로, 인도교 및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전자 톨게이트(자유 흐름)의 통합도 고려됨. 공사의 장점으로는 노선의 안전기준 개선, 지진 운동 및 기타 자연적 위험에 대한 저항력 향상, 설계속도 120km/h에 대한 노선 정비에 눈에 띄

참조 경로 : 없음

프로젝트 파일

사업입찰형태 : 공공고시사업
 지역(Region) : Araucania
 주(Province) : Malleco and Cautín
 지자체(Commune) : Collipulli, Ercilla, Victoria, Vilcún, Temuco, Padre Las Casas, Freire, Pitrufquén and Gorbea
 길이(Volume) : 144km
 공식예산 : UF 5,964,464 (USD250백만)
 *참조값 : 백만달러로 표시된 투자금액은 2017년 평균 Unidad de Fomento (UF) (CLP 26,571.93) 와 2017년 평균 달러(CLP 649.33) 임
 입찰요청일자 : 2023년 4분기
 기술제안서 수령일자 : 미정
 경제성제안서 개봉일자 : 미정
 낙찰법령(Award Decree) : 미정
 양허회사 : 미정
 양허기간 개시일자 : 미정
 양허기간 : 연구 중

입찰과정 : 미정

번호	2024년 입찰 예정 프로젝트
1	Valparaíso Peripheral Concession(발파라이소 주변 양허)
2	Northwest Orbital Concession(북서부 궤도 양허)
3	Second Los Andes Terrestrial Port Concession(제2 로스 안데스 육상항만 양허)
4	Second Justice Center Concession(제2 사법센터 양허)
5	Second Antofagasta Airport Concession(제2 안토파가스타 공항 양허)
6	Second Prison Infrastructure Concession Group 1 (Iquique - La Serena - Rancagua) ((제2 교도소 인프라 양허 그룹1(이퀴케-라 세레나 란카과))

(출처: https://concesiones.mop.gob.cl/proyectos/Paginas/Cartera_de_Concesiones_2021_2025.aspx)

번호	2025년 입찰 예정 프로젝트
1	Second Concession Concession Route 5 Vallenar – Caldera (제2 양허 양허 노선5 발레나르 - 칼데라)
2	Second La Cisterna Intermodal Station Concession(제2 라 시스테르나 인터모달 역 양허)
3	Second Prison Infrastructure Concession Group 3 (Santiago - Valdivia - Puerto Montt) ((제2 교도소 인프라 양허 그룹3(산티아고-발디비아-푸에르토 몬트))
4	Second Prison Infrastructure Concession Group 2 (Antofagasta and Concepción) ((제2 교도소 인프라 양허 그룹2(안토파가스타 와 컨셉시온))
5	Second Highway Concession Antofagasta Region(제2 고속도로 양허 안토파가스타 지역)
6	Rail Freight Corridor Antofagasta Region(철도화물 회랑 안토파가스타 지역)
7	Second Los Libertadores Border Complex Concession (제2 로스 리버르타도레스 국경단지 양허)
8	Improving Connectivity Machalí - Rancagua(마칼리 - 란카과 연결 개선)

(출처: https://concesiones.mop.gob.cl/proyectos/Paginas/Cartera_de_Concesiones_2021_2025.aspx)

III. PPP 주요 제도

1 PPP 제도 및 관련법

가. 칠레 PPP 개관

(출처: WB, IBRD,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Managing Contingent Liabilities in Public-Private-Partnership, 2010)

□ 칠레 PPP 시작

- 칠레 정부는 1990년대 초에 도로를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양허를 사용함
- 1993년에 발파라이소(Valparaiso) 근처 엘 멜론(El Melon) 터널을 위하여 최초의 양허가 수여되었고, 주요 북-남 고속도로 구간, Route 5 및 기타 도시 간 도로를 위한 양허들이 곧 뒤따름
- 1990년대 말에 공항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양허들이 사용됨. 이러한 양허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었고 푸에르토 몬트(Puerto Montt)와 이키케(Iquique) 두 공항은 지금 재낙찰됨
- 더 최근에 교도소, 저수지, 공공 건물과 도시 도로에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양허들이 사용되어 옴

□ 수익보증

- 도로와 공항 양허들의 대부분은 수익보증을 포함하며, 이러한 수익보증은 일반적으로 양허권자가 프로젝트의 기대 현재 비용의 약 70%와 동등한 현재가치를 가진 수익을 받을 것을 보장함
- 비록 수익보증이 양허권자의 차입에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을지라도 수익보증은 차입을 용이하게 하며, 극히 소수의 양허들은 양허권자의 외화부채에 연결된 환율보증도 포함하나, 이러한 환율보증은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수익 및 환율보증은 일반적으로 양허권자가 수익과 환율 이득을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규칙과 결합됨. 엘 멜론 터널 양허는 터널 건설비용에 관련 정부 보증을 포함하였고, 그 정부 보증과 수익 보증들 중 일부는 시행되어왔으나 그 지불금액은 지금까지 프로젝트들의 규모에 비해 작음

□ 양허계약 재협상

○ 재협상 발생 원인

- 양허와 관련된 가장 큰 계획되지 않은 비용
 - 정부가 양허권자에 원래 계약에서 요구되지 않은 추가 작업을 수행하기를 희망
 - 프로젝트의 건설이나 운영에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 ### ○ (재협상 보상) 때때로 현금으로 이루어지지만 사용자 수수료 인상이나 양보 기간 연장의 형태를 취함
- 양허권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특히 토지 취득 지연을 포함하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위험을 정부가 부담함
 - 도시 도로의 경우,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가스 파이프, 통신 케이블 및 기타 도시 도로 아래의 유틸리티 이설 비용은 정부와 양허권자가 분담함
 - 만약, 정부가 계획된 양허 기간 종료 전에 양허를 해지하는 경우, 정부는 양허권자에 보상해야 함
 - 그러나, 양허권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파산으로 양허가 종료한다면 대주단은 정부가 아니라 양허 재입찰 수익으로만 상환받음

□ 실시계약 승인

- ### ○ 실시 계약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하며 재무부는 실시계약의 설계, 낙찰 및 계약의 모든 재협상에 관여함 (양허 설계, 계약 수여 및 모니터링은 공공사업부 소관)
- 이 과정은 재무부가 양허의 결과로 정부가 부담하는 우발적 부채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재무부의 핵심 그룹은 현재 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우발부채 및 양허 부서로, 예산 부서의 일부이며 2006년에 설립됨. 비록 양허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당 부서는 양허와 관련된 부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우발부채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이 있음
 - 양허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전문지식 출처는 공공 사업부 내에 있는 훨씬 더 큰 양허 부서이며, 재무부의 우발 부채 및 양허 부서는 정보를 위해 공공 사업부 내 더 큰 양허부서에 의존함
- ### ○ 양허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은 입찰 문서를 발행하기 전 공공 사업부가 재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함

- 재무부는 승인 전 공공사업부에 양허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나열하도록 요구하며, 부분적으로는 계약 재협상의 가능한 원인을 파악함
- 또한 공공 사업부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혜택 분석을 위해 기획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무부는 입찰 문서의 경제적 측면을 명확화 또는 수정하는 회람을 승인해야 하며, 입찰을 평가하는 선정위원회에 대표되어야 함. 재무장관은 양허를 공식화하는 공공사업부 장관이 발행한 최고 법령(supreme decree)에 서명해야 함
- 모든 최고 법령은 또한 감사관(comptroller)과 감사 총장 (auditor-general)의 승인 및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재무부의 역할은 양허가 낙찰된 후에도 지속됨
- 재무 장관은 양허 변경을 공식화하는 모든 최고 법령에 서명해야 함
- 재무부는 또한 화해/조정 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양허권자)와 공공사업부 사이의 모든 합의를 승인해야 함
- * 이 작업에 대한 책임은 우발 부채 및 양허 부서에 할당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 부서의 다른 부서에 할당됨

□ 예산 개혁

- 칠레의 예산은 현금 기반으로, 의회는 내년도 현금 지출을 승인함. 내년 이후에 특정 보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는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함
- (장점) 이는 정부에 대한 양허의 매력 중 하나로 추정됨. 양허법을 통과시키면서 의회는 일반적으로 양허의 사용을 승인 및 보조금과 보증의 사용을 예상함. 수입 보증에 따른 지출 예산 책정은 보증이 실행되는 시점과 정부가 사업시행자(양허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점 간 지연이 발생하여 장점으로 작용함
- *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징수된 통행료 수입 부족과 관련된 지불은 다음 해 7월에 지불 가능. 2002년 칠레는 정부가 흑자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재정 규칙을 채택했으며 (목표는 나중에 예산 균형으로 변경됨), 이는 양허와 공공 재정 사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 (현황) 현재 재정 규칙을 뒷받침하는 회계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자는 처음에 보고된 잉여금을 줄이는 반면, 양허는 처음 그대로 유지함. 따라서 칠레 정부가 요구하는 잉여금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양허 사용을 선호할 수 있음
- * 대조적으로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강력했을 때 정부는 보고된 잉여금을 줄이고 다른 지출에 대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공 재정 사용을 선호했을 수 있음

□ 수익보증 수수료

- (초기) 양허에서 정부는 수익보증에 대해 명시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수익보증을 동반한 수익분담약정은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입찰자가 보증이 수익 분담 의무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면 보증의 제안은 양허를 수행하기로 동의한 조건을 개선했을 것임
- (1998년) 그러나 정부는 68번 국도 (Santiago - Valparaíso - Viña del Mar)의 양허에 대한 선택적 수익 보증을 제공했으며 보증을 수락하는 입찰자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함. 두 명의 입찰자가 보증을 요청했으며, 승자와 한 명의 다른 입찰자는 보증을 거부함(Gómez-Lobo 및 Hinojosa 2000)
- (비교) Route 68(국도 68)에 대한 양허와 이전 양허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Route 68이 수익의 최소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낙찰된 점이며, 이는 사업시행자(양허권자)의 수요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여 보증 수요를 줄임
- (현재) 비록 최소 수익 현재가치 기준으로 양허가 낙찰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제 수수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

□ 모니터링

- (담당) 공공 사업부는 계약이 체결되면 양허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음
 - * 교도소나 공항의 경우처럼 공공사업부가 타 부처를 대신하여 양허를 집행할 때는 양 부처의 대표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참여함
- 따라서 공공 사업부는 가능한 경우 위험을 완화하고 지출에 대한 조기 경고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함. 칠레의 양허 프로그램이 고평가를 받는 것은 계약 모니터링이 여러 면에서 합리적임을 시사함(Constance 2004; IMF 2005)
- (문제점) 그러나 우발부채 관리 관련 문제가 확인됨. 예를 들어, 공공사업부는 수입 보증에 따른 클레임 검증을 위한 교통흐름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공공사업부-재무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를 받음. (Engel, Fischer, 및 Galetovic 2009)
- 그러나 공공사업부는 교통 흐름을 샘플링하고 사업시행자(양허권자)가 부정확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발견하면 양허를 종료할 수 있음

□ 우발부채 관리방식 분석

- 다른 국가와 비교 시 칠레의 우발부채 관리 방식은 정량적 분석에 크게 의존함.
분석에 대한 이러한 의존도는 칠레 관리의 정량적 분석 기술과 칠레의 PPP가 빅토리아보다 더 큰 보증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모두 반영함
- 비용 편익 분석: 칠레는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한 선구자 중 하나였으며(Fontaine 1997), 양허 프로젝트는 비용 편익 분석 대상에 해당함.
Engel, Fischer, and Galetovic(2009)은 공공사업부가 때때로 이 통제를 우회했다고 보고하지만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임계값(현○재 8%)을 초과하는 예상 연간 사회적 수익률을 가져야 함
- 공적자금과의 비교: 양허는 예상 재정 수익률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거나 약간의 보조금만 요구될 정도로 근접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선택임.
댐, 교도소, 공공건물과 같이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양허의 추정재정비용과 공적 자금조달 사업의 추정재정비용을 비교함
- 우발부채의 정량화: 공공사업부와 재무부는 연구 의뢰 및 위임*을 통해 양허의 각 연도에 대한 예상 수익 비용 및 환율 보증(및 수익 및 이익 공유 약정으로 인한 예상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모델을 개발함
- * 1990년대 수입 보증과 수입 분배의 재정적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 의뢰(Gómez-Lobo 및 Hinojosa 2000) 및 World Bank에 보증의 수량화와 보증 관리 옵션에 대한 작업 위임(World Bank 2003, 2007).

□ 재무 보고

- 칠레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원칙을 수용하나 원칙이 IFRS(국제 재무보고 기준)만큼 발전하지 않아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PPP 전체가 아닌 일부를 포함함
- 예를 들어 최근에는 교도소와 공항이 회계 목적의 공공 프로젝트로 취급되었지만 도로는 미해당. 칠레 정부는 IPSAS(대부분 IFRS를 기반으로 함)를 채택 가능함
- IFRS 채택 여부와 시기는 정부 외부의 IFRS 채택 여부에 달림

나. 칠레 공공 양허 시스템 개요

- 칠레에 투자하는 방법의 칠레의 공공 양허 시스템(How to Invest in Chile: The Public Concession System in Chile, 출처: Investchile, 2021.12.22.)
 - 칠레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는 공공 사업부(MOP)가 발행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상의 입찰을 제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외국 기업이 칠레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는 공공사업부가 감독하는 공공 양허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임
 - 국내 및 국제 입찰이 있으며 MOP는 공사가 특히 크거나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회사들 또는 컨소시엄들에 사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양허 계약은 인프라 및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사용됨
 - * 도시 간 및 도시 도로, 공항, 병원, 교도소; 대중교통 전용로, 복합 운송 역 및 산티아고 통과 환승역, 관개 공사 및 공공건물과 같은 교통 인프라 등
 - 공공사업부는 현재 이 5년 동안 입찰할 공공 및 민간 계획을 포함하는 2019-2023 양허 일정을 작업 중으로, 예시는 하기와 같음
 - 종단 연결: Route 5(칠레의 주요 남북 고속도로)와 관련된 프로젝트
 - 도시이동 및 대중교통: 트램, 케이블카, 기차, 기타 차량 등 대중교통 개선 공사
 - 공항 연결성: 새로운 공항 및 비행장 양허를 포함하는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
 - 사회 기반 시설: MOP의 두 번째 병원 양허 프로그램의 일부인 18개 시설에 대한 입찰
 -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기반 시설 : 저수지 개발 및 기타 수자원 사용 개선 공사
 - 칠레의 공공 양허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확인을 권장함(노동법, 세금 및 환경 평가 관련 유용한 정보도 포함됨)
 - * 출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PUBLIC CONCESSION SYSTEM)/HOW TO INVEST IN CHILE / A STEP-BY-STEP GUIDE FOR FOREIGN INVESTORS/ 칠레에 투자하는 방법/ 제14장 공공 양허 시스템 (하기 내용 확인 가능)

- 규제 프레임워크 및 제도적 구조
 - 양허 계약
 - 인프라 입찰유형
 - 양허 포트폴리오
 - 양허 프로젝트 일정
- (마지막 업데이트: 2021년 10월)

(1) 규제 프레임워크

- 양허는 공공사업부가 발행한 1996년 시행령 900호, 그 수정안 및 양허 규정 (1997년 MOP Supreme Decree 956호)에 의해 규제됨
- 법에 따르면 공공, 국내 또는 국제 입찰을 통해 양허가 부여되지만, 공사가 특히 크거나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공공사업부는 회사들 또는 컨소시엄들에 사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2) 공공 양허를 위한 제도적 구조

- 양허 총무국(General Concessions Directorate, Dirección General de Concesiones)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틀 내에서 국가 공공 기반 시설 공사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하기의 기능을 수행함
 - 민간이 제출한 민간 양허 프로젝트 연구
 - 계약 연구, 프로젝트 및 공공사업 실행을 위한 입찰 일정 조율
 - 입찰에 적용되는 행정 및 경제 조건 제안
 - 실시계약(양허계약)에 대한 감독 규칙을 준비하고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실시계약 및 기타 기능에 대한 수정안 제안
- 양허 심의회(Concession Council, Consejo de Concesiones) : 제안된 인프라 기반 시설 및 양허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및 양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공공 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úblicas 또는 MOP)의 자문 기관
 - 공공사업부장관과 5명의 심의회 의원으로 구성됨
- 양허 기술 전문 위원단(Concessions Technical Panel, Panel Técnico de Concesiones) : 상설 기술 독립 전문 위원단
 - (구성원) 고위 공공 관리 시스템(Sistema de Alta Dirección Pública)을 통해 선임됨
 - (기능) 실시계약(양허계약)의 건설 및 운영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공공 사업부와 실시회사(양허회사) 간에 기술 또는 경제적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권고(Recommendations)”를 발행함

(3) 양허 계약

- 실시계약(양허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적절한 균형을 보장하는 실시 규정(양허규정)의 규칙에 의해 규율됨

* 분쟁 해결 메커니즘, 조정, 중재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도 포함됨

- 양허 계약의 유형은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건설, 운영 및 이전) 또는 DBOT(Design, Build, Operate and Transfer; 설계, 건설, 운영 및 이전) 로 모두 공공 공사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민간부문을 포함함
- 양허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는 다시 입찰을 위해 최적의 상태로 완성품을 국가에 반환함

※ 용어 정의

a. 건설 양허

수주 후 프로젝트는 최종 엔지니어링 계획의 준비 및 승인과 함께 건설 단계를 시작하고 건설이 시작됨. 이러한 계약에는 도시 및 도시 간 도로, 공공건물 및 병원 인프라가 포함됨

b. 건설 및 운영 양허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운영 중인 공공사업이지만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입찰 됨. 이 범주에는 도시 간 및 도시 도로 양허, 공항 양허 및 물 솔루션이 포함됨

c. 운영 양허

이들은 이미 건설되어 완전히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 단계에서 양허총무국(General Concessions Directorate)은 인프라가 계약과 관련된 기술, 운영 및 유지 관리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d. 완성된 양허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종료되어 이미 양허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양허가 입찰 되는 공사임.

(4) 입찰되는 인프라 유형

양허 계약은 인프라 및 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사용됨.

* 도시 간 및 도시 도로, 공항, 병원, 교도소; 대중교통 전용로, 복합 운송 역 및 산티아고 통과 환승역, 관개 공사 및 공공건물과 같은 교통 인프라 등

(5) 양허 포트폴리오

공공 또는 민간 이니셔티브를 포함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평가, 구조화 및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 후에 양허 포트폴리오가 생성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Concessions Council(양허 평의회)의 공익 선언이 필요함.

(6) 양허 프로젝트 일정

- 2019 ~ 23년 양허 일정에는 이 5년 동안 입찰될 공공·민간 이니셔티브가 포함됨
-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진행 또는 수정은 환경 및 토지 변수, 엔지니어링 개발, 수요 및 법적 문제 평가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 따라 변함
- 일정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하기 참고
 - 종단 연결: Route 5(칠레의 주요 남북 고속도로)와 관련된 프로젝트
 - 횡방향연결: 칠레를 횡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공사
 - 도시이동 및 대중교통: 트램, 케이블카, 기차, 기타 차량 등 대중교통 개선 공사
 - 공항 연결성: 새로운 공항 및 비행장 양허를 포함하는 공항 네트워크의 구조
 - 사회 기반 시설: MOP의 두 번째 병원 양허 프로그램의 일부인 18개 시설에 대한 입찰
 - 효율적인 물 사용을 위한 기반 시설 : 저수지 개발 및 기타 수자원 사용 개선 공사

다. 칠레 양허 시스템의 법적 프레임워크

(출처: Lessons from Latin America, The early landscape of healthcare PPP No.2, PwC UCSF Global Health Group, 2015)

□ 칠레 PPP 입법(공공 사업 양허법)

- 칠레는 1991년에 최초의 PPP 입법을 통과시킨 이후 2010년에 수정함
 - 입법은 양허 과정을 위한 매우 표준화되고 투명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며 공공 사업부에게 민간 당사자들과 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이러한 PPP 입법은 보건과 같은 특수한 PPP 입법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산업들을 포함함
 - 연방 및 지방 차원의 모든 PPP 입찰은 공공사업부를 통해서 조정되며 공공사업부는 필요시에 해당 부처들과 조정함
- * (예시) 병원 양허 사업의 경우 보건부와 협의
- 비록 공공사업부가 계약 조정에 책임이 있을지라도 계약의 관리 감독은 지정된 해당 부처에 의해서 처리됨

- 해당 법에 의하면 사회적 필요 조사, 재무적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운영 및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몇 개의 보고서와 분석들이 입찰전에 완료되어야 함
 - * 민자 적격성(Value for Money) 연구는 요구되지 않음
- 입찰 과정과 계약체결 단계 모두의 투명성은 PPP 입법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단계이며 모든 입찰 서류들, 계약들, 진행 보고서들 등은 정리되고 탐색하기 쉬운 양식으로 공공사업부 웹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s)은 해당 법에 따라 허용되며 민간은 해당 제안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해당 부문 부처에 아이디어를 제출 가능함
 - (수락 시) 민간 파트너는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무적인 입찰전 분석을 완료하도록 요구됨. 해당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는다면, 이러한 보고서들을 생산하는 비용은 상환될 수 있음
 - (적격 시) 정부는 해당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실행가능하다고 간주되면 경쟁적인 입찰 과정이 공공사업부에 의해 시작됨. 해당 제안을 제출하는 민간 파트너는 입찰 평가 과정에서 추가 점수가 수여되겠지만, 그것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보증하지는 않음

□ 양허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출처: Chille opportunities in infrastructure 2009-2010,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2009.07)

- 양허 프로그램을 통한 공공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주로 공공사업 양허법(Laws, Decrees)과 양허법의 해당 규정(Regulations)에 포함됨
 - 실행 중인 규정은 양허계약에 따른 공공사업의 계약 수여 및 건설,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함
 - 입찰은 입찰 요청 또는 사전 적격심사 과정으로 시작 가능함
- 1996년 광범위한 여러 영역에 걸친 당사자 지원으로 승인된 양허법에 대한 최근 수정으로 공공 사업부에게 모든 유형의 공공사업에 대한 양허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다른 정부 기관들의 책임인 공공사업의 경우에, 다른 정부 기관들이 공공사업부에 해당 양허 과정을 위임하도록 권한을 부여함

- 공공사업 양허법은 국내 또는 국제 공공 입찰을 통해서 양허가 수여되도록 요구하며, 추가로 프로젝트가 특별히 복잡하고 크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 공공사업부는 입찰을 발행하기 전에 투자 설명서를 기준으로 사전 자격을 부여할 회사들 또는 컨소시엄들을 초청할 수 있음
 - * 양허계약은 공공사업 양허법(1997년 공공사업부가 발행한 Supreme Decree No. 956)에 해당하는 규정에 설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음
-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의 일부 측면을 수정하는 법안이 현재 의회에 계류 중. 공공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개선 및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가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경제의 생산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도록 함
 - 더불어, 수정 법안은 보다 복잡하고 다기능적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현행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양허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임
 - 또한 권고 제안 및 양허 관련 특정 문제에 대한 공공사업부 지원을 위해 항소 법원이나 중재 위원회 및자문 위원회에 분쟁 처리 기술 패널을 만들 것임

□ 2010년 양허법률 20410호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td, LAC Infrascoppe 2014,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2010년에 칠레는 현재 규제 프레임워크 법률(공공사업부 양허법) 20410호를 제정하여 공공사업부에 의해 규제되는 공공사업의 민간 계약을 가능하게 했던 1996년 양허법령(1996 Concession Act)을 수정함
- 칠레는 현재 PPP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프로젝트들에 적용되는 오래 지속되고 잘 구성된 투자 평가제도를 보유함. 국가 공공투자제도는 모든 프로젝트의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요구조건을 관리 감독함
- 민간제안형 사업에 금융을 제공하고 배분하는 제도는 2010년 입법에 따라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입법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들에 공동 금융을 제공과 함께 잘 구성된 사전 적격심사제도를 구체화함

□ 산업별 프레임워크 비교

- (전력산업) 무기한 양허를 허용하는 자체 법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전력 생산 산업의 대다수는 민간부문의 손에 있음
 - 이 전력산업 부문의 송전 용량 확장 계획은 계획, 조정, 인센티브 및 정치적 의지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반영해 실패함. 따라서 길보기에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전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복잡한 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위험이 높아짐
 - 최근 사례 : 2014년 6월 환경부 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Hidro Aysén 프로젝트
- (물 및 위생 산업) 물 공급, 처분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이 지역 회사에 할당됨
 - 1997년 물 및 위생 부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정부가 서비스를 민영화하거나 시설을 지역 기업에 임대할 수 있게 됨
 - 2000년 이후 도시 지역 서비스의 거의 99%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됨. 최근 비소모성 수자원의 사용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정부는 향후 정책 및 규제 정의에 대해 조언할 전문가를 임명하면서, 전력 생산자들 사이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야기됨

□ 입찰 프로세스의 변경

- (기존) 입찰 프로세스는 투명한 계약 방법을 사용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기준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낙찰함. 모든 추가적인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이 별도로 재입찰되고 재무부가 프로젝트 계약 변경사항을 독립적으로 평가함
- (변경사항) 양허법의 변경으로 인해 공공사업부에 계약 변경을 권고하는 외부 이사 위원회가 설립됨. 추가적인 중요 공사 입찰 및 양허 재협상, 2010년 법에 의해 도입된 분쟁해결 메커니즘 개선과 같은 투명성 요구조건은 재협상의 범위를 줄이고 초기 프로젝트 입찰 단계에서 경쟁의 품질을 개선함

라. 공공사업 양허법과 규정 (Public Works Concessions Laws & Regulations)

출처: <https://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library/chile-concession-laws-regulations-spanish>

세계은행 민관협력사업 도서관- 칠레 양허법규-스페인어 Chile : Concession Laws - Regulations (Spanish) ,

칠레- 양허법 및 규정(스페인어) Document Details(문서 요약내용):

출처 : <https://www.bcn.cl/leychile/navegar?idNorma=1111297&idParte=9853745> 칠레 국회 도서관 웹사이트

□ 칠레 양허법령 및 규정 History

연도	내용
1991년	공공사업부 양허법 DFL MOP Statutory Decree 164호
1993년	법률 19,252호로 수정
1996년	법률 19460호로 수정
1996년	공공사업 양허법 시행령 900호: 1991년 공공사업 양허법의 DFL MOP Statutory Decree 164호의 통합되고 조정되고 체계화된 텍스트를 수정
1997년	MOP Supreme Decree 956호: 양허법 시행령 900호 수정안 및 양허 규정
2010년	법률 20,410호: 1996년 공공사업부 양허법 시행령 900호에 대한 수정사항이 도입
2016년	법률 20908호에 의거 수정
2017년	법률 21,044호: 공공사업 양허 총무국을 신설

○ 요약 (2022.8. 업데이트)

- 법률 21,044호는 공공사업 양허 총무국을 신설함
- 900호는 1991년 공공사업 양허법의 DFL MOP 164호의 통합, 조정 및 체계화된 텍스트를 수정함
- 법률 20,410호는 1996년 공공사업부 시행령 900호에 상기 수정 사항을 도입함

□ 칠레 공화국 정치 헌법 제32조 8호 규정, D.F.L. MOP(공공사업부) 법률 164호*, 수정안(1993년 법률 19,252호 및 1996년 19460호를 통해 DFL MOP No. 164 양허법에 도입) 및 양허 시스템(1984년 MOP Supreme Decree 294호의 87조에 의거 설립)에 의해 재정 공공사업의 실행, 수리 또는 보존을 규제할 필요성을 염두에 둠 (추적번호: Chilean concession regulations_1997_Spanish /칠레 양허 규정 1997 스페인어)

* 164호 : 1993년 법률 19252호와 1996년 법률 19460호에 의해 수정됨

출처 : <https://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library/ppp-laws-concession-laws-chile>

□ 칠레 PPP Unit 및 PPP 프로세스

- 칠레 PPP Unit은 공공사업부이고 칠레의 PPP 프로세스는 협상(negotiation)을 피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대신에 PPP는 기술적 및 기타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모든 회사, 국내 또는 외국 회사에 개방된 경쟁적인 옥션으로 낙찰됨

(출처 : http://www.concesiones.cl/quienes_somos/funcionamientodelsistema/Documents/Law_Regulations.pdf)

마. 외국인 투자법

□ 외국인투자법 (출처: 칠레 투자실무가이드, 코트라, 2008)

- 칠레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에는 DL600과 Chapter XIV,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DL600임

1) D.L. 600 외국인 투자규정에 의한 투자

- (정의)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가 칠레 정부(경제부)와 일종의 투자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
- (장점) 중앙은행에서는 국가 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외환시장 접근을 통제할 수 있지만, D.L. 600 규정을 통해 칠레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이 보장됨
- (현황) 이에 따라 D.L.600 규정이 발효된 1974년 이후 칠레 외국인 투자의 약 70% 이상이 D.L.600을 통해 이루어짐
- (단서) 단, 투기성 단기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존재함
- (D.L.600 규정을 통한 투자 자금 반입 절차) 사전승인, 계약체결, 자금 반입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	최장 1개월 이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 획득	세부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 *투자 규모, 투자자본 형태, 투자 완료 기간 등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본 승인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미화 500만 달러 * 고도 기술의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 획득 시 250만 달러 이상도 가능	→ *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3년 이내에 자본금을 반입해야 함 * 사전 탐사 기간의 필요성을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광업 프로젝트의 경우, 자본금 도입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

- (D.L.600 규정을 통한 투자 자금 반입의 장점)

-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 측은 계약사항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지만, 투자자는 증액 투자, 투자목적 변경, 다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권리 양도 등 계약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계약사항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함

- D.L.600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어 제7항에서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는 일반 세율 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으며 해당 기간 중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음
- * 그러나 현 세제 시스템하에서는 D.L. 600이 보장하는 42%의 고정세율보다는 일반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임. 고정세율을 선택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일반 조세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나, 고정세율로의 복귀는 불가능함

2)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Capítulo XIV)에 의한 투자

- 칠레 중앙은행의 외환규정 제14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D.L. 600 규정과 유사하나 투자액 규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 D.L. 600 vs 외환규정 제14조 >

구 분	D.L. 600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
최소 투자규모	USD5백만	USD1만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위원회 승인	중앙은행에 외화반입 통보
투자금 회수	투자개시 1년 후부터 가능	항시 가능
조세제도	일반 조세제도 조세 고정제도 중 택일	일반조세제도
장 점	높은 안정성 (정부와 계약)	자본금 회수 용이, 간편 신속한 절차, 높은 효율성

2 외국인 투자 환경

- PPP 분야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투자 환경은 아주 중요한 검토 사항임.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라도 외국인 투자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면 실행에 옮기기 어려우므로 PPP 분야에 외국인 투자 환경이 적합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함
- 외국 투자자가 칠레에서 활발히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비롯해서 칠레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함. PPP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칠레가 타 국가들과 경제 협약 등이 잘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투자 환경 중에 하나로,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칠레의 신용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임
- 이에 우선 칠레가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무역협정 및 경제협정을 파악함으로써 칠레 경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최근 외국 투자 정도, 그 주요 동향, PPP 사업과 연관된 외국인 투자 환경을 파악해야 함

가. 칠레 일반 투자환경

(출처: 칠레 투자실무가이드, 코트라, 2008)

□ 칠레 투자환경 개요

- 높은 경제 자유도
 -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 분야가 극히 제한적임
 - 자유로운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정부가 보장함
 - 칠레의 투자 유지 정책은 차별 없는 편임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 혜택 역시 없음
 - 외국인 투자자에 철저한 자유경쟁 원칙을 적용함
 -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누구나 칠레 시장에서 공정한 시스템, 차별없는 기업경영환경에서 활동 가능함
 - 197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 및 현지화 전략이 중요함

- 칠레 인프라 시장은 전력, 수도, 가스, 통신, 교통 인프라 부문 모두 유럽 및 북미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며, 칠레의 주요 산업인 광업부문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음
 - 유럽 및 북미, 호주 등 기업들은 이미 100% 현지화에 성공하였으며, 칠레 업계 및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매우 강력함
 - 비교적 후발주자인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은 진출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칠레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100% 개방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미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로 인해 보이지 않는 진출 장벽이 존재함
- (중남미 최고의 투자환경)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으로 시장 신뢰도가 향상됨.
- 칠레는 중남미 선진 시장으로서, 국가 경쟁력, 비즈니스 환경 등에서 중남미 최고 수준, 세계적으로 상위권 국가임
 - 1990년 민주화 이후 칠레는 장기간 정치적 안정 유지 가능하였고 중도 좌파의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통해 각종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 될 수 있었음
 - 1970년대 이후 추진된 경제 자유화 및 주요 산업 민영화 정책이 현재까지 유지, 강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신뢰 받는 중남미 국가임
 - 1980년대 연금제도 민영화를 시작으로 1990년대 전력, 통신, 수도 등의 민영화 완료, PPP사업 방식을 적극 도입, 주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였음
 - 세계 주요 국가와의 적극적인 FTA 및 관세 협정을 통해 자국의 투자유치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였음
- 역동적인 경제 성장
- 칠레의 1990년~2004년 연평균 경제는 5.6%로 중남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05년~2007년의 경제 또한 5%대를 유지하면서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함
 - 실질 경제: 2014년(1.8%), 2015년(2.3%), 2016년(1.7%), 2017년(1.2%), 2018년(3.9%), 2019년(1.1%), 2020년(-5.8%), 2021년(11.8%), 2022년(3%) 전망

- 2022년~2026년 칠레 경제전망 (출처: 주칠레 대한민국대사관, 외교부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
- 최근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신헌법 제정, △좌파정권으로의 교체 등 칠레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신정부 하 경제전망(2022-26)을 발표함
 - (대외경제 정책) 원칙적으로 자유무역 및 해외투자에 개방적인 기조를 유지하되, △가능한 범위 내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CPTPP 미비준,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등을 추진함
 - (신정부의 경제분야 역할 확대) △연금시스템의 국영화 및 관련 자금의 국영기관 운영, △노동정책 강화(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으로 축소, 노조강화 등), △세금 개혁(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유세 부과, 광업 로열티 증세, 탄소세 도입, 면세 축소 등), △국영 리튬공사 설립 및 기존 국영기업 역할 확대 등으로 확대함
 - (재정정책) 교육, 보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 기조 하 정부지출 증가 및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예상함
 - * 다만,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등의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7.9%(2021) → 3.5%(2022) → 2.3%(2026)로 축소 전망
 - (화폐정책) 지난해 7월부터 이행되어 온 금리인상 기조가 2022년에도 이어지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긴축정책 기조를 점차 완화할 것으로 기대
 - 상기 관련, 2022년 1월 칠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안정화, △화폐(칠레 페소) 가치 유지, △경기과열 예방 등을 목적으로 기준 금리를 5.5%(1.5%p)로 인상한 데 이어 3월에도 동일한 규모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률) △추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감소, △코로나19 관련 지원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좌파 정부 집권 및 신헌법 제정 관련 기업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실질 GDP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21년 경제성장률은 11.8%)

-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긴축 화폐정책, △중국의 경제둔화 가속화, △코로나19 관련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신헌법 내 기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시 2023년 - 2026년 간 경제성장률이 2%로 하락 예상됨
- (환율) 2021년 대선 이후 칠레 페소 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한 데 이어 신정부 집권 초반인 2022년에도 페소/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헌법 방향의 명확화, △높은 구리 가격으로 인한 수출 증가 등의 요인이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 * 다만, 상기 분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원자재, 석유 등 에너지, 곡물·식료품 등 가격 상승, △국제공급망 교란, △국제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효과가 칠레 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속 관찰이 필요
- * (참고) EIU는 별도 분석을 통해 중남미 지역 - 러시아 간 직접적 경제교류 비중은 낮다면서도,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 △위험기피 추세 및 해외투자 회수가 초래할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은 인정
 - 특히, 칠레는 석유 순수입국으로 연료가격 상승 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또한, 곡물 및 원자재 수출국들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를 대체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소비 및 투자 감소,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 이행 곤란 등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부연함

○ 칠레는 중남미 지역 교통 및 물류 허브

- 칠레는 인구 4억명에 달하는 중남미 시장의 교통, 물류 허브로 성장
- 중남미 최대 항공사 LAN항공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 직항 또는 코드쉐어 항공노선 확보
- 중남미 최고의 서비스 및 안전을 보장하는 산티아고 공항 보유
- 36개의 민간 또는 공영 항구 보유 (중남미 3위 국제 해상운송)

○ 완전 경쟁 및 개방 국가

- 자유시장 정책 및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 정책을 40년간 유지
- 자국 산업보호 및 육성보다 투자 유치 및 민간자본을 통한 국가경제정책에 매우 친화적,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호의적임
-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및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100% 보장

○ 우수한 투자 인프라 보유

- 정부 주도의 자원 및 관련 인프라 개발보다는 민간 주도의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왔음
-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이 주축이 된 각종 개발사업 진행
- 1990년 중반 칠레는 BOT(건설, 소유, 운영, 이전) 방식의 양허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여 칠레 남북고속도로 Route5 건설, 산티아고 공항 및 지역 공항 건설, 도시 고속도로 건설 등 현대적인 인프라를 확충하였음
- 점차 대학 진학률 증가, 중남미 10대 대학에 3개 이상 포함됨

○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 유치 정책

- 중앙정부는 지역별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 Arica, Austral 등 4개 개발 낙후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시행함
- 2008년 기점으로 동 인센티브는 2개 지역으로 축소 예정이나 연장여부 미결정함
- 외국인 소유 금지 분야 : 대중매체, 항공운송, 해안무역 등
- 외국기업 설립허가/등록절차 : 칠레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관할
- 외국기업의 조세제도 및 인센티브 부여: 칠레 국세청 및 생산 진흥청에서 관리
- 외국인 투자정책 대행, 투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 칠레 외국인 투자위원회
- 칠레의 대표적인 투자유치제도 DL-600 도입

○ 시장 제약요인

- 시장이 협소함(인구는 중남미 시장의 10% 이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
- 칠레 외국인 투자의 80% 이상이 광업 및 기타 관련 분야에 집중함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과 같은 상황시 투자급감 및 정부 수입 급감 우려, 미래 투자 유치 잠재력 약화가 예상됨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분야 다양화 및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함

○ 주요 투자 유망분야

- 양허사업(PPP사업), 전력, 금융 및 유통산업 등
- 양허사업: 적극적인 민간 자본 인프라 투자유치 진행, 북미 및 유럽 기업은 성공적인 칠레 양허사업 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함. 칠레 정부가 고안한 BOT 양허 사업 시장은 민간업체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메커니즘과 제도로 중남미 주요국의 성공모델로 작용함
- 연간 10건 이상의 BOT 양허사업 신규 프로젝트와 이전 계약이 완료된 기존 시설의 개보수 프로젝트를 진행: 고속도로, 항만, 공항, 교도소, 정부청사, 병원, 저수지, 케이블카, 복합환승역, 트램 등으로 확대됨
- 양허시장은 소수기업들만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 경쟁력을 갖추어 도전함
- 다양한 플랜트 및 기타 토목 프로젝트의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업에게 칠레 양허 시장은 큰 잠재력이 있음

* Concession(양허) : 특정기업이 정부 공공시설 및 서비스 시설을 허가 받아 건설, 소유, 운영하고 정부에 이전함

* BOT(Build-Operate-Transfer), BOOT(Build-Own-Operate-Transfer)

○ 칠레 전력 분야

- 고질적인 전력난은 칠레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킴
- 칠레 전력산업은 100%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 Endesa, Colbun, AES Cener 등 3개의 메이저 전력기업을 중심으로 총 10여 개의 기업이 전력을 생산함
- 전력분야는 우리 진출기업에게 진입 장벽이 존재, 현지 시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기업의 단독 진출에 위험이 있음
- 전통적인 발전 사업분야는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분야 진출이 유효할 수 있음
- 2010년부터 각 발전 기업에게 생산전력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풍력,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확대 중임

나. 칠레 주요 무역협정 체결 현황

□ 우리나라와 체결한 주요 협정 현황(출처: 주칠레대사관, 2020.06.25.)

- 무역협정 : 1977.12 체결(1978.7.14. 발효)
- 항공협정 : 1979.8.14. 체결(1980.10.24. 발효)
- 경제기술협력 협정: 1982.11.8. 체결(1983.12.05. 발효)
- 문화협정: 1983.12.7. 체결(1984.9.21. 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 1994.11.21. 체결(1996.07.08. 발효)
- 범죄인 인도협정: 1994.11.21. 체결(1997.10.1. 발효)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1995.8.28. 체결(2000.7.18. 발효)
- 투자보장협정: 1996.9.6. 체결(1999.9.16. 발효)
- 자유무역협정(FTA):2004.4.1. 발효로 투자보장협정 대체
- 이중과세방지협약: 2002.4.18. 체결(2003.7.25. 발효)
- 원자력협력협정: 2002.11.12. 서명(2006.9.3. 발효)
- 자유무역협정(FTA) : 2003.2.15. 서명(2004.4.1. 발효)
- 일반비자면제협정: 2004.10.20. 발효
- 세관협력협정: 2005.11.18. 서명(2006.2.1. 발효)
-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2007.5.3. 서명(2008.5.23. 재발효)
- 환경협력 양해각서:2008.12.10. 서명
- 인적자원 교류협력 양해각서: 2009.11.9. 서명
- 남극협력 MOU : 2012.6.12. 서명
- 해양에너지 발전협력 공동성명: 2012.6.22. 서명
- 그린에너지 기술협력 공공성명: 2012.6.22. 서명
- 광해협력 공동성명: 2012.6.22. 서명
- 산림협력 양해각서: 2012.6.28. 서명
- 사회보장협정: 2015.04.22. 서명(2017.2.1. 발효)
- 방산군수협력협정: 2015.04.22. 서명(2017.4.22. 발효)
- 정보통신(ICT)협력 MOU 개정: 2015.4.22. 서명
- 보건의료협력 MOU : 2015.4.22. 서명

- 전자정부 협력 MOU :2015.4.22. 서명
- 칠레정부 장학생 단기 초청사업 MOU: 2015.4.22. 서명
- 천문우주협력 MOU : 2015.4.22. 서명
- 중남미 시장 진출 금융협력 MOU: 2015.4.22. 서명
- 태양열(광) 사업공동개발 MOU: 2015.4.22. 서명
- 발전 사업투자 포괄적 협력 MOU: 2015.4.22. 서명
- 남극협력 LOI : 2015.4.22. 서명
- 남극협력 MOU 부속서 : 2016.2.26. 서명
- 수자원협력 MOU : 2016.7.1. 서명
- 조달협력 MOU : 2018.5.9. 서명
- 국방협력 협정: 2019.04.29. 서명
- 전장정부 협력 MOU(개정) : 2019.4.29. 서명
- ICT 협력 MOU(개정) : 2019.4.29. 서명
- 교통협력 MOU : 2019.4.29. 서명

□ 세계 주요 무역협정 체결현황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출처: 주칠레대사관, 2017.08.10.)

- 캐나다 : 1996.12.5. 서명, 1997.7.5. 발효
- 멕시코 : 1998.4.14. 서명, 1999.8.1. 발효
- 코스타리카 : 1999.10.18. 서명, 2002.2.14. 발효
- 엘살바도르 : 1999.10.18. 서명, 2002.6.3. 발효
- 과테말라 : 1999.10.18. 서명
- 온두라스: 1999.10.18. 서명, 2008.7.19. 발효
- EU 27개국: 2002.11.18. 서명, 2003.2.1. 발효
- 미국 : 2003.6.6. 서명, 2004.1.1. 발효
- 한국 : 2003.2.15. 서명, 2004.4.1. 발효
- EFTA 4국: 2003.6.26. 서명, 2004.12.1. 발효
- 중국: 2005.11.18. 서명, 2006.10.1. 발효

- 인도: 2006.3.8. 서명, 2007.8.17. 발효
- 페루: 2006.8.22. 서명, 2009.3.1. 발효
- 일본: 2007.3.27. 서명, 2007.9.1. 발효
- 터키: 2009.7.4. 서명, 2011.3.1. 발효
- 호주: 2008.7.30. 서명, 2009.3.6. 발효
- 말레이시아: 2010.11.14. 서명, 2012.4.18. 발효
- 베트남: 2011.11.11. 서명, 2014.10.9. 발효
- 태국: 2015.7.1. 서명, 2015.11.5. 발효

다. 칠레 FDI 현황

(출처: InvestChill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le hit record high in first half of 2021, 2021.08.19.)

□ 2021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 칠레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1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FDI 유입액) 칠레 중앙은행이 발표한 예비 수치의 개정 버전에 따르면 FDI가 미화 1,370억달러에 도달함
 - 이는 2020년 상반기에 비해 66%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20년에 기록된 총 미화 8.5억 달러의 FDI를 훨씬 상회하며 1월-6월 기간 사상 최고치로 역사적 평균(미화 70억 달러)보다 98% 높은 수치임
 - 올해 상반기 누적 수치는 2003년과 2021년 사이에 가장 높고, 지난 5년간 평균보다 92% 더 높으며,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기간의 평균보다 98% 더 높음
- 흥미롭게도, 그 금액은 소위 상품 수퍼 사이클 동안 2012년 상반기에 기록된 유입량보다 훨씬 높음
 - (의의) 경제, 개발 및 관광 장관 루카스 팔라시오스에 따르면 이것이 칠레 경제의 역동성과 모든 수준에서 유리한 예측의 또 다른 지표이며 수치 성장이 특히 한 산업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강력한 소비 외에도 고정 투자에서 24.8%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있으며 외국 자본의 중요한 비율이 있음
 - (부문별) 개인 서비스, 소매 및 도매 무역 및 제조 산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의미) 이 견고한 경제회복은 우연이 아니라 기업가의 탄력성, 정부가 주도하는 재활화 조치 및 우리 경제의 점진적이고 안전하지만 점진적인 개방을 허용하는 공중 보건 상황의 개선을 반영함
-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은 경제의 신속한 재활성화, 성공적인 백신 접종 과정, 그리고 우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회적 과정들로, 칠레가 낙관주의와 자신감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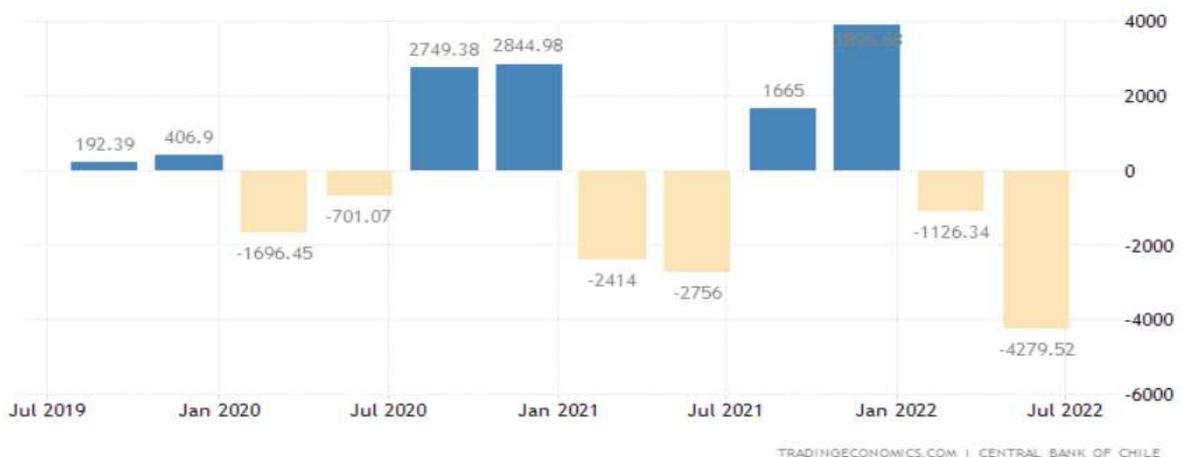
〈InvestChile 전무 이사 Andrés Rodríguez〉

- 이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칠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특별한 순간을 겪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이러한 수치에 신중해야하나, 외국 기업들이 칠레를 신뢰하고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명확한 그림임
- 외국 기업들의 기여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의 회복과 특히 일자리 창출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임

□ 칠레에 대한 FDI의 이점

- InvestChile는 “칠레에서 FDI의 본질과 효과” 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칠레에 가져오는 이점을 설명함
- 칠레의 64,680개 회사가 모든 회사의 9.6%를 차지하는 외국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함과 더불어, 외국 기업이 연간 생산 투자의 40%와 총 세수의 51.4%를 기여한다고 언급함
- 또한 외국 기업들이 2019년 칠레에서 수출한 상품의 66.7%를 생산했으며 수출한 서비스의 85.3%를 제공했다고 언급함
- 칠레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2년 2분기에 4279.52백만불 감소 (출처: 칠레 중앙은행)

<칠레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출처: tradeeconomics.com, 칠레 중앙은행)

□ 2022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출처: InvestChile > News > FDI exceeds US\$10 billion in the first half, 2022.08.08)

- 칠레 중앙은행은 2022년 8월8일, 칠레의 2022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액이 미화 106억 달러라 발표했으며, 이는 5년 평균 US\$ 87억 보다 23% 높음
 - 칠레 경제, 개발 및 관광 장관 니콜라스 그라우 (Nicolás Grau)는 이 수치가 외국 기업이 이 지역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칠레를 계속 신뢰함을 나타낸다고 강조함
- 상반기 동안의 흐름은 FDI가 총 US\$ 124억이었던 2021년의 같은 기간에 등록 된 것보다 14% 감소함
 - 칠레의 외국인 투자 진흥국인 InvestChile는 이러한 감소가 특정 인수 작업으로 인해 2021년 2월 칠레에 US\$ 58억의 비정상적인 유입으로 인해 촉발된 높은 비교 기반 때문이라고 설명함
 - 특히 6월 흐름은 US\$ 10.4억에 도달했는데, 이는 12개월 평균 US\$ 11.2억과 일치함
- 이 기간 동안 FDI 흐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US\$ 43억에 기록된 이익 재투자이며, 주식 자본의 주식은 총 US\$ 34억, 부채 상품은 US\$ 29억으로 기록됨

□ 역동적인 외국인 투자

<니콜라스 그라우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 칠레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여전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 복잡한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수립 및 성장시키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칠레를 계속 선택 중이므로 정부로서 국제 기업들이 칠레에 갖는 신뢰 유지를 위해 공공-민간 투자 및 조정 노력 중임

<InvestChile 이사 Karla Flores>

- 에이전시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일자리, 전문 교육 및 개발을 위한 기술 및 기회 증가로 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투자자를 유치하고 칠레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
- 에이전시에서의 일상 업무에서 우리는 외국 기업들이 칠레에 대한 투자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복잡한 글로벌 시나리오에서 좋은 징조임

□ 숫자로 보는 칠레 외국인 직접투자

(출처: <https://www.lloydsbanktrade.com/en/market-potential/chile/investment>)

- Covid-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하반기 동안 상품 무역 측면에서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이는 2021년 동안 유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세계 투자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칠레로의 FDI 흐름은 자본 투자 감소(-29%)와 재투자 이익 감소(-28%)로 인해 칠레로의 FDI 흐름이 84억 달러(2019년 125억 달러에 비해)로 33% 감소함
 - 남미의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칠레의 탄력성은 광물 가격의 급속한 회복, 지속적인 재정 지출 (GDP의 14%),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예방 접종 캠페인 중 하나의 실행에서 비롯함
 - 부문별 관점에서 볼 때, 녹색 전환에 대한 칠레의 공약은 녹색 에너지 산업에 추가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20년 그린 필드 발표의 40%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 전기에 등록됨
 - FDI 잔고는 2,720억 달러로, 2010년에 비해 1,000억 달러 이상 증가함
 - 브라질, 미국, 페루 및 아르헨티나는 FDI 주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투자는 주로 광업, 금융 및 보험, 에너지, 상업 및 제조를 지향함
 - 칠레의 투자 측면에서의 장점
 - 자본 투명성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기초한 칠레 경제 정책
 - 천연자원의 풍부함, 거시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성장 잠재력, 법적 안전, 낮은 위험 수준 및 인프라의 높은 품질
 -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목적지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폐쇄 기업의 온라인 등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몇 년간 비즈니스 절차 시작에 진전을 꾀함
- * 그러나 구리 가격에 대한 국가의 의존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잠재 투자자를 몰아낼 수 있음
- (사례) 2019에서 Huawei는 산티아고의 지역 데이터 저장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투자함. 2020년 중국 기술 회사는 남미의 클라우드 및 AI 플랫폼을 강화하여 두 번째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021년 중국 회사인 Sinovac은 산티아고의 백신 제조 공장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함

- 또한 칠레는 세계은행이 2020년에 발행한 마지막 사업수행 보고서에서 190개국 중 59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 비해 3계단 하락함.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소수 투자자 보호, 지급 불능 해결 및 신용 취득과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외국인 직접투자	2019년	2020년	2021년
FDI 유입(USD백만)	15,231	9,637	12,719
FDI 잔고(USD백만)	187,572	188,227	180,489
그린필드 투자건수*	140	80	82
그린필드 투자금액 (USD백만)	8,703	5,435	5,278

(출처: UNCTAD, 최신 이용자료)

* Greenfield 투자는 모회사가 처음부터 새로운 운영 시설을 건설하여 외국에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한 형태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 비교	칠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미국	독일
거래 투명성 지수*	8.0	4.1	7.0	5.0
매니저의 책임 지수**	6.0	5.2	9.0	5.0
주주의 파워 지수***	7.0	6.7	9.0	5.0

(출처: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최신 이용자료)

* 지수가 클수록 거래 조건이 더 투명해짐

** 지수가 클수록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며, 주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쉬워짐

□ 칠레에서 투자시 고려할 사항

○ 강점

- 거시경제 안정성, 좋은 성장 관점
- 1인당 최고의 라틴아메리카 수입업자, 우수한 지급 능력을 누릴 수 있음
- 높은 구매력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 풍부한 천연자원 (구리, 농업)
- 다국화된 칠레 기업
- 주로 근무시간의 유연성과 직원 해고를 위한 복잡하지 않은 절차로 인해 비즈니스에 유리한 경향이 있는 노동법
- 외국기업은 또한 다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지역 시장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약점
 - 혁신의 부족, 연구개발에 매우 약한 지출
 -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투자는 크지 않음
 -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중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취약성
 - 전기 및 도로 인프라는 영토의 크기에 충분하지 않음
 - 자격을 갖춘 노동력 부족, 노동 인구의 활동률은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다소 낮음
 - 계속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사회적 긴장 (예 : 광산 부문의 파업)을 초래하고 정기적으로 시위가 벌어짐

-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정부 조치
 - 칠레의 외국인 투자 정책은 단순성, 투명성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투자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함. 재정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적당한 법인세의 혜택을 누리고 자본 및 이익의 무료 송금을 포함하여 공식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장됨
 - 새로운 법적 유형의 회사로 외국인이 현지 파트너 없이도 칠레에서 사업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단순화된 유한회사(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IRL)’ 가 개발됨
 - 현지 파트너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법인이 필요함)
 - 정부는 새로운 국가 투자 촉진기관인 InvestChile의 창설을 포함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유치 전략을 수립함
 - InvestChile는 해외기업들이 칠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정부는 광업 서비스, 정교한 식품 산업, 수출 가능한 기술 서비스, 관광 및 에너지 / 물류와 같은 다섯 가지 투자 우선 순위 부문을 확인함

- 법률 법령 600호 (소위 “외국인 투자 법령”)에 따라 42%의 보장 소득세율이 10년 동안 부여되나, 자본 투자 프로젝트가 산업 또는 추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동안 부여됨
 - * 전체 세율은 배당금 또는 지점이익 분배에 대한 이익 및 원천 징수세로 구성

- 노동력
 - 임금 수준, 가용 노동력, 생산성 고려가 필요함
 - 임금 및 가용 노동력 : 정부 통계나 기존 업체의 생산시설에서 자료 확보 가능함
 - 노동생산성 :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통계치가 없어 유사 업종의 현장 경험치 근거로 판단 필요함
- 운송 및 교통
 - 공장 위치 선정시 원자재, 제품, 인력 등의 운송비와 도로, 철도 및 해상운송 인프라 구축 여부 우선 고려가 필요함
 - 원자재 산지와 거리, 고객의 위치까지 거리, 제품의 특성, 수량, 운송속도, 운송주기 등 자사의 상황에 적합한 운송 관련 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운송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이 필요함
- 환경 문제
 - 최근 모든 주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제조 후 폐기물 처리 규정이나 매연에 의한 공기 오염도 제한 규정 등 해당 지역 기준 파악하고 환경규정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한 처리장치 설치 및 유지비용 고려가 필요함
- 에너지 원가
 - 전기, 가스, 수돗물 등의 공공 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요금 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요금 비교 분석 및 요금 협상이 필요함
- 시장 접근성
 - 생산시설을 고객회사들 주위에 설치 또는 전국에 산재한 고객 시장에 가까이 접근하여 생산 투자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므로 시장의 범위를 그룹화하여 생산 위치 결정이 필요함
- 생산시설 비용
 - 부지구입이나 임차 비용은 해당 지역, 주변 지역 인프라, 주정부 및 시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많이 다름. 건물은 신규 건설, 기존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등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산출되므로 비교 분석이 필요함

○ 현지 금융

- 칠레 금융산업은 매우 보수적, 리스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해 대출심사 및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이낸싱 및 대출이 가능함
- 칠레 금융기관은 외국기업에 대한 대출에 큰 제약조건을 가지지 않음
- 여신 조건만 갖추면 현지은행으로부터 금융조달 신청 가능하나 신용자료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축소 또는 거절되기도 함
- 대출이자율 연방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적용 금리가 차이가 남
- 칠레 금융기관의 높은 금리 때문에 칠레 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칠레 밖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사례가 많음

□ 칠레가 서명한 양자 간 투자 협약(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연번	제목	상 태	당사자들	서명일자	발효일자
1	칠레-홍콩특별행정구,중국 BIT (2016)	발효	홍콩특별행정구, 중국	18/11/2016	14/07/2019
2	브라질-칠레 BIT(2015)	서명(미발효)	브라질	24/11/2015	
3	칠레-우루과이 BIT(2010)	발효	루과이	25/03/2010	18/03/2012
4	칠레-아이슬란드 BIT (2003)	발효	아이슬란드	26/06/2003	12/08/2006
5	칠레-도미니카공화국BIT (2000)	발효	도미니카 공화국	28/11/2000	08/05/2002
6	칠레-페루 BIT (2000)	종료	페루	02/02/2000	03/08/2001
7	칠레-콜롬비아 BIT (2000)	서명(미발효)	콜롬비아	25/01/2000	
8	칠레-레바논 BIT (1999)	서명(미발효)	레바논	03/10/1999	
9	칠레-스위스 BIT (1999)	발효	스위스	24/09/1999	02/05/2002
10	칠레-베트남 BIT (1999)	서명(미발효)	베트남	16/09/1999	
11	칠레-이집트 BIT (1999)	서명(미발효)	이집트	05/08/1999	
12	칠레-뉴질랜드 BIT (1999)	서명(미발효)	뉴질랜드	22/07/1999	
13	칠레-인도네시아 BIT (1999)	서명(미발효)	인도네시아	07/04/1999	
14	칠레-네덜란드 BIT (1998)	서명(미발효)	네덜란드	30/11/1998	
15	칠레-남아공 BIT (1998)	서명(미발효)	남아공	12/11/1998	
16	칠레-튀니지 BIT (1998)	서명(미발효)	튀니지	23/10/1998	
17	칠레-터키 BIT (1998)	서명(미발효)	터키	21/08/1998	
18	오스트리아-칠레 BIT (1997)	발효	오스트리아	08/09/1997	22/10/2000
19	칠레-헝가리 BIT (1997)	서명(미발효)	헝가리	10/03/1997	
20	칠레-온두라스 BIT (1996)	발효	온두라스	11/11/1996	10/01/2002
21	칠레-파나마 BIT (1996)	발효	파나마	08/11/1996	21/12/1999
22	칠레-엘살바도르 BIT (1996)	발효	엘살바도르	08/11/1996	18/11/1999
23	칠레-과테말라 BIT (1996)	발효	과테말라	08/11/1996	10/12/2001
24	칠레-니카라과 BIT (1996)	발효	니카라과	08/11/1996	24/11/2001
25	칠레-한국 BIT (1996)	종료	대한민국	06/09/1996	16/09/1999
26	칠레-코스타리카 BIT (1996)	발효	코스타리카	11/07/1996	23/06/2000
27	칠레-그리스 BIT (1996)	발효	그리스	10/07/1996	27/10/2002
28	호주-칠레 BIT (1996)	종료	오스트레일리아	09/07/1996	18/11/1999
29	칠레-쿠바 BIT (1996)	발효	쿠바	10/01/1996	30/09/2000

연번	제목	상태	당사자들	서명일자	발효일자
30	칠레-영국 BIT (1996)	발효	영국	08/01/1996	21/04/1997
31	칠레-필리핀 BIT (1995)	발효	필리핀	20/11/1995	06/08/1997
32	칠레-우크라이나 BIT (1995)	발효	우크라이나	30/10/1995	29/08/1997
33	칠레-우루과이BIT (1995)	종료	우루과이	26/10/1995	22/04/1999
34	칠레-파라과이 BIT (1995)	발효	파라과이	07/08/1995	17/12/1997
35	칠레-폴란드 BIT (1995)	발효	폴란드	05/07/1995	17/01/2000
36	칠레-루마니아 BIT (1995)	발효	루마니아	04/07/1995	27/07/1997
37	칠레-포르투갈 BIT (1995)	발효	포르투갈	28/04/1995	24/02/1998
38	칠레-체코공화국 BIT (1995)	발효	체코공화국	24/04/1995	05/10/1996
39	칠레-크로아티아 BIT (1994)	발효	크로아티아	28/11/1994	15/06/1996
40	볼리비아 다국민국 - 칠레 BIT (1994)	종료	볼리비아 다국민국	22/09/1994	21/07/1999
41	칠레-중국 BIT (1994)	종료	중국	23/03/1994	01/08/1995
42	브라질-칠레 BIT (1994)	서명(미발효)	브라질	22/03/1994	
43	칠레-에쿠아도르 BIT (1993)	종료	에콰도르	27/10/1993	21/02/1996
44	칠레-노르웨이 BIT (1993)	발효	노르웨이	01/06/1993	07/09/1994
45	칠레-덴마크 BIT (1993)	발효	덴마크	28/05/1993	03/11/1995
46	칠레-핀란드 BIT (1993)	발효	핀란드	27/05/1993	01/05/1996
47	칠레-스웨덴 BIT (1993)	발효	스웨덴	24/05/1993	30/12/1995
48	칠레 -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BIT (1993)	발효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	02/04/1993	25/05/1995
49	칠레-이탈리아 BIT (1993)	발효	이탈리아	08/03/1993	08/02/1995
50	칠레-말레이시아 BIT (1992)	발효	말레이시아	11/11/1992	04/08/1995
51	BLEU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칠레 BIT (1992)	발효	BLEU(벨기에-룩셈 부르크 경제연합)	15/07/1992	05/08/1999
52	칠레-프랑스 BIT (1992)	발효	프랑스	14/07/1992	24/07/1994
53	칠레-독일 BIT (1991)	발효	독일	21/10/1991	08/05/1999
54	칠레-스페인 BIT (1991)	발효	스페인	02/10/1991	28/03/1994
55	아르헨티나-칠레 BIT (1991)	종료	아르헨티나	02/08/1991	01/01/1995

(출처: Export Entreprises SA, 최신 업데이트: 2022년 6월)

라. 외국인 투자 제도

(출처: 해외건설협회, 한페루인프라협력센터, 2021.12.31.)

□ 투자법 및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

○ 관련 법규

-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600호, 1974년 제정, 1985년 개정) : 외국인 직접 투자시 적용
 - * 피노체트 정권 당시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
- 중앙은행 외국환 관리규정 제19장(1985. 6. 도입) : 외채의 자본화제도, 외국인 투자에 적용
 - *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목적으로 도입 및 외채증서 판매를 통해 채무를 투자로 전환
- 중앙은행 외국환 관리규정 제14장 : 외국인의 칠레 증권시장 투자시 적용
- 중앙은행 외국환 관리규정 제18장 : 외채의 자본화에 대한 내국인 투자시 적용
- 중앙은행 외국환 관리규정 제19장
 - *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외국인 투자법률 제600호'의 대체제도(양자택일 가능) 및 외채증서 판매를 통해 채무를 투자로 전환(출자전환)

○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기본방향

- 외국인 투자 자유 개방
- 내외국인 동등 대우
- 원금 및 과실 송금 인정 (주식투자 이외의 투자액 원금송금은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
- 방송사업,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정부 직접투자 금지
- 정부 간섭 최소화

□ 투자 우대조치 및 규제금지 분야

○ 일반원칙

-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만에 대한 특혜는 없음
- 투자사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되므로 우대조치를 원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소득세 관련 외국인 투자법(법률 제600호) 적용기업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조업 개시 후 10년간(5천만불 이상 투자인 경우는 20년간) 불변 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동 법령 제7조)
 - * 그러나 현재는 일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일반세율을 택하는 것이 유리함

○ 특정 업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 산림개발(법률 제701호)

- * 정부가 산림개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 산림개발을 위한 토지 구입시 부동산세 면제
- * 조림 및 관리경비의 75%까지의 보조금 지급
- * 산림개발소득세 50%까지 감면

- 원자재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

- * 자본재 수입관세 납부 유예제도(법률 제18634호) : 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계류 및 수송차량등 자본재 수입 시 7년간 수입관세 납부 유예 인정, 매년 설정되는 목표 수출비율 (총수출액/총생산액) 달성 시 수입관세 면제
- *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IVA)면제제도(법률 제825호) : 외자법에 근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생산기업은 칠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류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경우 IVA 면제를 경제성에 청구할 수 있음
- * 원자재, 중간재 수입관세 환급제도(법률 제18708호) : 수출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관세는 동 원자재를 사용, 제조한 상품이 16개월 이내에 수출될 때 동 원자재 수입 관세는 환급됨

○ 금융상의 우대조치

-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투자자는 칠레 생산진흥청(CORFO)으로부터 자금지원 (대출) 및 대출보험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인센티브

- 법률(DFL: Decreto Fuerza Ley) 15 인센티브, 법률(DL 889) 인센티브, 나바리노 및 티에라 델 푸에고(Navarino & Tierra del Fuego) 법, 토코피아(Tocopilla) 법, 아우스트랄 플랜(Plan Austral, South plan), 로타 및 발파라오소 관광투자 인센티브에 근거하여 법인세, 부가세, 수입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함

○ 투자규제업종

- 원유개발 정제 및 판매업 :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영석유공사(ENAP)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투자 가능
- 원자력 관련 광물개발 : 원자력 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채굴된 자원은 일차적으로 동 위원회에 판매됨

- 연안운송업 : 원칙적으로 국적선에 한정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900톤 이상의 화물운송에 참여 가능함. 단, 운송가격에 기본 수입관세 10%를 추가하고 이 가격이 국내업자 응찰가보다 낮은 경우에 수주 가능함
 - 보험업 : 칠레 국적인에게만 허가
 - 타 국가안보 관련사업 : 전면금지
- 대외송금 제한
 - 자본금으로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기구를 통해 현지화로 전환해야 함
 - 투자원금 회수는 투자이행 1년 이후, 이윤의 송금은 투자이행 즉시부터 가능
 - * 주식에 대한 투자의 경우 원금회수 관련 상기 제한을 적용치 않음
 - * 중앙은행 외국환 관리규정 제19장에 의한 채무주식화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원금은 투자 후 10년, 이윤은 투자 후 4년 이후에 송금 가능함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비율 : 100% 외국인 투자 가능함
 - 현지인 고용의무 : 종업원수 2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85% 이상의 현지인 고용 의무가 있음

□ 투자 절차 및 투자 관련기관

- 1) 외국인 투자관할 기관 : 외국인 투자위원회
 - 외국인 투자허가 신청 심의, 승인 업무 총괄
 - 투자계약 체결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최종 결정
- 2) 외국인 투자절차
 -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투자신청서 제출
 - a) 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 b) 공공부문 투자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투자
 - c)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
 - d) 외국 공공기관에 의한 투자일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 그 외 투자일 경우 동 위원회 사무총장이 심사 후 위원장(경제성장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

- 투자승인 후 외국인 투자자는 즉시 경제성과 투자완료 기간에 대한 계약체결
- 투자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 투자위원회와 투자규모, 투자자본의 형태 및 각종 인센티브,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체결
- 투자승인 후 3년 이내 (광업 및 임업의 경우는 8-12년)에 자본금을 반입하여야 함
- 5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일 경우, 동 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광업투자는 제외)

□ 외국인 투자 현황

- 그동안 철광·구리·금 등 천연자원 개발 및 제조업 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됨 (총 투자액의 75%)
- '97년부터 전기·통신·금융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증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투자 형태도 M&A(인수합병)가 전체의 40%를 차지함
-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는 '98년 대형 건설사업 추진 및 금융·식품회사 매각으로 46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함
- '99년에는 스페인 엔데사社에 대한 전력회사 매각 등에 힘입어 89억 달러로 급증했음
- '02년 남미지역 경제침체로 저조한 FDI 유입 실적을 기록함
- '03년부터는 내수경기 회복, 미국, EU, 한국 등과의 FTA 체결 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증가. 특히 전력, 용수 등 인프라 부분에서 활발한 M&A가 이루어져 2003~2004년 중 연평균 FDI 유입액은 약 30억 달러를 기록함
- * 2002~2003년 동안, 미국, 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주요국들과의 FT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10년 이후 FDI 증가세 보이고 있으며, '12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282억 달러에 달해 최고치를 경신함
- 이러한 FDI 증가에 힘입어 GDP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년에 10.6%로 상승함
- * 외국인투자는 광업, 보험, 에너지, 수도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은 FDI의 34.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서구 자본이 광업 업체에 집중투자되고 있으며, 구리 이외에도 리튬, 철광석 등 기타 광물 분야의 투자확대가 예상됨
- 신고액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성장세 기록 후 2013년에는 약 30% 가까이 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는 다시 약 15% 성장함

- 하지만 2015년에는 계속되는 국제 광물 가격하락과 칠레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신(경제침체 예측)으로 인해 다시 8%가량 하락함
- 최근 몇 년간 전체 투자액은 비슷한 수준이나, 과거 투자의 대부분이 광업에만 치중됐던 것에 반해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임

□ 국제금융기관 지원현황

- 칠레는 IDB(미주개발은행) 초대 총재인 펠리페 에라라(Felipe Herrera)의 출신국임
- 칠레는 IIC(미주투자은행)의 28% 지분을 보유한 회원국이며, MIF에도 참여함
- IDB, IMF, WB가 칠레 경제개발에 기여한 정도는 5점 만점 중에 각각 4, 2.73, 3.75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 IDB, IMF, WB 등 세 기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치는 5점 만점 중 각각 3.5, 1.8, 3.33점으로 나타남
- 칠레의 IDB 확대 우선 희망 사업은 인프라(45), 교육, 보건, 사회안전(85), 공공부문 현대화(92), 시장 민간 기업개발(77), 경제정책 개혁(15), 사회정책 개혁(69), 재정 국제수지(15) 등으로 평가됨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출처: Dentons-Global Tax Guide to doing business in Chile)

- (개요) 칠레는 강력한 공화정과 성문 정치 헌법을 가진 대통령제 정부로, 중앙 정부와 일부 기능을 공유하는 16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뉨
 - 칠레는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는 견고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리더로 간주됨
 - 칠레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 부패 인식 지수에서 조사한 168개 국가 및 지역 중 23위를 차지함
- (조세 제도) 국경 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은 민법 제16조에 포함된 법의 영토 원칙에 따라 부과됨
 - 칠레 세금 시스템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VAT)가 사업체 및 아래에서 설명될 기타 항목과 관련된 직접 및 간접세를 고려함
 - 이 법은 칠레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설정함
 - 그러나 이중과세방지조약은 칠레에서 사업을 할 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칠레는 한국을 포함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37개 협약에 서명했으며 이 중 33개는 2022년 발효 중임

- (법률 제도) 칠레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의 군사정권 기간 동안 제정된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현대헌법을 가지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수정됨
 - 국가의 정치헌법은 최고법이며, 헌법 아래 칠레는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민법 시스템을 가짐. [대륙법 체계].
 - 칠레의 민법은 재산 및 계약상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함
 - 민법의 기본 원칙과 모든 계약의 주된 특징 : 1) 계약상의 자유, 2) 계약은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음, 3) 모든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함, 4) 칠레 민법에 명시된 민사 책임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해야함

- (과세당국) 칠레 조세 시스템의 주요 세무 당국은 재무부(Fisco)이며 재무부는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고 칠레의 일반 재무부를 통해 모든 세금 징수를 담당함
 - 내국세청(ITS, Internal Tax Services; SII, *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은 모든 납세자의 세금 양식 제출 및 세법 준수를 검토하여 조세 판결, 검사 및 법 집행을 담당함
 - 지방 자치 단체 및 관세청과 같은 기타 기관도 조세 문제에 관여함

- (사업 법인) 칠레에서 투자법인 설립은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함
 - 내국세청로부터 세금인식번호(Tax Identification No) 획득 및 등록이 필요하며, 일단 새로운 회사가 내국세청에 등록되었다면, 회사는 등록 다음 달에 시작하는 월별 세금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등록과정은 업무의 시작으로 알려짐)
 - 칠레법에 의해 인식되는 사업법인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논의됨
 - a)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합자회사)
 - (i) 사업법인의 성격 : 유한책임 파트너십(합자회사)은 칠레에서 가장 흔한 법인으로, 구성원의 책임은 유한하고 사업법인은 법적으로 회사의 파트너들과 구별됨. 따라서, 파트너십 손실은 파트너들의 다른 소득과 상계될 수 없음
 - (ii) 파트너들: 최소 2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의 파트너가 요구됨. 만약, 파트너가 1명만 남을 경우 파트너십은 자동적으로 해산됨. 유한 책임 파트너십의 전체 통제는 관련 법인들 또는 지명된 파트너에 의한 소유권을 통해서 달성됨. 외국 법인은 유한책임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 될 수 있음

- (iii) 규정: 유한책임파트너십(합자회사)은 규제 당국이나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회계장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유한 책임 회사의 주요 규제 출처는 법률 3918호, 칠레 민법 및 칠레 상법에서 찾을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기업 지배 구조 규정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규에 포함됨
 - (iv) 설립, 수정 및 정리/해산:
 - (설립) 유한 책임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직접 증서 또는 위임장을 통해 설립됨. 해당 증서에는 파트너십의 정관이 포함되며, 그 정관 초록은 관보에 게재되고 상업 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함
 - (수정) 모든 파트너는 파트너 변경, 비즈니스 목적 수정 또는 관리 권한 변경을 포함하여 정관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함
 - (수정) 파트너는 주주 계약서와 유사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에 명시된 상황에서 정관 수정, 파트너십 지분 매각 또는 해산에 대한 동의를 구속함
 - (v) 경영관리: 파트너십 정관은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함. 관리 권한은 하나 이상의 파트너들, 이사회 또는 제3자가 행사 가능함
 - (vi) 자본금: 파트너십의 자본은 파트너십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소 금액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음. 자본 출자금은 파트너십에 제공될 현금, 재산(기술 포함) 또는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음. 자본은 모든 파트너의 합의 및 파트너십 증서의 수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 (vii) 책임의 제한: 파트너의 책임은 파트너십 증서에 다른 금액이 지정되지 않는 한 파트너십에 대한 자본 출자 금액으로 제한됨
 - (viii) 이익의 배분 및 파트너에 대한 대출: 연간 이익은 전년도 손실을 만회하지 않고 분배될 수 있음. 파트너에 대한 대출은 이익 분배로 간주될 수 있음.
- b) 법인(corporation) 또는 공개 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S.A. ; Sociedad Anonima)
- (i) 공개 또는 민간(Public or Private) : 칠레 법에 따라 법인은 공개/개방, 민간/폐쇄 또는 특수법인이 될 수 있음. 아래 중 하나의 경우 공개법인에 해당함

- a. 증권시장법(법률 18045호)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제안
 - b. 최소 주주 500명 그리고 발행주식의 최소 10%는 최소 100명의 주주들에 의해 소유
- (ii) 규제의 원천: 법인은 법인법(법률 18,046호)에 따라 규제되며 공개법인은 금융시장위원회(스페인어 CMF)의 통제를 받음
- 그들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연례 보고서와 감사를 받은 연례 재무제표를 발행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보내야 함
 - 모든 주주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 회사는 순이익의 최소 30%를 분배해야 함(민간 법인에는 이러한 요구사항 미적용)
- (iii) 주주 : 최소 2명의 주주가 필요. 한 주주가 10일 이상 중단 없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자동으로 해산됨.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전체 통제는 관련 또는 지명을 받은 기관의 소유권을 통해 달성 가능함
- (iv) 이사 및 경영관리: 법인의 경영은 민간 법인의 경우 최소 3인의 이사, 공개법인의 경우 최소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담당
- 이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임명할 수 있음
 - 전체 이사회의 선출은 최소 3년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이사는 무기한 재선 가능
 - 이사회는 회사 정관 및 회사법에 따라 주주에게 유보되지 않은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권한의 일부를 관리자, 대리 관리자, 변호사 또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
- (v) 설립 : 법인은 법인의 정관이 포함된 증서에 의해 설립됨. 정관 초록은 관보에 게재되고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어야 함. 법인 이름에는 Sociedad Anónima 또는 S.A.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vi) 자본금: 기업의 자본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금 또는 재산의 출자로 구성가능함. 개인 서비스 또는 법인 설립에 대한 대가로 주식 발행은 불가능함. 자본금은 3년 이내에 청약 및 납부해야 함. 자본금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의에 따라 증감 가능
- (vii) 배당 : 법인은 전년도 손실이 상쇄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이익 분배)할 수 없음. 중간·잠정 배당금은 이사가 선언할 수 있으나 배당금이 분배 가능한 연간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적 책임이 있음

- (viii) 주식의 이전 : 이사회는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없으며 공개법인 정관은 주식의 자유 양도를 제한할 수 없음. 그러나 주주 협약을 통해 주주는 주식 양도 메커니즘과 같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서 이미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추가하여 권리와 의무를 생성할 수 있음
- (ix) 합병 또는 분할: 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또는 분할될 수 있음
- (x) 소액주주 권리: 합병, 회사 자산의 청산 또는 우선주 발행의 경우,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 (xi) 해산: 법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음. 관련 법률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해산이 필요할 수도 있음

c)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SpA; Sociedad por Acciones)

- 이러한 유형의 회사는 최근 칠레의 다양한 기업 구조에 추가된 것으로, 법적 유연성과 단독 주주가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폐쇄 법인의 기업 지배 구조 규정은 주식회사에 적용됨

d) 개인 유한책임 회사(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이는 제3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유자의 자산과 구별되는 다른 자산을 가진 상업적 성격의 법인으로, 칠레에서는 개인이 개인 유한 책임 회사로서 법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
- 이러한 회사는 칠레 상업법의 규칙을 따르며 기업법 따라 (예: 보험 회사, 은행 등) 유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민사 및 상업 활동을 수행 가능함
- 그들의 자산은 증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되며, 소유자는 회사에 출자된 자본 한도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사는 모든 자산 한도에서 책임을 짐
- 회사 이름에는 설립자의 이름 또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발명 이름과,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또는 EIRL.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회사의 목적은 활동의 성격과 회사가 운영될 특정 부문을 나타내야 함

- e) 연합/합작 Association /Joint venture(associacion o cuentas en participacion)
- 연합 또는 합작 투자는 한 당사자만의 책임 하에서, 그리고 한 당사자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하나 이상의 사업 합작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계약 관계 매니저 또는 관리자로 알려진 이 당사자는 다른 참가자에게 회계 계정을 제공하고 합의된 비율로 손익을 분배할 책임이 있음
 - 매니저는 연합 및 관련 비즈니스 벤처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당사자 간의 합의는 연합의 목적, 형태 및 조건과 당사자 각각의 이익을 명시함. 이 약정은 본질적으로 비공개이며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음. 합작 투자 파트너는 종종 공동으로 형성된 칠레법인, 파트너십 또는 지사를 통해 칠레에서 운영함
- f)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agency)
- (특징) 외국 회사는 칠레에 대표 사무소(에이전시라고도 함)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칠레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구조로 외국회사와 분리된 법인이 아님
 - (의무) 이러한 의미에서 외국 회사는 에이전시의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음. 에이전시를 설립할 때 외국 회사는 칠레에서 에이전시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칠레에 충분한 자산을 유지해야 하며, 기관의 자산은 특히 칠레에서의 의무와 관련하여 칠레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 동의해야 함
 - (에이전시 설립 절차) 칠레에서 활동할 일반 위임장을 통해 에이전시를 지정함. 에이전시는 증서를 통해 스페인어로 정식 번역된 외국 기업과 관련된 특정 문서의 공증인 등록을 통해 대표사무소를 만들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문서의 초록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되고 관보에 게재되어야 함
 - 칠레에서 운영되는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기타 고정 사업장의 경우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은 회사의 소재지와 회계장부 잔액 시트에 따라 결정됨

□ 건설업 면허·허가제도

(출처: 해외건설협회, 한페루인프라협력센터, 2021.12.31.)

가. 건설업허가 등 제도

1) 건설업허가

- (신청기관) 공공사업부의 총무국(Ministerio de Obras Publicas, Direccion General)
- (신청방법) 대형업(Obras Mayores), 소형업(Obras Menores), 컨설턴트(Consultores)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신청 후, 공공사업부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통과하면 면허를 받아 공사수행 가능
- (심사기준) 공사실적, 재무상태, 보유인력 및 기술

2) 건설업 신청

- 제출서류

a. 대형업

개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름, 주소 • 국적 • RUT(주민등록증) • 학력(졸업년도, 학위표시) • 최근 25년간 수행한 사업내용 • 등록 업종 및 등급, • 수행한 계약에서 획득한 평가점수 • 경제능력 • 다른 기관에 등록된 업종 및 등급 • 보유전문인력(이름 주소 국적 RUT 학력 및 경력소개) • 관련 회계년도 세금신고서 사본(납세증명) • IVA(VAT 부가가치세)연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재무부 증명 • 기타 다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명 및 주소 • 법인의 형태 • 최고관리자 형태(동업자, 대표이사 등) • 최고관리자의 국적 • RUT(법인 및 최고관리자) • 보유인력 및 최고관리자의 전문분야 • 최고관리자의 학력 • 최근 25년간 수행한 사업 • 등급 및 업종 • 보유전문인력(이름 주소 국적 RUT 학력 및 경력소개) • 관련회계년도 세금신고서 사본(납세증명) • IVA(부가가치세)연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재무부 증명 • 기타 다른 정보

주) RUT(Rol Unico Tributario, Unique Roll Tributary)한국의 주민등록 또는 납세자 번호와 같은 개념

b. 소형업

- 이름 및 법인명 주소
- 법인성격
- 건설업자 및 최고경영자의 국적
- 학력, 졸업년도, 학력명칭
- 업주(Contradista)의 RUT
- 최근 25년간 수행한 사업
- 등급 및 업종
- 수행한 계약에서 획득한 평가점수
- 경제능력
- 다른 기관에 등록된 업종 및 등급
- 관련회계년도 세금신고서 사본을 통한 납세증명
- IVA(부가가치세)연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재무부 증명

c. 콘소시엄 사업 : 낙찰자 선정 30일 전까지 보증인과 연대책임자 지명 필요

d. 외국업체 : 참여 가능하며 국내업체와 같은 자격 필요

- (면허 유효기간) 승인 후 1년까지 유효하며 2~3월에 만기 시 3-4월까지 연장 가능. 만기 1개월 전에 갱신해야하며, 유효기한인 1개월내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연장되며 미제출 시 면허 말소

3) 건설업의 종류

- 토목사업(Obras Civiles, OC)과 설치사업(Obras de Montaje, OM)으로 분류

- 공사규모에 따라 대형사업은 3급으로 나뉘고 6,000UTM 이하인 사업은 소형으로 분류하며 SUPERIOR, A, B급 세가지로 구분됨.

* 1 UTM = \$ 42,178 pesos (2014.7.1기준)

a. 대형업 등록업종

등록업종	전문업종
1.OC 굴착	폭발없는 지표굴착, 폭발을 포함한 표면굴착,준설
2.OC 콘크리트구조	초벽철
3.OC 포장	지하콘크리트 포장
4.OC 해상구조물(말뚝 등등)	해상구조물 (말뚝 등)
5.OC 도관	포장
6.OC 건축	도관설치
7.OC 통로, 터널, 오솔길, 동굴건설	지하굴착, 지하콘트리트 포장
8.OC 측심 탐사	건축마감
9.OC 준설	준설
10.OC 건설	건설
1.M 전력장비설치	천공, 전력장비 동력부문 설치
2.M 기계장비설치	전력장비 제어부문 설치
3.M 금속 및 철 구조물설치	1.M 전력장비설치

4) 등록비용

a. 대형업

대형업	UTM	비용(페소)	부가세(페소)	총계(페소)	코드
등록	5	210,890	40,069	250,959	1
활성화	3	126,534	24,041	150,575	2
변경	2.5	105,445	20,035	125,480	3
특별 인증서	0.3	12,653	2,404	15,057	7
업체 리스트 등록	1	42,178	8,014	50,192	4

b. 컨설턴트

컨설턴트	UTM	비용(페소)	부가세(페소)	총계(페소)	코드
등록	1	42,178	8,014	50,192	8
활성화	0.7	29,525	5,610	35,135	9
변경	0.5	21,089	4,007	25,096	10
특별 인증서	0.2	8,436	1,603	10,039	13
업체 리스트 등록	1	42,178	8,014	50,192	11

c. 소기업

소기업	UTM	비용(페소)	부가세(페소)	총계(페소)
등록	0.6	25,307	4,808	30,115
활성화	0.4	16,871	3,205	20,076
변경	0.3	12,653	2,404	15,057
특별인증서	0.2	8,436	1,603	10,039
등록증명서	0.1	4,218	801	5,019
재정능력 인증서	0.1	4,218	801	5,019
업체 리스트 등록	0.5	21,089	4,007	25,096

* 1 UTM = 칠레페소 42,178 (2014.7월 기준)

** UTM: Unidad Tributaria Mensual, 칠레에서 정의된 단위로 페소로 표시,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 물가지수(IPC; Índice de Precios Consumidor)에 의해 영구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세무단위로 사용된다. 칠레 중앙은행 또는 국세청에서 월별 고시함.

□ 지사설립절차

1) 설립요건

- 별도의 허가절차는 없으며, 설립 절차를 진행할 법적 대리인 선임 필요
- 법적 대리인은 칠레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2) 구비서류

- 본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서(법인 등기부 등본)
- 본사 정관 및 정관 등본
- 본사가 지사장에게 부여한 본사 대리권

3) 정관 작성

- 지사 상호, 목적
- 칠레 현행법 및 규칙 준수
- 지사로의 자금지원 및 방법
- 구비서류는 본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 후 스페인어로 번역해야함

4) 상업등기소 등기

- 공증일로부터 60일 이내

5) 관보 게재

- 정관 요약본 구비

6) 대차대조표 공시

- 지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 회계연도 마감 분기 이내에 관보에 게재

□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절차

1) 설립요건

- 최소 1명 이상 필요
- 비공개형의 이사회 임원은 최소 3명이며, 공개형은 최소 5명 필요
- 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2) 구비서류

- 본사 법인 등록증, 법인 정관, 위임장
- 정관 및 정관 요약본 2부
- 상업등기(설립 등기) 신청서
- 납세자등록번호(RUT) 신청서
- 납세자 신분등
- 설립등기 위임장
- 날인된 회계장부, 송장 외 기타문서
- 법적 대표자 임명에 대한 회의록
- 임대계약서, 소유권 증서 등

- 3) 설립 등기
- 4) 관보 게재
- 5) 납세자 등록번호 발급
- 6) 영업허가증 발급

도급한도 등급분류

- 1) 도급한도
 - a. 대형사업

등록업종	예상 사업 규모(단위: UTM)	
1. OC 굴착	80,001 ~ 180,000	1급
2. OC 콘크리트 구조		
3. OC 포장		
4. OC 해상 구조물(말뚝 등)	20,001 ~ 80,000	2급
5. OC 도관		
6. OC 건축		
7. OC 통로,터널,오솔길,동굴건설	2급 1 ~20,000	2급
10. OC 건설		
8. OC 측심 탐사	30,001 ~ 60,000	1급
9. OC 준설		
1.M 전력장비설치	10,000 ~ 30,000	2급
2.M 기계장비설치		
3.M 금속 및 구조물 설치	1 ~ 10,000	3급

주) UTM : Unidades Tributarias Mensuales임. 1UTM = 약 42,178페소

- 각 등급별 최고액의 15%를 보증할 수 있어야 사업에 참여 가능

b. 소형업

A급	1,001 ~ 3,000 UTM
B급	1 ~ 1000 UTM

- 각 등급별 최고액의 15%를 보증할 수 있어야 사업에 참여 가능

2) 등급분류

가) 대형업

a. 대형 업체의 의무 인력 보유수

등급	업종			
	지상·지하토 목공사	건축	준설	조립
공중				
1급 토목공학 토목기사	2	2	1	2
토목시공	2	1	-	-
엔지니어 실행 또는 기술자 대학, 기술사	1	-	1	2
위험 예방 전문 전문가, 방재기술자	1	1	1	-
2급 토목공학 토목기사	2	1	-	1
토목시공	1	1	-	-
엔지니어 실행 또는 기술자 대학, 기술사	1	-	1	1
기술자(technician)	-	-	1	1
위험 예방 전문 전문가, 방재기술자	1	1	1	1
3급 토목시공	1	1	-	-
엔지니어 실행 또는 기술자 대학, 기술사	-	-	1	1
기술자(technician)	1	-	-	1
건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위험 예방의 예비 전문가에서 실무 경험, 건설관련 방재기술자	1	1	1	1

주) 업종은 등록업종을 크게 분류함

b. 대형업체 전문업종별 등록구분

구분	전문업종	1급	2급	3급
E01	발파 없는 지표면 굴착	Vt≥3,000,000 m ³ Vp≥400,000 m ³	Vt≥1,000,000 m ³ Vp≥200,000 m ³	Vt≥100,000 m ³
E02	발파를 포함한 지표면 굴착	Vt≥300,000 m ³ Vp≥50,000 m ³	Vt≥50,000 m ³ Vp≥10,000 m ³	Vt≥2,000 m ³
E03	지하굴착	Vt≥30,000 m ³ Vp≥10,000 m ³	Vt≥15,000 m ³ Vp≥ 5,000 m ³	Vt≥1,500 m ³
E04	준설	Vt≥250,000 m ³ Vp≥50,000 m ³	Vt≥100,000 m ³ Vp≥ 25,000 m ³	Vt≥10,000 m ³
E11	초벽철	Vt≥2,000,000 m ³ Vp≥300,000 m ³	Vt≥500,000 m ³ Vp≥ 100,000 m ³	Vt≥50,000 m ³
E21	콘크리트구조	Vt≥80,000 m ³ Vp≥10,000 m ³	Vt≥25,000 m ³ Vp≥4,000 m ³	Vt≥3,000 m ³
E22	지하콘크리트포장	Vt≥4,000 m ³ Vp≥1,500 m ³	Vt≥1,000 m ³ Vp≥ 200 m ³	Vt≥200 m ³
E31	포장	St≥1,000,000 m ² Sp≥75,000 m ²	St≥250,000 m ² Sp≥25,000 m ²	St≥50,000 m ²
E32	도관설치	St≥80,000 m ² Sp≥8,000 m ²	St≥20,000 m ² Sp≥25,000 m ²	St≥5,000 m ²
E33	건축마감	St≥60,000 m ² Sp≥8,000 m ²	St≥20,000 m ² Sp≥ 4,000 m ²	St≥4,000 m ²
E41	천공(드릴링)	Ect≥62,500 UTM	Ect≥12,500 UTM	Ect≥2,500 UTM
E51	전력장비 동력부문설치	Ect≥62,500 UTM	Ect≥12,500 UTM	Ect≥2,500 UTM
E52	전력장비 제언부문설치	Ect≥10,000 UTM	Ect≥2,500 UTM	Ect≥500 UTM
E61	기계장비 설치	Ect≥62,500 UTM	Ect≥12,500 UTM	Ect≥2,500 UTM
E62	금속 제철구조물 설치	Ect≥80,000 UTM	Ect≥20,000 UTM	Ect≥4,000 UTM
E71	해상구조물(말뚝등)	Pt≥2,000 ton Pp≥500 ton	Pt≥500 ton Pp≥150 ton	Pt≥50 ton
E81	건설	Vt≥2,000 m ³ Vp≥300 m ³	Vt≥800 m ³ Vp≥100 m ³	Vt≥150 m ³

Vt : 총사업 용적, Vp : 1개 사업당 용적

St : 총사업 면적, Sp :1개 사업면적

Ect : 총수행 사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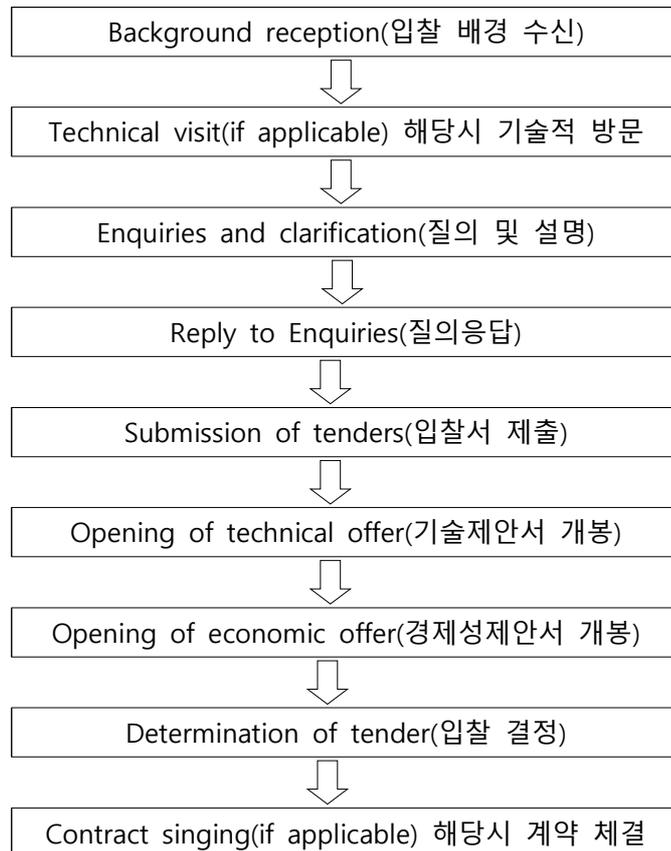
Pt : 총사업 무게, Pp: 1개 사업 무게

나) 소형업 등록업종 및 등급

등록업종	A 급	B 급
1.O.M. 굴착	80,000m³	10,000m³
2.O.M. 준설	폭발물 1,500m³	350m³
3.O.M. 기초 및 부기초	20,000m³	2,500m³
4.O.M. 콘크리트 구조	2,000m³	400m³
5.O.M. 포장	20,000m²	2,500m²
6.O.M. 말둑 및 판	말둑 200, 판 1,000	말둑 20, 판 100
7.O.M. 도관설치	4,000ml	750ml
8.O.M. 상하수관	2,500 UTM	상하수도 감독청에서 허가
9.O.M. 설계	2,500 UTM	300 UTM
10.O.M. 측심 및 보호시설	2,500 UTM	300 UTM
11.O.M. 수중	12,000m³	1,500m³
12.O.M. 가스	2,500 UTM 또는 전력 및 연료 감독청에서 허가	전력 및 연료 감독청에서 허가
13.O.M. 전기	2,500 UTM 또는 전력 및 연료 감독청에서 허가	전력 및 연료 감독청에서 허가
14.O.M. 전력장비	2,500 UTM 150KA이상의 변전기 설치 경험, 전력 및 연료 감독청에서 허가	50KA이상의 변전기 설치경험, 전력 및 연료 감독청에서 허가
15.O.M. 목재구조물	2,500 UTM, 10ton이상의 무게 또는 횡단면 16인치 이상	300 UTM 5ton이상의 무게 또는 횡단면 16인치 이상
16.O.M. 기계장비	2,500 UTM	300 UTM
17.O.M. 금속구조물	2,500 UTM	300 UTM
18.O.M. 표지 및 도색	표지 2,500 UTM, 도색 60,000m²	표지 300 UTM, 도색 8,000m²
19.O.M. 도로유지 및 관개	-	-

□ 입찰제도

1) 일반적인 입찰 관행



2) PQ서류(La base de Precalificacion) 구입

- 구입처 : 공공사업부 입찰총무국, 가격 : 약 500 달러

3) PQ서류 제출 및 참여 보증금 적금

- 서류내용(현지어로 작성) : 회사재원 및 회사 재산증명서, 대차대조표, 주식회사 증명서
- 참여보증금 적금 : 80만 - 100만 달러
- 10일 이내 제출 : P.Q에 표시된 보증DGOP(Boletas Bancarias de Garantia).
- 보증금 환급 : 입찰최종결정 금액제출일 90일후
- 서류 제출처 : 공공사업부 입찰총무국
- 칠레 내에 대리회사가 없어도 한국에서 직접 참여 가능함.

4) PQ 신청서 평가

- 평가 평가위원회(위원은 MOP와 M DE HACIENDA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에서 20일 이내 처리됨

- 서류 제출자에 대한 설명요청 : 10일 안에 응답하여야 함. 신청자가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발주자의 설명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신규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으며 이전에 제출자료는 고려하지 않음

5) PQ통과 업체의 회의 참석

- 3개월 동안 입찰 주관부서가 개최하는 매주 1회 회의에 참석해야함
- 동회의에서 입찰사업의 계획, 법적사항 연구, 제반 입찰에 필요한 사항 연구 및 서류보완. 이때 입찰 주관부서 관련자와 독대 가능
- PQ후 진행 일정
 - 입찰 기본정보(Base de Licitacion) 접수
 - 공학자가 동반사업 연구
 - 기술적 제공사항 서류로 작성
 - 입찰기관에 제출
 - 문의사항 문의 및 답변을 서류로 접수
- 입찰주관부서는 PQ통과 기업들이 제출한 기술적 검토사항을 접수하여 하자 여부만 검토
- PQ 통과후 기술사업 계획서를 위해 기술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경우 10만불 내지 20만불 소요
- * 서류상 모든 금액은 현지화로 표시해야 함

6) 낙찰

- PQ통과 기업이 제출한 입찰기본정보 접수후 기술사업계획서, 입찰금액 등 투자계획, 자본회수계획, 도로의 경우 통행료 제시 등 총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기업을 선정 및 낙찰함
- 낙찰기업은 30일 이내 입찰금액의 20%내지 25%의 금액을 예치해야 함. 예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기업은 세 가지 유형의 보증서(Boletas)를 입찰 주관부서에 제시해야 함
 - 어음지불보증서
 - 건축보증서(일정기간까지 건축완료 명시)
 - 공사보증어음(입찰 참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공기 완성 보증)
- * 만일 낙찰기업이 위 어음지불 보증서를 제출하고도 30일 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 주관부서는 위 보증서로 입찰 재실시

7) 주요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회사 동정 :

- 인프라사업에 대한 PQ를 구입, 본사와 연락업무 처리를 위해 입찰 정보 및 법규에 정통한 대리인 사무실을 운영함
- 법률고문, 비서, 팩스, 전화, 사무실 운영비 월 20만 달러 정도 소요

8) 정부조달 시장(2000년 기준)

- 칠레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국에 등록해야 함
- 칠레 정부는 2000.3월부터 정부조달 및 공공계약 관한 정보시스템인 Chile Compra (www.chilecompras.cl)를 운영하고 있음. 외국기업은 정부조달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여 지사나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조달청 홈페이지 사용방법

- www.mercadopublico.cl에 접속하여 'Registrese como proveedor'를 클릭함
- 필수 항목을 모두 입력한 후 제출하면 칠레 조달국에 공식 등록 완료됨
- www.mercadopublico.cl에 접속하여 'Busque licitaciones' 공란에서 찾고자 하는 입찰건 검색
- 입찰목록 중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Ofertar"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
- 비교적 중요한 품목 또는 큰 금액의 입찰 건은 [chileproveedor \(www.chileproveedores.cl\)](http://www.chileproveedores.cl)에서 확인 가능
- [mercadopublico](http://www.mercadopublico.cl)에 가입되어 있어야 [chileproveedor](http://www.chileproveedores.cl)에 등록 및 입찰참여가 가능함

- 입찰 절차 : 입찰공고 → 입찰서류 검토 → 입찰서 제출 → 입찰마감 → 입찰서 공개 → 입찰서 평가 → 최종 낙찰
- 담당 기관 :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등 (정부예산 및 기금으로 조달 시행)
- (중앙정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이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입찰을 통해 직접 조달
- (국영기업) Codelco (國營銅公社) 등 국영기업 및 군부대의 경우도 독자적으로 입찰을 통해 필요한 물자 조달
- 입찰 방법 : 칠레에서는 완전 공개경쟁 입찰 (Public Open Tender) 및 제한 공개경쟁 입찰 (Invitation Tender)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 완전공개경쟁의 경우 통상 신문(관보 : Diario Oficial)에 공고하며, 제한공개 경쟁입찰의 경우는 등록된 업체들에게 입찰공고를 발송하고 입찰초청서를 판매(혹은 무료 제공)하여 입찰에 참가토록 함

- * 대형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 사전자격심사 (pre-qualification)을 통과한 업체간에 입찰경쟁이 이루어짐

□ 조달제도

○ 조달 관련 법령, 관행, 규제

- 조달 관련 주재국 법령으로는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령 제 18,803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찰참가업체의 최저 수 : 3

* 계약 이행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요구

* 조달 기관은 낙찰자와 최종 계약 체결 의무

○ 조달발주 부서

- 주재국에서는 중앙 정부 각 부처, 지방 정부, 국영기업 및 각 군부대 등이 조달을 발주함

○ 진출시 유의사항

- 주재국의 입찰 모토는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으로, 뇌물이나 인맥이 작용하지 않으며 세계 어느 업체라도 품질과 가격이 우수하면 수주에 문제 없음

- 입찰참여시 정보 획득을 위해 어느 정도는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함. 또한 뇌물관행이 없기 때문에 뇌물 공여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특히, 주재국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물품 조달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에서와 같이 대응했다가는 반드시 클레임을 당한다는 점임

- 주재국의 경우 검사기술이나 인력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독일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자세로 품질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하며, 품질 관리를 대충으로 해서는 안 됨

○ 주요 정부조달 web site 주소

공공사업(건설)부 : <http://www.mop.cl>

경제광업자원부 : <http://www.economia.cl>

법무부 : <http://www.minjusticia.cl>

보건부 : <http://www.minsal.cl>

교육부 : <http://www.mineduc.cl>

재무부 : <http://www.anfitrion.cl>

농업부 : <http://www.minagri.gob.cl>

내무부 : <http://www.interior.cl>

주택도시계획부 : <http://www.minvu.cl> ※입찰시 사용언어 : 스페인어

Chilecompra.cl : <http://www.chilecompra.cl>

□ 보증제도

○ 양허사업

- 입찰보증(La garantia de la Operta): 건설보증 제출후 15일 내에 반환
- 건설보증(La garania de la Construcccion) : 공식 사업예산의 6% 양허사업자로 결정된 30일 내에 상업은행 보증을 공공사업부 총무국에 제출, 건설진행기간 내 2번,(40%, 70% 완공 시)남은 건설분에 비례하여 보증액과 보증기간이 바뀜
- 운영보증(La garantia de explotacion) : 공식 사업예산의 약 3.3%. 건설이 완료되면 건설보증과 대체함
- 시험기간 보증 : 처음 1년 운영의 보증, 잠정적인 운영서비스 시작 30일 전에 제출, 시험기간 만기 90일 전에 남은 운영기간+1년 보증을 제출해야함. 계약만료 24개월 전이 되면 같은 기간의 추가보증 제출해야함

○ 칠레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Capitulo XIV)에 의한 투자

- 외국인 투자법(DL 600): 외국인 투자자(개인 및 법인)가 칠레 정부와 투자 계약을 맺도록 규정한 법률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투기성 단기 자본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한 조항임
- 칠레 중앙은행의 외환규정 제14조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DL 600호 규정의 경우와 유사함
- 두 방식은 투자액의 규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임. 14조의 경우 최소 투자액은 1만 달러임
- 중앙은행 외환규정 제14조를 통한 투자의 경우 DL 600 규정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계약을 통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DL 600에서 제공하는 조세고정제도는 제공되지 않음
- 하지만 DL 600과 비교할 때 자본금을 투자 기간과 상관없이 투자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시공관리제도

- 공공사업부에서 감리자 선정
- 양허인 경우 건설 및 운영 각각 감리자가 있고 이들은 같이 활동함
-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발견 시 공공사업부 총무국에 통지하고 조정위원회를 열어 해결함
- 조정위원회 : 공공사업부 대표 1명, 건설업체 대표 1명, 양측에서 합의한 대표 1명으로 구성됨
-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 법원에서 판결함
- 벌금이 결정되면 감리자가 위반사항의 요인 및 벌금액 증명서를 통보함

□ 금융정책

- 자본시장 자유화로 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금융업 발달
 - 칠레는 1973년 이전까지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정부가 모든 금융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금융제도를 유지하였으며, 1975년 민영화방침에 따라 20개 은행 중 Banco del Estado de Chile를 제외한 모든 은행을 민영화 하는 한편, 민간은행설립을 자유화하는 등 광범위한 금융자유화 정책을 추진함
 - 1997년 일반법 개정으로 외국은행의 진출가능 분야가 증권 및 보험관련 중개업, 보증 및 팩토링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외국은행의 진출이 활발해짐
- 금융위기를 계기로 감리감독 강화
 - 1970년대의 민영화 및 금융자유화 이후 자본시장이 발달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 부실 대출, 실질금리 상승, 신용 및 환 리스크 관리 실패 등에 의해 1984년 결국 금융위기를 맞게 됨
 - 1984년 금융위기 이후 칠레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관(SPIF)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기존 금융자유화 노선에 변경을 가함
 - 특히 1989년 10월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기능을 대폭 강화함
- 2000년 이후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급성장
 -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함

- 2001년 자본시장 개혁은 단기성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15%) 폐지, 민간연금기금회사(AFP)에 대한 근로자들의 납입 한도 확대, 보험업, 뮤추얼 펀드, 민간연금기금회사(AFP)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03년 2단계 자본시장 개혁은 벤처자본의 활성화, 거래비용의 감소, 기업 관리 기준 강화, 감세를 통한 저축 촉진 등을 목표로 자본 시스템의 현대화 및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출처: 수출입은행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1.12.31.)

□ 금융기관

- 칠레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 민간연금기금회사(AFP), 증권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으로 구성
- 칠레 중앙은행은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12월 중앙은행법 개정으로 광범위한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음
- 중앙은행은 화폐발행, 폐소화의 가치안정, 재할인율 및 지급준비율 등을 통한 통화신용의 조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국환 및 대외지급 준비자산의 관리, 국채의 발행 및 상환, 이자지급 및 등록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는 다음 기관들이 있음
 - 은행감독원(SPIF)
 - 증권보험감독원(SVS)
 - 연금감독원(SAFP)
- 국제금융기관, 외국은행 또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에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칠레 산업개발공사(CORFO)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지금융조달

- 현지금융 시장여건
 - (저축률) 저축률이 GDP의 25%수준. 선진국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시장이 발달 되어 있음

- (금융서비스) 국내금융시장은 현금운영 및 투자를 위한 다양한 옵션으로 단·중·장기 금융서비스를 함
- (자금규모) 96년 9월 현재 은행이 430억달러, 연금펀드, 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330억달러의 자금을 운영함
- (위험헷징) 외환 및 이자율에 대한 위험은 대규모의 퓨쳐시장으로 헷징가능함
- (유동성) 주식시장은 매우 유동적이며 위험자본펀드(risk-capital fund)가 있어 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함
- 기관투자자중 민간연금기구(AFP)의 규모가 커서 담보차관(은행보장), 채권(30년까지), 및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등 금융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연금펀드규모) 2008년 7월 기준 칠레의 연금펀드시장은 1,08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칠레 GDP의 반을 넘어서는 규모로 자본시장의 자금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출여건

(1) 단기대출

- 모든 상업은행들이 단기대출을 취급하며, 단기대출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금리는 은행간 우대금리를 적용함. 90일 이상의 기간 이자율은 Unidad de Fomento와 관련하여 계산함
- 우량기업은 다양한 만기의 신용대출 및 유리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상업(기업)어음 : 기업어음은 30일, 60일, 90일만기의 3종류가 있으며 모든 상업은행과 민간연금기구가 매입 가능 할인율은 단기대출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임. 달러액면가 인수필어음은 180일 이내의 만기로 이자율은 LIBOR를 통한 고정금리임
- 창고 및 재고 담보부 대출은 보증회사를 통해 직접 취득이 가능함. 최대액수는 상품가격의 70%, 최대 만기일은 180일, 300일까지 갱신가능함. 매 갱신시 1/6씩 대출액이 줄어들며, 이자율은 상업차관과 동일함

(2) 중·장기 대출

- 금융비용이 매우 높아 주로 외국에서 도입함
- 국내의 중장기 차관 및 채권은 거의 UF(Unidad de Fomento; 계좌단위로 전월의 폐소 인플레이션이 적용됨)를 기준으로 계산. 달러로 표시된 차관이나 채권을 대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높음

- 국내은행은 자본의 10%까지 한 개인에게 대출 가능함. 외국은행들은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지점을 통해서만 장기대출을 제공함
- State Bank(Banco del Estado). Development Corporation(Corporacion de Fomento(Corfo))가 중장기 신용을 운영해옴. 운영자금대출 36개월만기 (6개월거치) 고정자산구입을 위한 차관(2년거치 3-10년만기) 대출한도는 350만달러, 이자율은 시장조건 및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조정함
-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장기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이때 기업은 신용평가서와 채권발행내역을 증권외환위원회에 등록해야함

□ 외환관리

1) 외환관리정책

1989년 10월에 개정된 중앙은행법과 1990년 4월에 개정된 중앙은행의 외국환관리 규정이 근간, “특정거래의 공식 시장 이용의무”와 “국제수지관리를 위한 유사규제”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환거래를 자유화함

2) 외환시장

- 공식 시장 : 중앙은행, 상업은행 및 기타 환거래가 가능한 금융기관
- 비공식 시장 : 환전상(exchange house, Casa de Cambio), 외환거래소 등으로 동 시장의 환시세는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 정부는 관여하지 않음

3) 외환규제내용

- 특정거래의 공식시장 이용의무 :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 운임, 보험료, 로얄티,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자본 및 이익송금, 외국차관 원리금상환, 외화대출, 외화금 등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공식시장을 이용해야 함
- 국제수지관리를 위한 유사규제 : 해외로부터 1년 이상의 외화차입시에 첫해에 인출되는 금액은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함
- 자국민의 해외투자규제 완화조치 : 해외투자의 사전 허가, 정기 보고의무 등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함

- 공식 외환시장 거래범위 확대 : 공식 환전시장을 통해 해외금융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 해외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 등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 취득을 가능케하는 등 외화취득가능범위 확대, 수출대금 해외 사용 경우에도 정당한 해외투자로 인정하여 동 자본이 칠레로 유입될 때 공식 외환시장을 통하여 매각 가능함
- 외국단기자본 규제완화 : 해외투자원리금의 국내유입시 ENCAJE규정*의 적용을 면제함
- * 외국단기자본의 국내금융시장 교란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1년 6월 제정된 중앙은행 규정으로 현재 생산부분에 투입되는 외국자본을 제외한 모든 해외 신용에 대하여 동 신용의 30%를 최장 1년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거나 동 예치분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중앙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
- 환전 자유화 : 해외여행, 의료 국제회의 참가, 유학, 연금, 부동산임차, 주식 채권투자 등을 위한 환전을 자유화하였으며, 종전 1만 5,000달러였던 한도 폐지함
- * 70년말-80년대초 심각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겪었던 관계로 사업채무의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시 중앙은행의 허가가 보류되는 경우가 있고 가끔 채무주식화를 권고받기도 함
- 수출업자의 외화수출대금 보유 자유화

4)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

- 근거규정 : 외국인투자자의 해외송금은 DL326, DL471, DL600, DL18682 등에 규제되고 있으며, 이 중 DL600과 DL18682가 총괄 규정함
- 유입 및 송금 : 칠레에 유입되는 외환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을 통해 현지화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외송금도 동 은행을 통하여야만 함
- 자본금 회수 : 칠레에 유입된 투자금의 해외송금은 투자이행 1년 이후 가능하며, 외국환 관리규정 14조에 의해 유입되는 자본은 회수가 상시 가능함
- 채무주식화를 통한 투자 : 자본금은 투자 후 10년 경과 이후 회수 가능하며, 10년 이전에 회수하고자 할 경우 채무주식화 시점에서 적용되었던 할인율만큼 자본금에서 공제해야함
- 이익금 분국송금 : 이윤의 송금은 연 1회 언제든지 가능하며, 35%의 원천세가 부과됨. 채무주식화를 통한 이윤은 투자 후 5년 이후 가능하며, 최초 4년간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는 5년째부터 매년 25%씩 4년에 걸쳐 송금 가능함

5) 환율

- 1999년 6월 환율밴드제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원리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며, 구리 국제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임
- * 환율밴드제 : 미 달러 80%, 독일 마르크 15%, 일본 엔 5%로 통화바스켓을 구성하여 산정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10%내외로 은행 간에 합의를 통해 환율을 산정
- 현재 중앙은행이 공시하는 기준환율(dolar acuerdo)는 참고목적이며, 시장수급에 의한 변동환율제가 유지되고 있음



* 2022.08.31. 현재 미국달러 대 칠레페소 환율: USD= 890.45 페소

□ 사업철수

(출처: 칠레 투자실무가이드, 코트라, 2008)

1) 사업철수 사유

- 기업 경영 손실의 확대
- 투자된 기업을 칠레 내 또는 외국의 기업에 매각하고 대금 회수
-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의한 철수 결정

2) 현지법인 vs 해외법인의 철수

- 철수절차가 주별로 상이함
- 각 주정부의 재무부로부터 납세필증을 받고 주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해산 확인서나 외국법인철수확인서를 받아야 함
- 완벽한 철수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철수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지법인은 주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보고를 요구받아, 불필요한 과세를 당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음

3) 현지법인 철수

- 국세청에 세금 납부 필증과 법인해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칠레 세무당국 및 등기소의 법인 등록 삭제, 최대 3주가 소요됨
- 철수확정일 기준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잔액 납부해야 함
- 종업원 임금 및 기타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문서화해 제출해야 함
- 기업 내부 철수 결정시 최대 30일 이전에 고용인에게 철수 예정임을 통보해야함
- 고용인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해야 함
-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인의 근무연수에 1개월치 급여 지급이 원칙임
- 기업 내부적 정산, 주재국 내에서 거래했던 기업과의 관계 청산절차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매출채권 회수 등 정리가 필요함

□ 보험

1) 보험회사

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RSA	https://sucursalvirtual.rsa.cl/portal/
MAPFRE	https://www.mapfre.cl/seguros-cl/
AIG	https://www.aig.cl/inicio
CONSORCIO	http://www.consorcio.cl/
Continental	https://sg.continental.cl/index.html
Royal Secure	http://www.royalsecure.cl/
ACE	http://www.acegroup.com/co-es/
BALDRICH SEGUROS	http://www.baldrichseguros.cl/
SEGUROS DE VIDA DEL ESTADO	http://www.segurosdelestado.com/cmsestado/paginas/documento.aspx
MetLife	https://w3.metlife.cl/

2) 공사관련 보험

- 칠레 국민은 법에 의해 7%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ISAPRE와 FONASA를 선택함
- 지방단위로 공공병원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병원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험서비스체계에 남을 수도 있음

a. ISAPRE (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 사설보험)

- 민간보험을 담당하는 ISAPRE는 현재 전국적으로 26개가 있는데, 경쟁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데 힘입어 칠레 국민의 27%가 민영보험에 가입함
- 대개 중산층 이상이 공보험을 떠나 민간보험을 선택하며 가입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개발됨

b. FONASA (Fondo Nacional de Salud: 국가보건기금)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는 월급의 10% 내외를 공제하며, 칠레 국적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FONASA 가입자는 Hospital(공공병원)에서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Clinica(사설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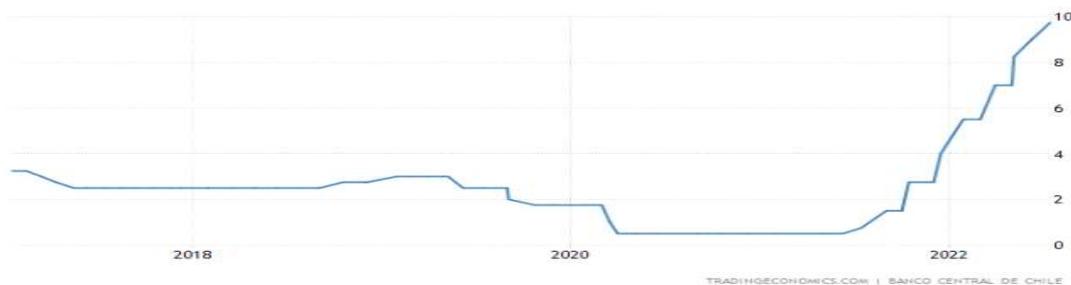
□ 이익금 송금절차

- (과실송금) 별도의 외환 규제가 없어 과실송금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 (개인)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개인, 법인 포함)에게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을 송금할 경우 35%의 추가세율이 적용됨
 - (주주) 외국회사나 외국의 개인인 지사·법인 주주의 경우 지분을 보유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이익 배당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익 배당액의 35%의 배당세가 부과됨. 매 송금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 4월 대차대조표상의 송금액을 계산하여 5월에 일시 납부함
 - * (예외)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 (출처: 코트라 국가정보, 인디아고 컨설팅, 2020.1.22., 칠레 법인 및 지사 설립)

- 배당소득세 :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배당세는 다음의 한도로 적용함
 - (일반) 배당 총액의 10%를 한도로 배당소득세 부과 가능함
 - (특수)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그 배당총액의 5%를 한도로 배당소득세 부과 가능함

□ 현지 금융 금리 현황

단기 금리는 연 9.75%



경제지표	GMT	참고	실제	이전	예측치
2022-05-05	10:00 PM	이자율 결정	8.25%	7%	8%
2022-06-07	10:00 PM	이자율 결정	9%	8.25%	9%
2022-07-13	10:00 PM	이자율 결정	9.75%	9%	9.5%
2022-09-06	10:00 PM	이자율 결정		9.75%	
2022-09-22	11:30 AM	통화 정책 회의 분			
2022-10-12	09:00 PM	이자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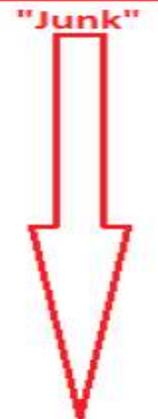
(출처: trading economics, <https://ko.tradingeconomics.com/chile/interest-rate>)

□ 칠레 국가신용등급

- 2022년 6월 현재 기준 무디스(Moody's)신용등급 A1, 2022년 5월 19일 현재기준 Fitch 신용등급 A-, S&P 신용등급 A 등급임
- * 참고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Moody's)신용등급 Aa2, Fitch 신용등급 AA-, S&P 신용등급 AA 등급임. 투자자들 사이에서 Ba1(11등급)부터는 junk 등급이라고 불리며 투자에 유의할 것이 강조됨

Credit Rating Scales by Agency, Long-Term

Moody's	S&P	Fitch	
Aaa	AAA	AAA	Prime
Aa1	AA+	AA+	High grade
Aa2	AA	AA	
Aa3	AA-	AA-	
A1	A+	A+	Upper medium grade
A2	A	A	
A3	A-	A-	
Baa1	BBB+	BBB+	Lower medium grade
Baa2	BBB	BBB	
Baa3	BBB-	BBB-	
Ba1	BB+	BB+	Non-investment grade speculative
Ba2	BB	BB	
Ba3	BB-	BB-	
B1	B+	B+	Highly speculative
B2	B	B	
B3	B-	B-	
Caa1	CCC+	CCC	Substantial risk
Caa2	CCC		Extremely speculative
Caa3	CCC-		Default imminent with little prospect for recovery
Ca	CC	CC	
C	C	C	
/	D	D	In default
/			



WOLFSTREET.com

□ 현지 회계감사제도

(출처: <https://www.icaew.com/technical/by-country/latin-america/chile/accounting-in-chile>)
<https://www.iasplus.com/en/jurisdictions/americas/chile>
<https://www.lloydsbanktrade.com/en/market-potential/chile/accounting>)

○ 칠레의 재무보고 프레임워크

- 보험 회사를 포함하여 SVS가 규제하는 회사들: 칠레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공익’ 및 ‘사적 이익’에 느슨하게 해당하는 ‘공개(open)’ 또는 ‘폐쇄(closed)’ 일 수 있음
- (공개) 공개 기업 (500 명 이상의 주주)은 증권 보험 감독관 (Superintendencia de Valores y Seguros 또는 SVS)에 의해 규제됨

- (폐쇄) 폐쇄 기업은 자발적으로 SVS에 등록 가능하며, 그 경우 SVS에 의해 규제됨. 폐쇄 기업 중 200개 이상이 SVS에 의해 규제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SVS의 증권 등록부에 있음. SVS에 등록된 회사는 감사 재무제표를 SVS에 보내어 SVS 웹사이트에 게시함

○ 칠레의 IFRS 채택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모든 SVS 등록자 및 모든 SBIF 규제 기관에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채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
- 중소기업에 위한 IFRS는 2010년 12월, 칠레 정부는 2013년부터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든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IFRS를 요구하기로 합의함. 세무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칠레의 회계 관련 일반사항

- 과세연도(회계 연도) : 1월 1일 ~ 같은 해 (역년도) 12월 31일
- 회계기준 : 칠레는 IFRS (국제 재무보고 표준) (2009 년에서 2012 년 사이의 상장 기업 및 금융 기관 및 2013 년 중소기업의 경우)를 채택함
- 회계 규제기관 : 재무부
- 회계 보고 : 기본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포함됨
- 공표 요구조건: 회사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회계장부는 스페인어로 발행되어야하며 칠레 통화를 참조로 사용해야 함
- 전문회계기관: 칠레 회계사 협회
- 인증 및 감사: 외부 감사는 자본을 가진 회사와 송환된 이익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에게 의무적임. 외부 감사인에는 Deloitte, KPMG, Ernst & Young, Price waterhouse Coopers 등이 존재함

□ 현지 세무이슈 및 사례 연구

(출처: 국세청,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1)

- 해외주재원 급여지급 관련 세무이슈 : 국내본사 퇴직 없이 해외독립법인에 국내본사에서 해외주재원을 파견할 때, 해외주재원 수당 및 공제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음

구분	운영 내용
㉠ 정기급여	해외법인 지급
㉡ 비정기급여 (성과금+기타수당)	국내본사 지급
㉢ 4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내수당발생으로 국내 직장가입 자격유지
㉣ 소득신고	매년 2월 국내소득에 한하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신고 진행, 추가발생세액 납부 (단, 국내 비정기 수당 발생으로 국내본사 대납 후 공제처리 이후 수당 발생 시 상계처리)
㉤ 추가세액	전액 회사 부담, 이에 2월 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금도 회사 귀속처리 (해외+국내소득 합산신고)

질문1) 이 때 예상되는 세무적인 리스크와, 해당 리스크 발생시 예상되는 손해는?
해외법인 소속 주재원에게 국내본사가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인건비는
국내 세무당국에서는 손금부인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답변) 국내 본사에서 해외 독립법인에 파견하는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국내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국내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급이나 수당 등을 해외 독립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임으로 이는 당연히 손금불산입
사항이며, 손금 부인 가능성을 떠나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질문2)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주재원 파견 시 모든 수당을 100%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 소득세 : 법인세, 개인소득세(거주자: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추가소득세(원천세)
- 과세기간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 익년 4월말
- 부과 제척기간 :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신고일 경우 6년

○ 1종 소득세(법인세)

- 납세의무자 : 모든 법인, 법인 지점, 외국회사의 고정 사업장
- 과세대상: 상업, 광업, 산업, 기타 자본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
- 표준세율 : 27% (매년 확인 필요)
 - (i) 10% : '22년까지 매출이 약 USD 280만 이하인 중소기업에 해당 ('23년부터 25%)
 - (ii) 추가 35% : 본사가 조세 조약 국가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불된 첫 번째 범주 소득세에 대해 부여된 지점 이익에 적용되는 추가 원천 징수 소득세
- 과세방법: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함
- 신고납부기한 : 익년 4월말

○ 2종 소득세(개인소득세-근로소득세)

- 납세의무자 :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근로 소득자
- 과세대상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 대가로서 월 급여가 13.5 UTM(Unidad Tributaria Month: 월 세금단위, 소득세 부과를 위한 기준 단위로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에서 매달 고시함) 이상인 경우
- 표준세율 : 0~40% 누진세율(매년 확인 필요)
칠레에서는 소득세가 0%에서 40% 사이의 누진 세율로 부과됨.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급여 기간 동안 고용주가 매월 원천 징수함. 기타 소득(근로소득 아님)은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은 최종 소득세 부채에 대해 공제될 수 있음
- 사회 보장 기여금 : 소득세 기여율에 대한 과세 기준이 정의되기 전에 직원의 총 급여에서 공제됨
- 공동제출 : 연간 세금 보고서의 공동 제출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동 재산 시스템에 따라 결혼한 배우자는 연간 세금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 현물 혜택(benefit in kind) : 고용주의 단독 이익을 위해 제공된 여행 경비 및 주택의 상환, 이사 비용, 문서화된 접대 및 합리적인 이주 수당과 같은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계산에서 제외됨
- * 생활비 수당, 지역 수당, 자동차 수당, 휴가 여행 경비 및 공과금과 같은 항목은 과세 대상임

- 2021 칠레 소득세율

Monthly Gross Income(월간 총소득)	Progressive Tax Rate 누진세율(%)
CLP 680,022 (UF 13.5)까지	0
CLP 680,022.01 부터 CLP 1,511,160 (UF 13.5 to 30)까지	4
CLP 1,511,160.01부터 CLP 2,518,600 (UF 30 to 50)까지	8
CLP 2,518,600.01부터 CLP 3,526,040 (UF 50 to 70)까지	13.5
CLP 3,526,040.01부터 CLP 4,533,480 (UF 70 to 90)까지	23
CLP 4,533,480.01부터 CLP 6,044,640 (UF 90 to 120)까지	30.4
CLP 6,044,640.01부터 CLP 15,615,320 (UF 120 to 310)까지	35.5
CLP 15,615,320 (UF 310) 이상	40

-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한 금액
- 신고납부기한 : 익년 4월말
- 원천징수: 근로자는 매월 총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함
- 사업주 1인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는 각각의 사업주로부터 받은 수입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다음해 4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 1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기타의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
- 독립된 전문직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보다 초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함

○ 종합소득세(GCT, Global Complementary Tax)

(출처: boundless, <https://boundlesshq.com/guides/chile/taxes/>)

- 납세의무자 :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 과세대상 : 국내외 발생원천 소득이 13.5 UTA(Unidad Tributaria Annual, 연간 조세단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칠레 국세청에서 고시함)을 초과하는 경우
- 세율 : 0%~40%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출처: Chile Income Tax - International Taxes 2022 (tax-rates.org))

- 2022년 칠레 소득세율

세금구간 (연간 소득, 단위: \$ 칠레페소)		Tax Rate(%)
\$0부터	\$13,357,800미만	5.00%
\$13,357,800이상	\$22,563,00미만	10.00%
\$22,563,000이상	\$31,588,200미만	15.00%
\$31,588,200이상	\$40,613,400미만	25.00%
\$40,613,400이상	\$54,151,200미만	32.00%
\$54,151,200이상	\$67,689,000미만	37.00%
\$67,689,000 이상		40.00%

- 부가가치세: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 추세
 - 과세기간 :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 표준세율 : 19%
 - 신고 및 납부기간 : 익월 12일까지 매월 신고 납부
 - 납세의무자 : 개인, 법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및 건설회사의 부동산 판매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
 - 부가가치세 산출방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 거주자
 - 과세범위 : 칠레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함
 - * 비거주자(외국인)는 칠레에서 처음 3년 동안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4년 차부터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됨
 - 자격: 칠레에 영구적 생활 영역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 또는 1년에 6개월(183일) 이상 칠레에 거주하거나 2년에 걸쳐 6개월(183일) 이상 거주하는 자
 - 제출서류 : 거주자 또는 칠레에 주소가 있는 모든 회사 또는 개인(칠레인 또는 외국인)은 양식 22를 통해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양식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4월에 제출되며, 이 신고서에는 소득이 신고된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의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야 함

- 비거주자
 - 과세범위 : 칠레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함
 - 자격: 칠레에 영구적 생활 영역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 또는 1년에 6개월(183일) 미만 칠레에 거주하거나 2년에 걸쳐 6개월(183일)미만 거주하는 자
- 칠레 이민자: 통상 이민 후 첫 3년간은 칠레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함
- 칠레 고용주 기여금
 - 1)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
 - (대상자) 고용주와 직원은 매월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는 기여금 중 직원 분담금을 원천징수하여 자신의 분담금과 함께 사회 보장 당국에 납부할 책임이 있음. 사회보험료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부담
 - (기여율) 사회보장은 고용주가 다음 시스템에 다음의 기여율로 자금 지원
 - a. 업무 관련 사고 보험: 직원 보수에 대한 0.93% 프리미엄, 노동 관련 사고보험에 대하여 UF(칠레에서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조정 화폐 단위로 순환하지 않고 훨씬 안정적임)를 참조하여 계산된 변동 금액 한도
 - b. 생명 및 장애 보험(SIS) : 1.85%
 - 2) 실업보험(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
 - (가입대상) 실업보험은 직원이 있는 회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금) 실업 기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자금을 조달함.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2.4%를 기여해야 하며 (상기와 동일한 유동 상한선 적용), 기간제 계약의 경우 고용주가 전체 기여 비용의 3%를 부담함
 - 3) 전문질병보험(professional illness insurance)
 - 모든 회사는 고용 활동의 위험을 충당하기 위해 책임 보험이라고도 하는 보험에 기여해야 함. 회사 부담 기여액은 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한도는 직원 급여의 3.4%임
- 칠레 근로자 기여금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고용주와 직원 모두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직원이 대부분의 기여금(17.6%)을 부담하며 급여 기간 동안 고용주가 매월 원천 징수하고 납부함. 사회 보장 기여금은 총 급여에서 공제됨

- 직원별 기관 및 기여율

연번	분류	한도
1	연금 기금	10%, 한도 CLP 1,876,049(81.6 UF)
2	건강 보험	7%, 한도 CLP 1,876,049(81.6 UF)
3	실업 보험	0.6%, 최대 CLP 1,876,049

* (기간제 직원) 기간제 직원은 실업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함

* (외국인) 외국인 개인은 최소한 연금, 장애, 질병 및 사망을 다루는 외국 사회 보장 기관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경우 연금 및 건강 보험 기여금이 면제될 수 있음

○ 원천세

- 배당소득세 : 거주자 면제, 비거주자 35%(한-칠레 조세조약상 5%/10%)
- 이자소득세 : 거주자 면제, 비거주자 4% 또는 35%(한-칠레 조세조약상 4%/10%)
- 사용료세 : 거주자 면제, 비거주자 30%(한-칠레 조세조약상 2%/10%)
- 자본이득세: 회사 25% 또는 27%, 개인 누진세율 0%~40%
- 기술서비스료: 거주자 면제, 비거주자 15% 또는 20%(한-칠레 조세조약상 2%/10%)
- 원천세 납세 의무자 : 비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 과세대상 : 칠레기업, 공동출자형태의 개인기업, 칠레 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이익과 배당
- 원천세율 : 칠레 원천세율과 한-칠레간 조세조약상 한도세율을 비교하여 한도세율 이하로 적용
- 과세방법 :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
- 신고납부 : 다음 달 12일까지 신고 납부

○ 세무조사

- 칠레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사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 1차 세무조사 통지서에 의해 자료 미제출시 칠레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에 다시 불응할 경우 법원에 자료 제출을 위한 영장 청구
- 법원 영장에 의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 15일 이내 구금에 처함

-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 칠레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사항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납세자는 자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미수정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명 안내문이 발송됨
 - 소명 안내문에 대해서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소명 안내문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소명자료로 탈루 혐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칠레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후 산출세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조세위원회(SII Tax Tribunal) 또는 상급 법원에 이의제기 가능
 - 과세예고통지서상 이의 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 칠레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
- 조세불복절차
 - 납세자는 칠레 국세청의 과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부과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능
 - 1차 청구기간은 국세청 조세위원회(SII Tax Tribunal), 2차 청구기관은 행정법원(The court of Appeal), 3차 청구기관은 대법원(Supreme Court)
 - 칠레 국세청 조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같이 국세청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칠레 각 지방국세청 내에 존재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접목한 형태

○ 이전가격제도

1) 개념

다국적기업의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상품과 서비스 공급, 기술이전 등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제도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내 용
재판매 가격방법	비특수관계자에게 그 자산을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에서 통상적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
원가 가산방법	제조, 판매 또는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의 합리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방법	비특수관계자간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된 가격에서 적정 이윤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

3) 국외 특수 관계자

- 칠레 내국 법인의 경영, 자금, 출자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외국 법인의 경영, 자금, 출자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칠레 내국 법인 또는 개인
-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 추정하는 경우
 - 독점적 계약 체결한 법인간의 거래
 -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
 - 합작투자계약 법인간의 거래
 - 특별우대 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
 - 재무적 또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 등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 (시행) 칠레 국세청은 2003년 9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 발행이 아닌 자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연혁

- 2002. 1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 2003. 9.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공식 시행
- 2004. 4. 공공기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2005. 10. 내국신용장 제출 납세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영세사업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Portal MIPYME SII) 보급

- (혜택) 칠레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미발행·미교부 등에 대해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음

- (현황) 2003년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식 도입된 이후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납세자수는 2011년 기준 36,283업체이며, 중소·영세납세자를 위해 칠레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Portal MIPYME SI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80%를 차지함

- * Portal MIPYME SII 보급률은 높으나, 대기업 등이 민간프로그램을 통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체 발행 건수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부분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영세납세자의 발행 비율은 저조한 편임

□ 칠레 영주권 제도

(출처: 주칠레 한국 대사관,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tschile&logNo=220838321907>)

가. 명 칭 : 영주권(Certificado de Permanencia Definitiva)

나. 형 태 : 종이카드

다. 유효기간 : 영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신분증은 5년마다 갱신)

라. 신청자격 : 아래 체류권을 소지하고 칠레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자

- 고용계약 체류권(Residente Sujeto a Contrato) : 최장 2년간이며, 연장 가능
- 유학생 체류권(Residente Estudiante) : 최장 1년간이며, 매 1년마다 연장 가능
- 임시 체류권(Residente Temporario) : 최장 1년간이며, 1회에 한해 동일기간만큼 연장 가능
- 정치적 망명 또는 난민 체류권(Residente de los Asilados Politicos o Refugiados) : 최장 2년간이며,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 가능
- 주재국 국민과 결혼 또는 입양 등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한 자
- 마지막 한 해 동안 국외체류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자

마. 취득절차

- 영주권 신청 시 보유 비자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이 다름
- 비자 만료일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영주권 신청의 접수증 및 허가서는 우편으로 송부되며, 허가서를 받으면 이민국에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제경찰에 등록 및 주민등록청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함
- 영주권 신청이 불허 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취소 사유

- 국외체류 허가기간인 1년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은 자동 말소됨. 유학 또는 다른 정당한 사유로 입국을 하지 못할 경우, 만기일(출국 후 1년이 되는 날) 60일 전에 관할지 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불가 사유를 소명하면 1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최대 연속 4회 가능
- 칠레 법령에 중대한 범법 행위를 하고, 법원이 이를 최종 판정한 경우, 내무부는 체류권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관련 외국인을 강제추방 조치시킴
-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 비자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

사. 영주권자의 사회적 처우

- 영주권 증명서 및 신분증 부여
- 신분증은 시민권자와 동일하나 외국인신분증이라 표기되며 국적란에 해당 국적이 표기됨
- 선거권, 사회보험 등의 가입은 가능하나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등 복지혜택에선 차이가 있음

□ 칠레의 취업 비자

(출처: <https://www.globalization-partners.com/kr/globalpedia/chile-employer-of-record/work-visas/>)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tschile&logNo=220838321907>

가. 취업비자 유형

- 칠레에서 채용 제의를 받거나 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모든 해외 직원은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함
-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칠레는 새로운 이민법을 2020 이후 발표된 2021년 4월 업데이트된 2022년 새로운 법에 따라 칠레의 비자 카테고리는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이전 거주지 및 작업 허가서 범주가 단계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임시 거주 비자 카테고리인 16 하위 카테고리가 도입됨
- 칠레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싶은 외국인은 임시 거주 비자를 취득해야 함. 이 새로운 비자는 최대 2년 동안 부여되며 무기한 갱신될 수 있음
- 이용 가능한 비자 하위 카테고리는 하기와 같음
 - a. 외국 근로자(회사 또는 자영업자 고용인)의 허가 : 칠레에서 보상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비자 하위 범주에는 현지 업무 계약, 직무 제안(공식 작업 계약이 45 비자 허가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경우(자영업인 경우)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자가 고용된 경우). 이전 근무 계약 Visa와 달리 이 비자는 더 이상 작업 계약의 유효성과 연계되지 않으며, 보유자는 문제없이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음
 - b. 투자자, 관리자, 이사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허가 : 최소 USD500,000 투자 개인들이 비자 하위 범주에 적용할 수 있음. 이 비자는 형사범죄 기록 증명서 제출과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홍보 대행사인 InvestChile의 후원 서신을 제출해야 함
 - c. 시즌 근로자를 위한 허가서 : 이 하위 카테고리는 일시적인 해외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최대 1년 6개월 가능함

d. 칠레로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는 외국 임원 또는 이사(이사)의 허가서 : 이 복수 입국 비자는 해외 임원 및 이사가 칠레에 있는 사업 이사 또는 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하며, 단, 국가에서의 시간이 각 역년 6개월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외국근로자) 새로운 작업 허가서에 따라 외국 근로자는 고용되어 가족회사가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외국 근로자는 칠레 회사가 고용하고 지불해야 하며, 이를 반영한 현지 업무 계약, 직무 제안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칠레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 설명 및 지침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됨

나. 칠레의 취업 비자 취득 요건

- 칠레에서 취업 비자를 취득하려는 직원은 하기의 서류를 갖추어야 함

No	내용
1	최소 유효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사본
2	거주 국가에서의 법적 상태 증빙
3	스튜디오에서 흰색 또는 흰색 음영 배경으로 촬영한 여권용 크기의 컬러 사진 1매
4	항공 여정 및 예약의 사본
5	호텔 예약 또는 숙소 증빙
6	최근 3개월간의 은행 잔고증명서
7	3개월 이상 지속 기간을 가진 현지 업무 계약, 직무 제안 또는 서비스 계약 초청장(해당 시)
8	이동에 관한 모든 사유를 설명하는 서신

- 칠레는 온라인 비자 신청 서비스를 사용하므로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첨부해야 함. 또한 서류 유형에 따라 특정 이름이 필요. 예를 들어, 항공 예약 관련 서류의 이름은 'YourLastNameFlightReservation'이어야 함
- 또한 모든 원본 서류를 소지하고 비자를 취득하는 동안 이 서류를 가까운 칠레 영사관에 가지고 가는 것을 권장함

다. 칠레 취업비자 신청 프로세스

- 칠레는 비자 신청 절차를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취업 허가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칠레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함.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개인은 가까운 칠레 영사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함
- 일부 경우 신청자는 칠레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해당 비자 수령 가능함. 하지만 일반적인 신청 절차에서는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함



- 비자 수수료

(금액) 직원의 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50에서 \$150까지 다양함.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까지 비자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수령할 때 납부함 (기타) 이때 영사관 직원은 이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90일까지 직원의 여권에 비자를 연결함

□ 칠레의 거주 비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tschile&logNo=220838321907>

○ 칠레 체류권(Permisos de residencia)_개요

- 칠레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약을 맺은 국가로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90일간 체류 가능
- 사업, 유학 등의 사유로 장기체류 필요 시 거주허가(Permisos de residencia) 필요

○ 거주허가(Permisos de residencia)의 종류 4가지

- 1) Sujeta a Contrato(Subject to Contract, 고용계약에 의한 비자) : 일반적으로 칠레에 파견된 상사주재원들에 해당
- 2) Temporaria(임시): ‘Permanencia Definitiva(Definitive Permanence, 영주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비자. 처음부터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것이나 일정한 시간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때가 되면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잠정적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의 체류권
 - * 다른 형태의 체류권도 나중에 조건이 되고 본인이 원하면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영주권과 직접 관련된 체류권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
- 3) Estudiante(student, 유학생)
- 4) Tripulantes(crew, 승무원): 항공기, 선박, 국제버스등의 외국인 승무원

- 임시비자의 12가지 형태
- (1) Extrajero con vinculo con chileno(a)(Foreigner with a link to a Chilean 칠레 국적자와 연결을 가진 외국인) : 칠레 국적자의 자녀, 부모 그리고 배우자인 외국인
- (2) Hijo(a) de extranjero transeunte(Child of a transient foreigner, 여행중인 외국인의 자녀) : 부모가 칠레 여행중 칠레에서 태어난 자녀
- (3) Extranjero vinculado con familiar que posea fermanencia definitiva(Foreigner linked to a relative who has definitive residence, 영주권을 가진 친척과 연결된 외국인) : 영주권자의 자녀, 부모 그리고 배우자인 외국인
- (4) Ex residente(Former Resident 이전에 거주자였던 사람): 전에 1년 이상 체류권을 소지했었고, 칠레를 떠난지 5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람.
- (5) Religiosos(Religious 종교목적): 신부, 목사, 선교사등의 종교인
- (6) Jubilados y rentistas(Retirees and annuitants, 은퇴자 및 연금수령자): 은퇴자로서 연금수급자이거나, 칠레 및 국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 임대료 수익을 칠레에서 수령하는 사람
- (7) Inversionistas y comerciantes(Investors and traders, 투자자 및 상인): 투자 혹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대부분의 한국인이 이에 해당)
- (8) Profesionales y mas de un contrato(Professionals and more than one contract, 전문인 및 하나 이상의 고용계약을 가진 자)
 - A. Profesionales y tecnicos de nivel superior(Higher-level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고급 전문가 혹은 기술자
 - B. Persons con dos o mas contratos de trabajo(Persons with two or more employment contracts): 동시에 두 군데 이상과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 C. Remunerado en el exterior(Paid abroad): 외국계 혹은 칠레회사에 고용되었으나 급여가 국외에서 지불되는 사람
 - D. Periodistas o profesionales de medios de comunicacion(Journalists or media professionals): 저널리스트 혹은 매스미디어 전문가

(9) Embarazadas y tratamiento medico(Pregnant women and medical treatment):
임산부 혹은 칠레에서 의학적 치료를 원하는 환자

(10) Ciudadanos del MERCOSUR(Citizens of 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
시민권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11) Por motivos laborales(For Laboral reason):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체류권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음

(12) Union Civil(Civil union):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된 체류권으로, 다음의 사람과
결혼 약혼 및 동거(사실혼)관계인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음

A. 칠레 시민권자 B. 칠레 영주권자 C. Temporaria(임시) 체류권 소지자

○ 칠레 영주권 신청 자격 조건

- 체류권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에 반해, 영주권은 영구히 거주할 권리임.
스페인어로는 La Permanencia Definitiva(Definitive permanence, 영주권)
- “5년짜리 영주권” 이라는 표현은 칠레정부가 영주권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5년에 한번씩 “신분증” 을 갱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으로 영주권 증서 자체는
분실하거나 파손되지 않는 이상 처음 만든 상태로 갱신없이 사용함

○ 칠레 영주권 신청 요구 조건

- (조건) 아래 3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일정기간(1년이나 2년)
이상 칠레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주권 신청 가능함

No	내용
1	고용계약에 의한 비자를 가지고, 최초 비자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칠레에 거주한 사람 및 가족
2	Temporaria(temporary)임시 비자를 가지고, 최초 비자 취득일로 부터 최소 1년이상 칠레에 거주한 사람 및 가족
3	유학 비자(학생비자)를 가지고, 최초 비자 취득일로 부터 최소 2년 이상 거주했고, 칠레 중등교육(한국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가족

- (유의사항)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 마지막
1년 체류기간 중에 180일 이상 칠레를 떠나있어서는 안됨

※ 칠레는 아직까지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임. 칠레의 이민법과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칠레 정부는 이민에 대한 철학이 잘 정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음. 현실적으로도 이민당국의 요구사항만 잘 숙지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비자든 영주권이든 취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음

□ 칠레 이민과 장기체류

- 칠레 이민 절차 (출처: 칠레 투자실무가이드, 코트라, 2008)
 - 이민 절차는 간단하며 신변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이주가 허가됨
 - 거주목적으로 처음 입국 시 보통 1년의 임시거주비자 발급, 임시거주비자 발급 소지자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에 경찰서의 외국인 관리국을 통해 외국인 등록을 한 후 등기소에 등록증을 제출하면 외국인 주민등록증이 발급됨
 - 입국 후 1년이 되면 비자 만기일 30일 전에 임시거주비자 갱신이 필요함 (제출서류) 여권 원본 및 사진이 있는 페이지, 비자 있는 페이지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신원증명서
- 고용비자
 - 고용계약에 의해 칠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처음 고용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SC-1 비자 발급

No	내용
SC-1	최초 고용비자 신청(Visa Sujeta a Contrato por primera vez, Visa Subject to Contract for the first time, 최초 고용계약에 의한 비자)
SC-2	고용비자 연장 신청(Prorroga de Visa Sujeta a Contrato, Extension of Visa Subject to Contract, 고용계약에 의한 비자 연장)
SC-3	고용주 변경에 따른 신규 고용비자 신청(Visa Sujeta a Contrato por cambio de empleador, Visa Subject to Contract for Employer Change, 고용주 변경으로 인한 고용계약에 의한 비자)
SC-4	고용주 변경에 따른 기존 고용비자 변경 신청(Ratificacion de Visa Sujeta a Contrato por cambio de Empleador, Ratification of Contracted Visa for Employer Change, 고용주 변경으로 고용계약 비자의 변경(sin haber estampado Visa original, without having stamped Original Visa, 원본비자에 도장을 찍지 않고)

- 임시거주비자
 - 임시거주비자는 칠레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됨
 - 거주 사유에 따라 신청하는 비자가 각각 다름
- 체류권, 거주권 및 영주권 취득 과정 (무비자 입국 : 90일 체류 가능)
 - (입국 시) 현금 미화 1만~3만달러 지참, 반드시 공항에서 신고 후 관련서류 보관
 - * 이 서류는 입국후 비자 신청시 사업자본금 혹은 생활비 증명에 필요한 필수 서류임. 사업자로 체류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최소 2만 달러 정도가 적절함

- 가족 동반 시 아포스티유 인증된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결혼증명서 (배우자) 지참 필요 (2016년 8월 31일 이후 적용)
 - 미취학 자녀를 제외하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위의 3번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 필요
 - (입국 후) 체류권 신청. 서류준비가 꼼꼼하고 입국후 3주안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무비자 90일 체류기한 안에 칠레 이민청으로부터 4개월 임시체류권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이라면 이 기간 안에 1년 기한의 정식 체류권을 받게 됨
 - (소요기간) 체류권은 각각 1년씩 2차례 신청해야 하고, 영주권은 2차 체류권 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결국 최종 영주권을 받기까지 총 3차례의 별개의 서류수속이 있고, 최초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평균 2년 4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됨
- 각각의 서류 수속들은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과정들이 존재함
 - A. 필요서류 준비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칠레 이민청에 우편접수
 - B. 4개월 임시 체류권 발급
 - C. 비자 수수료 납부
 - D. 이민청에 방문하여 여권에 비자 스티커(영주권의 경우 별도의 증서 수령) 부착
 - E. PDI(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내부무 산하 경찰조직의 한 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
 - F. Registro Civil(Civil registration)(등기소)을 방문하여 칠레 신분증 신청
 - G. 2주에서 3주 후에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여 신분증 수령
 -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 별도의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의 이름으로 단독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 반드시 2인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된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대표자는 칠레 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이라면 영주권 소유자여야 함

□ 은행 계좌 개설

- 칠레 영업 은행들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 견지
- 계좌 개설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함
- 회사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요구
- 은행에서 의뢰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여부 확인
- 개인 수표 사용이 보편적
- 은행계좌 신청시 수표책을 신청,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미국 달러화, 현지 페소화 두 가지를 모두 사용 가능
- 체크 카드도 사용 가능
- 은행 계좌 개설시 매달 은행에서 일정액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인출

□ 법률 제도의 형태

- 여러 서양 유럽의 대륙법제도(Civil Law system)에 영향을 받는 대륙법, 성문법 제도를 가지고 있음

3 조세 제도

가. 조세체계

(출처: Chile PwC, <https://taxsummaries.pwc.com/chile/corporate/> 2022.07.21.

KPMG, 2021.01 home.kpmg/xx/en/home/insights/2021/06/chile-taxation-of-international-executives.html.)

- 칠레 소득세는 납세자의 거주 장소와 소득 원천에 기초함
 - (거주자) 칠레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실체는 소득 발생 국가에 관계없이 해당 실체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됨
 - (비거주자) 칠레 투자 인센티브로서 칠레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첫 3년 기간 동안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분류) 칠레 소득세는 Category taxes(종류세)는 1종 소득세(First Category Income Tax, FCT) 와 2종 소득세(Second Category Tax)로 분류됨
 - 소득에 대한 조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세, 특별 목적 조세, 기타 조세로 분류됨 (국세청, 칠레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 안내)
 -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단일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의 50% 이상이며, 그 비중은 매년 증가 중임
- (과세연도말) 12월 31일

(1) 소득세

- 칠레에서 소득 과세는 △납세자의 거주 장소 △소득의 원천 이 2가지 요인에 기초함
 - 모든 칠레 거주자 또는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전 세계 기준으로 그들의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함
 - 칠레에 세무상 거주 또는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첫 3년 동안만 칠레 원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 개인은 예외임
 - 비거주자 납세자는 칠레에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칠레에 소재한 자산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소득세법은 종류세(Category Taxes)와 최종세(Final Taxes)로 세금을 나눔

(2) 종류세(Category Taxes)

- 1종소득세 또는 법인세(First Category Tax or Corporate Income Tax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CIT)는 상업, 산업, 광업 및 기타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일 세율(flat tax rate)이며, 일반적으로 27%의 세율이 적용됨
 - * 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과 몇몇 다른 법인의 경우에 더 낮은 25% 세율이 적용 가능함
- 중소기업 세금체계(SMEs Tax Regime)
 -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은 단순화된 체계에 따라 세금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음. 중소기업 체계의 적용을 위하여 전체 총소득의 최대 35%에 해당하는 수동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중소기업 : 관계회사들의 매출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이 UF75,000, 즉 2022년 기준 약 3백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25% 법인세(CIT) 세율은 원천징수세(WHT) 또는 글로벌 보완세(GCT, Global Complementary Tax or personal income tax)가 적용되는 주주에 대해 완전히 공제되어야 함(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2년까지 10% 감면된 CIT 적용)
 - * Unidades de Fomento(UF, Fomentation Units, 인플레이션 지수 계정 단위) : 칠레 중앙은행(BCCh)에서 계산 및 발행하는 인플레이션 지수 계정 단위. 은행 및 신용저축협동조합에서 국가 통화로 신용 거래의 가격 책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
- 2종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Second Category Tax or tax on labour income (Impuesto de Segunda Categoría, SCT)는 개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로서 근로자에게 월별로 계산된 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3) 최종세(Final Taxes)

- 글로벌 보완세 또는 개인소득세(Global Complementary Tax or personal income tax (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 GCT)는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 얻은 총소득(개인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이며, 누진세율은 0%~40%임
 - 글로벌 보완세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 가능한 법인세 납부, 법인세 대상인 소득을 포함함

- 추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Additional Tax or Withholding Tax (Impuesto Adicional), WHT)는 일반적으로 35% 단일 세율이 적용됨. 소득이 인출, 배당으로 분배, 해외로 송금될 때 비거주 개인 또는 비거주 법인(회사)이 수령한 전체 총수입에 대해서 단일 세율 35%를 적용함
- 배당 분배에 관하여, 배당을 분배하는 회사(배당 지급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될 수 있음
 - 파트너 또는 주주가 칠레와 이중과세방지조약(Double Taxation Treaty, DTT)을 맺은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라면, 납부된 법인세는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전부 공제되어야 함
-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세는 기술지원, 수입이자, 로열티 등과 같이 칠레로부터 지급된 측정 해외 지급의 경우 여러 세율로 유발됨
- 최종세(Final Tax)에는 글로벌 보완세(개인 종합소득세), 추가 소득세 (원천징수세)가 해당함

(출처: Taxand Global Guide to M&A Tax 2022, <https://www.taxand.com/wp-content/uploads/2022/07/Chile.pdf>)

나. 법인세

□ 법인세 종류와 세율

- 칠레에 거소를 두거나 주소를 두고 상업, 광업, 어업 또는 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기본 세금은 1종소득세(FCT, First Category Income Tax)임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 현지 법률에 따른 고정사업장(PE)의 정의에는 (i) 고정사업장(PE) 및 (ii) 대리점 PE(또는 종속 대리인 PE)가 포함됨
 - * 건설 또는 프로젝트 PE 및 서비스 PE는 칠레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또한 보조 및 준비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고정사업장(PE)이 생성되지 않음
 - 법인이 이중과세방지협정(DTT) 조건에서는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원천징수세(WHT)는 송금의 총액 기준에 적용됨
 - 그러나 칠레 국세청(IRS) 판결은 국내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정사업장(PE)의 사업에서 납세자가 발생한 비용 공제 허용을 위해 현지 고정사업장(PE)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에서 다른 두 고정사업장 개념 간 관계를 해석함
 - 기업이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칠레 국세청(IRS)에서 발행한 행정 해석에 따라, 형태보다 실제 원칙이 적용됨
- 중소기업 법인세율은 25%, 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부분 통합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은 27%임
- 최종 과세(예: 칠레 최종 소유자 수준 또는 외국인 소유자 수준)는 현금을 기준으로 시작됨
- 1종 소득세(FCT)는 중소기업(SME, Small & Medium Enterprise) 제도에서 최종 세금에 대해 완전히 공제되지만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에서는 부분적으로만 공제됨 (65%만 공제 가능).
 -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정(DTT)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 법인의 외국인 소유자도 전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한 1종소득세 감액

-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칠레 정부는 경제 및 고용 재활성화를 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함
- 채택된 관련 조치 중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1종소득세(FCT)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4조 D에 따른 중소기업 제도의 적용대상인 납세자(영세 중소기업)는 2020~2022 사업연도에 대해 감면된 1종소득세(FCT)를 납부함
- 따라서 정부는 인센티브 집중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라, 새로운 법률을 통해 이 세율을 3년 동안 25%에서 10%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설정함
- 마찬가지로, 이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들은 해당 회계연도에 납부한 월별 잠정 납부(PPM, Monthly Provisional Payment)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듦
- * 이러한 월별 잠정 납부(PPM) 감소는 관보에 법률이 공표된 다음 달에 이루어져야 하는 제출 및 지불에 적용됨

○ 시행중인 소득세 제도

- 이전의 귀속 과세제도는 2020년부터 폐지됨
- (중소기업) 기업 수준 세금이 최종 세금에 대해 완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즉, 연간 약 28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매출)을 위한 완전 통합 제도가 도입됨
- (대기업) 현행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 과세 제도가 적용됨
- * 칠레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T)을 시행하는 국가에 비거주 주주가 거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법인세(CIT) 공제 및 현금 기준으로 27% 법인세(CIT) 세율 및 주주 과세
- 따라서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 비조세 조약 시나리오에서 칠레의 전체 과세는 $44.45\%(27\% + (35\% - (65\% \times 27\%)))$
- 조세 조약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비거주 주주 및 해당 조세 조약에 따른 배당 소득 수혜자의 경우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 제도에 따른 전체 과세는 $35\%(27\% + (35\% - (100\% \times 27\%)))$
- 납세자는 사용 가능한 1종소득세(FCT) 공제를 통제하기 위해 '누적 세금 공제 잔액'에 관한 레지스트리(기장)를 유지해야 함

- (납세의무자) 모든 법인, 지점, 외국 투자회사의 고정사업장 등
- (과세대상) 영리 자본과 영리, 상업, 광업, 기타 활동으로 얻은 소득
- (과세방법) 수입을 얻기 위해 발생,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근거로 과세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소급 또는 이월 공제함
- (1종 소득세 세액공제) 기업이 납부한 1종 소득세는 기업이 이자, 배당을 받거나 주식회사의 주주지분,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 등을 회수하였을 때, 받는 이익이 있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추가소득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추가소득세(원천징수세)는 배당금 수입의 35%
 - 납세의무자는 칠레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과 법인
 - 과세대상은 칠레 기업, 공동출자 형태의 개인기업, 칠레의 고정사업장으로부터 이익과 배당임
 - 일반적인 세율은 35%
 -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
 - 법인세 체계는 기업의 발생이익 중 배분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배분 소득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익의 사내 유보를 유도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에 도입된 제도임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 방법

- 모든 기업은 1종 소득세 25%와 추가 소득세 35%를 납부해야 함.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음
 - (방법1) 칠레 자국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
 - (방법2) 투자액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후 10년 또는 20년간 매년 법인세 납부 시 적용할 세율을 42%로 고정하여 납부
 - (방법3) 투자 후 10년간은 자국 기업과 동일한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 다만, 과거 5년간 배당금 또는 배당수익의 송금이 투자원금의 40%를 초과한 후의 배당금 등 송금액에 대해 40%의 추가 소득세 납부
- 합작투자의 경우 배당금 또는 배당수익에 대해 39.5% 추가 소득세를 납부함

- 지사의 경우 본사에 송금될 수익에 대해 39.5%의 세금을 납부함
- 광산 및 농업투자자의 경우, 실질 수입보다는 토지가격, 채굴된 광산물 가격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

□ 1종 소득세(법인세) 과세소득 산출

1종 소득세 또는 법인세(First Category Tax or Corporate Income Tax (Impuesto de Primera Categoría), CIT)는 상업, 산업, 광업 및 기타 사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일 세율이며 일반적으로 27%의 세율이 적용됨

* 중소기업과 몇몇 다른 법인의 경우에 더 낮은 25% 세율 이용 가능함

- (과세대상) 발생이익
- (공제가능 비용)
 - 세금공제비용 개념 재정의 : 동일한 또는 미래의 상업 연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사업의 이자, 개발 또는 유지와 관련된 비용
 - 총수입에서 직접비*, 판매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자(자산의 70%를 상회하는 부채), 법인세 이외의 세금, 과거 손실, 부실채권, 리스비용, 사무직에 대한 적정급여 등을 차감함
 - * 직접비에는 원재료, 직접노무비, 운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됨
 - 비영리 기관에 기부된 특정 물품의 공제가 허용됨
 - 칠레 국세청(IRS)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미지급된 크레딧(신용거래채권)이 365일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 관련 없는 당사자의 대손공제가 허용됨
 - 회사를 위해 실제로 일하는 주주의 보수에 대한 세금 공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됨. 또한 주주의 배우자나 동거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된 보수는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으로 인정됨
 - 자발적 환경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하고 특정 한도를 갖는 경우 허용됨. 초과분은 세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엄격한 책임 시나리오에서 고객 또는 사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당국이 부과하는 지출 또는 할인은 비용으로 간주됨
 -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거래에 대한 지출은 관련 없는 당사자 시나리오에서 공제될 수 있음. 여기에는 패널티 조항이 포함됨

- 1종 소득세(FCT) 납세자의 순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비용을 생성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함
- 일반적으로 비용은 과세 대상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목적으로 공제되지 않음
- (공제 비대상 항목)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개선, 비과세 수익에 공헌하는 지출 등
- 손실은 환불되지 않으며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흑자 또는 적자 계열사 합병은 불가능
- 가치재평가(monetary correction)의 과세 조정절차
 -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계연도 말에 고정자산에 대한 최초의 순가치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외환을 재평가하며 가치재평가액은 그 자체가 과세되지 않음
- 자산재평가의 과세 조정절차
 - 자산에 대한 순가치를 재계산하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재고자산은 대체품 가격으로 재조정되며, 외화 자산 및 부채는 외환의 변동에 따라 조정함
- 총법인수입의 과세 조정절차
 - 영업비용 및 감가상각에 더하여 회사는 총 수입의 기초자본에 대한 Monetary correction(금전적 수정)을 공제하고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조정해야 함
- 폐소화 표시 : 총수입-(재화의 직접원가 + 영업비용 + 감가상각비) - 가치재평가조정액 +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조정액)
- 감가상각
 - 자산 인플레이션을 감안 후 정액법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비로 처리함
 - 감가상각률은 자산의 예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됨
 - 외국인 투자 위원회 또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칠레 국세청(IRS)은 정상적인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음
 - 연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됨. 그러나 납세자는 신규 또는 수입 고정자산에 대해 정상 내용연수의 최대 3분의 1까지 가속 감가상각법*을 사용해 자본화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단, 정상적인 감가상각 기간은 최소 3년
- * 가속 감가상각은 1종소득세(FCT)의 과세 기준을 줄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당금 분배에 적용되는 세금의 목적상 가속 감가상각은 고려되지 않음

- 장부와 세금 감가상각은 일치할 필요 없음
- 광업의 감가상각률

자산의 종류	상각기간(가속상각법)
중기계	10년(6년)
설비	5년(3년)
영구적 빌딩	10년(3년)
화물차	7년(2년)
중장비	10년(3년)
경장비	5년(1년)

- 광업 외의 감가상각률

자산의 종류	상각기간(가속상각법)
기계	20년(6년)
중기계	15년(5년)
중장비	10년(3년)
경장비	5년(1년)
화물자동차	7년(2년)
경자동차	10년(3년)
건물	구조에 따라 10-25년(3-8년)
공장건물	일반적으로 20-40년

-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신규투자의 4%부터 세금 대상액에서 최대 500UTMs까지 공제 가능
- 특정한 경우 합리적인 비율로 조세 당국과 협상 가능
- * 법령 1029조 및 1859조 : 1977년 6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신규 혹은 중고자산 또는 완성된 건축물 자산평가 증가분에 대하여 가속상각법을 신청 가능해짐 (단 상각기간 5년 이상인 자산이 대상). 이에 따라 자산수명이 1/3로 단축. 가속상각법으로 1회만 전환 가능

○ 즉시 감가상각

- 중소기업과 매출이 38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특정 요구사항 충족 시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빠른 유형의 감가상각 방법(즉시 감가상각 포함)을 사용 가능
- 2020년 2월에 발표된 법률 21,210호에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 즉시 감가상각 50%의 일시적인 혜택과 라아라우카니아지역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한 즉시 감가상각 100%가 포함됨

- 또한 '20. 6. 1.과 '22.12.31. 사이에 취득되고 산업 재산권, 저작권 및 새로운 식물 품종과 같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특정 무형자산에 대해 즉시 상각 제도가 통합됨으로써 점점 디지털화되는 경제의 다양한 투자 및 기술 개발 형태를 인식함
- 법률 21,210호에 규정된 즉시 감가상각은 '20년 5월까지 취득한 자산에 계속 적용됨

○ 창업비

- 창업 비용은 자본화되어야 하며 세금 목적상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함. 다만 발생한 연도 또는 상업활동 개시일로부터 6년에 걸쳐 상각할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공제됨

○ 이자비용

- 지급된 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자 비용은 공제 가능

○ 대손상각

- 일반적으로 대손은 (i) 사업 목적과 관련된 운영의 결과이고, (ii) 적시에 회계 기록에 상각되고, (iii) 회사가 대손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신중하게 소진한 경우에만 공제됨
-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건전하게 소진했는지 여부는 총채무액에 따라 다르므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단순 추정 또는 일반 충당금 설정은 허용되지 않음
- 또한 미지급 크레딧(신용거래 채권)이 칠레 국세청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365일 또는 그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 비특수 당사자 대손 공제가 허용됨

○ 영업권

- (정의) 합병 후, 흡수된 기업의 주식에 대해 지불한 가격(즉, 주식의 취득 비용)과 그 법인세 자본 간의 양(Positive)의 차이는 그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FMV)까지 흡수된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화폐성 자산 한도 내에서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 해당 자산의 FMV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각 불가능한 인수/존속 회사의 자산(영업권)이 됨
- 최근의 세제 개혁으로 도입된 변경사항은 이 영업권을 회사의 청산 또는 종료 시에만 공제할 수 있는 '무형' 자산으로 규정하여 영업권을 칠레 세금 목적으로 상각할 수 없는 자산으로 만들

○ 벌금과 범칙금

- 법률 또는 계약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및 범칙금은 경우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며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또한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방어하는 데 발생한 법적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함.

○ 세금

- 칠레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경우 공제 가능. 다만, 소득세와 승진·개선을 위한 특별기여금은 공제되지 않음

○ 순 영업손실

- 손실의 무기한 이월이 허용됨. 통화 조정과 일치하여 이월된 손실은 생활비 인상으로 조정되나 손실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음
- 흡수 이익에 대한 잠정 지급(PPUA, Pago Provisional por Utilidades Absorbidas, Provisional Payment for Absorbed Profits)은 상업 연도 2024년부터 폐지됨. 즉,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손실로 흡수한 회사가 받은 세금 환급금은 해당 연도에 받은 인출 및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CIT)의 대상이 됨
- 해당 PPUA 폐지는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 이익에 대한 손실 할당 또는 최종 세금에 대한 법인세(CIT) 공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받는 법인의 세금 공제 잔액 원장(스페인어로 SAC)에서 통제됨

*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PPUA 환급금은 상업 연도 2020년에 90%, 상업 연도 2021년에 80%, 상업 연도 2022년에 70%, 상업 연도 2023년에 50%로 점진적으로 감소됨

○ 외국 계열사에 대한 지급

- 상표, 특허, 공식, 컨설팅 및 기타 유사 서비스 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한 공제액은 로열티가 수익자의 거주국에서 소득세율이 30%를 초과하는 소득세에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연도의 판매 및 서비스에서 파생된 소득의 최대 4%로 제한됨
- 외국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 공제는 칠레 법인이 외국 특수관계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연도에 해당 추가 원천징수세(WHT)가 지급된 경우에만 허용됨. 칠레의 이전가격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원칙을 따름

□ 법인소득 결정

일반적으로 1종소득세(FCT)의 목적상 법인 소득은 발생 기준으로 결정됨

○ 재고자산 평가

-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원재료 함량과 직접 노동을 대체 비용(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의 비용)으로 조정하지만 간접 비용은 제외함으로써 금전적 수정 조항에 따라 평가되어야 함
- 소득 결정을 위해 장부와 세금 보고 간에 일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후입 선출법(LIFO, Last-In First-Out)은 세금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자본이득

- 자본이득은 주식/할당금 매각 이익 또는 자본 상환에 대한 금전적 수정과 같은 특별 조항이 면제를 설정하지 않는 한 일반 과세 대상임
- 국내법에 따르면, 특정한 경우 다음 증권에서 파생되는 자본이득은 세금 우대 대상이 됨
 - a. 상장된 현지 기업의 주식
 - b. 공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 펀드의 할당량
 - c. 펀드가 주식 거래 가치에 투자하는 경우 뮤추얼 펀드의 할당량
 - d. 투자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이 증권거래소 시장에 있는 증권거래소 또는 뮤추얼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 펀드의 할당량
- 간접 판매 조항으로 인해 칠레 자산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 또는 할당량 자본이득

- 일반적으로 칠레 법인의 지분 또는 할당량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은 일반 조세 제도의 적용을 받음

○ 배당소득

- 일반적으로 이미 1종소득세(FCT)의 적용을 받은 다른 칠레 법인으로부터 칠레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법인 수준에서 다시 1종소득세(FCT)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배당금이 해당 소득세 시스템에 따라 업스트림으로 분배되고 소유권 체인이 최종 칠레 소유자 또는 외국인 소유자에 도달하면, 그들은 각각 글로벌 보완세(GCT, Global Complementary Tax, 개인 종합소득세) 또는 추가 원천징수세(WHT)로 과세됨

- 이자소득
 - 칠레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1종 소득세(FCT)의 적용을 받음
- 로열티 소득
 - 칠레 법인에 지급된 로열티에는 일반 소득세가 적용되어 로열티 수입은 1종 소득세(FCT)의 적용을 받음
- 외국 소득
 - 거주 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받는 외국 소득 및 배당금은 수령한 상업 연도에 칠레 과세 대상임(현금 기준)
 - 그러나 특정 해외 소득은 미지급 기준으로 인식해야 함. 즉, 외국 고정사업장(PE)의 소득 및 관리되는 외국회사(CFC, Controlled Foreign Companies)의 수동 소득.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부여됨
 - 외국법인의 지점은 본점 실적에 관계없이 지점소득에 대해 과세됨

□ 지점소득

- 칠레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업의 지점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지점이 적용되는 소득세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해당 세율의 1종소득세(FCT)가 적용됨
- 지점이 중소기업(SME)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경우 1종소득세(FCT) 세율은 25%임. 지점이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7%가 적용됨
- 해외로 금액을 분배, 송금 또는 인출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해 35% 원천세(WHT)가 부과됨. 1종소득세(FCT)는 중소기업(SME) 또는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 규칙에 따라 원천징수세(WHT)에 대해 공제 가능

□ 신고 및 납부

- 납세 일정
 - 과세기간 : 과세 연도는 역년과 일치함
 -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마감함
 - 세금 시스템은 납세자가 자체 평가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때때로 세무 당국의 감사를 받음. 연간 세금 보고서는 전년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칠레 IRS(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 단,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마감일이 다른 선서 진술서가 많음을 유의해야 함

○ 신고 일정

- 연간 세금 신고 제출 기일은 세금을 납부할 잔액 또는 세금 환급 여부에 달려 있음. 세금을 납부할 잔액이 있다면 만기는 4월 30일까지이고, 세금환급이 있다면, 이러한 기일은 연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5월 7일까지임
- * 두 시나리오 모두 만기일은 소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유익한 소득세 신고서

- 납세자가 해외 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Sworn Statement 1929(1929년 선서 진술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기일은 연간 검토 필요)
- 1929 선서 진술서는 칠레 국민과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투자를 알리는 데에도 적용됨

○ 법인소득세

- 익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금은 매년 4월 연간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연간 소득세에 대해 매월 선납금을 납부해야하며, 선납금과 최종 세금계산서의 차액은 세금 보고 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선납금이 최종 세금 청구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재무부가 환급함
- 법인소득세는 이익 발생 시 매월 납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매월 신청 필요함
- 급여 및 전문직업인의 임금, 배당금, 로얄티 및 기타 원천과세 후 이익배당금은 익월 12일 내 처리해야 함
- 기업회계년도 말 3개월 이전에 원천징수액과 세금 부담 차액이 지급
- 차감 부족액(balance due) 또는 변상액은 생계비 지수에 의해 조정됨. (1989년 법령 18775조)

□ 세무조사 과정

- 일반적으로 칠레의 세금 시스템은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함. 그러나 많은 대기업이 칠레 국세청(IRS)의 지속적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도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이 됨

□ 제척기간

-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이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다.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개요

- (거주자) 거주자는 칠레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함
 - 칠레에 영구적 생활 영역을 갖추고 활동하는 자 또는 1년에 6개월(183일) 이상 칠레에 거주하거나 2년에 걸쳐 6개월(183일) 이상 칠레에 거주하는 자는 거주자로 간주, 1년 중 183일 미만 칠레 거주자는 비거주자임

* 칠레 민법 제49조 : 특정 기간 내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회계는 전일 자정까지 충족되면 달성될 것이다"

- (거주지 정의) 칠레 소득세법은 거주지 정의를 규정하지 않지만, 칠레 민법 제59조에 따르면, 거주지는 장소에 거주하고 그 안에 머물 의도를 요구함
- (임원) 칠레 국세청은 임원이 가족 그룹과 함께 칠레로 이사할 때 칠레에서 세금 거주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이해했으며, 개인은 칠레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함

그들의 자녀들은 칠레의 학교에 다니고 칠레 고용계약에 따라 그 국가 / 관할 구역에 있음. 따라서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칠레 거주지를 취득하게 됨. 반면에, 사람이 국가/관할권에 입국할 때 거주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임원의 세금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거주 테스트 (예 : 183일 테스트)를 해야 함

→ (요약) 개인은 183일간의 테스트를 충족하거나 칠레 거주지를 취득한 경우 칠레에 세금 거주자로 간주됨

○ 거주 시작

(질문) 거주 시작 및 종료 날짜에 관해서는 최소 일수 규칙이 있습니까?

(답변) 예를 들어, 납세자 업무가 끝나고 송환된 후 10일 이상 호스트 국가 / 관할 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음. 183일 테스트와 관련하여 칠레 영토에서의 물리적 존재의 1일은 이 목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함

(질문) 임무가 배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국가/관할권에 입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임무 배정을 받은 자가 조세 거주를 획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183일 테스트는 양수인이 칠레에 도착한 날부터 국가/관할권에서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작됨.

반면에, 거주지 테스트는 임부 배정은 받은 자가 이 국가/관할권에서 국제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 칠레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음. 임무 배정을 받은 사람이 현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칠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해외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

칠레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소득은 칠레 영토에서 수행되는 전문 서비스이기 때문에 칠레 원천소득으로 간주됨. 이 경우 고용세를 원천징수 할 지역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월세 신고서를 통해 고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임무 배정을 받은 자임

○ 거주 종료

(질의) 국가/관할권을 떠날 때 세금 준수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칠레를 떠날 때 충족해야 할 공식적인 세금 준수 요구사항은 없음

(질의) 임무를 배정받은 자가 거주기간이 끝난 후 여행을 위해 돌아오면 어떨까요?

(답변) 임무가 종료된 후 칠레에서 보낸 모든 날은 183일 테스트를 계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함. 부재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경우, 칠레 세금 목적을 위한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손실이 입증될 수 없는 한, 칠레 이외의 지역에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계산됨.

○ 이민국과 세무 당국 간의 의사소통

(질의) 칠레의 이민 당국은 칠레 입국 및 출국 시기에 관한 정보를 현지 세무 당국에 제공합니까?

(답변) 공식적인 절차는 없지만 세무 당국은 이민 당국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것은 칠레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요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음

○ 제출요건

(질의) 임무를 배정받은 자가 국가/관할권을 떠나 송환된 후 호스트 국가/관할권에 신고 요건이 있습니까?

(답변) 임무 배정을 받은 자가 국가/관할권을 떠난 후 칠레에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음. 거주 상태와 임무 배정을 받은 자가 이 국가/관할권 내에서 투자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부동산, 주식 또는 이자가 출국 연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그러나 칠레에는 구체적인 출국세 신고 요건이 없음.

또한, 일부 임무 배정을 받은 자는 연중 납부한 고용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칠레 은행 계좌는 출발 후 연도까지 또는 모든 세금 환급의무가 충족될 때까지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음

- (기타) 칠레 세무 목적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나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칠레에서 최초 체류 3년 동안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당함
 - 3차년도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비거주자) 칠레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함
 - 칠레 세무 목적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거나 거주자가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는 추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 추가소득세율은 전문적인·기술적인 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에 대해 15%, 기타의 경우 35% 단일 고정세율이 적용됨
 - 비거주자 자격을 가진 납세자가 단기간 임명기간 동안 수령한 소득의 과세는 임명기간 동안 획득한 칠레 소득에 제한됨
 - (현대화세금) 2020년 1월 29일 칠레 의회는 ‘현대화 세금 법안(Modernisation Tax Bill)’ 을 승인함. 개인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개혁에 의해 도입된 주요 수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로 글로벌 보완세(GCT) 및 근로소득세(Employment Tax) 최대 세율을 35%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임
 - (공식통화) 칠레 페소(CLP)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신청 가능 비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년 연장이 가능한 임시비자(Temporary visa)이고 다른 하나는 칠레 회사와 고용계약으로 직접 연결되는 2년 연장이 가능한 고용계약 관련된 비자임
- 2종 소득세(근로소득세)
- (정의) 2종 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SCT, Second Category Tax, Tax on income from dependent employment)는 개인적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로서 근로자에게 월별로 계산된 0%~40%의 누진세율 적용
 - (납세의무자)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근로소득자
 - (과세 대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상여, 수당(주택, 교육, 기타) 등 대가로서 월 급여가 13.5 UTM(Unidad Tributaria Mensual)* 이상인 경우
 - * UTM(Unidad Tributaria Mensual)은 칠레에서 쓰는 매월 조세단위임. UTM은 2종 소득세(개인소득세) 부과를 위한 기준 단위로서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에서 매달 고시하고 있음

- 고용인을 대신하여 고용주가 지역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

○ 그룹 내 법정 이사

(질문) 그룹 회사 내에서 고용의 일부로 칠레의 비거주가 법정 이사로 임명되는가?(예를 들면, 칠레에 위치한 그룹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비록 이사의 직무에 따라 별도의 이사 보수/보수를 지급되지 않을지라도 칠레에서 개인 납세 의무를 유발하는가?)

(답변) 이사회에 개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칠레 또는 해외에서) 지불이 없는 경우, 엄밀히 말하면 칠레에는 세금 신고가 없음

(질문) 이사회 구성원이 칠레의 이사회 회의에 물리적으로 참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가 발동되는가?

(답변) 이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칠레에는 개인에 대한 세금 의무가 있음

(질문) 칠레에 위치한 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이 부과 / 할당되는 경우 (즉, 이사회 구성원으로 제공되는 의무가 포함된 일반 관리 수수료로) 대답이 다를 수 있는가?

(답변) 세금의무는 계속될 것임

(질문) 세금 책임이 유발되는 경우, 과세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변) 개인이 칠레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35%로 고정됨

○ 세금 면제 소득

(질문) 국가 / 관할 구역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 영역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답변) 음식 수당, 교통 수당, 업무 배정을 받은 자가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수당 (예 : 언어 교육 과정, 이민 / 비자 비용, 배정 시작시 호스트 국가 / 관할권 여행 등)

○ 외국인 양허

(질문) 국가/관할권에서 외국인을 위한 양허 있는가?

(답변) 칠레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칠레에 도착한 후 처음 3년 동안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함. 이 기간이 경과하면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 칠레 법률은 이 기간이 적격한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연장은 이례적임

○ 해외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

(질문) 칠레에서 해외 근무를 통해 얻은 급여가 과세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 해외 근무로 번 급여는 납세자의 거주 자격에 따라 칠레에서 과세됨. 칠레 국적이 아닌 전문가가 칠레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해당 국가/관할권에 거주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따라서 해외에서 일하는 비칠레 국민 납세자가 번 급여는 임명 후 처음 3년 동안은 칠레에서 과세되지 않음. 그 시간이 지나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급여는 전 세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됨

○ 투자 소득 및 자본이득의 과세

(질문) 투자 소득과 자본이득은 귀하의 국가/관할에서 과세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 배당금, 이자 및 임대 소득, 금융 상품의 배당금, 이자 및 기타 소득은 금융 기관이 칠레 국세청에 보고하므로 과세 대상임.

* 부동산 임대 소득은 연간 세금 신고서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함

* 재산취득에 따른 대출금 이자, 지방세, 감가상각비 등 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은행예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주식매각차익 등의 투자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며,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역년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따라 달라짐

○ 외환 이익 및 손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에는 10%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 그러면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간 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공제로 사용할 수 있음

○ 주요 거주 손익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또한 당국은 UF8,000 (약 USD 300,000)의 면세 이익 임계값을 설정함. 이 임계값은 납세자 평생을 위한 것이며 일단 초과되면 재산 판매에 대한 모든 이익이 과세 대상이 됨

○ 자본손실

- 자본손실은 개인 종합소득세(GCT)의 동일 유형의 소득에서 공제로 사용할 수 있음

○ 선물/증여

- 증여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 국외 재산 보고

- 비칠레 국민은 해외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소득을 보고해야 함. 이 소득은 1929년 선언 진술서를 통해 선언된 다음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소득에서 일반 공제

(질문) 국가/관할권에서 허용되는 소득의 일반 공제액은 무엇인가?
 (답변) 칠레 소득세법에 의해 허용되는 소득에서의 몇 가지 공제 중 많은 부분이 저축 및 사회 보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와 관련이 있음.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로 사용할 수 있음

○ 일반 세금 공제

(질문) 국가/관할권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일반 세금 공제는 무엇인가?
 (답변)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공제 목록은 기부금, 교육비, 해외 소득세 공제

- 칠레 세금 목적의 거주자는 월별기준으로 칠레 거주자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0~40%까지 누진율을 가지는 2종소득세(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음

- 과세 표준 : 총급여액에서 사회보장비용을 공제한 금액

- 세율 : 0%~40% 누진세율 적용(2021.2월 현재)

과세소득 구간(폐소화)		세율	공제액
부터	까지		
0	690,268.50	0%	0
690,268.51	1,533,930.00	4%	27,610.74
1,533,930.01	2,556,550.00	8%	88,967.94
2,556,660.01	33,579,170	13.5%	229,578.19
3,579,170.01	4,601,790.00	23%	569,599.34
4,601,790.01	66,135,720.00	30.4%	910,131.80
66,135,720.01	15,850,610.00	35%	1,192,374.92
15,850,610.01	이상	40%	1,984,905.42

주) 월별 세금표는 인플레이션 목적으로 월별기준으로 업데이트 됨

○ 2종 소득세 계산 사례

(단위 : 매월, UTM)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13.5	0	70~90	25
13.5~30	5	90~120	32
30~50	10	120~150	37
50~70	15	150~	40

(출처: 칠레 국세청)

<2종 소득세 적용 UTM>

UTM/폐소화 환산액			
2020년	금액(페소)	물가지수	달러환산액(US\$)
1월	49,673	104.32	64.1
2월	49,723	104.71	64.1
3월	50,021	105.06	64.5
4월	50,221	105.01	64.8

(출처: 칠레 국세청)

<2종 소득세 계산 사례>

20.4월 총급여액	650,000 페소 가정	700,000 페소 가정
UTM 환산액 (과세표준)	12.94UTM (=650,000/50,221)	13.94 UTM (700,000/50,221)
세율	0%	5%
산출세액	-	0.022UTM (=(13.94-13.5)x5%)
산출세액 환산액	-	1,104.86페소 (약 1.4US\$)

○ 월별 소득세 신고

- (비거주자 세금) 비거주자 납세자가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임. 소득의 성격에 따라 매월 세금 보고를 통해 관련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2일임
- (거주자 세금) 칠레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납세자가 소득을 지불한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칠레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수 요구사항

- 거주 납세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비칠레 국민의 경우 칠레에서 처음 3년 동안은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4년차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됨
- 거주자 납세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도 사례별 분석 필요
비거주자 납세자의 경우 칠레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원천 징수세(급여 또는 월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짐)는 추가 연간 신고 의무가 없는 최종 세금
- 개인이 해외 급여를 통해 급여를 받고 칠레 급여에 이 소득을 보고하기 위한 그림자 급여가 없는 경우 월별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개인이 현지 칠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분할 급여 시나리오에서 발생함
- 월 소득세 신고는 칠레 급여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개인이 원천 징수하여 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의무임
- 마지막으로, 칠레에 배정된 외국인 개인이 연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칠레 국세 ID(RUT)와 칠레 국세청 웹사이트(www.sii.cl)의 비밀번호를 받아야 함

○ 기타사항

- 근로자는 매달 총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됨
- 사업주 1인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는 각 사업주로부터 받은 수입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다음 해 4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주 1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기타의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음
- 독립된 전문직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함
-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 보다 초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함

□ 개인 종합소득세(Global Complementary Tax ,GCT, Personal Tax)

- (정의) 글로벌 보완세 또는 개인 종합소득세(Global Complementary Tax or personal income tax (Impuesto Global Complementario)는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 벌어들인 총소득(개인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누진세로, 누진 세율은 0%~40%

- 글로벌 보완세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가능한 법인세 납부액, 법인세 대상인 소득을 포함
- 칠레 소득세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거나 주소가 지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간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 중 급여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임.
 - 이 세금은 근로자가 고용 소득과 다른 소득을 얻었거나 세금 혜택을 받았거나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적용됨
 - 위에 표시된 동일한 월별 표가 연간 세금 계산에 적용되며 세금 브래킷(구간)은 해당 인플레이션 요인에 대해 연 단위로 조정됨
 - 월별 및 연간 세금 테이블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라지는 세무 당국이 제공하는 월별 가치인 “Unidad Tributaria Mensual(월별세금단위)” 에 따라 결정됨
- 2020 과세년도 종합소득세(GCT)

과세소득 구간(폐소화)		세율	공제액
부터	까지		
0	8,266,698.00	0%	0
8,266,698.01	18,370,440.00	4%	27,610.74
18,370,440.01	30,617,400.00	8%	88,967.94
30,617,400.01	42,864,360.00	13.5%	229,578.19
42,864,360.01	55,111,320.00	23%	569,599.34
55,111,320.01	73,481,760.00	30.4%	910,131.80
73,481,760.01	189,827,880.00	35%	1,192,374.92
189,827,880.01	이상	40%	1,984,905.42

주1) 비거주자

- 임원이 비거주자로 간주되고 조세 목적상 칠레에 주소가 없는 경우 그들은 총고용 소득에 대해 15%의 고정세율로 부과되는 비거주자 소득세(추가소득세; 원천세)가 부과됨
- * 만약 해당 활동이 칠레 또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조언 또는 계획 개발을 통해 개인이 제공하는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작업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경우, 수행된 활동이 기술 또는 전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세율은 35%임

○ (납세의무자) 칠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 (과세대상) 국내외 발생원천 소득이 13.5 UTA(Unidad Tributaria Annual)*을 초과하는 경우

* UTA(Unidad Tributaria Annual)은 칠레에서 쓰는 연간 조세단위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매년 칠레 국세청에서 고시함. 1UTA는 2020년 기준으로 603,864페소(달러 환산액은 782불 정도)임.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연간 소득이 약 USD10,500를 초과하는 개인에 부과

- 세율 : 0%~40% 초과 누진세율 적용(2020년 기준)

(단위 : UTA, %)

과세표준(UTA)	세율	과세표준	세율
0~13.5	0	70~90	25
13.5~30	5	90~120	32
30~50	10	120~150	37
50~70	15	150~	40

(출처: 칠레 국세청)

- (기타사항) 2종 소득세(SCT)는 매달 총급여액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나 개인종합소득세(CGT)는 1년간 총소득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

※ 2021년 UTM(월별세금단위) - UTA(연간세금단위) - CPI(소비자물가지수)

- 다음 표는 2021년 월에 대해 페소로 표시된 UTM 및 UTA의 각 값을 보여줌. (각각 첫 번째 및 두 번째 열) 나머지 열은 해당 연도의 각 월에 대한 CPI와 현재 및 연간 누적된 월별 백분율 변동을 표시함

2021년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백분율 변동		
	UTM (1)	UTA (2)	포인트 값 (6)	월간 (3)	2021년 누적 (4)	지난 12개월(5)
1월	50.978	611.736	107,49	0,7	0,7	3,1
2월	51.131	613.572	107,69	0,2	0,9	2,8
3월	51.489	617.868	108,09	0,4	1,3	2,9
4월	51.592	619.104	108,50	0,4	1,6	3,3
5월	51.798	621.576	108,79	0,3	1,9	3,6
6월	52.005	624.060	108,88	0,1	2,0	3,8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백분율 변동		
2021년	UTM (1)	UTA (2)	포인트 값 (6)	월간 (3)	2021년 누적 (4)	지난 12개월(5)
7월	52.161	625.932	109,76	0,8	2,8	4,5
8월	52.213	626.556	110,15	0,4	3,2	4,8
9월	52.631	631.572	111,45	1,2	4,4	5,3
10월	52.842	634.104	112,94	1,3	5,8	6,0
11월	53.476	641.712	113,51	0,5	6,3	6,7
12월	54.171	650.052	114,39	0,8	7,2	7,2

(1) UTM= Unidad Tributaria Mensual(월별 세금 단위)

(2) UTA= Unidad Tributaria Anual(연간 세금 단위)= (UTM x 12)

(3) Variación mensual(월별 변동) : 매월 INE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해당

(4) Variación acumulada 2021(2021 누적 변동) :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누계액에 해당

(5) Variación Ultimos 12 meses(지난 12개월 변동) : 지난 12개월의 변동에 해당

(6) IPC Valor en Puntos(IPC 포인트 가치) :2019년 1월 현재 INE는 2018=100을 연간 기준으로 고려하여 CPI를 재계산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접합된 CPI 시리즈는 www.ine.cl에서 확인 가능

□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보험 종류	고용주 납부요율	근로자 납부요율	합계
연금계획(Pension Plan)	0%	10%	10%
생명 및 장애보험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1.85%	0%	1.85%
실업보험	2.4%	0.6%	3%
건강보험(Health Plan)	0%	7%	7%
산업재해보험	0.93%	0%	0.93%
합 계	5.18%	17.6%	22.78%

주) 외국인이 본국에 국민연금 가입시는 납부 제외, 고정기간 계약시 사용자가 실업보험 3% 전부 부담

라. 부가가치세

(출처: KPMG,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8/10/chile-indirect-tax-guide.html>)

□ 부가가치세 개요

판매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IVA)이라고도 하는 칠레 부가가치세(VAT)는 공급망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에 적용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칠레에 위치한 동산의 반복적인 판매 또는 양도
- 토지를 제외한 칠레에 위치한 부동산의 반복적인 판매 또는 양도
- 칠레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유형의 서비스 공급
- 칠레에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서비스 유형의 활용 또는 소비
- 건설 활동
- 재화의 수입
- VAT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열된 기타 과세 대상 이벤트

□ 부가가치세 등록

- VAT 목적을 위한 특별 등록은 없으나, 모든 납세자는 납세자 식별 번호(RUT)를 획득하고 칠레 세무국(SII)에 등록하고 활동 시작 통지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등록에는 VAT 과세 대상자뿐만 아니라 칠레 세법(소득세, VAT 등 포함)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유형의 납세자 및/또는 과세 대상자가 포함됨. 이러한 의무는 비거주 납세자의 칠레 지점 또는 칠레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됨
 - 면제 결의안 No. 56/2016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무국(SII)에 신청하려면 전자 신분증(e-RUT)을 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 세율

-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9%로 수입자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에게 적용됨
- 건설계약, 부동산의 임대, 특허권 및 상표 임대 등에 부과되며, 부동산 매매에는 부과되지 않음
- 수출 상품 원재료 및 자본상품은 면세 혜택이 있음
- 수출 상품 : 선적한지 1개월 내 재무부 청원시 국내 판매세 면세, 부가가치세의 상황이 인정됨(법령825조 36항)

- 체납시 벌금형 및 20일 이상의 영업 중지가 적용됨. 반복 위반시 감금형
- 칠레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가세 하향 조정
 - 내국세법(D.L.824)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 부가세는 종전 37%에서 32.5%로, 명목 부가세는 종전 40%에서 35.0%로 축소됨
 - 외국인 투자법(D.L.600)에 의한 부담인 경우 실질 부가세는 종전 45.55%에서 37%로, 명목 부가세는 종전 49%에서 40%로 축소됨
- * 단, 이 경우에는 법인소득세 10% 공여, 10년간 고정 지불 조건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질문) VAT/GST 및 기타 간접세 신고는 얼마나 자주 제출됩니까?

(답변) 매월(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격월로) 제출함. 칠레 납세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는 항상 칠레 통화(페소)로 발행되어야 하며, 외화 가치를 표시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송장 발행일의 유효 환율에 해당하는 칠레 페소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환율을 나타냄

□ 국제 상품 및 서비스 공급

- 상품 수출
 - 상품 수출은 일반적으로 VAT가 면제됨. 수출업자는 구매, 공급, 고용 또는 수입에 대해 지불한 VAT를 현지 운영에 부과된 VAT에 대한 입력 크레딧 또는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서비스 수출
 - 서비스의 수출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수출 서비스 신고가 이전에 세관 당국으로부터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가 이전에 세관 당국이 수출 서비스로 신고한 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만 VAT가 면제될 수 있음
 - * 수출 서비스로 선언된 서비스 목록은 당국에서 관리하며 www.aduana.cl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재화 수입
 - 상품이 칠레로 수입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상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함
 - VAT는 상품의 관세에 부과된 관세를 더한 금액에 적용됨
 - 수입 시 납부한 VAT는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동일한 기간에 투입 크레딧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서비스 수입

- 칠레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칠레 외부 또는 칠레에서 제공되는 기술, 엔지니어링 또는 전문 서비스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VAT가 면제됨
- 기타 모든 경우(예: 기술, 엔지니어링 또는 전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칠레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VAT가 적용됨. 이 때 지방납세자는 과세대상 사건이 종료된 다음 달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진신고한 후, 익월에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함

마. 원천징수세

○ 추가 소득세 또는 원천징수세(Additional Tax or Withholding Tax (Impuesto Adicional), WHT)는 일반적으로 35%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소득이 인출, 배당으로 분배, 해외로 송금될 때 버거주 개인 또는 비거주 법인(회사)이 수령한 전체 총수입에 대해서 단일 세율 35%를 적용함
- 배당 분배에 관하여, 배당을 분배하는 회사(배당 지급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될 수 있음
- 게다가 파트너 또는 주주가 칠레와 이중과세방지조약(Double Taxation Treaty, DTT)을 맺은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라면, 납부된 법인세는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전부 공제되어야 함
- * 추가로 원천징수세는 기술지원, 수입이자, 로열티 등과 같이 칠레로부터 지급된 측정 해외 지급의 경우 여러 세율로 유발됨
- 최종세(Final Tax)에는 글로벌 보완세(개인 종합소득세), 추가 소득세(원천징수세)가 해당함

□ 원천징수세

- 칠레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과 법인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됨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	35(*5/10)
법적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등의 이자	4(*5/10)
상표권, 로열티, 특허권, 자문료 등 유사용역	30(*2/10)
영상물	20(*10)
저작권료 등	15(*10)
기술지원 자금 송금액	20(*10)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등의 활동으로 외국인이 얻은 수입	20(*10)

(출처: 칠레 국세청) *한-칠레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세 한도

- 비거주자 수령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추가’ 세금의 35%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기업 수준에서 지급된 1종소득세(FCT)는 원천 법인이 속한 소득세 시스템에 따라 이 원천세(WHT)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 가능함
- 이 공제는 추가 WHT에 대한 과세 기 형성을 위해 분배되는 금액에 추가됨
- 결과적으로, 회사 차원의 세금을 포함해 배당금을 받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은 중소기업제도의 적용을 받거나 이중과세방지협정(DTT) 국가 거주자의 경우 35%, 부분통합과세시스템(PIS)의 적용을 받고 DTT 국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4.45%임
- 법인이 중소기업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 배당금을 받는 외국인인 법인 수준에서 지급된 FCT의 100%를 적립할 수 있음
- 법인이 PIS의 적용을 받고 배당금의 외국인 수령인이 칠레와 DTT가 시행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 납세자는 추가적인 원천세에 대하여 법인 수준에서 지불한 FCT의 100%를 공제할 수 있어 그들의 총 칠레 세금 부담은 35%가 될 것임
- 반대로, 배당금을 분배하는 법인이 PIS의 적용을 받지만 그러한 배당금의 외국 수령인이 칠레에 DTT가 시행되는 국가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추가 WHT에 대해서만 법인 수준에서 지급한 FCT의 65%만 공제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상황에서 외국 납세자는 총 칠레 세금 부담이 44.45%가 됨
- 지점은 송금 또는 인출 금액에 대해 FCT 공제를 차감하고 35%의 WHT 세율이 적용됨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일반적인 35%의 WHT가 적용되고, 외국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부여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4%의 WHT가 적용됨. 35% 미만의 금리가 적용되는 차입금을 특수관계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x 100) 3:1을 요구하는 과소자본화 규정이 적용됨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WHT가 적용됨.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로열티 지불은 소프트웨어가 맞춤화되지 않았거나 표준이 아닌 경우 15%의 추가 WHT가 적용되며 소프트웨어가 맞춤화되거나 표준인 경우에는 원천세가 면제됨
- * 이 세율은 지급의 수혜자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경우 인상됨. 생산성법은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율 인상을 없앴

□ 한-칠레 조세조약

- 2003년 7월25일 발효, 2004.1.1./2017.1.1./2019.1.1.이후 일부 인하
- 대상조세 : 칠레(소득세법상 조세), 한국(소득세, 법인세 등)
- 거주자 : 주소·거소·관리장소·설립장소·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일방채약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임. 해당 연도 또는 2년 동안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거주자로 분류
- 비거주자 : 해당 연도 또는 2년 동안 국내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경우임
- 배당소득세
 -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그 배당총액의 5%를 한도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를 한도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이자소득세
 - (1) 은행 및 보험회사, 장비신용판매 기업, 총소득의 상당 부분이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대출 및 금융업(신용장 발행, 보증 제공, 신용카드 서비스 포함)을 능동적·정기적으로 수행하여 발생하는 기업이자, (2) 이자 지급자와 특수관계 없는 경우, (3) 직전 3개년도에 금융시장 채권 발행 또는 예금수신이 부채의 50%를 초과하며 (4)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이 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이자 : 2003.7.25. 10%, 2004.1.1. 5%, 2017.1.1. 4%
 - 거래소상장 채권이자 : 2004.1.1. 5%, 2017.1.1. 5%
 - 그 밖의 경우에는 이자총액 : 2017.1.1. 15%, 2019.1.1. 이후 10% 적용
- 사용료세
 -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 5%(2017.1.1. 이후 2% 적용)
 -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2004.1.1.이후 10%로 인하) 적용
 - 사용료: 아래*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의장·신안·도면·비밀 공식·공정이나 그 밖의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나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 관련 정보 등

바. 세금 우대

□ 투자 인센티브

○ 주요 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국가의 최북단 및 최남단 지역에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 및 기타 인센티브
- 임업 회사, 석유 운영 계약 및 핵 물질 운영에 대한 세금 혜택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혜택

□ 법령 No 600(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인바운드 투자 인센티브:

○ 외국 자본 출자를 장려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자본 송환, 이익 송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 금지, 송금 목적의 외환 시장 접근을 포함하는 법적 보증임

-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42%의 보장된 소득세율이 10년 동안 부여될 수 있음

* 자본 투자 프로젝트가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칠레 정부 간의 외국인 투자 협정 체결을 고려하는 법령 No 600에 따라 산업 또는 채굴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20년 동안 부여될 수 있음

- 법령 N° 600 및 해당 외국인 투자 협정에 따라 전체 세율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금 또는 지점 이익 분배에 대한 원천세(WHT)로 구성됨
- 배당 또는 이익 분배에 대한 세율은 42%와 기업에서 납부하는 기초 세금의 차액임
- 10년 또는 20년 동안 변경 없이 종합 실효 세율 42%를 적용받는 옵션은 이익과 배당금 분배에 대한 현재 합산 실효 세율이 일반 조세제도에서 35%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행사하지 않음
- 외국인 투자 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 제도와 관련하여 조세 안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관세와 관련하여 안정성은 칠레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기계 및 장비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여됨
- 세금 개혁은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2016년 1월 1일부로 법령 No 600을 폐지함. 그러나 2015년 6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법률 No 20,848은 2016년 1월 1일자로 기산되는 4년 동안 법령 No 600의 집행 가능성을 연장함
- 외국인 투자 위원회와 법령 No 600에 따라 이미 투자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계속 받음. 반대로, 2016년 1월 1일부로 신규 투자는 법령 No 600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법령과 법령 No 20,848에 따라 제정된 신규 외국인 투자 법령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음

- 법률 No 20,848은 칠레에 '직접 외국인 투자'의 틀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장관 위원회와 외국인 투자 촉진 기관을 구성함
- 공식 교환 시장을 통해서만 칠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이 두 가지 외국인 투자 체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기타 세금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법) 일반적으로 OECD의 다국적 기업 및 세무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이 법은 동시 문서 요구사항, 정보 보고서 제출 및 불이행에 대한 특정 처벌을 설정함
 - 법에는 OECD 가이드라인에 설정된 방법의 채택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설명된 방법은 해당 가이드라인과 일치함
 - 이 규칙은 또한 최선의 방법 규칙을 채택하고 칠레 소득세법에 설명된 방법이 회사 간 거래의 정상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불특정 방법의 사용을 허용함
- 마지막으로, 소득세법에는 일방적 또는 다자간 사전 가격 계약(APA, 사전 가격 합의제도)을 체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됨
 - 칠레 세무당국은 해당 요청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행정 항소 절차의 대상이 아님. APA는 4년 동안 유효해야 하며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Country-by-country (CbC) report:
 - OECD 회원국인 칠레는 다국적 기업에게 무엇보다도 관련 관할권에 있는 그룹의 기업 수입, 결과 및 세금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조치 13을 적용함
 - 지난 회계연도에 그룹의 연결 수익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EUR)인 경우 다국적 기업 그룹의 칠레 거주지가 있는 최종 모회사 또는 컨트롤러 법인은 6월 30일까지 연간 선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과소자본제도(Thin Capitalization)

- (과소자본 규칙) 부채 대 자기자본 비율(부채비율)이 3:1인 특수관계자 대출에 적용됨
 - △35%의 단독 패널티세가 35% 미만의 세율로 추가 원천세 적용을 받는 또는 △납세자가 부채 상태를 초과할 때 국내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았거나 DTT에 따라 인하된 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세되지 않은 대출과 관련된 이자, 수수료, 서비스 또는 △기타 재정 지출에 부과됨
- 초과 부채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납세자가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연간 총 부채는 특수관계자와 또는 기타의 자와 국내외 모든 대출이 고려됨
- 회사가 부채 상태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은 국내법 또는 DTT에 따른 할인을 적용으로 인해 과세되지 않았거나 35% 미만의 세율로 4%의 추가 WHT가 적용되는 특수관계자가 부여한 국경 간 대출에만 적용됨

4 노동 관련법

가. 칠레 노동법

(출처: <https://world.moleg.go.kr/>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 노동법 개요

- 본 노동법은 사업 및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의회, 사법부의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근로자는 특별 현장을 적용받음. 총 5편 513조 및 경과조항으로 구성되며, 개별 근로계약 및 직업훈련, 근로자 보호,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함

□ 노동법 목차

부	편	장	절
노동법 전문 전편			
제1부 개별	근로계약 및 직업훈련		
	제1편 개별근로계약		
		제1장 총칙	
		제2장 계약체결자격 및 미성년자의 근로에 관한 규정	
		제3장 근로자의 국적	
		제4장 근로시간	
			제1절 소정근로시간
			제2절 초과시간
			제3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제4절 주당 휴게시간
			제5절 단시간 근로
		제5장 임금	
		제6장 임금의 보호	
		제7장 연중 공휴일 및 휴가	
	제2편 특별계약		
		제1장 실습계약	
		제2장 농업분야 근로자의 계약	
		제3장 선원 및 일용직 하역 근로자의 계약	
		제4장 예술·공연 분야 근로자의 계약	
		제5장 가사 근로자의 계약	
		제6장 전문체육인 및 인접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계약	
		제7장 상업용 승객·화물 항공기의 운항사 및 승무원의 계약	
	제3편 내규		
	제4편 의무 복무		

부	편	장	절
	제5편	근로계약의 종료 및 고용의 안정	
	제6편	직무교육	
	제7편	도급체제에서의 근로 및 파견사업에서의 근로	
총칙			
제2부 근로자의 보호			
	제1편	총칙	
	제2편	모성·부성의 보호 및 가정 생활	
	제3편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	
	제4편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제5편	수작업 하역 근로자의 보호	
제3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제1편	노동조합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의 구성
		제3장	규약
		제4장	대표부
		제5장	총회
		제6장	조합비
		제7장	연맹 및 연합
		제8장	조합
		제9장	불공정 또는 반노조 행위 및 제재
		제10장	노동조합의 해산
		제11장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 및 제재
	제2편	근로자 대표	
제4부 단체교섭			
	제1편	총칙	
	제2편	단체협약안의 제출 및 수속	
		제1장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단체의 협약안 제출
		제2장	기타 노동조합의 협약안 제출
	제3편	단체 협약	
	제4편	조정	
	제5편	중재	
	제6편	파업 및 직장폐쇄	
	제7편	선원의 단체교섭	
	제8편	단체교섭에서의 불공정 행위 및 제재	
	제9편	단체교섭의 법적 절차	
	제10편	국가의 노동관계 중재자 또는 중재단의 명부	
	제11편	특별 명부	
제5부 노동사건 관할지역			
	제1편	노동법원 및 임금·사회복지비용 회수 법원 및 소송	
		제1장	노동법원 및 임금·사회복지비용 회수 법원
		제2장	노동사건의 재판 및 소송의 형식적 요건의 원칙
	제2편	과태료 청구 절차 및 그 밖의 행정결정	
최종편 감사, 제재 및 시효			
경과조항			
공포			

나. 일반 개황

(출처: 한페루 인프라협력센터, 해외건설협회, 2021.12.31.)

□ 근로계약

- 노동법 19조에 의거 2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85%는 칠레 국적자여야 하며 25인 미만인 사업장은 예외로 함. 그 외 칠레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자도 고용 의무 계산 시 예외로 함
 - 칠레에서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외국인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칠레 국민이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국적이 칠레인 외국인은 모두 칠레 국적자로 간주
 - 칠레에 법인이 없는 국내 건설사 발주를 통해 진출한 경우에도, 상기 노동법에 똑같이 적용받음
- (인정연령)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최소 연령은 18세
 - (15세 이상 18세 미만) 보호자 동의 아래 자신의 건강이나 성장을 해치지 않는 단순 업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근로활동으로 인해 수업에 결석하거나 교육에 불참하여서는 안되며, 현재 중등교육을 이수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18세 미만) 과한 육체노동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야간 근무가 금지됨
 - (21세 미만) 사전 적합여부 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지하에서 행하는 광업에 종사할 수 없음
- 근로계약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계약 장소 및 날짜
 - 계약 당사자의 국적 및 출생일 등 인적 사항
 - 근로의 성격, 근로 장소, 근로자의 기능
 - 임금 총액과 지급 형식 및 지급 기간
 - 근로 시간(교대 근무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 기간
 - 그 외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
 - 그 외 사용자가 제공하는 주거, 전기요금, 연료비 등

□ 노동조합

- 인력의 13%가 노동조합에 가입. 10% 이하가 단체협상을 통해 계약
- 노동자연합단체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CUT)는 근로계약 및 최소 임금 등 광범위한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자 및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함. 부문별 협상은 금지됨
- 산별노조 중 가장 강력한 단체는 구리노동자연합(federation of Copper Workers)으로 국내의 구리 생산자들 (unions of Codelco)의 연합임
- 노사관계 :
 - 민간부문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조화로워 파업도 거의 없음
 - 파업은 근로자의 다수가 찬성했을 때 법적으로 인정. 회사는 파업기간 중 파업 15일 후부터 단기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이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됨
 - 정부는 15일 내의 파업 후에 다시 업무로 돌아온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함
 - 파업은 근로자들 대다수의 승인 후에 종료됨
 - 공공부문 파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많이 일어남

□ 사회보장제도

- 사용자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질환에 대비할 의무가 있음
- 연금제도는 사회연금, 개인연금, 최저보장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8년 연대연금이 도입되며 4개의 연금제도로 구성됨
 - 1981년부터 실시된 개인연금은 피노체트 정권하에서 구 사회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이를 연금관리회사(AFP)에서 개인별 계좌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과 함께 가입자에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민영연금제도임
- 연금관리회사(AFP) 가입은 피고용인이 독립적으로 행하며, AFP는 사용자에게 분담금 액수를 알려야 함
 -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중 연금보험은 총급여의 최소 12.3%이며, 연금보험은 총급여의 최소 12.3%임

다. 근로조건

□ 근로시간

- (근무시간) '05년부터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5시간이며,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함. 점심시간(최소 30분 이상)은 근무시간에 미포함이며 무급임. 초과근무 시에는 기본 시급 외 50%의 추가근무수당 지급
 - 다만, 부사장, 이사, 부장 등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소매업 근로자는 1개월에 최소 1회 이상 일요일에 휴무를 해야 함
 - 현재 주당 45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법안 개정 추진 중임
- 고용주는 사업장에 근무시간 기록부(Libro de Asistencia, 리브로 데 아시스턴시아)를 비치하여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
 - 노동청에서 작업장 실태 조사를 나올 경우 근무시간 기록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 받음
 - 또한 노무관련 소송 발생 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치하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함

□ 휴가

- (휴가) 근무연한이 1년 경과 시 근로자는 연간 근무일 기준 15일의 유급 휴가를 가짐
 - * 단, 칠레 남부 Magallanes, Aysen, Palena 지역과 남극 지역은 2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 근속연수가 10년이 되면 이후 3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35일까지 추가됨
 -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사전에 합의해 허가를 받아야 함
- (출산휴가) 임신부는 총 30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a>12주 + b>12주)의 출산휴가를 갈 수 있으나, 다른 선택도 가능함
 - 즉, 두 번째 12주 동안 급여 50% 조건으로 반일 근무 시 12주 대신 18주로 연장 가능하고 혹은 두 번째 12주 중, 7번째 주부터는 남편이 대신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한 사회보장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음

- (병가) 질병 혹은 사고 시 의사의 진단서가 명시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병가를 가질 수 있음. 병가 기간 중 고용주는 임금지불의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의료보험사로부터 해당 기간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음

□ 정년

- 칠레의 정년은 남자 65세, 여자 60세임

□ 근로계약(2018년 6월 칠레 노동법 기준)

- 고정기한 계약(Contrato a plazo fijo)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으며 갱신될 수 있고 (동일하거나 그 이하의 기간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위 소지자 또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이 인정한 기술적 학위를 소지한 관리자 등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 고정기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기한 계약으로 변경됨
 - a. 고정기한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고용주의 인정 하에 피고용인(근로자)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b. 두 번째 고정기한 계약 후, 예) 고정기한 계약 3개월 + 고정기한 계약 3개월 후에는 무기한 계약
 - c. 첫 번째 계약으로부터 1년, 또는 15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불연속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 예시), 고정기한 계약 6개월(2017. 2. 2. ~ 2017. 8. 2.), 고정기한 계약 4개월(2017. 8. 20. ~ 2017. 12. 20.), 고정기한 계약 3개월(2018. 1. 20. ~ 2018. 4. 20.). 이를 계산해 보면 근로자가 일한 기간은 15개월 이내이며, 고정기한 계약을 2회 이상 했음. 그러므로 마지막의 3개월 고정기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기한 계약으로 변경됨
- 무기한 계약(Contrato a plazo indefinido) : 계약 시작일만 있고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임
 - 1년 이상 지속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피고용인은 근무연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단, 피고용인의 자발적 사직 시에는 제외) 회사(고용인)의 요구에 의해 계약 종료될 시에는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 받거나 (피고용인과 노동청) 한 달 치의 월급으로 보상됨
 - 아울러,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보상됨

- 일정업무 기한 계약(Contrato de Faena) : 근로자가 고용된 직무나 작업의 완성 시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 시에 작업 또는 특정 업무(근로자의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가 명시돼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된 일의 끝마침 기간에 따라 주어짐
 - 프로젝트성, 계절성, 임시성 계약임
- 파트타임 계약(Contrato a tiempo parcial) : 이 계약에서는 근로자가 주에 30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음
 - 필요 또는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쌍방간의 합의 하에 초과 근무가 허용되나, 일상 업무는 연속적이어야 하고 하루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식(간식) 시간은 30분 이상에서 1시간 이내여야 함
 - 근로자는 풀타임 근로자를 위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다른 권리를 향유함
- 수수료 계약(Contrato a honorario) :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유형의 계약으로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권리를 갖지 못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은 직업적 관계를 수립하기에 충분한 시간 및 서비스가 투자되지 않는 산발적인 작업과 관련이 있음
- 칠레 노동법에 따르면 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하지만 일정업무 기한계약이나 30일 미만의 계약에 있어서는 기한이 5일로 줄어듦
- 고용주의 의무 :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연금 및 건강 보험(AFP e Isapre/Fonasa) :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연금 및 건강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하며 이는 피고용인의 총급여에서 공제됨
 - 직장 사고 보험(Seguro contra accidentes laborales) : 의무보험으로,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함. 피고용인의 급여에 따른 과세 급여의 0.95%(기본 0.93%)를 고용주가 부담함
 - 실업보험(Seguro de Cesantía) : 의무보험으로, 실업 상태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함. 고정기한 계약의 경우에는 과세 급여의 3%를, 무기한 계약의 경우에는 3%중에 2.4%를 고용주가, 나머지 0.6%는 피고용인과 정부가 부담함
 - 장애 및 생존보험(SIS, Seguro de Invalidez y Sobrevivencia) : 피고용인 과세 급여액의 1.41%를 고용주가 지불함(보조연금을 받는 청년 근로자 제외)

라. 임금 및 복리후생

□ 임금

- 2020년도 9월 법정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326,500페소(주 최대 근무 45시간 기준)이며 2022년 8월 현재 최저임금 400,000페소임
 - 대졸 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 1,169.4 달러
 - 고생 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 449.7 달러
 - 시간당 최저임금(1달 4주, 주 45시간 기준) : 2.49 달러
- 업종별로 광업, 금융, 전력, 제조업, 서비스 순으로 임금이 높으며 농업과 임업은 하위에 머무름
- 주요 산업이 광산이 밀집한 II, III 지역의 평균 급여가 수도인 산티아고 보다 높게 형성되었으며, VII 지역이 가장 낮음
- 기업이 클수록 평균임금은 높은 모습을 보임

□ 여성 근로자 보호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6주와 출산 후 12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배우자(남성)은 자녀 출생 시 5일의 유급휴가를 가짐
 - 12주간의 출산 휴가 이후 12주간의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동 시기에 보조금을 지급받음
- 2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령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수유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독립공간을 마련해야 함
 - 수유를 위한 휴식 기간은 1일 최소 1시간임

마. 고용절차

□ 고용계약

- 만 18세 이상은 정식 고용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인 자는 친권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후 가능함
- 특정한 업종에 임시고용이 가능함
- 근로시간 및 업종이 계약서에 명시되고 일반사회보장 지급을 준비해야함. 3개월간 임시 고용이 가능하며 동기간이 지나면 계속고용으로 기간이 연장됨
- 노동계약은 지역마다 다르며 식대 및 직장과 3km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교통비도 지급하여야 함

□ 해고 절차

- 30일 전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30일 급료 및 연간 1개월 급료를 추가하여 (11개월까지) 지급 및 계약을 종료(해고)해야함
- 보상금은 단체협상을 통하여 인상하며 계약해제 보상금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나타나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정당한 해고 사유 :
 - 생산라인에 심각한 단절을 야기시키는 근로자의 이틀 연속 무단 결근
 - 월 2일의 월요일 결근
 - 월 3회 무단 결근 및 통보 없는 결근
 - 계약서에 명시된 작업을 이유 없이 거부
 -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관련된 원인
 - 기타 (자연재해, 부도덕한 품행, 태업 또는 불법파업의 참여) 등
-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회사는 3일 내에 노동감독관에 통지해야 함

□ 외국인 고용

- 외국인 고용은 고용 규제사항임
 - 25명 이상의 회사는 85% 이상이 칠레인 근로자이어야 함
 - 칠레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외국 기술자들(컴퓨터부문 제외)은 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과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는 칠레인들은 동일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외국인 고용절차
 - 고용계약이 제출되면 취업비자를 발급함
 - 외국의 칠레 영사관에서 주거권을 획득함
 - 외국의 연금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칠레의 연금기금을 납부할 필요 없음

□ 근로계약 방식

- 기간 미지정
 - 계약 당사자 간 사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음.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로 노동법 제159조와 160조, 161조에 명시된 사유에 의해 계약 종료 가능함
- 기간 지정
 -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 시점에 유효기간을 명시함. 최대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전문/기술직의 경우 2년임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하며, 2회째 갱신시 기간 미지정 계약으로 전환됨. 체결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미지정 계약으로 전환됨
- 사업 및 업무 단위 계약
 - 특정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속기간에 한정해 계약을 체결함
- 전문적 서비스 제공 계약
 - 전문적 서비스 제공 계약 관계는 사안에 따라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규제됨

바. 출입국 관리

□ 입국사증

- 외국인의 경우 칠레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비자를 신청해야 함. 임시거주(residencia temporal)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 더 연장 가능. 임시거주비자로 2년을 체류한 자는 영주권(permanencia definitiva)을 신청할 수 있음
- 계약이 해지되면 취업비자는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 해지 이후 더 머무르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 사증면제협정

- 우리나라는 칠레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단순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단기(90일 이내) 방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칠레 입국 가능
- 취업, 유학, 동거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주한 칠레 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한 후 입국
- 미국 시민권자 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는 각각 100 달러, 50 달러의 입국세 징수
- 사증 면제와 별도로 항공사 데스크에서 체크인할 때 돌아오는 비행기 표가 없으면 탑승을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

□ 비자 종류

- 관광(Turista, tourist)
 - 관광, 방문목적, 최장 90일까지 부여 1회 연장 가능.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방문시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 가능
- 거주비자(Residente, resident)
 - 공무거주(Residente Oficial, official resident): 외교관,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에게 발급
 - 임시거주(Residente Temporario, temporary resident): 상용, 친척 초청, 취재, 종교 등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재 시 부여(지·상사 주재원도 최초 입국 시 1년간 임시거주비자를 받음)
 - 유학거주(Residente Estudiante, student resident): 유학생에게 발급
 - 계약거주(Residente Sujeto a Contrato; resident subject to contract): 고용계약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발급, 갱신 가능
- 영주(Permanencia Definitiva, definitive permanence)
 - 최소 1년 이상 계속 주재국에 거주한 후 신청 시 심사 후 영주사증 발급. 영주권 신청자는 칠레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활동(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출입국 수속

- 입국 시 입국신청서 및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동식물 및 음식물 반입은 엄격히 통제하므로 입국 시 식품(천연식품, 가공식품 불문)이 있을 경우, 무조건 세관신고서 반입신고를 하고 반입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음
 - 브라질을 경유하여 칠레에 입국하는 경우, 브라질 특산품인 프로폴리스가 압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 필요함. 만약 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예방접종은 불필요하며, 공항세(tasa de embarque,boarding fee)는 국제선의 경우 30달러로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음
- 칠레 국적자가 비자를 취득할 때 비자대금을 지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로 입국세를 부과하는데 해당국가는 미국(160달러), 호주(95달러), 캐나다(132달러), 멕시코(23달러)임
- 칠레 출국 시에는 산티아고 공항 3층 출국장에서 여권과 입국 시 작성한 입국신고서를 휴대하여 출국수속을 밟음. 입국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작성함

V. 진출 사례

1 프로젝트별 사업현황(EPC, PPP 사업 등)

가. 한국 건설업체 주요 완공 공사 현황(EPC/시공/엔지니어링 분야)

<한국건설업체 주요 완공공사>

(단위:미화 천달러)

업 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포스코건설	코크레인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Empresa Electrica Cochrane S.A	961,245	2013/04/04 2016/09/20
포스코건설	칠레 안가모스 석탄화력발전소	AES	875,983	2008/04/04 2011/10/02
포스코건설	칠레 Campiche 240MW 석탄화력 발전소(Nueva Ventanas III의 Copy Project)	AES	468,550	2008/04/30 2013/03/13
삼성ENG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	Kelar S.A.	434,080	2014/02/01 2016/12/28
포스코건설	벤타나스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	Empresa Electrica Ventanas S.A.	377,692	2006/12/01 2009/12/31
세아STX	보카미나 화력발전소 1호기 반건식 탈황설비 설치공사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S.A. (Endesa)	51,813	2012/04/19 2017/09/30
세일E&C	보카미나 2 화력발전소 BOP 기계 배관 설치공사	엔데사	43,715	2010/09/06 2012/07/31
세아STX	타라파카 발전소 반건식 탈황 EPC 공사	셀타	39,249	2014/05/30 2017/05/15
효성중공업	500/220 kV 차루아 프로젝트	트랜셀렉(칠레 전력청)	35,390	2011/01/04 2013/07/04
포스코건설	칠레 PLAMEN Project - 용역	피알엠	23,328	2014/12/31 2016/08/31
포스코건설	산타마리아 1 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용역	콜번	17,738	2011/02/21 2012/08/31
포스코건설	Santo Domingo 광산 LNTP-2 용역	미네라 산토도밍고	1,454	2019/04/04 2019/06/30
한미외장	판넬제작설치공사	피알엠	1,257	2015/05/13 2016/10/30
포스코건설	Santo Domingo 광산 LNTP-1 용역	미네라 산토도밍고	840	2019/03/08 2019/09/16
한미글로벌	칠레 태양광발전사업 CM용역	에스에너지	825	2017/07/01 2020/03/31
수자원공사	칠레 탈카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누에보수르	150	2016/10/19 2017/04/18

(출처: 해외건설협회)

나. 교통인프라 분야

□ 도로 PPP 사례

(출처: Chemonics International의 Patricio Mansilla, 베르나르도 위버(BERNARDO WEAVER), 2009년 9월 23일)

- PPP에 대한 칠레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예(LPVR : Least Present Value of Revenues, 수익의 최소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한 PPP 입찰 메커니즘
 - Chemonics International의 Patricio Mansilla는 칠레가 PPP 설계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다고 설명함
 - 정부는 LPVR(Least Present Value of Revenues, 수익의 최소 현재가치)을 기반으로 한 PPP 입찰 메커니즘을 실험함
 - LPVR 접근 방식의 혁신적인 특징은 계약 기간이 항상 가변적이라는 점으로, 종료 날짜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일반 PPP와는 대조적임

- 고정 기간 입찰 양허 대비 LPVR 방식의 장점
 - 양허권자 친화적이므로 각 거래에 대해 많은 입찰자가 참여 가능. (입찰자 부족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PPP 거래의 문제임)
 - 일반적인 기간제 계약에 비해 시행이 용이함. 이는 때때로 컨소시엄의 지급 능력과 전체 프로젝트를 위협할 수 있는 재협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함

- 양허를 집행하는 정부의 유일한 부담
 - 양허권자의 운영 현금 흐름 수익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임. 프로젝트 자체의 지급 능력과 전반적인 성능 및 유지 관리를 확인할 필요가 여전히 있지만 훨씬 적은 압력으로 달성할 수 있음
 - 결국, 이러한 부담은 투자회수에 대한 양허권자의 관심으로 인해 완화됨. 추가 이익의 기회는 없으며 지연은 수익 인식을 연기할 뿐임

- 일반적인 고정 기간 PPP와 가변적인 계약 기간 PPP의 차이점
 - 일반 프로젝트에서 양허권자는 재협상 패널티와 대출 불이행 위험에 따라 대출 마감일을 맞춰야 해 때때로 계약이 종료 날짜에 가까워지고 양허권자의 비용을 충당할 요금 수입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 양허권자의 전체 비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지연되거나 법원 및 행정 장소에서 요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LPVR 모델에서 대주단은 통행료로 인한 주어진 수익 흐름이 기존 예상보다 수 개월 또는 수 년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이 기간의 변동성을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포함함

- 위 이론의 현실성 입증을 위해 LPVR 접근 방식의 구체적인 이점을 보여주는 칠레의 두 가지 예를 제시함

- 도로 프로젝트 : 산티아고 비냐 델 마르- CH68(Santiago Viña del Mar-CH 68)
 - 1998년에 양허권자인 Rutas Del Pacífico는 칠레 정부에 유료 도로 건설을 위해 미화 3억 8,100만 달러를 제안했으며 (추가 입찰자가 실격 처리된 후) 세 명의 다른 입찰자*와 경쟁하여 양허를 받음
 - * Securitas(3억 8,900만 달러), Autopistas de Peaje(4억 4,200만 달러), Cicasa 칠레(4억 5,200만 달러)
 - 기본 프로젝트에는 130km의 도로 주요 개선 및 확장과 3개의 신규 터널 건설이 포함됨. 양허의 기준 기간은 25년으로, 양허권자가 25년 이내에 LPVR 비용에 미리 설정된 이익을 더한 경우 단축될 수 있음
 - 반대로, 25년 동안 양허권자가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계약 기간은 LPVR의 총금액(이 경우 US\$3억 8,100만)을 얻을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됨
 - 칠레에서 최소 수요보장이 양허권자에게 추가 비용으로 별도로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보장은 실제로 두 명의 후보자에 의해서만 선택됨. 이는 투자자들이 거래에 대해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보여줌
 - 공공 사업부의 추정에 따르면 낙찰자는 음수인 현재가치 할인율을 제시함. 공공사업부는 LPVR 모델 자체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하여 위험 프리미엄을 너무 높게 설정했을 것으로 보임
 - 이 거래는 2002년 Project Finance Magazine에서 올해의 라틴 아메리카 교통 거래로 선정됨

□ 공항 PPP 사례

○ 공항: 이키케와 푸에르토 몬트(Iquique and Puerto Montt)

- 칠레 북부의 Iquique 공항과 남부의 Puerto Montt는 모두 2008년에, LPVR 입찰 메커니즘을 통해 조달됨
- 그러나 도로 양허권과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는 도로는 양허권자에게 지불하는 통행료에 의존하는 반면, 공항은 항공 승객당 요금에 의존한다는 점임
- (Iquique) 정부에서 설정한 최대 LPVR은 약 US\$19,426,000, 그리고 낙찰자(Arrigoni-Sifon-Tecas)는 치열한 경쟁(5명의 입찰자) 하에서 US\$12,737,000를 제안함
- (Puerto Montt) 상한선은 US\$23,700,000로 설정되었으며 낙찰가는 US\$15,337,000인 ACC-Icafal-Vecta였음. 이 거래의 입찰 경쟁자는 6명으로, 라틴 아메리카 PPP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 경쟁보다 치열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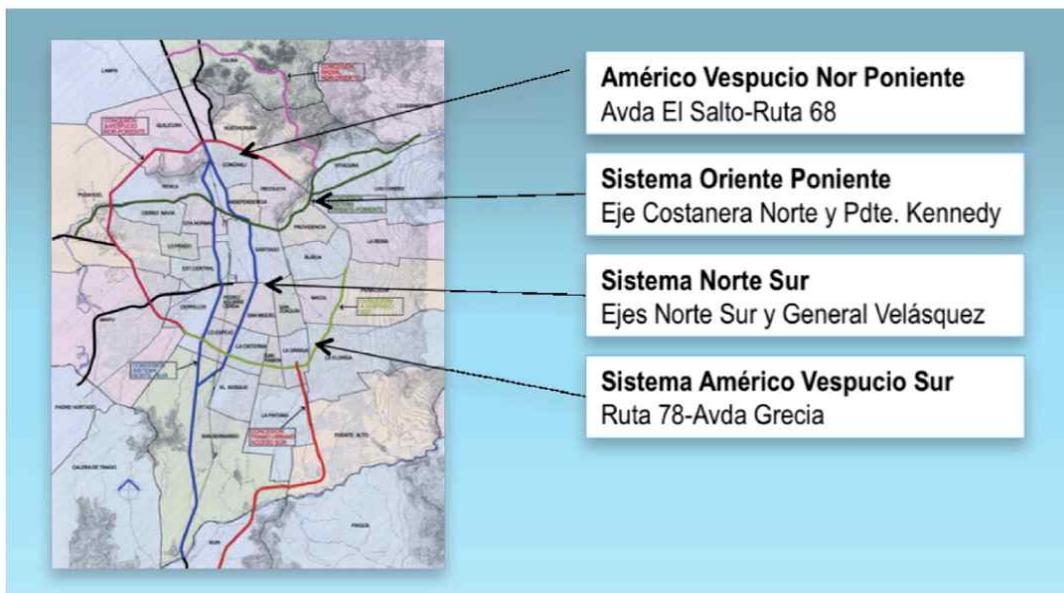
□ 교량 EPC 사례

-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칠레의 국책사업인 차카오 대교 건설프로젝트(7.4억 달러)를 2014년에 수주하면서 칠레 프로젝트 시장 내 우리기업의 힘을 보여줌

□ 칠레 산티아고 도시 고속도로 양허 사례

(출처: Urban Highway Concessions in Santiago, Chile, PPIAF, 2009.03)

○ 도시 고속도로 배치도



○ 도시고속도로 양허 사례 요약

프로젝트명: Sistema Norte-Sur(북남 고속도로 체계)	
투자약정 기술입찰	USD455.2백만
공공 투자액	USD144.8백만(2005년 USD99.2백만)
총 투자액	USD600백만
낙찰 법령	DS: MOP No 4153, 2000년9월14일
양허 개시	2001년 7월 3일
양허 기간	30년
잠정 운영	2004년 12월(1차 구간), 2006년 5월(최종구간, General Velasquez bypass)
양허권자	Autopista Central S.A(ACS, BELFI, SKANSKA, BROTEC S.A)
연장	61.2km
통행료 징수 장소	28
주민 혜택	1.8백만명

프로젝트명: Sistema Oriente-Poniente(산티아고 동서 고속도로 체계)	
투자약정 기술입찰	USD389.2백만
공공 투자액	USD210.8백만(2005년 USD111.3백만)
총 투자액	USD600백만
낙찰 법령	DS: MOP No 375, 2000년2월24일
양허 개시	2001년 7월 3일
양허 기간	30년
잠정 운영	2005년 4월
양허권자	Costanera Norte S.A(Autopista do Pacifico S.A; Autostrade Sud America S.R.L)
연장	44km
통행료 징수 장소	16
주민 혜택	1.4백만명

프로젝트명: Sistema Americo Vespucio Nor-Poniente(베스푸시오 북서체계)	
투자약정 기술입찰	USD328.3백만
공공 투자액	USD21.7백만
총 투자액	USD350백만
낙찰 법령	DS: MOP No 493, 2002년 3월
양허 개시	2003년 4월 24일
양허 기간	30년
잠정 운영	2006년 1월 5일
양허권자	Soc. Conces. Vespucio Norte Express S.A
연장	29km
통행료 징수 장소	15
주민 혜택	1.5백만명

프로젝트명: Sistema Americo Vespucio Sur(아메리코 베스푸시오 남쪽 체계)	
투자약정 기술입찰	USD263.4백만
공공 투자액	USD386.6백만
총 투자액	USD650백만
낙찰 법령	DS: MOP No 1209, 2001년 8월 20일
양허 개시	2002년 12월 6일
양허 기간	30년
잠정 운영	2006년 4월
양허권자	Soc. Conces. Autopistas Metropolitanas S.A(Itinere Chile S.A, Sacyr Chile S.A, Acciona Concesiones Chile S.A, Acciona S.A)
연장	24km
통행료 징수 장소	14
주민 혜택	1.8백만명

□ 12개 도시간 도로 양허(intercity road concessions) 사례

Route	구 간	연장 (km)	공식예산 (백만달러)	사업주	낙찰일자
148	Chillan-Concepcion	89	230	Tribasa(멕시코), Trinela(칠레)	1995.01
78	Sanitago-San Antonio	104	140	Endesa(스페인)	1995.06
5	Talca-Chillan	192	183	Ferrovial(스페인), Delta(칠레)	1996.01
5	Los Vilos-Santiago	218	272	Tribasa(멕시코), Huarte(스페인)	1996.10
15/57	Santiago-Los Andes	96	146	Endesa(스페인)	1997.02
5	La Serena-Los Vilos	228	265	Sacyr(스페인)	1997.04
5	Temuco-Rio Bueno	172	203	Ferrovial(스페인), Bufete(멕시코)	1997.08
5	Chillan-Collipulli	160	224	GTM(프랑스), Tribasa(멕시코)	1997.10
5	Rio Bueno-Puerto Montt	136	210	Sacyr(스페인)	1998.03
5	Collipulli-Temuco	163	241	Ferrovial(스페인), Bufete(멕시코)	1998.08
68	Santiago-Valparaiso	130	400	Sacyr(스페인)	1998.08
5	Santiago-Talca	266	750	Ferrovial(스페인)	1998.08

출처: "Ficha Historica de los Proyectos de Concesion", Coordination General de Concesiones, 산티아고 공공사업부, 2020년 1월, PFG Discussion Paper Series, No.124, Toll Road Concessions, The Chilean Experience

Route	구 간	1996년 1일 교통량(대)	입찰초청	낙찰	운영개시
148	Chillan-Concepcion	3,000	1994.02	1995.01	1998.07
78	Sanitago-San Antonio	6,000	1994.04	1995.06	1999.08
5	Talca-Chillan	9,000	1995.10	1996.01	1999.10
5	Los Vilos-Santiago	9,200	1996.04	1996.10	2000.12
15/57	Santiago-Los Andes	5,200	1996.04	1997.02	2000.10
5	La Serena-Los Vilos	2,500	1996.11	1997.04	2000.03
5	Temuco-Rio Bueno	3,500	1996.12	1997.08	2001.09
5	Chillan-Collipulli	5,900	1996.11	1997.10	2001.09
5	Rio Bueno-Puerto Montt	5,800	1997.06	1998.03	2001.12
5	Collipulli-Temuco	5,700	1997.10	1998.07	2002.06
68	Santiago-Valparaiso	12,600	1996.06	1998.08	2002.02
5	Santiago-Talca	18,000	1998.04	1998.08	2002.12

출처: "Ficha Historica de los Proyectos de Concesion", Coordination General de Concesiones, 산티아고 공공사업부, 2020년 1월, PFG Discussion Paper Series, No.124, Toll Road Concessions, The Chilean Experience

Route	구 간	총비용 (백만달러)	부채:자본(%)	금융종결	장기부채 형태
148	Chillan-Concepcion	211	48:52	1995.07	18년 UF 현지차입
78	Sanitago-San Antonio	160	67:33	1996.04	6년 UF 현지차입
5	Talca-Chillan	186	80:20	1996.01	9년 UF Bond발행
5	Los Vilos-Santiago	317	74:26	단기금융	미확정
15/57	Santiago-Los Andes	175	73:27	단기금융	UF Bond발행준비
5	La Serena-Los Vilos	280	63:37	1999.12	8년 외국차입
5	Temuco-Rio Bueno	277	70:30	1998.12	21년 UF현지차입
5	Chillan-Collipulli	247	80:20	단기금융	UF Bond발행준비
5	Rio Bueno-Puerto Montt	290	70:30	1999.12	10년 외국차입
5	Collipulli-Temuco	274	80:20	1998.07	UF Bond발행
68	Santiago-Valparaiso	400	정보없음	단기금융	Bond/차입 검토중
5	Santiago-Talca	750	정보없음	1998.08	미확정

출처: "Ficha Historica de los Proyectos de Concesion", Coordination General de Concesiones, 산티아고 공공사업부, 2020년 1월, PFG Discussion Paper Series, No.124, Toll Road Concessions, The Chilean Experience

주1)UF: 칠레 금융 및 건설부문 인플레이션 조정된 금전 단위, the Unidad de Formento(UF)

□ 산티아고 도시 고속도로 양허(Urban Highway Concessions) 사례

고속도로	양허/양허권자	연장 (km)	투자액 (USD백만)	시운전 일자	양허개시/ 양허기간	발의 유형
Costanera Norte Avenida Kennedy	East-West System/ Costanera Norte S.A.	42.7	1,381	2005.06	2003.07.01./ 30년(33년까지 연장가능)	공공 고시
North-South General Velasquez	North-South System/ Autopista Central S.A.	61.2	1,373	2005.11	2001.07.03./ 30년	공공 고시
Americo Vespucio Ring	Vespucio North/ Vespucio Norte Express S.A.	29.0	1,024	2006.08	2003.04.23./ 30년	공공 고시
	Vespucio South/ Autopista Vespucio Sur S.A.	24.0	995	2006.08	2002.12.06./ 30년	공공 고시
출처	2018년 공공사업부, 양허 조정 총무국(Coordinacion General de Concesiones) 자료, The Chilean Infrastructure Concessions Program: Evaluation, Lesson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Eduardo Engel et al.					

양허	계약 수정	년도	투자액 (USD백만)
East-West System	양허 공사 및 서비스 개선 추가공사 및 4개 교량 예상액	2001	6.9
	서비스 수준, 사용된 기술, 도로 안전 개선 및 도시 사회 환경 영향 감소를 위한 당초 계약의 노선 변경	2002	236.7
	Costanera Norte 축 연장 추가공사 및 강 청소 및 방어	2003	39.7
	Nudo-Estoril-Tabancura 교차로 및 Las Condes o Kennedy 서비스 수준 및 공사의 수정, 그리고 새로운 요금 징수소의 건설	2005	28.1
	서비스 수준 및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공사 및 서비스 특성의 수정	2007	102.1
Americo Vespucio North	공사 및 서비스 모두의 일련의 수정은 서비스 수준 및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도시 물 솔루션을 통합하기 위해 요구됨	2005	107.6
	2005 보충 협약의 결과로서 양허권자에 의해 초래된 추가비용 보상	2007	63.22
Americo Vespucio South	고속도로 중앙선에 위치한 고속버스 노선을 지하철 노선으로 전환을 목표로 당초 계약의 수정 그리고 새로운 요금 징수소의 건설	2004	245.9
	2004 보충 협약의 결과로서 양허권자에 의해 초래된 추가 비용 보상 및 추가 투자	2006	62.2
North-South System	연결, 교차로, 보행로, 지역 도로, 버스 정류장, 신호, 새로운 요금소에서 특별히 수정 및 개선 필요, 특히 환경완화조치	2003	114.7
		2007	105.4
	2003 계약 수정에서 정해진 공사 촉진 보상 및 특정 구간의 시운전 일정 조정	2005	41.7
	양허권자가 환율 보장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증가	2004	0
출처	2018년 공공사업부, 양허 조정 총무국(Coordinacion General de Concesiones) 자료, The Chilean Infrastructure Concessions Program: Evaluation, Lesson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Eduardo Engel et al.		

□ 1993-1998 Highway Franchising(고속도로 프랜차이징: O&M)

프로젝트	기간(년)	입찰변수	입찰자수	투자액 (USD백만)	상태(1998.12)
El Melon Tunnel(1993)	23	7개 변수	4	42	운영중
La Madera Road(1994)	25	보조금	1	34	운영중
Acceso Norte Concepcion (1995)	28	통행료	6	230	운영중
Santiago-San Antonio Route 78 (1995)	23	통행료	6	140	운영중
Nogales-Puchuncavi Road(1995)	22	통행료	4	12	운영중

프로젝트	기간(년)	입찰변수	입찰자수	투자액 (USD백만)	상태(1998.12)
Talca-Chillan Route 5(1996)	10	통행료, 기간	4	183	건설중
Santiago-Los Andes Road(1996)	28	통행료, 기간, 정부에 대한 지급	1	146	건설중
Santiago-Los Vilos Route 5(1996)	23	통행료, 기간	4	272	건설중
Los Vilos-La Serena Route 5(1997)	25	통행료, 기간	2	265	건설중
Chillan-Collipulli Route 5(1997)	22	통행료, 기간	3	224	건설중
Temuco-Rio Bueno Route 5(1997)	25	통행료, 정부에 대한 지급	3	203	건설중
Rio Bueno-Puerto Montt Route 5(1997)	25	통행료, 정부에 대한 지급	5	176	건설중
Santiago-Valparaiso Route 68(1998)	가변기간	수익의 최소 현재가치	3	401	낙찰
Santiago-Talca Route 5(1998)	25	정부에 대한 지급	4	720	낙찰
출처	칠레 공공사업부 정보 및 자료, Toll urban highway concession system in Santiago de Chile: Lessons learnt after fifteen years, Jose Manuel Vassallo et al.				

주1) Franchise(프랜차이즈) : 투자, 금융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 어퍼미지(Affermage), 리스 또는 서비스 양허와 유사하지만 대개 또는 기본적으로 교통 맥락에서 사용됨. 프랜차이즈는 좀처럼 인프라 투자 요구를 포함하지 않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정부에 의해 직접 관리되거나 별도의 계약에 따라 관리됨.

주2) Affermage Contract(위탁계약) : 정부가 민간회사에 운영 및 유지관리(O&M)을 위탁하고 약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짧아 PPP로 간주되지 않음.

어퍼미지는 기존 인프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민간이 책임이 있는 PPP의 양식으로 설명되고 하는 프랑스 용어임. 하지만 투자를 위해 금융이 제공되지는 않음. 민간부문은 자기의 서비스에 대해 고정 수수료를 받지 않음. 오히려 그것은 자산의 소유자로서 조달 기관에 가는 영수증의 일부와 함께 사용자 요금의 일부를 유지함. 조달 기관에 대한 지불은 수령액의 백분율 또는 제공된 총서비스 단위의 백분율

□ 공항 양허 사례

○ 산티아고 공항 확장, 개선 및 현대화 공사(제2 터미널) 양허 수주

- 낙찰일자 : 2015년
- 건설 완료 및 오픈 일자 : 2022년 2월
- 양허기간 : 20년(2035년까지)
- 낙찰자(양허권자) : 방시 공항(VINCI Airports), 파리 공항(Aéroports de Paris, ADP) 및 Astaldi(Nuevo Pudahuel S.A.)
- 주주지분 : VINCI Airports(40%), ADPM (Aéroport de Paris)(45%), Astaldi Concessioni(15%)

○ 칼라마의 엘 로아 국제공항 제1 양허(Third Concession for the El Loa International Airport in Calama)

- 양허개시/양허기간 : 1998년/ 12년
- 양허권자 : Concesion Aeropuerto El Loa

○ 칼라마의 엘 로아 국제공항 제2 양허(Third Concession for the El Loa International Airport in Calama)

- 양허개시/양허기간 : 2011년/양허권자 수익이 24.6백만 달러가 되면, 국가에 양허 반납, 11년(2022년 종료 예정)
- 양허권자 : Concesion Aeropuerto El Loa(Aeroportuario de Calama Consortium, 2012년)
- 운영회사(Operator) : AGUNSA(칠레의 작은 공항들 운영회사)

- 칼라마의 엘 로아 국제공항 제3 양허(Third Concession for the El Loa International Airport in Calama)
 - 위 치 : 칠레 안토파가스타 지역(Antofagasta region), 칼라마(Calama) 시
 - 내 용 : 기존 인프라, 설비 및 설치의 확장, 수리, 유지 및 교체
 - 금융구조 : 칠레 양허법에 따라 공공사업 양허
 - 투자금액 : US\$50,000,000
 - 양허기간 : 2022년 이후 15년 예상
 - 발주자 : 칠레 공공사업부
 - 현재 상태 : 기술 및 가격 제안 프리젠테이션 및 기술제안 개봉일자는 2021년 하반기, 가격제안 개봉일자는 2021년 하반기
- Iquique-Diego Aracena International Airport(제1 양허)
 - 양허 개시/ 양허기간 : 1996년/ 12년
 - 양허권자 : Concesionaria Chucumata
- Iquique-Diego Aracena International Airport(제2 양허)
 - 양허 개시/ 양허기간 : 2008년/ 15년
 - 양허권자 : Aerotas Consortium
 - 내 용 : 확장공사(2년), 이용권(7년)
- Iquique-Diego Aracena International Airport(제2 양허 수정)
 - 양허 개시/ 양허기간 : 2012년/ 4년
 - 양허권자 : Flughafen Zurich AG, Camargo Correa(브라질), Gestion e Ingenieria(칠레) JV
 - 내 용 : 확장공사(2년), 이용권(7년)
- Puerto Montt-El Tepual International Airport(제1 양허)
 - 양허 개시/ 양허기간 : 1996년/ 12년
 - 양허권자 : Concesion Aeropuerto El Trepual

- Puerto Montt-El Tepual International Airport(제2 양허)
 - 양허 개시/ 양허기간 : 2008년/ 15년
 - 양허권자 : Sociedad Concesionaria Aeropuerto Puerto Montt
- La Serena-La Florida Airport
 - 양허 개시/ 양허기간 : 1998년/ 10년
 - 양허권자 : Concesion Aeropuerto La Florida
 - 제2 양허 받은 회사 : 2012년 Angusa
- Santiago-Arturo Merino Benitez International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1998년/ 15년
 - 양허권자 : SCL Terminal Aereo Santiago S.A.(칠레,스페인,캐나다 국제 컨소시엄)
 - 제2 양허 입찰 : 2013년
- Concepcion-Carriel Sur International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1999년/ 16.5년
 - 양허권자 : Sociedad Concesionaria Aerosur
- Punta Arenas-Presidence Carlos Ibanez International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2000년/ 8.5년
 - 양허권자 : Aeropuerto Carlos Ibanez del Campo de Punta Arenas(Austral Sociedad Concesionaria)
 - 제2 양허 받은 회사 : 2010년 Aeroportuario de Magallanes
- Copiapo-Atacama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2002년 / 20년
 - 양허권자 : Aeropuerto Regional Atacama

○ Temuco-Maquehue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2010년/ 20년
- 양허권자 : Befi
- 진행상황 : 2010년 5월 산티아고 항소법원 결정으로 Temuco 공항 양허 개발은 보류.

(출처: Case Study on commercialization, privatization and economic oversight of airports and air navigation services providers, air transport bureau, economic analysis and policy(EAP) section)

○ Arturo Merino Benitez International Airport

- 공항 operator : AGUNSA(칠레 작은 공항 운영회사)

○ Chacalluta International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2019년/ 15년
- 총투자액 : USD85백만
- 공항 operator : AGUNSA 42.5%(칠레 작은 공항 운영회사)+Sacyr(스페인 인프라 운영 및 개발회사) 57%
- 양허권자 : Sociedad Concesionaria Aeropuerto de Arica S.A.

(출처: Airport Investor Resource by modalis)

○ El Tepual International Airport

- 양허개시/양허기간 : 2018년5월/ 6년
- 총투자액 : USD36백만
- 공항 operator : AGUNSA (칠레 작은 공항 운영회사) + Sacyr(스페인 인프라 운영 및 개발회사)
- 양허권자 : Sociedad Concesionaria Aeropuerto del Sur.

(출처: Airport Investor Resource by modalis)

□ 병원 양허 사례

- Metropolitan Hospital La Florida Dr. Eloisa Diaz Insunza(칠레, 산티아고)
 - 발주방식 : BOT
 - 양허기간 : 15년(Healthcare service 제외)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4,700㎡, 건축면적 71,987㎡, 병원 지상면적 44,126㎡, 391병상(중환자실 60개, 수술실 17개, 주차장 579대)
 - 건축가 : BBATS Consulting & Projects 및 Murtinho+Raby Arquitectors
 - 설계회사 : GSJ Solutions
 - 건설회사 : SANJOSE Constructora
 - 양허권자 : SANJOSE Concesiones y Services
 - 서비스 내역 : 인프라 서비스, 물, 에너지, 조명, 공조, 의료 가스 네트워크, 수직 운송, 산업 장비, 비진료 비품, 비보건 서비스, 조경, 청소, 폐기물 관리, 식사 제공, 유니폼, 카페테리아, 안전 및 보안 관리, 간호 등
 - 칠레, 산티아고 Maipu의 El Carmen Dr. Luis Valentin Ferrada Hospital과 칠레에서 양허체제하에서 GRUPO SANJOSE의 첫 번째 병원 프로젝트

(출처 : GRUPO SANJOSE 웹사이트 정보)

- Hospital del Salvador and Instituto Nacional de Geriatria

- 양허권자 : Consorcio de Salud Santiago Oriente S.A. Sociedad Concesionaria

(출처: Larrain Asociados Abogados 웹사이트 정보)

- 칠레 Maipo province의 New Buin-Paine Hospital

- 발주방식: DBFOM(설계, 시공, 금융, 운영 및 관리)
- 양허권자 : Sacyr Concession Consortium(Sacyr Concesiones + Dominion)
- 총투자액 : USD120백만(101백만 유로)
- 양허기간 : 15년

- 사업내용 : 부지면적 56,000㎡, 200병상, 6개 병동, 진찰실 34개, 17개 처치실, 3개의 통합 분만실, 16개의 응급서비스실, 18개 투석실, 7개 치과치료실, 12개 중환자 병상, 117개 의료/외과 병상, 36개 산부인과 병상, 16개 소아과 병상, 4개의 신생아 병상, 15개 성인 정신과 병상
- 스페인 기업 Sacyr는 24년전에 칠레 진출, 1996년 PPP(concession) 사업으로 Los Vilos- La Serena 고속도로 수주. 그 이후 2개의 공항, 15개 도로(총 2,000km)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총 65억 달러(55억 유로) 투자
- * 칠레 6개의 병원(2,400병상, 629,000㎡): Antofagasta 병원, Alto Hospicio 병원, Quillota-Petorca Biprovincial병원, Sotero del Rio병원, Cordillera and Villarrica병원
- 전 세계에서 Sacyr의 건축 실적 : 7개국 60개 이상 병원(10,000병상, 32억 유로 투자)
- Sacyr Concessions water: 2020년 이후, Antofagasta 및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4개의 종합 물순환 관리회사 운영 중임.

(출처 : Sacyr 웹사이트 정보)

- Antofagasta 병원, Alto Hospicio 병원, Quillota- Petorca Biprovincial병원, Sotero del Rio병원, Cordillera and Villarrica병원
- 양허권자 : Sacyr Concession

(출처 : Sacyr 웹사이트 정보)

- 칠레 북부 코킴보(Coquimbo) 지역 La Serena Hospital
- 양허기간 : 15년
- 양허권자 : Acciona(스페인)
- 총투자액 : 2억5,800만 달러(2억7백만 유로)
- 사업내용 : 칠레 공공사업부는 보건부와 협력하여 양허 사업 발주, 부지면적 121,000㎡, 668병상*, 15개 병동, 85개 부서(진료, 치과 및 비의료상담, 6개 출산분만실, 응급부서 등)
- * 146개 중환자 병상, 332개 진료/외과 병상, 90개 산부인과 병상, 48개 소아과 병상, 18개 신생아병상, 34개 성인 정신과 병상
- Acciona는 견고한 국제 병원 건설 및 관리 경험 보유

* 스페인 마드리드 Infanta Sofia 병원, 스페인 비고 Alvaro Cunqueiro 병원, 파나마 Hospital del Nino, 캐나다 Royal Jubilee 병원, 칠레 Marga-Marga 병원, 칠레 Philippe Pinel Psychiatric 병원, Ezequiel Gonzales Cortes병원

- Acciona는 칠레에 진출한지 거의 30년, 그 이후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 수행: 고속도로, 수처리 플랜트, 병원, 수력발전소, 광산 인프라 등
- Acciona Energia는 칠레에서 거의 10,000MW 이상 재생에너지 용량 운영 중

(출처: Acciona 웹사이트 정보)

○ 칠레 Marga-Marga 병원, Philippe Pinel Psychiatric 병원, Ezequiel Gonzales Cortes병원

- 양허권자 : Acciona

(출처: Acciona 웹사이트 정보)

○ 칠레 비오비오(Bio-Bio)지역 Santa Barbara 병원

- 양허권자 : OHLA
- 사업내용: 건축면적 12,000m², 37병상, 21개 의료, 치과 및 비의료 진료실, 응급서비스, 작은 외과 병동, 응급분만실, 혈액투석실, 지역 정신건강센터 등
- OHLA는 칠레에서 향후 15년간 4개 병원(569병상)에 2억9천만유로 투자, 건설, 운영관리 예정

(출처: OHLA 웹사이트 정보)

○ 칠레 비오비오(Bio-Bio)지역 Nacimiento 병원

- 양허권자 : OHLA
- 사업내용: 부지면적 13,000m², 47병상, 입원환자 서비스, 외래 진료, 29개 의료, 치과 및 비의료 진찰실, 내시경실, 진단 치료 지원실, 응급분만실, 응급서비스, 정신과 낮 병동 등

(출처: OHLA 웹사이트 정보)

○ 칠레 비오비오(Bio-Bio)지역 Coronel 병원

- 양허권자 : OHLA
- 사업내용 : 부지면적 79,000m², 353병상, 53 의료, 치과 및 비의료 진찰실, 21개 처치실, 9개 수술실, 3개 출산분만실, 정신과 낮 병동, 지역 정신건강센터, 혈액투석실, 응급서비스 등

(출처: OHLA 웹사이트 정보)

○ 칠레 비오비오(Bio-Bio)지역 Lota 병원

- 양허권자 : OHLA
- 사업내용 : 부지면적 40,000㎡, 132병상, 19개 의료, 치과 및 비의료 진찰실, 20개 처치실, 5개 수술실, 2개 출산분만실, 정신과 낮 병동, 지역정신건강센터, 혈액투석실, 응급서비스 등
- OHLA는 칠레에 진출한지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프라 개발해 왔음
- * 총 8개의 병원(2,865병상, 시설면적 418,000㎡); La Reina 군인병원, Vina del Mar의 Gustavo Fricke 병원, Curico의 New Hospital 등
- OHLA는 전 세계적으로 1930년부터 150개 이상 신규 병원(60,000병상, 부지면적 6,000,000㎡) 건설, 추가로 200개의 병원 리노베이션 및 확장, 약 1,000개의 보건센터 실적을 보유함

(출처: OHLA 웹사이트 정보)

○ 산티아고 Salvador 병원 replacement(대체)

- 前 Ricardo Lagos 대통령 때 도로 및 기타 하드 시설 공급 목적으로 PPP(Concession Program)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소, 병원 같은 사회인프라로 확장함
-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때 고속도로 양허 결과가 성공적이었기에 병원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양허가 제안됨. 리카르도 대통령이 산티아고 Salvador 병원 대체 입찰을 준비함
- 前 Michelle Bachelet 행정부 때 2개의 중규모의 병원 PPP사업 입찰 수행하였으며 스페인 회사가 수주함
- 전 Michelle Bachelet 대통령때 산티아고 Salvador 병원 대체 입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PPP경험 부족등으로 보류됨
- 前 Sebastian Pinera 행정부 때 3개 병원이 추가로 PPP사업 입찰을 수행함

○ Vina Del Mar의 Gustavo Fricke Hospital

- 2010년 전 피네라 정부때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 예산이 아닌 민간 양허 사업 방향으로 병원 투자개발이 변경됨

- (변경사항) 설계,금융,건설 및 산업서비스는 민간업체에 양허 받주기로 하고 진료관리는 투자 정책 이유로 칠레 의과 대학으로부터 지원을 모으기 위해 민간 부문과 아웃소싱 준비에서 제외됨
-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 병원 건설비용은 공공예산으로 하기로 함

(출처: Hospital concessions in chile :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heading paper)

○ 산티아고 남부 건강 네트워크 시설

- 보건부 예산으로 Exequiel Gonzalez Cortes Pediatric Hospital 대체기로 결정하여 양허가 아님

(출처: Hospital concessions in chile :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heading paper)

○ Hospital de Antofagasta, Hospital del Salvador-Geriatrico, Felix Bulnes Hospital 양허

- Hard concession과 Soft concession으로 구분 받주 및 낙찰(2014년)
- Hard concession : 병원 토목건축 및 부대시설 등(고속도로, 공항, 교량, 터널, 항만 등)
- Soft concession : Hard concession에 부가되는 서비스(도시 공공 운송 교통, 보건, 교육, 교도소, 죄수의 사회복지 서비스 등)

(출처: Hospital concessions in chile :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heading paper)

○ Marga-Marga 병원, Quillota-Petorca 병원, Sotero del Rio병원, Curico 병원, Linares 병원, Chillan병원

○ Salamanca 병원, Exequiel Gonzalez Cortes 병원, Chimbarongo 병원, Penco-Lirquen 병원, Florida 병원, Pitufquen병원, Quilacahuin 병원, Lanco 병원, Futaeufu 병원, Puerto Aysen 병원, Puerto Natales 병원, Porvenir 병원, Puerto Williams 병원, Copiapo 병원, Rancagua병원, Laja 병원, Los Angeles y Lautaro 병원

- 양허가 아닌 보건부 공공예산으로 입찰한 병원들
- 병원을 양허사업으로 할 때, 병원 양허 프로그램 철저한 평가 약속 요구

(출처: Study of Hospital concessions in chille(P166011)-Reimbursable Advisory Services, Executive Summary by World Bank Group)

- 2018년 3월 현재 PPP(Concession)에 의한 건설 중 또는 운영 중 병원들

병원	병상수	상황
Maipu	375	운영중
Florida	391	운영중
Antofagasta	671	시험단계
Felix Bulnes	523	건설중
Geriatric Hospital Salvador	642	건설중

(출처: Study of Hospital concessions in Chile(P166011)-Reimbursable Advisory Services, Executive Summary by World Bank Group)

- 칠레 Upcoming 병원 PPP 프로그램

(출처 : 미국 Clifford chance 법률회사 웹사이트 정보, www.cliffordchance.com)

- Covid-19 위기로 지연된 후에, 칠레 공공사업부는 Maule 지역에서 한 그룹의 병원 프로젝트들(칠레의 새로운 병원 인프라 양허 프로그램에 따른 10개의 병원 프로젝트들 중 처음임)이 2020년 2분기 말까지 낙찰될 것이라고 발표함
- 양허 프로그램은 총 20억 달러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로 총 18개 병원을 위한 건설 및 의료 및 비의료 설비 공급을 포함함
- 다음 수년 동안 걸쳐 각각 입찰 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병원 그룹들로 나누어질 것임. 사업주에게 하나의 병원 그룹 이상 낙찰되는 것은 제한이 없음. 본드 금융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금융도 허용됨

(1) 성공적인 보건 양허 프로그램의 계속

- 프로그램은 칠레의 이전 보건 양허 프로그램을 따름

- 칠레의 파일롯트 병원 노력은 2009년에 La Florida 병원과 Maipu 병원에서 시작함. 2012년과 2014년에 다른 병원에 대한 후속 입찰은 이후 건설을 완료함
- (내용) 그러한 프로그램들 모두는 유사한 설계, 시공, 금융, 운영 및 관리(DBFOM) 모델에 따라 발행되었고 운영 개시 후 15년의 양허기간 제공함. 파일롯트 프로그램의 예외로, 그러한 양허들 또한 주요 의료 및 다른 비의료 설비의 조달, 위치변경,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비의료 서비스 제공을 포함함

- 이러한 양허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대개 변경되지 않은 채 유지됨
 - 칠레의 PPP 입법은 공공사업부와 양허권자 사이의 공식 양허계약의 실행을 위해 규정하지 않으나, 그 대신 칠레 관보에 양허 낙찰법령의 발표가 양허권자와 PPP 계약을 공식화하고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으로 구성됨
 - (a) 1991년 공공사업부 법령 164호(칠레 공공사업 양허법)의 효력이 있는 법 시행령(Decree)
 - (b) 공공사업부에 의해 발행된 1991년 공공사업부 법령 164호의 행정 규정(administrative regulation)
 - (c) 사전자격심사 조건들 (PQ Terms)
 - (d) 전체 병원 프로그램 입찰 일반 조건들
 - (e) 각 병원 그룹의 특수조건들,
 - (f) 그 입찰 조건들 중 어느 것에 발행될 수도 있는 각 행정 명료화
 - (g) 양허권자의 경제적(가격/금액) 입찰 및 기술입찰의 조건들
 - (h) 각 병원 그룹의 양허 낙찰 법령(concession award decree)
 - 칠레 공공사업 양허법은 양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양허권자의 계약 조건들은 어떤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함
 - (법 변경) 비록 기존 양허권자에게 이전에 허가된 권리들에서 그런 종류의 변경이 일반적이지만 칠레 공공사업 양허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법의 변경은 이러한 권리들을 변경할 수 있음
 - (법 미변경) 법의 변경 없이도 칠레 공공사업 양허법은 공공사업부가 일방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추정 공식 예산의 15%까지의 추가공사를 요청하는 것을 허가함
 - 또한 양허 심의회(concessions council)*가 발행한 사전 보고서를 가지고 추정 공식예산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변경 또는 재설계를 요구하거나 공공 사용을 위해 쓸모없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상황 변경이 있을 때, 건설 단계 중에 계약 조기 해지를 요구하는 것을 허가함
- * 양허심의회 : 칠레 대통령이 공공 이익 요구조건에 근거하여 공공사업부에 알리고 자문하기 위해 공공사업 양허법에 의해 만들어지며, 6명의 기술전문가와 1명의 정치 전문가로 구성됨

- 그러한 일방적 해지의 경우에 양허권자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조건들에 포함된 공식에 따라 금융비용을 제외하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투자금액과 동등한 해지 지급금을 수령할 것임

(2) 지급 메커니즘

- 양허 프로그램은 양허권자에게 다양한 수익을 설명하며, 다양한 정부 실체들에게 양허권자들이 해야하는 특정 지급을 포함함
- 지급은 일일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UF(Unidades de Formento) 칠레 회계 계정 단위로 표시됨. 실제 지급 금액은 양허 프로그램의 일반 조건들에서 발표된 일자들에 UFs로부터 칠레 페소로 전환됨
- 양허권자들에 대한 공공사업부의 지급액: 수익은 고정 지급액과 변동 지급액으로 구성됨

(a) 고정 지급액 포함 항목

No	항목
1	프로젝트가 운영을 시작하는 일자에 시작하는 10년의 과정에 걸쳐 반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건설 보조금 지급액
2	프로젝트가 운영을 시작하는 일자에 시작하는 15년 과정에 걸쳐 반년기준으로 지급하는 운영보조금 지급액
3	건설 및 운영단계 동안 매년 지급되는 비 진료 장비의 취득 및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액
4	건설 및 운영단계 동안 매년 지급하는 진료 장비의 취득 및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급액

(b) 변동 지급액은 프로젝트가 운영을 시작하는 일자에 시작하는 15년에 걸쳐 매년 지급되며 각 병원의 병상 점유 수준에 따라 지급됨

- 각 병원의 변동지급액은 감시 감독 위원회가 양허 프로그램의 일반 조건들에서 발표된 공식을 사용해 결정한 가장 최근의 병원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기초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요인을 포함함.
 - 추가적인 조건부 변동 지급액은 어느 해에 병상 수요가 일당 병원 용량의 110%를 초과한다면 지급됨. 그러한 지급은 바로 다음 해에 지급됨
- 공공사업부 또는 해당 보건 서비스 시설에 양허권자가 하는 지급:
- 양허권자는 자신들의 양허권에 따라 고정 지급과 변동 지급 모두를 해야 함
 - (고정) 양허권자들은 PPP 계약에 대한 행정 및 감시감독을 위하여 건설 및 운영단계들 동안 공공사업부에 일련의 고정 지급을 해야 함

- (변동) 양허권자가 해야하는 변동 지급은 △각 병원을 위한 유틸리티 비용, △특수조건들에 따라서 각 병원 그룹을 위해 발표된 모든 예약 계정들 (reserve accounts)에 대해 각 회계연도 말에 남아 있는 잔액 등이 있음

(3) 양허권자들에게 배분된 리스크

- 사업시행자(양허권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지불은 건설 완료 후에만 이루어져, 양허권자들은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모든 건설 리스크를 떠맡게 됨
- 유사하게 모든 환경허가 및 건설허가 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의 허가 및 승인을 획득하는 것도 양허권자들의 책임임
- * 건설을 위해 상응하는 부지의 인도는 모든 허가 및 승인이 획득된 후에만 발생하므로 건설 개시의 지연 가능성은 금융 목적을 위해 고려하여야 함
- 이들은 이전 병원 프로그램들에서 마주한 동일한 이슈이며 다른 칠레 PPP사업에서 양허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분되는 리스크임을 인지해야 함

(4) 결 론

- 양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따라 입찰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숫자뿐 아니라 투자 요구조건의 중요성 면에서 실질적 변경 없이* 칠레 병원 PPP 개발에서 새로운 스텝을 나타냄
- * 범위가 이전 프로그램들에서 있지 않았던, 전체적으로 사업자들, 금융 당사자들 및 칠레 인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일부 변경됨
- 20억 달러의 자본적 지출액이 10개의 병원 그룹들에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관심있는 사업주들 및 금융 당사자들의 다양성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입찰될 병원 그룹 >

병원 그룹	병원명	자본적 지출(백만달러)	추정 입찰시한
Maule Network	Cauquenes	244	2020년 8월 4일 가격입찰 개봉
	Constitucion		
	Parral		
Bio Bio Network	Santa Barbara	360	2020년 3분기~4분기
	Nacimiento		
	Coronel		
	Lota		
Buin-Paine	Buin-Paine	120	2020년 8월7일 가격입찰 개봉
O'Higgins Network	Rengo	170	2021년 2분기
	Pichilemu		
Valdivia Network	La Union	180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Rio Bueno		
	Los Lagos		
Coquimbo	Coquimbo	300	2020년 3-4분기
La Serena	La Serena	300	2021년 1분기
Zona	Zona	230	2021년 3분기
Norte-Metropolitan	Norte-Metropolitan		
Instituto Nacional del Cancer	Instituto Nacional del Cancer	260	2021년 2분기
Instituto Nacional de Neurocirugia	Instituto Nacional de Neurocirugia	190	2022년 2분기

(출처 : 미국 Clifford chance 법률회사 웹사이트 정보, www.cliffordchance.com)

다. 에너지 분야

□ 태양광 발전사업

(출처: 사례로 본 해외사업개발의 성공과 실패-해외사업 디벨로퍼의 세계, 비엔컴즈)

- 칠레는 9MW.AC.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의미하는 PMGD 제도 운영
 - PMGD 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의 우선 공급권을 갖고 전기공급가격은 타 전력구매계약(PPA)의 평균 가격에 향후 4년간의 현물가격(Spot price) 전망치를 반영한 안정화 가격을 6개월마다 정부가 발표하여 적용함
 - 가격변동성 축소를 통하여 현물가격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업성이 인정되어 국제금융공사(IFC)등의 MDB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한국의 여러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들도 관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KIND 투자 진출 사례

No	사업명	연도	EPC 수주액 (USD)	KIND 투자액 (USD)	상태 (‘22.6. 기준)
1	10.4MW 탈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2018년	11백만	6.5백만	운영 중
2	6.3MW 마리아 핀토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2019년	6백만	3.5백만	금융종결 준비
3	6.5MW 과달루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2020년	7백만	3.8백만	잔여공정 진행 중
4	칠레 PMGD 포트폴리오 태양광 지분증권	2022년	-	8.1백만	공사 중
5	칠레 PMGD 포트폴리오 태양광 수익증권	2022년	-	12.9백만	금융종결

- KIND는 세 차례의 칠레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개발을 통해 칠레 시장과 사업성에 대한 분석 및 필요한 인허가, 금융조건, 법률관행에 대하여 숙지하고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KIND (2022 뉴스레터 여름호 Vol.14)에 의하면 총 51.75MW.DC. 규모의 칠레 PMGD 포트폴리오 태양광사업이 2022년 6월 말 금융종결을 달성, 칠레 중북부 5개 지역 PMGD로 구성되었고, 동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펀드 투자를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짐
- 5개 중 2개 PMGD는 금융종결 시점에 착공하였고, 나머지 PMGD도 현지 인허가 절차에 따라 약 두 달 뒤 착공 예정임
- KIND는 지분 및 펀드 투자자로서 동 사업에 참여, PMGD제도는 칠레 9MW.AC. 이하 소규모 발전 설비로, 안정적 배전 및 전력 판매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음
- 2021년 칠레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4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진출현황('22.07.28. 현재)

구분	사업명	내 용
정책펀드사업	칠레 아카시아 9.5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Cachapoal 설비용량 : 9.5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10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IPP 사업규모 : 12.6백만달러 투자형태 : 주주대여금 및 지분투자 KIND투자금 : 69억원 펀드투자금액 : 128억원 펀드구분 : GIF 3 진행단계 : 운영단계
FS지원사업	칠레 칠로에 종단 PPP 건설 및 운영 예비 타당성 조사	분야 : 도로 위치 : 칠레 로스라고스 지역 칠로에 섬 지원시기 : 2020년 7월~11월 진행단계 : FS 단계
직접투자사업	칠레 Guadalupe 6.59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Guadalupe 설비용량 : 6.59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9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8.6백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증권, 주주대여 KIND투자금 : 3.8백만달러 진행단계 : 운영단계
직접투자사업	칠레 Maria Pinto 6.3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Maria Pinto 설비용량 : 6.3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9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8백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증권, 주주대여 KIND투자금 : 3.5백만달러 진행단계 : 개발단계

구분	사업명	내 용
직접투자사업	칠레 Talca 10.4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Talca 설비용량 : 10.4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7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13.2백만달러 투자형태 : 채무증권 KIND투자금 : 6.5백만달러 진행단계 : 운영단계
직접투자사업	칠레 PMGD 포트폴리오 (그린필드 72.45MW, 브라운필드 48.6MW)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중북부 17개 지역 설비용량 : 72.45MW(그린필드), 48.6MW(브라운필드)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10개월 운영기간 : 30년 사업방식 : B-O-O(건설-소유-운영) 사업규모 : 162.4백만달러 투자형태 : 지분증권, 수익증권 KIND투자금 : 21백만달러 진행단계 : 개발단계
정책펀드사업	칠레 Talca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분야 : 신재생(태양광발전) 위치 : 칠레 Talca 설비용량 : 10.4MW 태양광발전소 공사기간 : 10개월 운영기간 : 25년 사업방식 : IPP 사업규모 : 13.2백만달러 투자형태 : 주주대여금 및 지분투자 KIND투자금 : 41억원 펀드투자금액 : 76억원 펀드구분 : GIF 3호 진행단계 : 운영단계

○ 칠레 마리아 핀토 태양광 발전 사업 개요

구 분	사업내용
프로젝트명	칠레 마리아 핀토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개요	지역 및 규모 : 칠레 Maria Pinto시 6.3MW 태양광발전 건설기간 : 9개월 사업기간 : 25년 요금구조 : PMGD(소규모발전사업자) 제도
사업주	한양전공(19%)*, KIND(26%), 한국수력원자력(55%)
총사업비	USD 8백만
공사비	USD 6.2백만
시공사	한양전공
사업형태	BOO(건설,운영,소유)
금융조달	한국수력원자력, KIND,주주대여금

* 주)한양전공: 1978년 설립, 업력 40년 이상, 수배전반 설비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등 생산, 신재생에너지 시공 및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함

- 사업개발과정 : 3년에 걸쳐 사업기회를 모색하던 중 칠레 마리아 핀토 태양광발전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을 추진함
- 중소기업 금융조달 한계 : 해외사업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추진 사업에 금융권의 관심이 부족하고, 발전용량이 6MW 수준인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 최소 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금융기관 유인에 실패함
- KIND의 지원목적 : 한양전공의 사업기술력을 기반으로 투자 및 사업개발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을 성공시켜 유사한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지원을 결정함
- KIND 금융지원 방법 : 제도권 금융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가 아닌 주주 대여금 형태로 지원, 제3의 파트너로 국내 최대 발전회사이면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시작하던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업을 소개함. 주주지분구조 합의 끝에 약 600만 달러의 차입금을 KIND와 한수원이 50%씩 대여하는 금융구조를 완성함
- 시공 및 운영 : 시공사는 한양전공, 운영사는 칠레 태양광발전소 운영경험이 풍부한 S에너지를 유치함

- 사업개발과정 중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4개사(3개 주주사 및 S에너지)의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 최종 실사를 실시하여 주주협약, 금융약정 종결, 건설 시작을 이뤄냄
- 이전 진출사례 : KIND는 2018년에 S에너지와 협력하여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 건설을 완료, 운영을 통해 투자비 회수를 시작한 경험에 의거 칠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었음
- 남부발전 태양광 발전 진출사례
 - 남부발전과 S-energy는 Santiago와 북부 Atacama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5기(총 38MW급)를 2020년에 완공하여 운영 중임
- 남동발전 칠레 태양광발전 진출사례
 - 남동발전과 한화큐셀은 칠레에 2.6~9.7MW급 10기(총 49MW급)의 태양광발전소 중 7기를 Santiago 인근에서 운영 중임
 - 북부 Antofagasta 지역에서 3기의 건설을 2020년 11월까지 마치고, 7기(총 70MW급) 규모의 칠레 태양광 2단계 건설을 2020년 말에 시작할 예정임
- 동서발전 칠레 태양광발전 진출사례
 - 동서발전과 대림산업도 태양광 발전소 4기를 Santiago 인근에서 건설·운영 중임
 - 동서발전은 2019년 6월 6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8MW급 Rinconada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가짐

※ 대림에너지와 함께하는 동서발전의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105MW (8~9MW 급 12개)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개발,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종합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임

- (의의) 한국동서발전의 첫 남미 투자형 발전시장 진출 프로젝트인데다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PV 패널을 사용한다는 점, 신재생에너지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사업비) 총사업비는 1억 7,800만 달러로 동서발전과 대림에너지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미래에셋대우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주관함
- (제언) 본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함. 향후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기반으로 칠레 및 중남미 시장에서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대림에너지 칠레 태양광발전 진출 사례

- 대림에너지는 2019년 4월 15일 칠레 산타로사(Santa Rosa)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함. 이는 2018년 12월 사업권을 인수한 칠레 태양광 사업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상업운전을 시작함
- (계획) 대림에너지는 칠레 중북부에 걸쳐 9MW급 태양광 발전소 12개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임
- (역할) 대림에너지가 5,000만달러(약 570억원)를 투자해 단독 추진 중으로 기술 및 경영지원 계약을 통해 사업 전반을 관리함
- (수익원) 대림에너지는 상업운전 이후 25년간의 발전매출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을 기대함
- * 칠레의 분산 전원 정책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고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정부가 구매함
- (금융) 총사업비는 약 1억8,000만달러(약 2,000억원)으로 이에 앞서 지난달 미래에셋 대우를 통해 사업비의 약 72% (1억3,000만달러, 약 1,430억원)를 PF로 조달함



(칠레 산타로사 태양광발전소/대림에너지, 엔지니어링데일리)

○ 한화큐셀 칠레 태양광발전 진출사례

- 한화큐셀은 수도 Santiago 인근에 2.8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16년에 완공하여 운영 중
-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말에 S-energy 및 한양전공과 2기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 한편 남동발전은 2019년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완료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 안에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탄소배출권)을 발행할 예정임

※ 한국 기업이 진출한 칠레 태양광사업은 모두 PMGD(Pequeños Medios de Generación Distribuidos,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해당되는데, 칠레 정부의 MGD 법에 따라 9MW.AC 이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력구매계약(PPA)나 현물 가격(Spot price)보다 높은 단가(안정화 가격)를 일정 기간 보장함

○ 한국수력원자력 칠레 태양광발전 진출사례

- 마리아 핀토 태양광발전
- 과달루페 태양광발전

□ 리튬광산 개발사업 등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칠레 엔엑스우노(NX1) 리튬광산 개발사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칠레 코피아포의 지분 30%를 인수함. 산토도밍고 동광 프로젝트도 참여 중임
- LG상사는 에너지기업 지오파크 (Geopark)의 지분 20%를 인수하여 칠레 원유 및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석탄화력발전사업

- 포스코 건설은 미국계 전력회사인 AES Gener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EPC 입찰을 수주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2006년 하반기에 칠레에 사무소를 개설함
- (실적) 포스코 건설은 '06년 칠레 Ventanas 석탄화력발전소(245MW, 3억7000만 달러, 2009.12월완공), Campiche (243MW, 4억 4000만 달러), Angamos (270MW x 2기, 8억 6000만 달러) 등을 수주하여 완공함
- 포스코 건설은 현재까지 총 8개의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을 통해 칠레 내 입지를 넓힘 이 중 1건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주 및 수행하였고 이후 포스코 건설과 합병됨
- 2013년에는 SK에코플랜트가 Red Dragon 석탄 화력 발전소(12억 달러)를 수주함

□ 복합화력발전(CCPP)사업

- 남부발전 : 칠레 Kellar CCPP(Combined Cycle Power Plant)

남부발전 컨소시엄이 Kellar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IPP 프로젝트(6억 달러)를 수주
한국 기업 최초 수주 칠레 민자발전 건설·운영 사업
최대 30년간 안정적인 운영 기대, 517MW급 규모, 구리광산에 전기 공급

-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한국남부발전과 2017년 5월 26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켈라(Kellar) 가스복합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함
- (개요)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주 메히요네스 지역에 있는 켈라 발전소는 호주계 글로벌 광산 기업인 BHP 빌리턴이 2013년 발주한 517MW급 가스복합 발전소로, BHP 빌리턴이 소유한 구리광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됨
- (의의) 한국 기업이 최초로 수주한 칠레 민자발전 건설·운영 사업이며, 특히 발주처가 전력 구매를 보장하므로 최대 30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주주사) 켈라 발전소는 삼성물산·남부발전 컨소시엄이 주주사로 참가함. 삼성 엔지니어링이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받는 등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사업임
- 삼성물산은 멕시코 만사니요 LNG 인수기지 사업, 노르페 2 가스복합 발전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칠레 켈라 발전소까지 완공함으로써 중남미 발전·플랜트 시장에 한국 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음

<삼성물산 관계자>

- 그동안 선진국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던 칠레 발전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함
- 이러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상사 특유의 정보력과 마케팅, 금융 조달력 등의 강점을 발휘해 해외 각지에서 발전·플랜트 등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2 사업 성공 및 실패 요인

가. 칠레 PPP 주요 진출 리스크 및 진출전략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2016)

□ 칠레 PPP 시장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중산층 부상에 따른 인프라 서비스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높은 인프라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민간자본을 동원한 민관협력사업(PPP)을 활발히 추진 중임
-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중 상당 부분이 PPP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트램, 케이블카, 스타디움, 교도소, 정부청사, 복합환승역, 병원, 저수지 등 경제인프라에서 사회인프라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 않고 위험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복합화력 발전사업에 일부 참여 중임
 - 현지 인프라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시장이 PPP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시장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서 칠레 PPP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낮은 이유는 칠레 PPP제도와 사업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플랜트 시공 등 EPC/Turnkey 방식의 사업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임
- 인프라 투자는 공공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함
- '18년부터 향후 8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2025년 칠레 투자프로그램과 '28년까지 현 수도권 교통시스템을 대체할 74억 달러 규모의 제3 천년 교통시스템 (Transporte Tercer Milenio) 구축을 발표함에 따라 칠레 공공 인프라 투자 활성화가 예상됨
 - 산티아고 지하철 5개 노선 구축 및 기존 노선 확장 추진, 도심 케이블카 설치 등
 - 칠레 전 지역 광케이블 설치를 통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 운영계약이 만료되는 6개 공항 재입찰, 현 Balmaceda 공항 입찰 추진 등

□ 진출 리스크

- 민간 부문으로의 리스크 위임 확대 및 정부보조금 축소
 - 외국기업 진출구조가 빠른 변화 - 스페인 등 유럽기업의 아성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반해 중국과 미국의 위상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기업의 진출은 칠레 등 진출국가의 재정난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고, 플랜트 등 일부 공중에 편중되고, 태양광 발전사업외 개발형 사업 진출이 부족함
 -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
 - 정치 및 경제 불안정
 - (2020년) 대규모 시위 등 정치·사회 불안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와 함께 현장 폐쇄, 투자 연기 등으로 2020년 칠레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19.5%로 크게 감소함
 - (2021년) 코로나19 여파 뿐 아니라 개헌 및 대선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로 2.7%의 미미한 성장세를 보인 후 2022년이 되어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응책) 정부는 '20.8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대응을 위해 단계별(Paso a Paso) 경제 재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 재건을 꾀하는 중임
 - * '20~'22년 동안 교통, 수자원, 사회 및 보건 인프라 중심 약 340억불 규모의 공공투자를 포함
 - 지리적으로 멀고, 언어적 환경의 제약(스페인어)과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중남미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등에 따른 진출에 제약이 큰 건설 시장이었음
 - 칠레 PPP 법적 프레임워크 (공공사업 양허법과 규정) 및 외국인 투자법, 공공조달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양허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 다양한 칠레 PPP 사업 경험의 부족, 현지 및 외국기업과 사업 파트너링 경험 부족, 중남미개발금융 활용 능력 및 PF 능력 부족
 - 칠레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
 - 다양한 사업발굴 및 경쟁력 있는 컨소시엄 구성 경험 부족
 - 다양한 사업발굴원 미확보, 칠레 정부와 공동 PPP 플랫폼 미구축
 - 칠레에서 PPP 경험있는 우리나라 developer의 부족
 - 칠레 공공사업부의 과도한 계약 재협상(renegotiation)과 높은 수준의 부정부패
- (출처: 2011년 2월 17일 IGC Growth Forum, 민관협력사업의 전망과 위험- 칠레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

- 칠레 PPP 프로그램은 과도한 계약 재협상과 높은 수준의 부정부패라는 2개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는 국가 부담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킴
 - (계약 재협상) 칠레에서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은 평균 24%를 차지함
 - * 고속도로(26%), 공항(12%), 교도소(26%), 저수지(9%), 산티아고횡단(12%), 공공인프라(1%)
 - (단점) △쌍무적이고 PPP의 초기 낙찰에 있는 경쟁요소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패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킴. △공공사업부가 초기에 정확하게 프로젝트들을 설계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수 있음. △미래 정부에게 지급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통제 회피법으로 작용 가능
 - PPP 프로그램 초창기에 불명확한 제도적 준비로 인해 정부가 수개의 계약들을 재협상토록 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비싼 값을 치른 것으로 입증됨
 - * 칠레 교도소 PPP사업의 경우, 법무부는 초기 설계에 수정을 지시했고 PPP 회사는 그러한 변경에 초과 청구를 하여 PPP Unit(공공사업부)과 갈등을 빚었으며, 거대한 비용과 지연을 이끔
 - (부정부패) 칠레는 세계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적은 국가들 중 하나이나 그들의 PPP 프로그램은 주요 부패 스캔들에 의해 위협받음. 부정부패 스캔들은 궁극적으로 PPP의 고위 멤버들과 장관을 투옥시키는 결과를 낳음
 - 부정부패 스캔들은 개혁이 수행되는 수년 동안 PPP 프로그램을 종료함. PPP Unit내의 부정부패는 결국 많은 비용이 드는 계약 재협상에 영향을 미침
 - *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페이퍼 회사들을 통해서 공공사업부 직원과 계약하는 대가로 양허권자들은 계약 재협상에서 초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어 보상받음. 페이퍼 회사들에 의한 고용이 직원 유지를 위해 급여 인상 목적으로 사용되어, 그 방법은 부패하기 쉬움

□ 진출 전략

가. 기업차원의 진출 확대 방안

- 중남미 인프라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인프라 시장이 재정사업 중심에서 PPP사업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한 진출전략을 적극 모색해야함

- 칠레의 PPP 발전 환경에 맞춘 단계별 전략 수립
 - PPP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되었으나 미성숙한 국가의 경우 정부의 협력 사업이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PPP 환경이 성숙한 칠레 진출시 현지기업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유용함
 - PPP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과의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
 - 에너지 플랜트, 산업공정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 빠른 시공능력을 무기로 칠레 현지기업이나 스페인, 중국, 미국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함
- 중남미 개발은행의 적극적인 활용
 - 칠레 포함 중남미 시장에서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금융조달임
 - 중남미에서는 다른 신흥지역에서와 달리 IDB, CAF 등 지역 차원의 개발은행이 다양하게 존재해 금융협력 파트너로 협력 가치가 높음
 - 중남미 진출기업들도 인프라 개발 시 금융조달 창구로 IDB, CAF 등 중남미 지역 개발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우리 기업도 이 점 유의 필요함
 -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중남미 지역개발금융기구의 PPP 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남미 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인프라 시장 진출방안을 도출해야함
 - IDB와 CAF는 모두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PPP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PPP 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의 창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IDB) Infracred를 조성해 중남미 회원국들의 PPP 사업타당성 조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음. 또한 이들 개발은행은 대규모 PPP 프로젝트에 차관이나 보증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자금조달 창구로서 가치가 높음
 - (CAF) 다른 지역개발은행보다 인프라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데다 비회원국인 한국기업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조사됨
 - 중남미 개발은행은 중남미 각국의 PPP정책, 법률,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관련 정보 창구로서 가치가 높음
 - PPP 사업 준비 및 개발단계에서 컨설팅 파트너로서 활용 가능함
 - PPP 사업 추진시 자금조달 채널로 활용 가능함

- 칠레의 PPP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PPP 시장 참여 방안 발굴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저부가가치 EPC 중심의 단순도급형 수주에서 탈피, 수주구조의 선진화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방안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현지화 구축, 금융조달 능력 제고,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확대 및 공기업과 민간기업, 현지 대사관, 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를 통한 공동진출 활성화(Team Korea) 등의 다양한 진출 전략 모색 등 전략적 사업 참여방안을 모색해야함

나.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방안

- 선단식 진출 협력 시스템 구축
 - 중남미 PPP 프로젝트 중 수익성이 높고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사업을 발굴해 정부와 민간의 체계적인 협력 채널로 민관합동 수주 협의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음
- 국내기업간 동반 진출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큰 애로 사항인 과당 경쟁 해소를 위해 기업 간 전략적 제휴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과격적 금융 인센티브나 ODA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ODA와 연계한 PPP 사업 지원 확대
 - 사업 준비 및 발굴 단계에서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OICA 및 국토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PPP 사업 발굴을 지원함
 - 특히 민간제안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선투자를 ODA 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며, 현재 KIND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수원국 및 SPC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함
-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제도적 협력시스템 구축
 - 중남미 인프라 시장에서 지역개발은행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들 개발은행과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지 못함
 - 이에, 중남미 각 개발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와 네트워킹 확대 및 구체적 사업 개발·협업 목적의 대화 협의체(각계 인사로 구성)를 가동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CABEL, CAF 등 미가입 개발은행 가입을 서둘러야 함

- 중남미 PPP 유관기관과의 인력교류 확대
 - 중남미 각국의 정부고시 PPP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유관부처와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과 신속한 사업정보 획득이 생명임
 - 이를 위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 PPP 관련기관에 우리 자문관이나 상무관 등 전문인력 파견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IDB, CAF, CABI 등 중남미 지역개발은행에도 전문관 파견이 필요함

나.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사례

1) 마이푸와 라 플로리다 병원 사업

- 스페인 산호세 그룹은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결과, 사업수주에 성공함. 특히, 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이 프로젝트 성공요인으로 평가됨

2) 칠레 켈라(Kelar)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추진 연혁

- 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KOTRA 산티아고 무역관과 함께 칠레발전시장 진출을 추진함
 - * 칠레는 발전시장이 민영화되어있는 가운데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발전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조건을 갖춤
- 당시 남부발전과 산티아고 무역관이 주목한 프로젝트는 Kelar 프로젝트로, Kelar 프로젝트의 발전소 건설과 운영 및 전기공급까지 포함한 민자발전사업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으로 중장기적 수익기반이 좋으며 발주처는 호주계 광산회사인 BHP Billinton 이었음
- 사업 수주를 위해 남부발전과 산티아고 무역관은 전력시장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하는 한편 발전, 송전, 배전회사, 에너지위원회나 외투위원회 같은 정부기관, 대형건설사, 컨설팅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등 발전산업 관련 다방면의 회사와 전방위적 미팅을 시행함
- 남부발전은 건설 부분을 수행 가능한 삼성 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3월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함. 그해 7월에 1차 숏리스트(Shortlist, 최종선발후보)에 포함되었으며, 8월에는 2차 숏리스트에 포함되어 기대감이 고조됨

- 마침내 2013년 10월 남부발전-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어 한국기업이 최초로 칠레 발전시장에 진출하게 됨
- 이후 2017년 5월 26일 마침내 칠레 前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참석 하에 준공식을 거행함
- 동 발전소는 517MW급 가스복합발전소로 남부발전(65%)과 삼성물산(35%)이 각각 지분투자 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한국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담당함
- 발주사인 호주계 글로벌 광산회사 BHP가 발전연료를 공급하고 생산전력 전량을 구매하여 최장 30년 동안 연평균 920억원의 안정적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3) 칠레 플라멘(Plamen) 프로젝트

- (배경) 2004년 4월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동광(HS코드 2603) 관세가 즉시 폐지되고, 칠레로부터의 동광 수입이 급증하면서 양국 기업 간 자원가공 및 개발협력이 심화됨.
이 속에서 LS-Nikko 동 제련사는 온산제련소를 운영하면서 주원료 동정광을 칠레 구리공사와 거래해오며 오랜 기간 사업 파트너 관계를 이어옴
- (입찰참여) 그러던 중, LS-Nikko 동 제련사는 2010년 칠레 구리공사가 시행한 귀금속 플랜트 국제입찰에 참여하였고, 2011년 사업을 수주함.
이 산업을 진행하기 위해 LS-Nikko 동 제련사와 칠레 구리공사(Codelco)는 합작법인 PRM(Planta Recuperadora de Metales)을 설립하고, 안토파가스타 (Antofagasta)의 메히요네스(Mejillones) 지역에 10만㎡ 규모의 귀금속 회수 플랜트를 건립함
- (사업내용) 이 플랜트를 통해 LS-Nikko 동 제련사는 칠레 구리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해 연간 약 금 5톤, 은 540톤, 셀레늄 200톤 등을 생산하고 있음. 가공품 중 금, 은, 구리는 칠레 구리공사로 현물 반환되며, 이 대가로 칠레 구리공사는 PRM에 Tolling Fee를 지불함. 남은 부산물은 시장에 판매되어 PRM의 수익을 창출함
- (성공요인) 칠레 구리공사의 안정적인 원료와 지원, 그리고 LS-Nikko 동 제련사의 세계 최고 기술력 및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파트너십

- (의의) 이후 이 사업은 LS-Nikko동제련사의 사업을 귀금속 추출 분야에서 해외 자원 개발사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수행함

4) 포스코 건설, 칠레 석탄 화력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강자로 부상

- (노력) 포스코 건설은 우리 건설회사의 주력 시장(중동)을 탈피해 칠레 등 중남미 시장을 전력 분야 타겟 시장으로 선정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 및 현지 진출을 추진함
- (성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포스코건설은 2006년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수주를 시작으로 ‘기회의 땅’인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2019년까지 총 6개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통해 꾸준히 입지를 넓힘
- 최근에는 칠레 타라파카(Tarapaca)지역 이키케(Iquique)주에 발전용량 350MW (175MW×2기) 규모의 ‘센트럴 파시피코(Central Pacifico)’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2018년 3월에는 삼성SDI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메히요네스(Mejillones) 리튬개발 산업을 수주함

- (성공 요인)

- a. 칠레 시장진출 전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한 점
- b.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점
- c. 국내외 협력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및 협력관계 유지한 점 등
- d.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를 적용하여 2010년 2월 27일 발생한 리히터 기준 8.8의 강진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점
- e. 칠레 발전소 건설사항 최초로 조기 준공을 달성한 점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칠레의 현지 진출 성공사례 (kotra 국가정보 - 칠레))

□ 실패 사례

○ 현대건설 칠레 차카오 교량공사

(출처: 주 칠레 한국 대사관 2014.02.21. , 국토매일신문 2019.12.26., 더구루, 2020.06.30. 글로벌 이코노믹, 2019.11.07)

- 칠레 관광 휴양지 칠로에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최대 국책사업, 前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 중요 정책 사업, 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쪽 1,000km에 위치한 로스 라고스 지역의 치타오 해협을 횡단하는 총연장 2.75km, 교량, 남미 최초 대규모 왕복 4차선 현수교 형식 교량

- (2013.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브라질 건설업체 OAS, Systra-Jackobsen)이 입찰, 2014년 2월 차카오 교량 낙찰 통지, 공사규모는 6억4,800만 달러(약7,500억원), 현대건설 지분 51% 3억 3,000만 달러(약 3,800억원)
- (2014. 4. 이후) 12월말까지 치타오 해협 지반조사, 수심 및 지형 측량 등 현장 조사 실시 계획, 2015년 2월 중순경 착공 예정, 총공사기간은 약 5년
- (한국 정부 노력)
 - ① 한국 정부 부처의 칠레 장관 및 차관 면담(2회: 국토해양부 수주단(2012.6월), 국토교통부 중남미수주단(2013.5월))
 - ② 대사관의 로렌스 골보르네 전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 방한, 한-칠레 인프라협력 MOU체결, 국토해양부 장관 면담, 이순신 대교 및 인천대교 시찰 등
 - ③ 주칠레 한국대사관의 차카오 교량건설 입찰정보 전파 및 칠레 주요 인사 수시 면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동향 보고
 - ④ 우리 관련기업의 풍부한 시공경험, 우수한 기술력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 우리정부 부처, 대사관 및 우리기업 간 공동전략이 이루어 낸 대표적인 성과사례로 평가됨
- 이 사업은 2012.5.21. 前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국가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대표적인 칠레 정부 국책사업이며, 교량건설 추진 후 40년 간 진척이 미미했던 칠레 국민의 염원이 모인 국가 인프라 건설의 상징성이 담긴 기념비적 사업임
- 칠레 차카오 교량 건설 수주는 쿠웨이트 코즈웨이 해상교량공사 및 터키 보스포루스 제3대교 등에 이어 건설예정지역의 자연 악조건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시공능력을 전 세계 건설업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것임
- (문제점) 컨소시엄 파트너 브라질 건설업체 OAS의 뇌물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업이 1차 연기됨. 현대건설은 2019년 9월 OAS 지분을 전부 사들여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으나, 현지 고위 공직자의 이행 충돌 문제로 고위 공직자 사퇴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 공사비 갈등으로 법정 공방이 지속됨
- (시공사 주장) 칠레 공공사업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후 계약서 수정이나 비용 보전 약속 위반과 대화 불성실 이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협의 진행 중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 시공사는 칠레 공공사업부 도로국에 공사기한 2년(743일) 연장 요청, 2025년 완공 예정
- 칠레 공공사업부는 시공사가 건설기술 문제로 공사 연기 신청 검토 중으로 공기 지연이 불가피함
- 부정부패 관리, 파트너링 실패, 설계변경 등 계약 및 분쟁관리, 건설기술관리, 공정관리의 허점이 노출

□ 학습 교훈

- PPP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과 명확한 제도적 준비를 포함하여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중요함
 - 한 국가의 PPP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및 규제적 기초는 계약 재협상의 높은 비용과 부정부패를 회피하는데 중요함
 - 칠레의 2010 PPP 법의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재협상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임 또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건장함을 증대시켜 부정부패의 문제를 대처함
 - PPP 계약을 다룰 구체적인 입법을 제자리에 두게 하여 계약의 초기 구성비용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다룰 프레임워크를 마련함
- 입찰 과정은 재협상과 부정부패를 회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함
 - (a) 프로젝트들은 프랜차이즈화되기 전에 최종 설계 형태여야 함
 - PPP 프로그램의 초기에,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프로젝트 설계가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들을 PPP로 낙찰시킴. 이것은 계약 재협상이 자주 요구되고 그 결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b) PPP 홍보/촉진과 PPP 관리 감독, 규제 및 갈등 해결을 구분할 것
 - 아직 칠레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PPP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홍보/촉진하고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 밖에서 수행되어야 함
 - PPP를 홍보/촉진에 보상을 받는 기관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기존 PPP 계약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꺼릴 수 있음
 - (c) 투명성
 - 프로젝트들을 낙찰하는(프로젝트들에 계약을 수여하는) 절차는 검사를 위해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고 공개해야 함

- 모든 정보는 성공 및 실패 제안을 포함하여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하고 이것은 PPP 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이 임의 자유 재량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민간부문 참여를 이끌어낼 것임
- 만약 프로젝트들이 자체적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중요함
 - 일부 프로젝트는 비용지불을 위해 보조금을 요구하지만, 몇몇 PPP 사업들은 사용자 수수료를 통해 프로젝트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생산함
 - 이 구분은 정부가 자체 비용 편익 분석 대신 시장 경쟁에 의존 가능한 범위를 형성하고 정부가 채택하고자 하는 입찰 과정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함
 - 칠레의 초기 고속도로 PPP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로 통행료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생산하였음. 이는 칠레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나, 많은 칠레 PPP 사업들은 보조금을 요구함
 - 한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이용자 수수료 수익을 생산할 것이라는 금융 적격할 수요 예측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들은 비용-편익분석을 조건으로 하여야 함
 - 이는 주기적인 지불을 통해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될 부족한 공공 자원에 대한 더 유익한 대체 사용이 없도록 보장할 것임
 - 비용-편익분석은 PPP 촉진 기관과 반대되는 파이낸스에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에 의해 행해져야 함. 교통량 보증 같은 정부 보증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가용 결과는 시뮬레이션되어야 하고 우발부채로 정부계정에 포함되어야 함
 - 초기의 비용-편익 분석후 재협상이 발생한다면, 재협상은 역시 이런 이유로 회피되어야 할 것임
 - 칠레에서 PPP 프로그램이 정부 재정 프로그램안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무부 관리는 공공사업부 내에 자리를 잡고 프로젝트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외국 정부에 의해 로비를 당하는 것을 준비할 것
 - 칠레는 PPP 양허들을 수여 받은 회사들의 본국들로부터 정치적인 압박을 경험함. 몇몇 프로젝트들만 수익이 있는 경우, 칠레는 특히 펀딩 공여 원천 정부들로부터의 로비를 대처할 강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 “무료 점심 같은 것은 없다”
 -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이용자 수수료를 통해 수익 생산이 가능한 PPP 사업의 경우에서조차 정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건설,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회사와 계약하고, 대출 상환을 위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음. 그래서 PPP사업들에 의해 새로운 자원들이 생산되지 않았음
 - 정기적 정부 지불을 요구하는 PPP사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대출을 요구하는 정부와 재무적으로 다르지 않음
 - 한가지 예외는 다자개발은행의 개입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업 대출을 풀어주는 경우임
 - 2007년 칠레 PPP제도의 주요 특징: 1991년 이후 공공사업부가 계약을 수여한 50개 양허들 누적투자액과 계약 재협상비율은 24%임

프로젝트 형태	예산비용 (UF)	총투자 (UF)	구성 비율	프로젝트 수	총재협상액 (UF)	재협상 비율
고속도로	18,450,742	249,737,533	88%	26	64,286,791	26%
공항	8,798,114	10,000,162	3.5%	10	1,202,048	12%
교도소	7,414,824	10,076,609	3.5%	3	2,661,785	26%
저수지	4,131,579	4,544,679	1.6%	2	413,094	9%
산티아고횡단	4,884,764	5,530,363	2%	5	645,599	12%
공공인프라	4,243,082	4,267,235	1.5%	4	24,153	1%
총계/평균	214,923,105	284,156,575	100%	50	69,233,470	24%
약 USD환산		USD113억			USD27억	

(출처: EFGH 2008, 1UF=USD43)

다. 성공 요인 및 실패 요인

□ 성공 요인

(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칠레의 현지 진출 성공사례 (kotra 국가정보 - 칠레))

- 칠레 시장진출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협력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및 협력관계 유지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조기 준공 달성
- 칠레 현지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와 지원, 그리고 한국기업의 세계 최고 기술력 및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파트너십.
- 전력시장에 대한 심층 조사, 발전, 송전, 배전회사, 에너지위원회나 외투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 대형건설사, 컨설팅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등 발전산업 관련 다방면의 회사와 전방위적으로 미팅. 우수한 시공사와 컨소시엄 구성
- 발전시장 민영화, 진출 당시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이 중요
- 중장기적 수익 기반이 좋은 사업의 발굴
-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여
- 사업개발자, 투자자 및 정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위험 분산

□ 실패 요인

(출처:칠레투자실무가이드, 코트라, 2008)

- 철저한 투자환경 조사 누락
 -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투자 및 경제활동 보장,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정책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구 기준도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세금 및 노동, 환경 부문에 대한 규제는 유럽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기준을 요구함
 -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또는 제재조치도 매우 엄격함
 - 노동부문은 사전 지식이 없을 경우 예기치 않은 법적 소송에 시간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진출 초기에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현지 노동시장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

-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및 각종 혜택 활용 미비
 - 칠레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무차별, 무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및 분야별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칠레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숙지하고 동 제도를 100%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각 산업별 협회 및 기타 단체들을 통한 투자진출 지원도 고려해야 함
 - 특히 산티아고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지역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단체 협조를 통해 현지 시장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 우리나라와 문화 및 언어 차이가 큰 국가임
 - 스페인은 식민지배 경험으로 해당 지역 지리 및 문화 이해가 충분하고, 미국, 멕시코는 아메리카 인접국으로서 이점을 발휘함
 - 특히 현지에 영어 구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장진출에 가장 큰 장애
 - 칠레 투자 희망 기업은 스페인어 구사 가능 인력을 조기에 충분히 확보 필요하며, 영어와 스페인어 가능한 현지 직원 채용이 필수임
 - 중남미를 후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칠레 시장에 진출 시 실패함. 칠레는 자국이 이뤄낸 현재의 국가 수준에 매우 큰 자부심을 보유했으며, 중남미 국가들 중 일등 국가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
 - 칠레인들과 대화에서 칠레에 대한 비판이나 국가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고용계약 및 노무관리 규정에 의한 직원관리 실패
 - 칠레는 주변 중남미 국가와는 다르게 계약 및 규정에 따른 이행도와 준법정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각종 행정절차도 원칙대로 투명하게 진행함
 - 한국과 같이 근로계약과 노무관리 규정에 대한 유연한 사회를 생각하고 칠레 시장에 진출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
 - 채용 및 해고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직원의 근태관리 및 휴가, 급여도 정부의 노동법 및 회사 내규를 통해 철저히 관리됨
 - 외국기업의 진출 초기, 직원관리가 소홀 또는 미숙할 경우 현지 고용인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칠레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시장 진출전략 부재 시 진출 실패 가능성 높음
- 칠레 정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미구축 및 정보교류 부족 시 성공적인 진출이 어려움
- 구체적인 현지화 전략 및 영업전략 구축 실패
- 칠레 현지 지사가 현지 칠레기업이라는 인식보다 모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이라는 인식이 전과되면 현지 정착이 어려울 수 있음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든 조직운영에서 한국의 조직문화를 기준으로 삼고 현지 문화 기준을 무시한 기업 운영방식은 성공할 수 없음
- 칠레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대한 적응 부재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세심한 준비 부족은 칠레시장 진출의 실패 요인임
- 근시안적, 1회성 진출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고 현지 기업 및 국제 진출기업과 기술 및 금융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성공 기회 발굴하는 사업전략이 필요함
 -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은 15-20년 이상 일찍 진출하였고, 최근 중국은 막강한 금융을 활용하여 현지 기업 및 국제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 경쟁력 있는 교통인프라 PPP 시장 진출전략 마련 필요성
 - 현지 발전시장의 특성에 따른 태양광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은 나름대로 틈새전략으로 성공적이었음
 - 그러나, 칠레의 PPP사업은 도로, 공항, 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 요구수준은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지화 및 파트너링을 통한 공동연합 진출전략을 철저히 세워 가격경쟁력이 있는 입찰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점에서 우리기업의 교통인프라 분야 진출은 선진 유럽, 인근 아메리카 국가, 중국 등과 같은 경쟁기업에 늦은 감이 있음

VI. 인적 정보

1 PPP 관련 발주기관 현황

- 칠레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는 주로 공공사업부(Ministerio de Obras Publicas, MOP)에 의해 운영되며, 사업분야는 용수, 공항, 건축, 댐, 도로 및 교통, 항만 등으로 분류됨
 - 공공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에 의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형태로 진행됨
- 공공사업부 외에도 지역정부(Municipalidad), 교육부(Departamento de Educación),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Telecomunicaciones, Ministry of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지역 보건청(Servicio de Salud, Health Service) 등도 프로젝트를 발주함
- 주요 발주처는 공공사업부이며 공공사업부가 유관부서의 협력, 조정을 받아 발주를 총괄하고 있음

□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

(출처: 칠레 공공사업부 웹사이트 : <https://www.mop.cl/Paginas/ingles.aspx>)

- MOP(Ministry of Public Works)는 칠레의 공공 기반 시설의 계획, 연구, 설계 및 건설은 물론 수리,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내각급 행정 사무소임
- (업역) 도로,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및 비행장, 국가 내 모든 수자원의 관리, 분배, 사용 및 보존과 국가 수자원 규정 시행, 새로운 공공건물과 특정 경제적 특성을 가진 기존 건물의 개선 등
- (역할) 국가의 양허 법안 시행 책임이 있고 법에 따라 다른 기반 시설을 건설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다른 부처*에 다른 작업을 제공할 수 있음
 - * 국가가 참여하는 기관, 회사 또는 지방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포함됨
- MOP는 두 개의 주요 일반 부문이 있으며 그것은 물과 공공 사업임
- 공공사업은 5개의 실행부서로 (1)항만 공사, (2)물 공사, (3)국도, (4)공항, (5)건축 그 외에 기획, 관리회계, 재무 등 3개의 비상임부서가 존재함
- MOP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음. 국가의 15개 지역에는 각각 지역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로 구성된 장관급 지역 사무국이 있으며 근무 직원수는 8,700명임

- MOP에는 5개의 집행 부서가 있음 : 공항부(Airport Department), 건축부 (Architectire Department), 수력공사부(Hydraulic Works Department), 항만공사부 (Port Works Department), 국도부(National Roads Department)
- 3개의 비상임 부서가 있음 : 회계 및 재무부, 기획부, 검찰/법무부
 - 다른 두 기관은 국립 수력 연구소와 위생 서비스 감독관임
- MOP 사명(Mission)
 - 최고의 연결성을 달성하고 영토와 국민, 공공건물을 보호하고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달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수리, 강화 및 개선한다.
 -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자원과 환경의 제공 및 관리를 보장하고 사람들을 위한 형평성, 삶의 질 및 평등한 기회를 증진한다.
- 비전 2025
 - 우수성, 팀워크, 개인 및 기관 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에서 시민의 요구를 지향하는 참여 계획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노력을 조정하면서, 기반 시설 공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물 균형에 주의를 기울이는 서비스 및 품질, 효율성, 지속 가능성 및 투명성의 기준을 통해 통합되고 포용적이며 선진국 건설에 기여한다.
- 전략적 해결방법
 - 포괄적인 공간 비전을 가진 인프라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함
 - 기반 시설을 통해 사회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환경, 수자원 및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함
 - 자원 사용에 있어 정의된 수준의 효율성에 도달함

□ 공공사업부 규제 프레임워크 (출처: <https://www.mop.cl/>)

공공사업부 및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는 주요 규칙은 다음과 같음

- MOP DFL No. 850
 - 법의 효력이 있는 이 법령은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1964년 MOP No. 15,840 및 DFL No. 206의 기관조직법의 새로운 통합, 조정 및 체계화된 문서를 설정함

- 1997년 DFL No. 850은 부처의 내부 조직과 기능을 결정하고 공공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수도법 및 그 수정 사항(업데이트된 텍스트)
 - DFL No. 1,122는 재산과 물을 사용할 권리를 규제하며 최신 개정안은 2005년 법률 제20,017호, 2006년 제20,099호, 2018년 제21,064호임
- 물 문제에 대한 통제 및 제재 수정
 - 2018년 법률 No. 21,064는 통제 및 제재 측면에서 수도법과 형법에 대한 일련의 수정 사항을 도입함
- 공공사업 양허법(업데이트된 텍스트)
 - 1996년 MOP 법령 No. 900에 따라 공공사업부는 민간 당사자들에 대한 양허 시스템에 따라 공공 공사의 계약 방식을 규제하며, 2010년 법률 No. 20410, 2016년 No. 20,908 및 2017년 No. 21,044로 수정됨
- 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 Concessions(공공사업 양허 총무국)
 - 2017년 법률 No. 21,044는 공공사업 양허 총무국을 만들고, 공공사업 양허 조정을 대체하는 서비스(공공사업 총무국에 따라 다름)를 제공함.
- Infrastructure Fund(인프라 펀드)
 - 2018년 법률 No. 21,082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및 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개발하고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Infrastructure Fund SA" 법인을 설립함
- 빗물 법
 - 법률 No. 19525는 기본 계획, 즉 인구 50,000명 이상의 도시에서 빗물 배출을 위한 기반 시설 개발 계획을 정의함

- 관개공사
 - DFL No. 1,123은 더 나은 물 사용을 허용하는 관개 작업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스템을 규제함

- 농촌 보건 서비스
 - 2017년 법률 No. 20,998은 위원회나 협동조합, 예외적으로 공공사업부에서 양허를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을 규제함

- 수용 절차
 - 1978년 기관조직법 제2,186호는 수용 절차를 정의함

- 규정들
 - 공공사업부에 적용되는 기타사항 중에 공공사업 계약규정(Supreme Decree No. 75(2004); DS N° 75), 컨설팅 공사 계약규정(Supreme Decree No.48(1994); DS N° 48), 양허법 규정(Supreme Decree No. 956(1997); DS N° 956)

- 공공사업부의 구조
 - 공공사업부는 3개의 총무국과 하부 사무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
 - 물 총무국(General Directorate of Waters) : 수도법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보유함
 - 공공사업 총무국(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은 인프라 기반 시설 서비스의 기술 관리를 조정함
 - 공공사업 양허 총무국(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 Concession)은 재정 공공사업 양허의 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관리함

 - 공공사업부는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국가의 각 15개 지역에 공공사업부 지역사무국(Ministerial Regional Secretariat)이 있음
 - 이 지역 장관 사무국은 차례로 지역사무국(Regional Directorates)과 지방 사무소(Provincial Offices)로 구성되며, 전국 차원에서 공공사업부에는 8,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음

- 공공사업 총무국(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은 5개의 실행단위가 있음
 - 공항부 /건축부/수력공사부/항만공사부/도로부
- 공공사업 총무국은 3개의 비실행 단위가 있음
 - 회계 및 재무부/계획부/법무/검찰부

□ 공공사업부 조직도



주) Estructura Organica(organization structure): 조직도

Ministro(Minister): 장관

Subsecretario(subsecretary/Undersecretary): 차관

Dirección General De Obras Publicas(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 공공사업 총무국

Dirección De Aeropuertos(Airports Department): 공항 부서

Dirección De Arquitectura(Architecture Department): 건축 부서

Dirección De Obras Hidraulicas(Hydraulic Works Department): 수력공사 부서

Dirección De Obras Portuarias(Port Works Department): 항만공사 부서

Dirección De Vialidad(Road Department) : 도로 부서

Fiscaliamop(Prosecution Department): 법무/검찰 부서

Dirección De Planeamiento(Planning Department): 기획(계획) 부서

Dirección De Contabilidad y Finanzas(Accounting and Finance Department): 회계 및 재무 부서

Secretarias Regionales Ministeriales(Ministerial Regional Secretaries): 공공사업부 지역 사무국

Direccion General De Concesiones(General Directorate of Concessions): 양허 총무국
 Direccion General De Aguas(General Directorate of Waters): 물 총무국
 Instituto Nacional De Hidraulica(National Institute of Hydraulics): 국립 수력 연구소
 Superintendencia De Servicios Sanitarios(Superintendence of Sanitary Services): 위생 서비스 감독

□ 2022-2026년 공공사업부 임무 및 목표

○ 임 무

- 인프라 기반 시설 공사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및 관리하고, 수자원의 보존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수자원 관리를 규제하고 도움
-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빠르고 포용적인 젠더 관점의 참여 개발을 촉진하고, 영토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전략적 목표

(1) 사람들을 위한 수자원 및 식수 서비스의 보호 및 보장

- 수자원 및 식수 서비스의 전략적 사용을 규제하고 촉진하여 보존 및 보호를 보장하고 인간의 소비, 위생, 품질, 수량 및 연속성을 보장함

(2) 사람들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서비스

-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포용, 인력 이동 및 생산성을 촉진하는 양질의 인프라 기반 시설 공사 및 서비스를 제공 및 유지함

(3)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역 사회 및 환경과의 연결

- 경제 성장, 환경 보호 및 사회 복지 간의 균형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는 공사, 인프라 기반 시설 서비스 및 탄력적인 수자원 개발을 발전시킴
- 우리의 제도적 작업에서 젠더 관점, 시민 참여 및 포용을 강화하여 사람과 커뮤니티 보호를 보장함

(4) 정보, 효율성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자원 관리

- 연구를 개발하고 인프라 및 수자원에 대한 적시에 양질의 정보를 생성하여 공공사업부의 관리 및 내부 및 외부 조정을 개선할 수 있음
- 혁신, 효율성 및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자원과 프로세스를 최적화함

2 해당 기관별 Key Person

가. 정부

(출처: <https://www.gob.cl/>)

□ 대통령

<p>성명</p>	<p>Gabriel Boric Font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p>	
<p>생년월일</p>	<p>1986.02.11.(36세) Punta Arenas에서 출생. Maria Soledad Font Aguilera와 Luis Javier Boric Scarpa의 결혼으로 아버지는 크로아티아 혈통이고 어머니는 카탈루냐인</p>	
<p>교육</p>	<p>초등 및 중등학교는 Punta Arenas의 British School에서 수행, 15세 때 툴 시에서 Josette Hocquard와 Norbert Steimetz에 의해 수용되어 프랑스에서 교환학생, 2004년에 칠레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 국제 인권법, 칠레 제도 역사 및 정의 이론과 같은 다양한 의장의 조수로 활동. 2008년에는 법학부를 대표하는 칠레 대학교 학생 연합(FECH) 고문으로 선출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법대 학생 센터(CED)를 관장.</p>	
<p>업무 경험</p>	<p>2011년 말, 민주주의 복귀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 동원이 있었던 해 중 한 해가 지난 후, 그는 칠레 대학 학생 연맹 회장 선거에서 승리하여 오늘날까지 그의 동반자로 남아 있는 사람 카밀라 발레호와 경쟁했다. 또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Giorgio Jackson과의 관계를 심화하였음. 2013년 그는 28지구(남극 대륙, 케이프 혼, 라구나 블랑카, 나탈레스, 포르베니르, 프리마베라, 폰타 아레나스, 리오 베르데, 산 그레고리오, 티마우켈, 토레스 델 파이네)에 출마하여 대의원으로 경력을 시작, 그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정치적 연합 없이 선거구의 첫 번째 다수로 선출. 임기(2014~2018)의 첫 달 동안 그는 조르지오 잭슨과 함께 의회의 식단을 줄이는 법안을 제출. 그는 또한 인권 및 원주민(극한지대와 칠레 남극),노동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상설 위원회의 위원. 2016년에는 그의 파트너 잭슨과 함께 광역전선(Broad Front)의 창설을 추진하여 현재는 전통적인 구성요소인 베아트리스 산체스(Beatriz Sánchez)의 대통령 후보를 출범시켰다.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단 몇 개월의 구성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 정치세력으로 자신을 공고히 하고, 대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전국적 수준에서 두 번째 다수를 확보했다.</p>	

업무 경험	<p>이 두 번째 기간에 그는 헌법, 입법, 정의 및 규제, 극지방과 칠레 남극 위원회에 속했다.</p> <p>2019년 10월 18일에 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칠레는 큰 사회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정치인과 사업가의 행동과 불만이 누적되어 몇 주 동안 사회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후, 가브리엘 보리치는 "사회 평화와 신헌법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칠레가 경험하고 있는 구성 과정을 초래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마그나 카르타를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음. 그 해부터 그는 정치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인 Irina Karamanos와도 관계를 맺어 영부인의 지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p> <p>2021년 3월 17일, 그는 자신의 정당인 Social Convergence에 의해 대통령 후보로 선포되었고 역시 민주혁명의 지지를 받아 5월 17일에 종료되는 서명 수집에 착수하여 전체 야당의 광범위한 예비 선거 La Moneda에 공식적으로 레이스를 등록. 이 예비선거는 2021년 7월 18일 연합 자체인 Apruebo Dignidad만으로 구체화되어 경쟁자인 Daniel Jadue를 상대로 총 투표수의 60%를 획득하여 승리했다.</p> <p>11월 21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그는 25.8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 힘차게 2차 선거운동을 재개했다.</p> <p>이로써 그는 12월 19일 2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전체 득표율 55.8%를 획득해 득표율 1위, 참여율 1위, 득표율 1위, 칠레 공화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됐다.</p>
--------------	---

- Gabriel Boric Font 대통령은 라 모네다 궁전에서 첫 내각 교체
 - 대통령은 내무부 및 공안부, 대통령 직속 사무국, 사회 개발 및 가족, 에너지, 과학, 기술, 지식 및 혁신 부처를 조정함
- 내무부 장관 : Carolina Tohá Morales(캐롤라이나 토하 모랄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olina Tohá Morales(57세)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의 정치학자임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녀는 산티아고 코민의 시장이었고 이전에는 Michelle Bachelet Jeria 전 대통령의 초대 정부에서 정부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과 2009년 사이 수도권 22구역의 하원의원을 역임함 - 칠레 대학의 법대생으로서 그녀는 칠레 학생 연맹(FECH)의 재건에 참여했으며 나중에 부회장으로 선출됨 - 그녀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의장직을 맡은 그룹인 민주주의당(PPD)의 창시자이자 투사로서 그 자리를 맡은 최초의 여성임
--

○ 대통령실 사무국 장관 : Ana Lya Uriarte(아나 리아 우리아르테)

- Ana Lya del Carmen Uriarte Rodríguez(60세)는 변호사이자 학자이며 사회당의 투사임
- 2022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비서실장을 역임함
- 前 미셸 바첼레(Michelle Bachelet)의 첫 번째 정부에서 국가환경위원회(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이사회의 장관을 지냈고, 두 번째 임기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함
- 칠레 대학교 법학부의 조교수이자 같은 연구실의 환경법 센터 연구원임

○ 칠레 사회 개발부 및 가족부 장관 : Giorgio Jackson Drago(조르지오 잭슨 드라고)

- Giorgio Jackson Drago(35세)는 Pontifical Catholic University 출신의 토목 엔지니어임
- 2022년 3월 그는 대통령실 사무국 장관에 임명됨
- 2014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금융위원회 위원(공공 안전, 윤리 및 투명성, 과학 및 기술 등)으로 재직한 기간인 수도권 10구역 대의원을 역임함
- 그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가톨릭대학교 학생연맹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 학생 동원의 틀에서 칠레 학생 연맹(Confech) 대변인임
- 그는 민주혁명당의 창립자이자 투사임

○ 보건부 장관 : Ximena Aguilera Sanhueza(히메나 아길레라 산후에자)

- Ximena Aguilera Sanhueza(57세)는 칠레 대학의 외과의사이며 지금까지 칠레의 Universidad del Desarrollo (development university, 개발대학) 독일 클리닉 의학부의 역학 및 건강 정책 센터 소장을 역임함
- 그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범 아메리카 보건 기구)의 전염병 수석 고문이었음
- 칠레 보건부에서 그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 계획 부서의 책임자였으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같은 부처의 국가 역학 책임자였음

○ 에너지 장관 : Diego Pardow Lorenzo(디에고 파르도우 로렌조)

- 디에고 파르도우 로렌조(42세)는 칠레 대학 출신의 변호사로 지금까지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 정부의 감시단장을 역임함
- 그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대학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음. 그는 칠레 대학교 법학부 교수였으며 사회 융합당의 투사임

○ 과학, 기술, 지식 및 혁신부 장관 : Silvia Diaz(실비아 디아즈)

- Silvia Díaz Acosta(35세)는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칠레의 교황청 가톨릭 대학교)에서 화학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음
- 그녀는 Future Congress의 고문이자 Encuentros del Futuro Foundation(미래재단 회의)의 과학 이사, 독립-PPD임

□ Ministries(각 부처들)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Public Security(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연락처

<http://www.interior.gob.cl/>
 Twitter@min_interior
 Facebookinteriorypublicsecurity

○ 행정안전부 장관

성명	Carolina Toha Morales 캐롤라이나 토하 모랄레스	
나이	57세	
연락처	Twitter : @Carolina_Toha	
업무 경험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 정치학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산티아고 코윈의 시장 미셸 바첼레 제리아 대통령 초대 정부의 정부 사무국 장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수도권 22번 지역의 하원의원 칠레 대학 법대생으로 칠레 학생연맹(FECH)의 재건에 참여 나중에 칠레 학생연맹의 부회장으로 선출 민주주의당(PPD)의 당원이고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최초 여성 대표	

○ 행정안전부 내무차관

<p>성명</p>	<p>Manuel Monsalve 마누엘 몬살베</p>	
<p>생년월일</p>	<p>1965년 7월 9일</p>	
<p>연락처</p>	<p>Twitter : @DrManuelMonsalv</p>	
<p>업무 경험</p>	<p>코로넬 출신 내과의사, 정치인 컨셉시온 대학 의과대학 입학, 외과의사로 졸업 사회관리 및 공공관리 연구 심화 로스 알라모스(Biobío 지역) 코뮌에서 의사로 일했으며, 해당 지자체 보건부의 책임자 및 사무실의 책임자로 임명 칠레 사회주의당 당원, 로스 알라모스 코뮌의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공적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2000년에 보건부는 그를 아라우코 보건 서비스의 책임자로 임명함 나중에 3임기동안 재선됨 3월10일까지 아라우코 및 비오비오주 로타 코뮌 21번 지구의 대표자</p>	

○ 행정안전부 지역 및 행정개발차관

<p>성명</p>	<p>Michael Crispi 마이클 크리스피</p>	
<p>생년월일</p>	<p>정보 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MiguelCrispiS</p>	
<p>업무 경험</p>	<p>칠레의 교황청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 2008년 사회학 학생 센터장 선출됨 칠레 교황청 카톨릭 대학교 학생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가 리더한 새로운 대학 행동(대학정치운동) 설립에 참여 2012년까지 칠레 사회당 당원, 그해에 다른 학생 리더들과 함께 정치운동 민주혁명을 설립하고 2013년에 초대 회장을 역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미셸 바첼레트 대통령 정부의 교육부 교육개혁팀의 고문으로 참여 2018년 3월에 수도권 12번 지구 대의원이 됨. 이 기간에 보건, 인권, 원주민 상임 위원회 위원 역임 칠레 대학 경제학부 공공정책 석사 학위 시카고 대학 해리스스쿨에서 선진 데이터 분석 기술 및 공공정책 학사</p>	

(2)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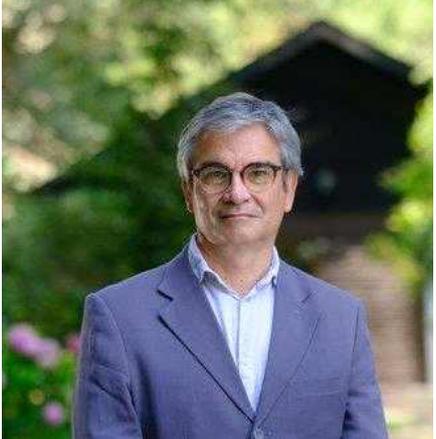
○ 재무부 연락처

Website <http://www.hacienda.cl/>

Twitter@Min_Hacienda

Facebook Hacienda.cl

○ 재무부 장관

<p>성명</p>	<p>Mario Marcel 마리오 마르셀</p>	
<p>생년월일</p>	<p>정보 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mariomarcelc</p>	
<p>업무 경험</p>	<p>칠레대학 상업 엔지니어, 영국 캠브리지 대학 경제학 박사 2015년 칠레 중앙은행 이사, 2016년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칠레 중앙은행장 세계은행 훌륭한 지배구조 실무 영역의 이사 OECD 지배구조 및 영토개발 부국장 미주개발은행(IDB)의 제도적 역량 및 재정 관리자 재무부에서 칠레 정부를 위해 13년간 근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예산 담당 이사 라틴 아메리카 연구조사법인의 연구원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및 베트남과 같은 여러 국가들의 국제 조직 및 정부들에 컨설턴트로 근무 거시경제, 공공재정, 통화정책, 지배구조 및 공적관리,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출판물의 저자임</p>	

○ 재무부 차관

<p>성명</p>	<p>Claudia Sanhueza 클라우디아 산후에자</p>	
<p>생년월일</p>	<p>정보 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clausanhueza</p>	
<p>업무 경험</p>	<p>캠프리지 대학 경제학 박사, 칠레대학 경제학, 경제성장 및 국제경제 석사, 칠레대학 상업엔지니어 경제 및 사회정책 센터의 설립자이자 이사였으며 갈등 및 사회 결속 센터(COES)의 겸임 연구원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세계 펠로우 및 집단지식 이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ASEN 전문가 패널의 회원이었고 2014년에 연금 자문회의의 의장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다양한 대통령 위원회의 교육 빈곤 극복을 위한 국립 재단,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교육 연구 및 혁신 연구소, 그리고 다양한 대통령 위원회의 이사 노동과 형평, 연금 개혁, 다차원적 빈곤 측정, COVID-19 지원 정책 및 성장 및 세금 시스템의 이사</p>	

(3) Ministry of Economy, Development and Tourism(경제개발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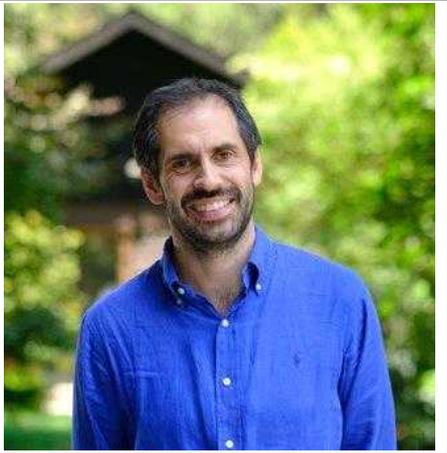
○ 경제개발관광부 연락처

Website <http://www.economia.gob.cl/>

Twitter @meconomia

Facebook Ministry of Economics

○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성명	Nicolas Grau Veloso 니콜라스 그라우 벨로소	
생년월일	1983년생	
연락처	Twitter : @nico_grau	
업무 경험	컨셉시온 출생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제학 박사, 칠레대학 상업엔지니어 및 석사 2022년 2월까지 칠레대학 경제학 교수, 갈등 및 사회융합 센터 연구원 2006년 FECH 회장, 사회융합당 투사	

(4)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법무인권부)

○ 법무인권부 연락처

Website <http://www.minjusticia.gob.cl/>

Twitter@MinjuDDHH

Facebookminjustice

○ 법무인권부 장관

<p>성명</p>	<p>Marcela Alejandra Rios Tobar 마르셀라 알레한드라 리오스 토바</p>	
<p>생년월일/ 나이</p>	<p>정보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mriost</p>	
<p>업무 경험</p>	<p>캐나다 뉴욕대학 사회학자,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 정치학 박사 사회과학 라틴아메리카 대학 사회과학 석사 사회과학 라틴아메리카 대학(Flacso)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유엔개발계획(UNDP) 칠레 사무소의 거버넌스 영역 코디네이터를 역임했으며 Comunidad Mujer 이사회 부회장을 역임 연금제도 개혁(2014-2015), 이해 상충, 영향력 행사 및 부패에 반대(2015), 선거제도 개혁(2006)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 장관은 페미니스트이자 인권 수호의 옹호자로서 그녀의 접근 방식으로 두드러졌다. 사회융합당 투사</p>	

(5) Ministry of Health(보건부)

○ 보건부 연락처

Website <http://www.minsal.cl/>

Twitter@ministeriosalud

Facebookministrysaludchile

○ 보건부 장관

성명	Ximena Aguilera Sanhueza 히메나 아길레라 산후에자	
생년월일	정보없음	
연락처	Twitter : @ximenaguilera	
업무 경험	칠레 대학의 의과 외과의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의 전염병 수석 고문 보건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 계획 부서장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같은 보건부의 국가 역학 책임자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칠레의 독일 클리닉(Universidad del Desarrollo) 의학부의 역학 및 보건 정책 센터 소장을 역임	

(6) Ministry of Mining(광업부)

○ 광업부 연락처

Website <http://www.minmineria.gob.cl>

Twitter@MinMineria_cl

FacebookMinMineriaCL

○ 광업부 장관

<p>성명</p>	<p>Marcela Hernando Perez 마르셀라 에르난도 페레스</p>	
<p>생년월일</p>	<p>정보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MarcelaHernando</p>	
<p>업무 경험</p>	<p>외과의사, 4개의 석사 학위 보유 정치 경력은 남편이자 동료인 마르코 곤잘레스(Marco González)와 함께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도시인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에서 시작 지역 수도에서 그는 공중 보건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의과 대학에 재학한 것으로 유명함. 뿐만 아니라 시민군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 운동의 일원이 되었음. Hernando 박사는 보건 서비스의 최초 여성 지역 책임자로서 이 지역의 다른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데 탁월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 보건의 첫 번째 세레미(seremi);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첫 번째 지역 시장이자 Antofagasta 코뮌의 첫 번째 선출된 시장. 그 후,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50년 만에 전국 수준에서 선출된 최초의 급진당 투사. 2014년 ~ 2018년과 2018년 ~ 2022년의 두 임기 동안 대의원으로 근무 그의 의회 임기 동안 그는 하원에서 420개 이상의 법안을 제출. 그녀는 또한 4년 동안 광업 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며 2019년에 위원장이 됨</p>	

(7) Ministry of Energy(에너지부)

○ 에너지부 연락처

Website <http://www.energia.gob.cl>

Twitter@minenergia

Facebookminenergia

○ 에너지부 장관

성명	Diego Pardow Lorenzo 디에고 파도우 로렌조	
생년월일	정보 없음	
연락처	Twitter : @DiegoPardow	
업무 경험	칠레 대학교의 변호사,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법학 석사 및 박사 칠레 대학교 법학부의 교수였으며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 정부의 대통령실 모니터링 부서장을 역임 사회융합당 투사	

(8) Ministry of Women and Gender Equity(여성성평등부)

○ 여성성평등부 연락처

Website <http://www.minmujeryeg.gob.cl>

Twitter@MinMujeryEG

FacebookMinMujeryEG

○ 여성성평등부 장관

<p>성명</p>	<p>Antonia Orellana 안토니아 오렐라나</p>	
<p>생년월일</p>	<p>정보 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totiorellanag</p>	
<p>업무 경험</p>	<p>Antonia C3smica Orellana Guarello는 칠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및 이미지 연구소(2014)에서 미디어 관리를 전공한 저널리스트 칠레와 라틴아메리카 모두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다양한 사회 및 정치 조직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데 전문 경력의 중요한 부분을 바쳤다 2012-2015년 대중 커뮤니케이션 학교의 회원이었고 그 해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칠레 네트워크의 보조 회원. 2017년에 Beatriz S3nchez 대통령 후보의 젠더 프로그램 팀의 일원이었으며 3년 후 구성 과정의 평등을 위한 법안을 위한 Broad Front의 코디네이터이자 야당 여성의 명료화 및 승인을 위해 연합 캠페인의 코디네이터. 2020년 두브라브카 시무노비치 유엔 고등판무관에게 전달된 후속 보고서 "COVID-19 전염병 동안 칠레의 여성에 대한 폭력: 부재 국가"의 공동 저자인 마르셀라 산도발과 함께 강조 2021년 대선에서는 가브리엘 보리치 회장이 이끄는 사회단체를 총괄했고, 정부계획 페미니스트 팀의 일원</p>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교부)

○ 외교부 연락처

Website <http://www.minrel.gob.cl/>

Twitter @Minrel_Chile

Facebook MinrelChile

○ 외교부 장관

<p>성명</p>	<p>Antonia Urrejola Noguera 안토니아 우레졸라 노게라</p>	
<p>생년월일</p>	<p>정보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UrrejolaRREE</p>	
<p>업무 경험</p>	<p>Antonia Urrejola Noguera는 칠레 대학 출신 변호사. 칠레 대학 연구실에서 인권 및 민주화 과정 대학원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주인권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2021년에는 의장.</p> <p>인권, 토착민의 권리, 아동기, 성적 다양성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시기에 칠레 정부의 고문, 미주 기구(OAS) 사무총장의 수석 고문.</p> <p>그 위치에서 사무국과 위원회, 법원, 미주 인권 연구소, 미주 여성 위원회와 같은 미주 시스템 기관 간의 조정 및 연락을 담당했다.</p> <p>공공 정책, 토착법 및 미주 인권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일했다. 유엔개발계획, 국제노동기구, 미주개발은행 등에서 컨설턴트 및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인권 및 ILO 협약 169호 문제에서 대통령직의 장관 사무국 고문으로 일했다.</p>	

(10) Ministry General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부처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연락처

Website<http://www.minsegpres.gob.cl/>

Twitter@Segpres

Facebooksegpres

○ 대통령 비서실 장관

성명	Ana Lya Uriarte Rodriguez 아나 리아 우리아르테 로드리게스	
생년월일	정보없음	
연락처	Twitter : @AnaLyaUriarteR	
업무 경험	변호사이자 학자, 사회당의 투사. 2022년 5월부터 장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행정안전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전에는 미셸 바첼레(Michelle Bachelet) 제1기 정부에서 국가환경위원회(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고, 두 번째 임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칠레 대학교 법학부의 조교수이자 같은 연구실의 환경법 센터 연구원 역임	

나. 공공사업부

□ 공공사업부

○ 공공사업부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Phones:(+56 02) 2449 4000

Address:Ministry of Public Works

Morandé 59, 6th floor

Metropolitan Region , Santiago

○ Minister of Public Works(공공사업부 장관)

<p>성명</p>	<p>Juan Carlos Garcia 후안 카를로스 가르시아</p>	
<p>생년월일</p>	<p>정보 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jcgarciapdea</p>	
<p>업무 경험</p>	<p>발파라이소 가톨릭 대학교에서 건축가, 프랑스 파리의 École Nationale des Ponts et Chaussées에서 도시 관리 석사 학위를 취득. 공공 부문에서의 그의 경험은 주택 및 도시부에서 개발되었다. MOP에서 Valparaíso의 건축 지역 이사; Corfo 및 Aysén 지역의 컨트리 서비스 담당 건축가로서 발파라이소 문화 공원, 퀴로타 시립 경기장, 빌라 알레마나의 품페이 극장, 칼레 라가에 있는 페드로 아귀레 세르다의 집 건설과 같이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1년부터 Valparaíso 대학교(CINV)의 학제간 신경과학 센터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센터의 기관 관리, 커뮤니티와의 관계 및 보급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2014년 6월부터 발파라이소 항만 회사(EPV)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항구 개발 정책을 정의하고 도시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했다.</p>	

○ 공공사업부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Phones:(+56 02) 2449 4000

Address:Ministry of Public Works

Morandé 59, 6th floor Metropolitan Region , Santiago

○ Undersecretary of Public Works(공공사업부 차관)

<p>성명</p>	<p>José Andrés Herrera Chavarría 호세 안드레스 에레라 차바리아</p>	
<p>생년월일</p>	<p>정보 없음</p>	
<p>연락처</p>	<p>Twitter : @JandresHerrera</p>	
<p>업무 경험</p>	<p>산티아고 데 칠레 대학에서 산업 엔지니어, PUC에서 프로젝트 평가 학위, Adolfo Ibáñez 대학에서 경쟁력 및 클러스터 대학원 학위. 현재 기후 변화와 관련된 논문으로 UAH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p> <p>2014년에서 2021년 사이에 Paipote Smelter의 프로젝트 관리자 및 현대화 관리자로서 National Mining Company(ENAMI)의 임원으로 재직했다.</p> <p>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현 InvestChile) 투자유치 과장을 역임했다.</p> <p>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그는 광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환경 조건 개선에 개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민관 이니셔티브인 칠레 광산 클러스터 전략 위원회의 전무이사였다.</p> <p>2007년과 2008년 사이에 World Vision 칠레의 경제 개발 국가 이사로 재직했으며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그는 광업부의 고문.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사회 연구 및 사회 개입의 사설 연구소인 PET(노동 경제 프로그램)의 직원이자 파트너였다.</p> <p>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경제 문제와 관련된 여러 출판물을 저술했으며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최종 보고서: 더 공정한 칠레를 향하여: 노동, 급여, 경쟁력 및 사회적 형평성(2008)"에 참여한 것임.</p>	

○ National Directors

<p>성명</p>	<p>Scarlett Vasquez Paulus 스칼렛 바스케즈 파울루스</p>	
<p>연락처</p>	<p>Contact information: Phones:(56-2) 2449 4000 Address:Morandé 59, Floor 3, Santiago</p>	
<p>전문/소속</p>	<p>직업: 토목 엔지니어 Service: General Directorate of Public Works (서비스: 공공 사업 총무국)</p>	

○ National Directors

<p>성명</p>	<p>Jaime Retamal Pinto 제이미 레타말 핀토</p>	
<p>연락처</p>	<p>Contact information: Phones:(56-2) 2449 4000 Address:Morandé 59, Floor 2, Santiago</p>	
<p>전문/소속</p>	<p>직업 : 토목 엔지니어 Service: Road Directorate (서비스: 도로국)</p>	

○ National Directors

<p>성명</p>	<p>Rodrigo Sanhueza Bravo 로드리고 산후에자 브라보</p>	
<p>연락처</p>	<p>Contact information: Phones:(56-2) 2449 4000 Address:Morandé 59, Floor 8, Santiago</p>	
<p>업무 경험</p>	<p>직업: 산림 산업의 토목 엔지니어 Service: General Directorate of Water (서비스: 물 총무국)</p>	

○ National Directors

성명	Martin Urrutia Urrejola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Phones:(56-2) 2449 4000 Address:Morandé 59, Floor 9, Santiago	
업무 경험	직업: 건축가 Service: Architecture Directorate(s) (서비스 : 건축국)	

○ National Directors

성명	Claudia Carvallo-Montes 클라우디아 카르발로-몬테스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Phones:(56-2) 2449 4000 Address:Morandé 59, Floor 11, Santiago	
업무 경험	직업: 건축가 Service: Airports Directorate (서비스 : 공항국)	

○ National Directors

성명	Alfredo Ivan Gutierrez Vera 알프레도 이반 구티에레스 베라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Phones:(56-2) 2449 4000 Address:Morandé 59, Floor 5, Santiago	
업무 경험	직업 : 토목 엔지니어 Service: Port Works Directorate (서비스: 항만공사국)	

3 현지 Developer 현황

가. 칠레 Developer

□ 태양광발전

(1) Verano Energy

- Verano Energy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 건설, 운영, 유지 관리 및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에너지 회사로, 2012년 Verano Capital이 설립함

- 라틴아메리카의 태양광 프로젝트 사업자 및 EPC 시공사, 칠레의 116MWp 누적 용량으로 15개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들을 취득함 (2022년 4월11일)

-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사업들*을 추가하여 칠레에서만 1.5GWp를 초과하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가짐으로써 고속성장하는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 선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함

* 이러한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들은 복수의 현지 개발업자들로부터 취득해왔고 칠레 5개지역에 걸쳐 위치하며 개당 2.5MWp에서 11MWp 규모의 범위로 15개 프로젝트들의 총용량은 116MWp임

- 이러한 사업들은 칠레의 PMGD*(Pequenos Medios de Generacion Distribuidos 의 약자로 배전망에 접속한 10MW이하 소용량 발전사업자)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되어옴

* PMGD : 9MW까지의 설치용량을 가진 프로젝트들로 배전망에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축소 보증이 없고, 전송 요금 절감 및 안정화된 가격 체계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자동적인 그리드 접근을 가짐

- 베라노의 내부개발에 이러한 취득을 추가해 PMGD 프로그램에서 약 4억5천만 달러의 자본적 지출액을 나타내는 총 417MWp에 이르는 PMGD 포트폴리오를 개발함

- 10년전 회사 설립이후 줄곧 회사의 야망은 칠레 국가의 태양광 발전 개발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결같음

- 회사는 칠레의 PMGD 시장에서 일찍 움직이는 자들로 상당한 규모의 개발을 했으며, 사내 개발에 외부 취득을 결합해 회사의 포트폴리오 규모를 더 빠르게 성장시킴

(2) Zapaleri de Verano SpA (Zapaleri de Verano)

- 주로 전력 부문에서 운영되는 회사로 태양광 및 전력 생산업체를 포함하여 칠레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와 마찬가지로 Verano Capital이 설립함
- 2022년 8월 입찰 참여, 2027년에 126GWh 태양광발전 전력 공급 예정임
- 국가 에너지 위원회(CNE)는 2027년에 계약이 시작될 예정인 15년간 연간 5,250GWh를 계약할 계획이었음
- 지난달 낙찰에 선정된 업체는 총 15개 업체(총 10.125GWh)로 예정 규모의 거의 2배에 달하지만 낙찰에 성공한 업체는 5.250GWh의 14.8%(777GWh)에 불과한 2개 업체에 불과함
- * 스페인 개발업체 Fotowatio Renewable Ventures(FRV)는 칠레 자회사인 FRV Development Chile를 통해 태양광 PV 발전소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해 651GWh를 US\$37.19/MWh의 가격으로 수주했고, 낙찰된 다른 입찰 회사는 \$38.359/MWh의 가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함께 배치된 126GWh의 태양광 PV를 갖춘 Zapaleri SpA임

□ 교통 인프라

(1) 브로텍(Brotec / <https://www.brotec.cl>)

- 칠레 건설·광산개발 회사인 Empresa Constructora Brotec S.A.는 산티아고에 기반을 둔 회사로 건물 및 주택 건설에 전념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1950년대) 토목 기사인 Mr. Eugenio Browne Versluys는 강한 의지와 사회적 관심을 가진 진취적인 사람으로 Alberto Covarrubias와 그의 동명의 아들과 함께 Construtora Covarrubias y Browne을 설립했으며, Matt Passage 및 Urban Revenue Building과 같은 수도에서 뛰어난 공사를 건설함
- (1960년대 초) 그는 현재 Brotec SA가 될 것의 씨앗인 Constructora Browne SA를 설립함. 당시 Eugenio Browne Versluys의 기업가적 역량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그를 새로운 파트너*를 찾도록 이끌
- * 새로운 파트너 : Tagle Tocornal, Tecsa
- (1967년) 2월 9일 공식 개항한 “푸다우엘 국제공항” 건설 당시 가장 중요한 건설 과제 중 하나인 “푸다우엘 국제공항” 건설을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함

- (1967년) Don Eugenio의 주도로 Browne 가족은 Tecsa의 파트너와 최종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Browne Tecsa Construction Company, “BROTEC” 을 설립함
- (1970년대) Brotec은 이때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도시·도로에 강력하게 진출하고 수력, 지하 및 토목 공사, 항구, 주택 단지 등을 위한 사업을 개발함
 - * Brotec이 수행한 작업은 수행하는 건설 유형의 다양성에 합류함과 동시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토의 다른 장소에서도 존재하기 시작함
- (1990년대 말) 건설을 비롯한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과 성장을 경험한 Brotec은 엄격한 업무 스타일에 “총체적 품질” 을 각 수행에 적용함.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술적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함
 - * 예시) Viña del Mar의 Rodelillo-El Salto 도로
- (성과) Brotec이 20년 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성과는 대규모 복합 투자의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고안한 민관 파트너십(양허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엔지니어링과 자금 조달·실행 모두에서 작동함
- 이러한 방식으로 Brotec은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건축업자 또는 투자자로서 다양한 양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 예시) Autopista Central, Plaza de la Ciudadanía, Vespucio Norte Express, Convento Viejo 저수지 등
- (수주실적) 악시오나-브로텍-이카팔 컨소시엄이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 3호선 신설 첫 번째 구간을, Autopista Central S.A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브로텍이 산티아고 북남 고속도로 61.2km 양허를 수주하였음

(2) 이카팔 (Icafal/ <https://www.icafal.cl/>)

- (1981년) 당시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회사로 설립되어 상수도 및 건축 프로젝트에 중점을 둠
-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회사는 성장 및 도로, 철도, 토목 프로젝트, 부동산, 산업, 상업 및 양허 메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성공적 다각화 전략으로 회사는 모회사인 Icafal SA에 의존하는 4개의 사업부로 조직을 운영함

- (수주실적) 악시오나-브로텍-이카팔 컨소시엄이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 3호선 신설 첫 번째 구간 수주하였음

(3) Sigdo Koppers

- 미주,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운영되는 칠레의 대기업 중 하나로 1960년에 설립됨
- SK의 활동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
 - a. 서비스 영역 : 토목건설 및 산업 조립 및 운송 및 물류 사업
 - b. 산업 영역 : 암석골재, 가전제품, 첨단기술 플라스틱 필름사업 및 석유화학 부문
 - c. 상업 및 자동차 영역 : 기계 대리, 유통 및 리스, 자동차 대리 및 유통 회사

(4) Empresa Constructora Belfi S.A. (<http://www.belfi.cl>)

- 주요 활동 영역은 고속도로, 차도, 교량 및 터널, 항만 전력선 및 통신선 및 기타 관련 구조물 건설임
- 직원수 1,210명의 산티아고 기반 회사로 본사 주소는 Puerta del Sol No 55, Piso 3 Las Condes; Metropolitana; Postal Code: 7580067임
- Autopista Central S.A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티아고 북남 고속도로 61.2km 양허 수주하였음

□ 병원

(1) Empresa Constructora Moller y Perez Cotapos(칠레)

- 칠레 공공사업부로부터 2020년 1월 21일, 2억4천만달러의 칠레 south-central Maule region의 3개의 health complex(Cauquenes 46,383m², Parral 32,242m², Constitucion 30,104m²) 병원 PPP 프로젝트에 입찰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PQ 서류를 구매함
- Moller and Perez Cotapos 건설회사는 6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부동산(주택 및 아파트) 개발 및 판매, 도급건설회사임

□ 디지털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

(1) Sonda IT S.A.(칠레)

- 칠레 산티아고 소재의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기업 Sonda는 2022년 5월 20일, 브라질 Mato Grosso do Sul state에서 7,000km digital fiber network 설치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PPP계약을 수주하였음
- * 계약금액 1억8,100만 달러, 계약기간 30년이며 2024년까지 fiber netwo가 설치, 해당 주에서 79개 지자체를 연결함. Sonda 브라질이 브라질에서 수주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계약금액임
- 라틴아메리카에서 정보기술분야 최고 기업, 1974년 Empresas Copec은 칠레 전역에 주유소 체인을 운영하는 칠레 에너지 및 임업 회사와 공동으로 설립됨. 컨설팅 서비스 및 정보 기술(IT) 제공에 종사하며 회사의 서비스는 IT 아웃소싱,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인프라 지원, 전문 서비스 및 컨설팅 및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운영) 서비스를 포함한 IT 서비스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됨
- 자체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Cisco, Autodesk, EMC, HP, IBM, VCE, Microsoft, Oracle 및 VMware 등과 같은 지역 제휴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함
- 현재 이 회사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등 1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주요 경쟁업체는 Totvs, Stefanini, Neoris 및 CPM Braxis임

나. 외국 Developer

□ 태양광발전

(1) First Solar Inc(미국)

- 미국 태양광발전 사업자 및 기술 제공자의 칠레 자회사로서 북부 안토파가스타 지역에 369MW 태양광발전 파크 프로젝트 건설에 칠레 환경청이 승인함(2014.7.1). 사막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8억2,300만 달러임
- First Solar Inc.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이자 유틸리티 규모의 PV 발전소, 금융, 건설, 유지보수 및 수명이 다한 패널 재활용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임

- First Solar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드 연결 PV 발전소를 개발, 자금조달, 엔지니어링, 건설 및 운영함
- * 태양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당사의 경험은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고객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2) Yingli Green Energy Europe(중국)

- Yingli Green Energy 지배회사의 자회사인 Yingli Green Energy Europe은 12개의 지상 태양광 발전소(총용량 146MW) EPC 공사를 Jenner Renewables로부터 수주했다(2018년2월6일, NS Energy).
- 계약에 따르면,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분되며 클러스터1은 4개의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하고 건설은 2018년 6월까지 예상 운영을 목표로 2018년 2월에 시작함. 클러스터2는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하고 클러스터1 완료후 시작함
- 해당 프로젝트의 EPC 시공사이며 독점 태양광 패널 공급업체인 Yingli(英利, 대표/회장 苗连生, Liansheng Miao, 중국)는 멀티크리스탈라인 모듈 형태 YL325P-35B를 공급함. Yingli와 Jenner Renewables의 framework agreement(기본약정)은 1G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 파이프라인을 포함함
- “Yingli Solar” 로 알려진 Yingli Green Energy Holding Company Limited는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로, Yingli Green Energy Europe SL은 재생에너지 제품을 제조하며, 주거, 상업 및 산업 부문을 위한 태양 전지판 및 전지, 광전지, 실리콘 태양광 모듈 및 단결정 모듈을 제공함
- Yingli Green Energy Spain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3) Jenner Renewables(룩셈부르크)

- 재생 가능 인프라의 개발, 자금조달, 건설 및 매각에 중점을 둔 독립 전력 생산업체로 2012년 5월 12일에 설립된 라틴 아메리카의 민자발전 사업자임
- 1,500MW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146MW 태양광발전소를 Yingli Green Energy Europe에 발주했으며,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기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서 3-4년내 1,500MW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구축을 계획함
- Jenner Renewables SL은 스페인 고객에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 관리,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4) Atlas Renewable Energy(미국)

- 다국적 기업인 Atlas Renewable Energy는 수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실행에서 성공적 실적을 가진 경영진에 의해 설립됨. 재생에너지원에서 세계적인 리더이자 투자자인 Actis Group의 지원을 받음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인정받는 재생에너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함.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초기 단계부터 완전히 운영되는 1GW 이상의 프로젝트를 보유함
- Atlas Renewable Energy는 대규모 PV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엄격한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함.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전략 실행에 있어 최고 수준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업의 투자자인 Actis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현지 지식 및 분야별 전문지식에서 얻은 통찰력을 통해 책임감 있게 일관되고 경쟁력 있는 수익을 제공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전역 성장 시장에서의 선도 투자자임
- 2004년에 설립된 Actis는 적극적인 소유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 시장에 비할 데 없는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120억 달러를 모금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13개 사무소를 운영 중임

□ 풍력발전

(1) FRV Development Chile I Spa(스페인)

- 2022년 8월 입찰 참여, 2027년 652GWh 풍력발전 전력 공급 예정
- 총경매의 14.8%인 2명의 개발자에게 777GWh의 재생에너지 수여 ('22.8.12.)
- * 초기에 15명의 입찰자가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전력 경매는 2개 회사에만 계약을 체결했으며 에너지 저장 및 풍력과 함께 777GWh의 태양광 PV가 확보됨

국가 에너지 위원회(CNE)는 2027년에 계약이 시작될 예정인 15년간 연간 5,250GWh를 계약할 계획이었음. 지난달 낙찰에 선정된 업체는 총 15개 업체로 총 10.125GWh로 예정 규모의 거의 2배에 달하지만 낙찰에 성공한 업체는 5.250GWh의 14.8%에 불과한 2개 업체에 불과함

- 스페인 개발업체 Fotowatio Renewable Ventures(FRV)는 칠레 자회사인 FRV Development Chile를 통해 태양광 PV 발전소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해 651GWh를 US\$37.19/MWh의 가격으로 수주함

- 낙찰된 다른 입찰회사는 \$38.359/MWh의 가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함께 배치된 126GWh의 태양광 PV를 갖춘 Zapaleri SpA였음
- 평균 가격(US\$37.38/MWh)은 이전 경매가 평균 US\$23.78/MWh에 도달했던 2021년 9월에 개최된 이전 경매보다 50% 이상 높음
- 경매 기간 동안 낙찰된 금액으로 스페인 개발자는 칠레에서 개발 및 건설 중인 2.5GW의 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가질 것으로 기대함

□ 복합화력발전 / 석탄화력발전

(1) SCMI(SANTOS CMI)(미국)

- SANTOS CMI(SCMI)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화력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생산, 처리, 저장 및 유통 시설을 설계 및 건설할 수 있는 완전한 EPC(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및 시운전) 기능을 갖춘 건설 서비스 회사임
- 40년 이상의 경험과 18개국에서의 확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국제 규정 및 표준에 따른 포괄적인 설계에 따라 빠빠한 일정을 충족하고자 하는 다국적 및 국가 운영자에게 프로젝트를 적시에 제공함
- 칠레 VIII Region Chillan에서 Colbun S.A.가 발주한 LOS PINOS 100MW 가스터빈 발전소 EPC 건설 공사 수주(2007.09~2008.04)
 - * General Electric LMS-100 가스 터빈 중심선의 엔지니어링, 벌크 재료 공급 및 전기 기계 설치
- 칠레 VIII Region Collahuasi에서 Caterpillar가 발주한 COLLAHUASI 80MW 열병합발전소 EPC 건설공사 수주(2008.02~2010.08)
 - * 6개의 왕복 중속 엔진으로 구성된 열병합 발전소의 상세 엔지니어링, 벌크 재료 및 특정 BOP (발전소 부대설비) 장비 공급, 토목 및 건설, 전기 기계 설치 : 4 x 12CM43 y 2 x 16CM43. 정격 출력 감소: 44MW.
 - * 이 사업은 2008년 1차, 2009~2010년 2차 2단계로 진행됨
- 칠레 VIII Region Puerto Coronel에서 Tecnimont이 발주한 SANTA MARIA 350MW 석탄화력발전소 전기 및 계측공사 수주(2009.03~2011.06)
 - *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도관, 버스 덕트, 변압기, 패널, MCC, 스위치 기어, 접속 배선함, 강철 지지대, 루프 테스트, 시운전 및 시동 지원을 포함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기 및 계측 작업

- 칠레 Talagante에서 CMPC가 발주한 TALAGANTE 21MW 열병합 발전소 EPC공사 수주(2014.02~2014.08)
- * Solar Titan 250 터빈, Cleaver Brooks HRSG 및 가스 압축, 사전 시운전, 시운전 및 시동 및 변전소 연결을 포함한 완전한 BOP를 사용하여 21MW 및 33tph 증기의 열병합 발전소 구현을 위한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

□ 교통인프라

(1) 민간 컨소시엄 TVS Concesiones Ferroviarias SpA

- 2019년 2월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간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참여 제안, 공공 사업부와 국영철도공사(EFE)는 2025년 PPP 사업 발주 예정, 민간 컨소시엄 TVS Concesiones Ferroviarias SpA 참여 예정임
- TVS, 새로운 화물 선로, Wi-Fi 및 24억 달러 투자로 Valparaíso에 기차 프로젝트 제시 Sigdo Koppers와 China Railway로 구성된 TVS Concesiones Ferroviarias SpA 컨소시엄이 Valparaíso-Santiago Train 프로젝트에 앞서 5년 간의 연구, 약 100명의 팀과 유럽, 일본 및 중국의 경험 관찰이 작업을 구성함
- 공공 사업부(MOP)의 양허법을 통해 수여를 모색함. 약 20페이지의 표준 형식과 500페이지 이상의 부록 문서에 포함된 이 계획에는 세 가지 유형의 기반 시설이 포함됨(복합 화물 운송 터미널 및 89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열차 12대)
- * 승객은 200km/h, 화물은 85km/h의 속도로 운행하는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로 비냐델마르까지 39분, 45분이 소요됨. 발파라이소에서 산티아고(5호선 Pajaritos Avenue, 델 솔 역 연결), 카사블랑카, 비냐 델 마르(메르발 연결) 및 바론(Valparaíso)의 4개 역을 거쳐 발파라이소까지 이동함

(2) Acciona(스페인, <https://constructiondigital.com>)

- 스페인의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로, 인프라, 물,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활동 중임
- Acciona 리더 컨소시엄이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 공사를 수주함(2020.3.17.)
- 칠레 산티아고 메트로 3호선 신설 첫 번째 구간 건설비용으로 약 7,700백만 유로에 계약을 수주함. 악시오나 컨소시엄은 스페인 Acciona, 칠레 현지기업 브로텍(Brotec)과 이카팔(Icafal)과 함께 구성됨
- 계약은 터널 6.7km 건설과 Cola de Maniobras, Estacion Terminal Norte, Estacion Cardenal Caro, Vivaceta, Conchali 및 Plaza Chacabuco 역사 설치에 대한 접근이 포함됨

- 프로젝트의 완공은 2021년말에 계획되어 있음
- 산티아고 메트로 3호선 총 연장은 22km이고 18개의 역사를 지나며 칠레 수도의 역사적 중심지를 가로지름
- 악시오나는 메트로 네트워크 및 복잡한 환경에서의 터널 건설에 있어 자신들의 경험과 엔지니어링 및 환경·사회적 관점의 훌륭한 과거 실적을 강조함
- * 악시오나는 스페인 기업으로서 마드리드, 푸에르트리코 산주앙, 메델린에서의 메트로 네트워크 개발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에콰도르 키토 메트로 1호선과 브라질의 포탈레자 East line을 2020년 3월 현재 건설하고 있음
- 주요 터널공사 실적은 도시 내에 위치한 마드리드 M-30 Ring Motorway 지하 노선과 호주 Legacy Way 터널과, 프랑스-스위스 사이의 핵 연구를 위한 유럽조직 (CERN)의 미립자 가속기 터널 및 이탈리아 볼고냐 고속철도 열차 접근터널이 있음
- Acciona Concesiones Chile S.A., Acciona S.A.는 Itinere chille (나중에 Sacyr Concesiones Chile가 됨), Sacyr Chile와 함께 Soc. Conces. Autopistas Metropolitanas S.A를 만들어서 Americo Vespucio 남쪽 고속도로 24km 양허를 수주함

(3) CRCC(중국철도건설)

o 기업개요

- CRCC는 1948년 설립되어, 그룹은 2014년 매출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이며,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상장 건설 기업임. 직원수 261,333명(2017년)
- 이전에 철도 엔지니어링 공사였던 중국 철도 건설 공사 유한 공사(CRCC)는 2007년 11월 5일 베이징에서 중국 철도 건설 공사에 의해 단독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초대형 건설 기업임
- 2008년 3월 10일과 13일에 상하이(601186.SH)와 홍콩(1186.HK)에 각각 등록 자본금 135.8억 위안으로 상장됨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종합 건설 그룹 중 하나로 2021년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42위, ENR의 상위 250대 글로벌 계약자 중 3위, “중국 상위 500대 기업” 중 12위를 차지함
- 프로젝트 계약, 계획 및 설계 컨설팅, 투자 운영, 부동산 개발, 산업 제조, 자재 물류,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32개의 중국 내 성, 자치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및 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사업을 운영함
- 주로 건설 계약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연구, 계획, 조사, 설계, 건설, 감독, 운영, 유지 보수 및 투자 및 금융을 포함하는 통합 산업 체인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하여 고객에게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고원 철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교량, 터널 및 도시 철도 운송의 엔지니어링 설계 및 건설 측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 중국 공학 아카데미 회원, 11명의 국가 조사 및 설계 석사, 11명의 “국가 인재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문가 및 국무원의 특별 수당을 받는 251명의 전문가를 보유함
- 우리는 국가 과학 기술상을 수상한 81개 프로젝트, Tien-yow Jeme 토목 공학상을 수상한 112개 프로젝트, 국가 품질 공학상을 수상한 444개 프로젝트 및 중국 건설 공학 루반 상을 수상한 148개 프로젝트, 3,182개의 성 및 부처 건설 방법, 총 19,072개의 특허를 보유

○ 사업개요

- 칠레는 처음으로 중국회사에 주요 고속도로 PPP 계약을 수여함
- CRCC(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는 칠레의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로서 195km 유료 고속도로 업그레이드 및 운영을 하는 양허를 취득함
- 칠레 공공사업부 공공사업양허 총무국은 CRCC가 약 11억달러(CLF 29.9백만)의 총 양허수익 제시(2021년3월24일, Global Construction Review)

※ CLF 칠레 [Unidad de Fomento] : 1 CLF-칠레 [Unidad de Fomento]=41,710.4406 KRW-대한민국 [원], 1 CLF = 37,521.9 CLP(칠레 페소), 1칠레페소(CLP)=1.51원

- (경쟁자) Sacyr Concesiones Chile, Consortium Cintra-Intervial A.A

- (사업내용) 공사내역은 59km 우회도로 신설, 기존 2차선/3차선 도로의 30km 구간 확장 포함함. 국도 200km을 따라 배수, 조명, 조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지방도로와 연결성을 개선함. 교통흐름을 용이하게 하면서 전자 지급을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태그를 읽는 13개의 스캐닝 캔트리로 18개의 기존 현금 통행료 플라자를 단계적으로 대체함
- 국도 5번 Talca-Chillan 구간 CRCC의 양허는 최대 계약기간 32년에 가변 계약기간 모델임. 지금 CRCC는 정부 승인을 위해 definitive engineering(최종 엔지니어링)을 시작해야 함. 건설 착공은 2025년 상반기 예정. 해당 프로젝트는 2019년 10월에 입찰 초청이 처음 있었지만 코로나 팬더믹으로 1년 연장되었음.
- 2022년 2월23일 칠레는 산티아고 메트로 7호선 건설공사 착수를 발표하였는데, CRCC는 총 연장 26km, 19개 역사를 포함하고 7개 지자체(Renca, Cerro Navia, Quinta Normal, Santiago, Providencia, Vitacura, Las Condes)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신설구간을 수주함.
 - * 프리파브리케이티드 콘크리트 라이닝 공사가 Renca 코문의 voussoir 공장에서 시작되었으며 6.6km의 TBM(Tunnel Boring Machine) 터널의 라이닝을 위한 것임
- Renca와 Vitacura간 굴착공사는 열차와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개발 단계에 맞추어 2022년 2분기에 시작할 예정임. 해당 프로젝트의 추정 투자금액은 25억2천만 달러임
- CRCC는 메트로 7호선 굴착공사에 책임이 있고 Alstom은 37개의 rolling stock(철도 차량) 공급 및 운영 공사에 책임이 있음(Infra PPP by DT Global, '22.2.23)

(4) Sacyr(스페인)

- 1986년 설립된 SACYR S.A.는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스페인 인프라 운영 업체이자 개발자 회사로 2020년 매출 45.48억 유로, 순이익 2억36백만 유로임
- Sacyr(사시르)는 세계 4대 PPP Developer, 4대륙 20개국에서 고속도로, 병원 등 인프라 개발사업을 수행함
- Itinere chille(나중에 Sacyr Concesiones Chile가 됨), Sacyr Chile는 Soc. Conces. Autopistas Metropolitanas S.A를 만들어서 Americo Vespucio 남쪽 고속도로 24km 양허를 수주함

(5) Cintra(스페인)

- Cintra, S.A. (Concesiones de Infraestructuras de Transporte, Toll Transport Infrastructures)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통 인프라 민간 개발 업체 중 하나임
- 자산은 기본적으로 유료 도로와 주차장이며 총투자액은 1,600억 유로. Cintra는 2009년 12월 이전 소유자인 Ferrovial에 의해 재인수됨

(6) Ferrovial(스페인)

- Ferrovial은 1952년 스페인에서 설립, 교통 인프라, 모빌리티 솔루션, 토목 공사 및 건물 건설 및 엔지니어링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임. 유료 고속도로, 공항, 터널, 교량, 수처리 및 정화, 해수 담수화, 송전선 등 전력 인프라에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철도 및 도로 건설에 강점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주력해왔음
- 1970년대 중남미를 시작으로 1990년 미국, 캐나다 PPP 도로 사업에 본격 진출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사업 전략방향을 운영사업으로 확장함. 현재 9개국에서 1,500km의 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히드로 공항을 포함한 4개 공항을 운영 중임
- 2019년도 페로비알의 운영사업 매출액은 6.3억 유로로 전체 매출액의 10%가 조금 넘지만 운영사업에서만 3.3억 유로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음
- 페로비알의 사업전략은 건설업 중심에서 완공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확대 중이며 미국 등 북미지역과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동일 언어권인 중남미 시장에 집중하고 있음
- 또한 투자개발사업 전문회사인 신트라(Cintra)를 통해 금융역량을 확대하여 유료 도로 사업을 육성하며,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혁신 및 기업가정신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음
- 페로비알은 MRG (최소수입보장) / MTG (최소교통량보장) 또는 가용조건부 지급 (Availability Payment)가 제공되는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Red Ocean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시장 교통량 예측 역량을 키워 후발 경쟁사가 따라 올 수 없는 MRG 및 AP가 없는 사업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차별화된 목표를 보유함
- 2019년 맥쿼리, SK에코플랜트 등과 팀을 이루어 영국의 실버타운 하저터널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음(해외사업디벨로퍼의 세계 80-81p, 2021년, 비앤컴즈)

(7) Eurovia(프랑스)

- 프랑스 Vinci*의 자회사이며, 교통 인프라 건설 및 도시 오락시설에서 세계 최상위 사업자들 중 하나임. 1999년 이후 20년이 안되어 칠레에서 1위의 도로 건설회사로 성장했으며, 칠레에서의 성공모델을 페루, 콜롬비아로 도입하고자 함

※ VINCI (방시)

- VINCI는 1908년 설립된 프랑스 최대 건설사로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운영사업을 확장하여 100여 개국에서 2,100개의 자회사를 통해 도로·공항 분야의 사업개발 및 양허사업(Concession Business)을 영위하고 있음
- 2020년 현재 프랑스 유료 도로의 50% 이상을 포함하여 유럽 등 세계 각 국에서 4,400km의 도로 운영사업을 수행 중임
- 공항 사업은 영국, 일본을 포함하여 12개 국가에서 45개 공항을 운영 중이며 주차장 및 철도 사업에도 진출 중임
- 2019년도 매출액이 390억 유로(약 한화 51조)에 달하며, 운영사업은 85억 유로로서 전체 매출액의 약 22%만을 차지하나 운영사업 영업이익은 40억 유로로서 전체 영업이익의 70%를 차지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임
- (성장전략) 상품과 시장의 선택에 있어 가장 최우선으로 프랑스 내수 및 주변국 시장, 상품은 토목·건축에 집중하여 개발사업을 시작함. 그 추진 과정에서 창업보다는 전략적인 인수합병에 주력하였고 인수 후에는 확실한 자율 경영권을 부여하여 수직 계열화보다는 지역 분담형 독립 체산제를 시행함
- 건설부문에서는 매출의 50%를 도급공사 및 5천만 유로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신중하게 리스크를 분산하여 운영 중임
- 전체 지분 중 우리사주 비중이 8.5%로 높은 편이며, 정직원 비중이 90%에 달함. 높은 인센티브 부여로 종업원들의 로열티를 제공함.
- 2008년 터키 유라시아 터널 사업 입찰에서 한국의 SK에코플랜트와 경쟁하였고 우간다의 캄팔라-진자 고속도로, 미얀마 양곤 고가고속도로, 노르웨이 RV-555 도로 사업 등에서 한국팀과 사업권을 놓고 경쟁함. (해외사업 디벨로퍼의 세계, 2021년, 비앤컴즈)
- 방시는 오늘날 프랑스 밖에서 전체 수입의 41%를 만들고 2020년까지 프랑스 밖에서 전체 수입의 50%를 달성하려고 함

- 방시는 현지법인 Bitumix와 함께 칠레의 도로망 개발에 사업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왔고 유로비아의 2016년 수입은 1억7천만 유로, 16개의 코팅 플랜트, 골재 생산현장, 역청생산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500명임
- 유로비아의 칠레 시장 점유율은 25%, 역청 수입과 거래는 50%를 취급함. 유로비아는 칠레 지역분산형 모델로 강한 지역 뿌리를 가지고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함
- 칠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컨셉시온 주위에서 영업을 하는 Bitumix CVV를 Bitumix가 인수하여 유로비아를 지원했고 또한 유로비아의 지원을 받는 Bitumix는 칠레 당국과 제품, 건설방법, 포장설계기준 초안 작업을 함께 함
- 유로비아의 몇몇 기술은 시장의 벤치마크가 되었고 유로비아는 수십년 동안 철도부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 2개의 신규 산티아고 메트로 라인의 궤도와 전차선을 설치하는 합작회사를 리드함
- 유로비아의 자회사인 ETF는 지하철 6호선 5.5km 구간을 완성했고 2016년에 3호선 22km구간의 작업을 시작함

□ 석유화학/ 정유공장

(1) Fluor Corporation(미국/ <https://www.process-worldwide.com>),

- (기업개요) 미국 텍사스주 어빙에 본사가 있는 미국의 다국적 엔지니어링 및 건설 회사로 석유 및 가스, 산업 및 인프라, 정부 및 전력 분야에서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주 회사임
- (사업개요) Fluor는 Empresa Nacional del Petroleo(Enap, 국영석유회사)로부터 칠레 BioBio 정유공장의 신규 프로세스 시설의 EPC 공사를 수주함(2017.1.4.)
 - * 공기 배출을 감소시킬 정유공장의 fluid catalytic cracker에서 생산된 잔여 가스를 처리할 새로운 flue gas steam generator, wet gas scrubber, purge treatment unit을 EPC로 설치하며, 2017년 턴어라운드 기간 동안 발생할 신규 및 기존 unit간 상호 연결도 책임짐
- Fluor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건설 중심의 실행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회사의 글로벌 정유 전문지식과 현지 시공사들과의 강력한 관계, 광범위한 칠레 경험을 강화함
- Fluor는 칠레에서 35년 이상 활동해오는 동안 이 프로젝트는 칠레의 오일 및 가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표시하기에 중요함

(2) Technicas Reunidas(스페인)

- (기업개요) 1959년에 설립되어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칠레 산티아고 소재에서 활동 중인 산업 및 발전소로 특히 오일 및 가스부문의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는 1,000명 ~ 5,000명 규모의 종합건설회사임
- 전 세계에서 턴키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룹으로 1959년 이후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산업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해옴
- 해외부문 매출액이 회사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함. 주로 중국,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다가 점점 중동으로 사업활동이 이전됨

□ 병원

(1) OHL(스페인)

- 칠레 south-central Maule 지역 health complex 3개(Cauquenes 46,383㎡, Parral 32,242㎡, Constitucion 30,104㎡) 병원 PPP 프로젝트(2억4천만 달러) 입찰에 참가하여 2020년 8월 10일에 칠레 공공사업부에 기술제안서 제출, 가격제안서는 2020년 8월 27일 개봉 예정
- Obrascón Huarte Lain (OHL) Spain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그룹으로 양허의 건설 및 촉진하는 세계 47위의 시공회사로 병원, 철도 건설에서 두각을 나타냄
- 주요 진출지역은 미국, 유럽, 라틴아메리카이며 미국의 교통인프라에서 상위 20위, 라틴아메리카에서는 40년 이상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활동해옴
- Obrascón Huarte Lain, S.A.; 2021년 7월부터 OHLA Progress Enablers로 브랜드화된 스페인의 다국적 건설 및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임
- 2022년 1월17일에 Acciona, Sacyr, CRCC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3억 달러에 605병상 뉴 코킴보병원(New Coquimbo Hospital) 건설 및 15년 운영 양허를 수주했으며, 계약 낙찰 시 공사는 2023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운영이 2027년에 개시될 예정임
- * 계약은 설계, 건설, 유지, 의료장비 및 비품 공급, 대체, 조립 및 유지관리를 포함함
- (낙찰내역)

기업명	사업규모	지역	사업내용
OHLA	€2억 8700만	비오비오	4개 병원
Sacyr, Global Dominion	€1억 1백만	마이포주	Buin-Paine 병원
Acciona	€2억 2800만		La Serena 병원
Puentes y Calzadas, CRBC	€2억 1500만		Maule 네트워크 3개 병원

(2) Acciona Concesiones Chile(스페인)

- Acciona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물 및 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며, Acciona, S.A.는 토목, 물, 산업 및 서비스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전념하는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임
- 자회사 Acciona Energy는 매년 21 TWh의 재생에너지 생산, Acciona는 Entrecanales y Tavora 와 Cubiertas y MZOV의 합병으로 1997년에 설립됨
- 본사는 스페인 마드리드 알코벤다스에 있으며, 미국법인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음. 회사는 3만명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5대륙 30개국에 진출

(3) CRBC(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중국)

-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의 자회사인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은 고속도로, 철도, 교량, 항구 및 터널과 같은 글로벌 토목 엔지니어링 및 건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둠

(4) Puentes y Calzadas Grupo de Empresas S.A.(스페인)

- Grupo Puentes y Calzadas는 1977년 스페인 Coruña에서 설립된 건설회사로 현재 13개국에서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적과 5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량 및 육교에 특화됨

(5) Sacyr Chile(스페인)

-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Sacyr는 세계 4대 PPP Developer로 4대륙 20개국에서 고속도로, 병원 등 인프라 개발 사업을 수행함. 전 세계에 43,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20년 이상 동안 칠레의 현지 파트너였음
- (1996년~2008년) 1990년 중반 칠레 중앙 해안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첫 번째 PPP 프로젝트는 1996년 Los Vilos-La Serena 유료 도로였고, 그린필드(greenfield, 신설사업)와 브라운필드(brownfield, 기존사업 확장, 보수 등) 자산 개발 모두를 결합하는 성장전략으로 민첩하고 통합된 PPP 개발회사가 됨
- Sacyr Concesiones을 설립하고 스페인, 브라질 및 포르투갈에 있는 기존 프로젝트들을 취득 및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그 이후 스페인, 칠레, 아일랜드, 코스타리카에서 새로운 greenfield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

- (2009년~2015년) Sacyr Concesiones(前 Itinere)는 3개 대륙 6개국에서 28개 자산을 관리하면서 그린필드 PPP 프로젝트 개발에 집중하였고 고속도로, 철도, 병원, 교통허브 및 공항과 같은 다양화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축적하면서 세계 4위의 그린필드 PPP 프로젝트 디벨로퍼로 거듭남
- (2016년~2020년)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시설 디벨로퍼들 중 하나가 되었음. 지역 공급자들과의 파트너링, 지역 사회와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 및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PPP 프로젝트 몇 개를 성공적으로 수주함
- 성공적인 PPP 관리 및 수직통합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 3위의 인프라 기반시설 디벨로퍼이자 세계 4위의 그린필드 디벨로퍼가 됨
- (2021년~2025년) 오늘날 Sacyr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시설 디벨로퍼가 됨. 지역시장에서 신뢰받는 현지 파트너이며 세계 인프라 기반시설에서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들 중 일부를 리드하는 튼튼한 재무 플레이어임

(6) Sacyr Concesiones Chile(스페인)

- 과거 회사 이름은 Itinere였고 나중에 Sacyr Concesiones Chile로 변경되었음
- Sacyr Concesiones는 안토파가스타 병원(Antofagasta Hospital)* 양허를 수주함

* 2017년에 개장한 이 병원은 칠레 산티아고와 페루 리마 사이에 있는 가장 크고 현대적인 공립 병원으로 Antofagasta 시(인구 400,000명)와 150만 명의 전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함

* 671개의 병상, 16개의 수술실, 85개의 검사실을 포함해 123,118m²의 3개 주요 건물로 구성됨

- Salud Siglo XXI는 2032년에 종료되는 양허 계약을 관리하며, Salud Siglo XXI는 스페인 회사 Sacyr Concesiones가 관리함

(7) Global Dominion Access SA(스페인)

- Global Dominion Access SA는 교육, 보건, 교통, 통신, 물류, 공공관리, 산업, 오일 및 가스, 재생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정보기술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Sacyr Concesiones와 함께 칠레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새 병원 Antofagasta Hospital에 건설 및 장비를 공급하는 양허를 수주함

* Global Dominion은 123,000m²의 최신 현대식 병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15년간 참여하고 모든 의료 장비, 임상 및 비임상 장비, 센터의 정보 통신 기술(ICT) 인프라의 계약, 통합 및 출시를 수행함

(8) Ferrovial(스페인)

- 칠레 south-central Maule 지역 health complex 3개(Cauquenes 46,383m², Parral 32,242m², Constitucion 30,104m²) 병원 PPP 프로젝트(2억4천만 달러) 관련, 입찰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공공사업부로부터 PQ 서류를 구매함

(9) China CAMC Engineering(중국)

- China CAMC Engineering Co Ltd는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oration에 소속된 법인 회사로 주로 제조 공장 및 교통, 물, 폐기물 및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담당함

다. 한국 Developer

□ 태양광발전

(1) KIND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18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10.4MW 탈카 태양광발전, 2019년 6.3MW 마리아 핀토 태양광발전, 2020년 6.5MW 과달루페 태양광발전 등에 직접투자, 정책펀드투자로 참여함

(2) 한양전공

- 한양전공은 1978년에 설립되어 업력이 40년 이상된 수배전반 설비 제조 전문 중소기업으로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등을 생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시공 및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함. 칠레 6.3MW 마리아 핀토 태양광발전에 개발사업자 및 시공사로 참여함

(3) 한국남부발전

- 한국남부발전은 S-Energy와 함께 산티아고와 북부 아타카마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5기(총38MW급)를 2020년에 완공하여 운영 중임

(4)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동발전은 한화큐셀과 함께 2.6~9.7MW급 10기(총 49MW급)의 태양광발전소 중 7기를 산티아고 인근에서 운영 중이며, 북부 안토파가스타 지역에서 나머지 3기의 건설을 2020년 11월까지 마치고 7기(총 70MW급) 규모의 칠레 태양광 2단계 건설을 2020년 말에 시작할 예정임

(5) 한국동서발전

- 한국동서발전은 대림산업과 함께 4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산티아고 인근에서 건설 및 운영 중으로 2019년 6월 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8MW급 Rinconada 태양광 발전소 착공식을 개최함
- 대림에너지와 함께하는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105MW(8-9MW급 12개)의 분산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개발,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 종합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 중임
- * 칠레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동서발전의 첫 남미 투자형 발전시장 진출 프로젝트이며 국산 PV패널을 사용함. 총사업비 1억7,800만 달러를 대림에너지와 공동출자하며, 미래에셋대우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제공함

(6) 대림에너지

- 대림에너지는 동서발전과 함께 총105MW(8-9MW급 12개) 분산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개발 ·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할 계획임
- 대림에너지가 5,000만달러(약 570억원) 단독 투자하고 미래에셋대우가 1억 3,000만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지원하는 총 1억8,000만 달러(약 2,000억원) 사업임
- * 2018년 12월 사업권 인수, 2019년 4월15일 산타로사 태양광 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7) 한화큐셀

-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 2.8MW급 태양광 발전소를 2016년에 완공하여 운영 중임

(8)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KIND 및 한양전공과 함께 칠레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발전사업에 지분 53%를 투자한데에 이어 KIND 및 S-Energy와 함께 과달루페 6.59MW 태양광발전사업에도 투자함
- * 한수원의 남미지역 최초 진출이며 2020년내 착공, 2021년 중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함

□ 복합화력발전

○ (사업개요) 안토파가스타 지역 532MW Central Kelar CCGT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은 한국기업 최초의 칠레 민자발전(IPP)사업임

* IPP사업자로 65% 지분 참여, 2014년 건설 착공, 상업운영 2016년 시작, 현재 운영중

- (사업내용) 최대 30년간 총 3,400,000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달러이고, 주요 발전 연료는 천연가스이며 보조 연료는 디젤임

- (계약내용)

역할	기업명
연료 공급	Natural Energy Group SA
PPA 체결	BHP, Minera Escondida
가스화력발전소 EPC 시공	삼성엔지니어링
가스 발전소 기기 공급	Doosan Skoda Power, GE Power,
스팀 보일러 공급	두산중공업
O&M	한국 남부발전 (운영유지 계약기간: 2016년부터 15년)

- 2017년 5월 26일 준공식을 가짐

(1) 한국남부발전

○ (기업개요) 한국남부발전은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전력
생산 및 전력원 개발 등 통합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 유틸리티임

- 역청탄, 케로신,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자원 배합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며 화력발전,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함. 모든 발전 전력은 한국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함

- 베트남, 요르단, 인도,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발전소 건설,
운영 및 유지, 시운전 서비스를 포함한 해외 프로젝트들을 개발 및 운영함

(2) 삼성물산

○ (기업개요) 삼성물산은 사업다각화 회사로 아래의 사업을 수행

- 엔지니어링 및 건설, 무역 및 투자, 패션 및 리조트 사업 등

- 건축, 토목 인프라사업, 도시개발사업, 플랜트 및 주택 건설 공사

- 화학, 철강, 산업용 자재, 에너지 및 광물자원 트레이딩, 직물산업 플랜트 공급

- 다양한 범위의 여러 브랜드의 남성 및 여성 옷, 악세사리 공급
- 테마파크, 골프클럽, 리조트의 건설 및 관리
- 삼성물산은 멕시코 만사나요 LNG 인수기지 사업, 노르페2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데에 이어 칠레 켈라 발전소까지 완공함으로써 중남미 발전·플랜트 시장에 한국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음
- 삼성물산은 이러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상사 특유의 정보력과 마케팅, 금융 조달력의 강점을 발휘해 해외 각지에서 발전·플랜트 등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임

(3) 삼성엔지니어링

- Kelar S.A가 발주한 BHP복합화력발전소 4억3,400만달러 EPC 시공(2014.02~2016.12)

□ 석탄화력발전

(1) POSCO E&C

- 포스코는 한국의 EPC 시공사들 중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성과로서 남아메리카 시장에서 리더의 입지를 구축함

<POSCO 시공내역>

발주처	사업명	사업규모(달러)	기간
Empresa Electrica Ventanas S.A	Ventanas 석탄화력발전소(245MW) EPC시공	3억 7천만	2006.12~ 2009.12
AES	Campiche 석탄화력발전소(243MW) EPC 시공	4억 4천만	2008.04~ 2013.03
AES	Angamos(앙가모스)석탄화력발전소 (270MW 2기) EPC 시공	8억 6천만	2008.04~ 2011.10
Empresa Electrica Cochrane S.A.	Cochrane(코크란) 석탄화력발전소* EPC 시공	9억 6천만	2013.04~ 2016.09

* 코크란 석탄화력발전소 : 산티아고에서 약 1,150km 떨어진 Mejillones Port 근처에 위치

(2) SK에코플랜트

- 2013년 칠레 민간 발전회사 이씨엘(E-CL)이 발주한 Red Dragon 석탄화력발전소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EPC 공사* 수주

*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1,200km 떨어진 안토파가스타주 메히요네스 지역 태평양 연안에 375MW급 석탄화력 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공사

- 발주처 이씨엘은 유럽 최대 민간발전사업자인 지디에프 수에즈(GDF SUEZ)의 자회사로 칠레 북부 1위 민간발전사업자임
- SK에코플랜트는 석탄 보일러, 스팀터빈 등 모든 발전설비의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책임지며 공사기간은 착공후 40개월임
- 칠레 발전시장은 전면 민영화되어 있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2020년까지 광산 개발에 1,000억 달러 투자가 예정돼 있어 최소 8,000MW이상 발전소 발주가 예상되었음

□ 교통인프라

- 칠레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의 연평균 인프라 투자는 GDP의 2.2% 수준이며 투자 수요는 연평균 5.4%~8.6%임
- 2030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인프라 투자액은 3조 달러로, 2016년 현재까지 20년간 칠레의 양허사업(PPP) 투자의 81%는 고속도로 공사가 차지함
- 칠레의 양허 모델은 투명한 과정, 최고 프로젝트 선택, 기술 통과 후 경제적 제안 검토임
- 칠레는 국토의 폭이 180km, 총연장은 4,300km이므로 무역을 위해 도로에 크게 의존

(출처: 2016년11월8일, 라틴 아메리카의 투자 메커니즘으로서 PPP 세미나, Chile Concession Coordinator).